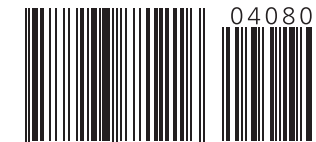


## 신의면편



도서문화연구원 · 신안군

## 신의면편



9 788996 881216  
ISBN 978-89-968812-1-6





10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 신의면편



---

# 책을 내면서

이 책은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이 신안군의 의뢰를 받아 신의면을 대상으로 “도서관 문화 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를 수행한 최종 성과물이다. 본 학술용역은 2003년 압해면(읍)으로부터 시작하여 비금면, 흑산면, 도초면, 안좌·팔금면,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하의면에 걸쳐 수행한 바 있으며, 이번 신의면은 열한 번째 면, 제10권에 해당한다.

신의면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크게 여덟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자연생태, 선사유적, 역사유적, 민속사회, 어로문화, 구비전승, 방언문화, 경제자원 등이 그것이다. 문화유적 지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경제자원’ 분야를 특별히 할애했던 것은, 신의면이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신안군 총생산량의 30%에 육박하는 천일염을 생산하는 ‘소금의 섬’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금을 신의면 문화산업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신의면은 본섬(이하 ‘신의도’라 칭하기로 하자) 이외에 고사도, 평사도, 기도 등의 유인도, 그리고 무인도들을 포함하여 총2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면이다. 신의도는 상태도와 하태도의 2개 섬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1940년대부터 1950년대에 걸쳐 제방을 쌓아 하나의 섬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섬, 신의도가 탄생한 만큼, 신의도는 ‘제방의 섬’이라 할 수 있다. 제방을 쌓으면서 염전이 생겼고, 신의도는 자연히 ‘소금의 섬’이 되었다. 원래 상태도와 하태도는 인접한 하의도를 중심으로 ‘하의면’을 구성하면서 ‘하의3도’라 불렸지만, 1983년에 하의도에서 분면하면서 ‘새로운 하의’라는 의미로 ‘신의(新衣)’라는 이름의 면이 탄생하였다.

소금과 함께 신의도를 특징짓는 문화요소로 상태의 백제고분군을 들 수 있다. 30여기의

백제고분이 밀집한 상서고분군과 40여기의 백제고분이 밀집되어 있는 자실리고분군이 그것이다. 섬에서 수기씩의 백제고분이 발견된 사례는 종종 찾아지지만, 이처럼 수십기의 백제고분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사례는 현재로서 신의도가 유일하다. 그런 의미에서 신의도는 ‘백제의 섬문화’와 ‘백제의 해양문화’라는 흥미진진한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최적지라 할 수 있다.

신의도는 크게 세 개의 문화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 원상태도지구와 원하태도지구, 그리고 원래 상태도와 하태도 사이의 바다였던 매립지구가 그것이다. 매립지구를 편의상 ‘중태지구’라 부를 수 있다면, 신의도는 ‘상태지구’, ‘중태지구’, ‘하태지구’라 칭하여 구분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세 지구는 흥미롭게도 생활문화상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상태지구는 ‘해변산중’이라 불릴 정도로 농업문화가 강하고, 하태지구는 이른바 ‘집계만’을 중심으로 어로문화가 강하며, 중태지구는 그 자체가 매립염전 지대로 소금생산의 중심지를 이룬다. 그런 만큼 조그만 섬 신의도에서 예기치 않게 다채로운 생활문화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신의도를 ‘체험관광의 섬’으로 부각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일이다.

의미와 흥미가 병존하는 신의면 관광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이런 저런 행복한 상상은, 신의면의 문화유적을 충실하게 조사해준 연구진의 노고와 그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자연자원을 조사한 자연생태 분야, 백제고분을 위시로 다양한 선사문화를 찾아낸 선사유적 분야, 비석군과 고가옥, 그리고 인물 등을 추적한 역사유적 분야, 주민들의 생태인지, 생업, 당제, 세시풍속 등을 드러낸 민속사회 분야, 바다와 갯벌에서 잡아올린 어로의 산물들과 독특한 로컬푸드를 부각시킨 어로문화 분야, 섬주민들



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리와 가락을 일일이 채록하여 소개한 구비전승 분야, 물고기와 바다지형의 이름 등을 흥미있게 파헤친 방언문화 분야, 그리고 신의 소금의 위상을 분석한 경제자원 분야 등 각 분야에서 모두 무심히 지나쳐왔던 문화자원들을 재발견하는 작업을 충실히 해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관광자원화라는 행복한 상상의 나라를 한바탕 펼쳐보고자 한다.

도서문화연구원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문한국(HK) 수행 연구소로 선정되었고, 2010년에 기존의 도서문화연구소에서 총장 직속의 도서문화연구원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안군의 면 단위 문화유적 지표조사 학술용역은, 도서문화연구원이 도서문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연구원이 전국 해역의 도서문화로, 그리고 세계의 도서문화로 그 연구영역을 넓히고 심화시켜 가는데 좋은 발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 만큼 우리 연구원에 소중한 조사·연구의 기회를 부여해준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려야겠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심성의껏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갈무리해주신 각 분야 연구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린다.

2012년 4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장 강 봉 룡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1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10

## 신의면편

---

책을 내면서 강봉룡 / 도서문화연구원장, 사학과 교수 2

연구개요 홍순일 /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6

자연생태 홍선기 /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11

선사유적 최성락 / 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27

역사문화유적 최성환 /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43

민속사회 송기태 /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71

어로문화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125

구비전승 홍순일 /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51

방언문화 이기갑 / 목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249

경제자원 고두갑 / 목포대 경제학과 교수 275

관광자원화 방안 강봉룡 / 도서문화연구원장, 사학과 교수 301  
이윤선 /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신의면 문화지도 313



---

# 연구개요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 ... 점차 소멸되어 가는 신안군의 각종 유·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심도있는 지표조사를 수행하여 문화유적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정리하여 자료화한다.

### 도서 문화유적의 자원화

- ... 총체적으로 파악된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장단기 전승·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자원화하여 장단기 관광자원 및 상품화 계획을 수립한다.
- ... 이번 제5차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용역-신익면 편(2011.07.13 - 2012.04.12)은 이전의 제1차 압해도·비금도·흑산도(2003.03.03 - 12.31), 제2차 도초도·안좌도·팔금도(2005.01.05 - 09.30), 제3차 지도·증도·임자도(2006.01.12 - 06.11), 제4차 하의도(2010.07.28 - 2011.01.23)의 같은 사업을 이어받는다.

## 2. 연구의 기본방향

- ...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고)문헌조사, 현지조사를 심도있게 추진하여 자료를 파악한다.
- ... 기존의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미처 파악되지 못한 자연문화유산들을 초기에 면밀하게 문헌, 지표, 그리고 현장을 조사하여 이것들이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전승·보전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의 집중화를 기한다.
- ... 조사한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보존 및 관광상품화를 통해 신안군의 문화관광사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학술적 방안을 모색한다.
- ... 21세기 바다의 시대, 해양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다도해 문화관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 연구 대상지역은 신익면 1개면으로 한다.

###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 유·무형문화재 관련 문헌 및 도서(읍·면) 현장방문 지표조사

- ... 신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상으로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
- ... 이를 위해 생태학, 고고학,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구비문학, 방언학, 경제학, 관광자원화 분야에서 지표조사를 수행

#### 유·무형문화재 현장 구전기록 및 사진기록 보존 병행

#### 조사된 문화자원에 대한 장단기 전승·보존 계획 수립

- ... 조사가 완료된 읍면의 유산 중 학술적 가치나 전승 및 보존이 필요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국가, 도, 향토사료로 지정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자료 확보
- ... 자연 및 문화유산에 대한 유형별 분류 및 장단기 전승·보존 계획 수립
- ... 관련 자료 목록 작성
- ... 유적지, 고문서, 고문헌, 구비전승, 굿, 당제, 민속자료, 고인돌, 독살, 해조류 번식지, 어구어법 등의 모든 자료를 원형대로 자료화
- ... 문화관광지도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된 자연문화유산의 위치가 표기된 지도 작성

#### 조사된 문화자원의 장단기 관광상품화 계획 수립

- ... 도서(섬)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 ... 군민 스스로가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적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테마별로 기획 상품화
- ... 문화관광 상품 및 자원을 대외에 홍보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나 학술토론 등을 개최

### 4. 연구의 의의

#### 문화유적의 현황만을 파악하는 기존의 지표조사와는 다른 자원화를 위한 지표조사

- ... 지표조사의 성과들은 그대로 미래산업, 즉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자료
- ... 섬의 문화자원에 대하여 콘텐츠 위주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문화재를 뛰어 넘는 문화자원으로서의 문화에 주목
- ... 섬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의 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를 문화자원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광산업에 창조적 원료를 제공
- ...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문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존과 조화를 이루고 문화에 토대를 둔 문화론적 지역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함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문화관광자원 개발

- ... 주로 인문학 분야에서 행하던 지표조사의 결과를 사회과학으로 활용하여 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상품화하고 문화적 창조성을 지닌 자원화 기본구상 제안

## 지표조사의 집중화·체계화

- ... 기존 조사와 연구에서 누락되거나 미처 파악되지 못한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하면서도 체계적인 조사로 지표조사의 본래적 의미에 충실
- ... 자원의 현장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독특하면서 매력적인 자원화 기본구상을 작성함으로써 지표조사의 성과가 새롭게 탄생하도록 시도
- ...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제적 응용 및 자료화

## 5. 기대효과

- ... 신안군내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계승·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
- ... 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한 원천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신안군의 문화 역량 강화의 실질적 계기 마련
- ...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개념을 조화시킴으로써 <보존과 활용>이라는 대립적 개념을 상보 개념으로 재정립시킴으로써 문화론적 지역개발의 새로운 전기 마련
- ... 이번 제5차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용역(신의면 편)”은 계기가 되면 이후에도 암태면, 자은면, 장산면에서 같은 사업을 이어가는 기회 마련
- ... 21세기 신해양의 시대에 새롭게 펼쳐질 해양문화관광의 신세계를 맞을 토대 마련

## 6. 연구진 구성

- ... 책임연구원 강봉룡(목포대 사학과 교수, 도서문화연구원장)
- ... 공동연구원 최성락(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고고학 전공)
  - 이기갑(목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방언학 전공)
  - 고두갑(목포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전공)
  - 홍선기(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생태학 전공)
  - 이윤선(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민속학 전공)
  - 홍순일(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구비문학 전공, PM)
  - 최성환(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역사학 전공)
  - 송기태(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민속학 전공)
  - 김경완(신안문화원 사무국장, 문화인류학 전공)

- ... 연구보조원 박세나(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행정실 실장, 역사학 전공)
- 임은옥(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행정실 부실장, 역사학 전공)
- 신미영(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원, 역사학 전공)

## 7. 조사일정

### 자연생태 /홍선기 공동연구원

- ... 2011.10.08-09, 신의면 일원, 홍선기 조사, <자연환경 및 활용방안>, 개별조사
- ... 2011.11.20-21, 신의면 일원, 홍선기 조사, <자연환경 및 활용방안>, 개별조사
- ... 2012.01.08, 신의면 일원 및 기도, 홍선기 조사, <자연환경 및 활용방안>, 공동조사

### 선사유적 /최성락 공동연구원

- ... 2011.10.07, 하태서리 및 상태서리 일대, 최성락 조사, <신의면 일대 고고유적>, 개별조사
- ... 2011.12.21, 상태서리 일대, 최성락 조사, <자살리 고분 및 안산성지>, 개별조사
- ... 2012.02.06, 목포대학교 박물관, 최성락 조사, <신의면 유적 수습유물 촬영>, 개별조사
- ... 2012.02.10 목포대학교 연구실, 최성락 조사, <보고서 인용 및 유적지도 작성>, 개별조사

### 역사유적 /최성환 공동연구원

- ... 2011.08.22-23, 신의면, 최성환 조사, 지표조사 <역사유적>, 공동조사
- ... 2011.12.08, 신의면 상태, 최성환 조사, 지표조사 <역사유적>, 개별조사
- ... 2012.01.08, 신의면 하태, 최성환 조사, 지표조사 <역사유적>, 개별조사
- ... 2012.02.02, 신의면 상태, 최성환 조사, 지표조사 <역사유적>, 개별조사

### 민속사회 /송기태 공동연구원

- ... 2011.08.22, 신의면 일대, 송기태 조사, 면사무소 면담, 신안군 문화자원 현황 파악과 전체 둘러보기
- ... 2011.10.09, 신의면 하태서리 2구 굴암마을, 송기태 조사, 객재구(남, 1940년생) 제보, <농사, 어로활동>, 개별조사
- ... 2011.10.09, 신의면 하태서리 1구 기동마을, 송기태 조사, 장론철(남, 1951년생), 김홍주(남, 1938년생) 제보, <나룻배, 당제, 건구(농악)>, 개별조사
- ... 2011.10.09, 신의면 상태동리 2구 모룡마을, 송기태 조사, 전춘대(남, 1934년생) 제보, <당제, 나룻배, 노두>, 개별조사
- ... 2011.12.30, 신의면 상태동리 2구 모룡마을, 송기태 조사, 김용례(여, 74세) 제보, <세시풍속, 가정신앙>, 개별조사
- ... 2011.12.30, 신의면 상태서리, 송기태 조사, 박홍대(남, 70, 노인회장), 정미자(여, 71), 최화단(여, 73), 김마동(여, 79), 강정심(여, 73), 김춘자(여, 71), 정포덕(여, 68), 김춘덕(여, 85), 강오단(여, 85) 제보, <나룻배, 당제, 간척>, 개별조사

### 어로문화 /김경완 공동연구원

- ... 2011.8.22~23, 신의면 일대, 김경완 조사, 박옥현, 고서임 제보, <사회문화>, 공동조사
- ... 2011.11.18~20, 신의면 일대, 김경완 조사, 신지운 이장, 장금엽 제보, <사회문화>, 등산로 탐방, 개별조사
- ... 2011.12.19~20, 신의면 일대, 김경완 조사, 박현숙 외 이충만 면장, 고인수 제보, <사회문화>, 개별조사
- ... 2012.02.11~12, 신의면 일대, 김경완 조사, 홍길용, 김용원 청년회장 외 제보, <사회문화>, 개별조사

### 구비전승 /홍순일 공동연구원(PM)

- ... 2011.08.22~23, 신의면 일대, 홍순일 조사, 신기문(남,53), 고서임(남,71), 김승필(남,미상) 제보, <신의도의 구비전승자원>, 공동조사
- ... 2011.10.26~27, 신의면 일대, 홍순일 조사, 신지운(남), 장순단(여,75), 신금기(여,88); 최정수(남,62), 신필식(남,68); 고인철엄마(여,미상), 홍복단(여,82), 신정심엄마(여,미상), 고옹그리(여,미상); 이기철(남,71); 홍길용(남,54), 한중기(남,75), 홍상기(남,65) 외 2인; 이울레(여,71), 천금자(여,62), 전영래(여,65) 외 7인 제보, <신의도의 구비전승자원>, 개별조사
- ... 2012.02.23~24, 신의면 일대, 홍순일 조사, 장순단(여,75), 신동안(남,70), 박방란(여,미상), 이울레(여,71), 전영래(여,65), 전애자(여,65); 전연자(여,59), 김정길(남,65), 전준면(남,62), 장내훈(남,57); 박남선(남,74); 홍상기(남,미상) 제보, <신의도의 구비전승자원>, 개별조사

### 방언문화 /이기갑 공동연구원

- ... 2011.10.24, 신의면 상태동리 2구 모롱리와 하태서리 2구 황성금리, 이기갑 조사, 전환흥(남, 93, 상태동리 2구 모롱리 태생), 김광심(여, 79, 상태서리 태생, 전환흥의 처), 박울배(남, 78, 하태서리 2구 황성금리 태생 및 거주) 제보, <방언>, 개별조사

### 경제자원 /고두갑 공동연구원

- ... 2011.08.22~23, 신의면, 고두갑 조사, <신의면 전체의 산업자원현황 파악>, 공동조사
- ... 2011.11.07, 신의면, 고두갑 조사, <신안군청 종합 민원실 수산관련 통계자료조사>, 개별조사
- ... 2012.01.11~12, 신의면, 고두갑 조사, <신의면 면사무소 농업자원 및 수산 자원 관련 통계자료조사 및 확인>, 개별조사
- ... 2012.02.16, 전남 신안군 신의면, 고두갑 조사, <신안 군청 천일염 산업과 및 종합민원실 어업 및 천일염 관련 자료조사>, 개별조사

### 관광자원화 방안 /강봉룡 책임연구원

- ... 2011.08.22~23, 신의면 일대, 강봉룡 조사, 신기문(남, 53) 외 제보, <신의도의 관광자원>, 공동조사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1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⑩

# 신의면<sub>편</sub>

---

## I 자연생태

홍선기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 1. 조사 개요 12
- 2. 경관자원 14
- 3. 자연자원 18
- 4. 활용방안 25



# I 자연생태

## 1. 조사 개요

신의면의 산지는 주변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발 100-200m 정도의 낮은 산으로 되어 구성되어 있다. 신의면 전체는 갯벌 간석지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고, 상태도와 하태도는 매립된 염전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 주요 식생은 30-40년생 곰솔이며 간혹 참나무류(줄참나무, 상수리나무)와 함께 혼재하고 있으나 相觀적으로 볼 때는 거의 곰솔군락이 우점하고 있다. 상록활엽수군락은 매우 드물고, 거의 곰솔군락의 하부식생에 머물러 있다.

해수욕장은 하태도에 황성금리해수욕장이 활용도가 있을 뿐 잘 발달된 해수욕장은 없다. 단지 소규모로 이용할 수 있는 해변은 있으나 해수욕장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기에는 조건이 부족하다. 신의면 주변에 있는 무인도와 타포니가 발달된 해안지형 등이 어울리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신의면은 해안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또한 최근 생태탐방로가 개설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찾으며 slow entertainment를 할 수 있는 경관이 많이 있다. 하태서리의 비포장 도로의 경우, 주변이 해안과 농경지, 숲이 어울리면서 섬이 가질 수 있는 관광미학적 3박자(色: 바다, 흙, 숲, 香: 풀향기, 소나무향기, 音: 새소리, 바람소리, 바다소리)가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되며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상태도의



경우, 염전과 그 주변에서 재배하는 통통마디 군락과 주변 농경지, 그리고 억새군락 등이 조화를 자아내면서 특이한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상대도의 석양은 매우 중요한 생태문화적 가치로서 부각시킬 수 있는 photo zone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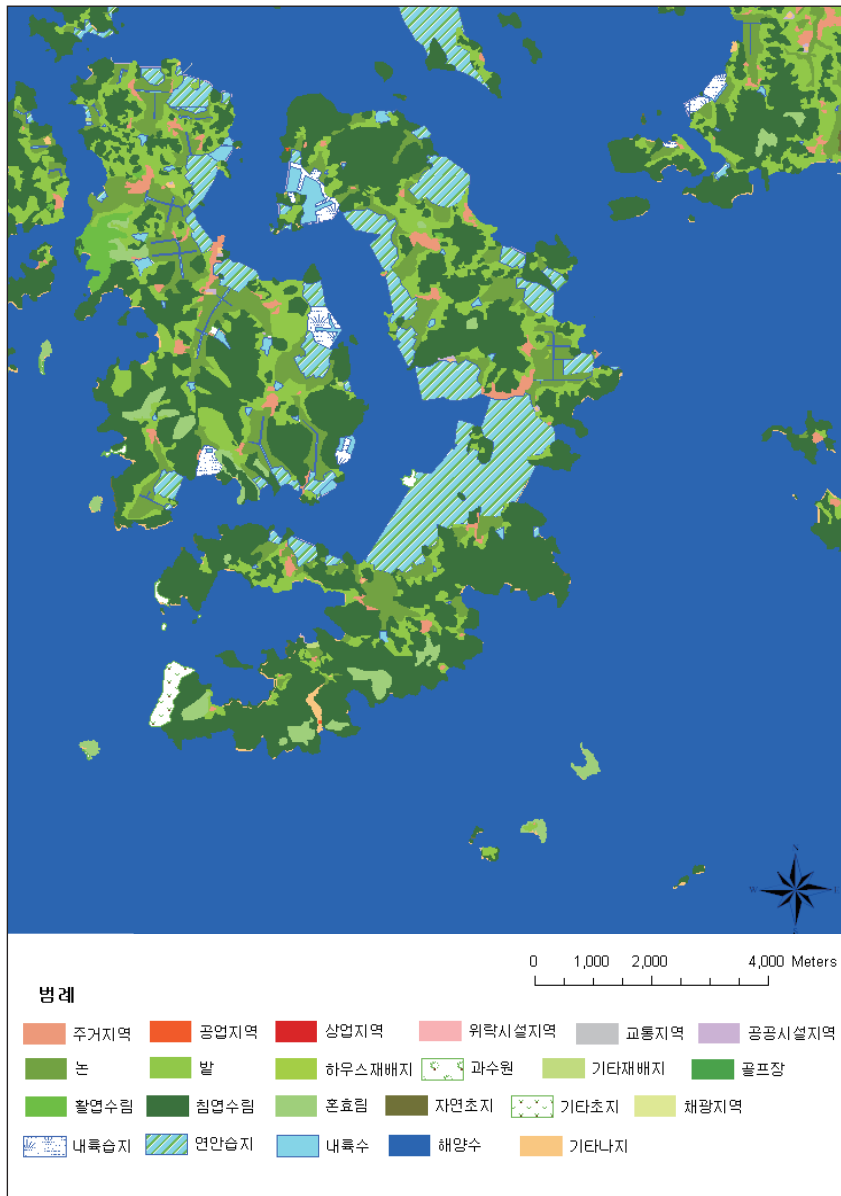


그림 1. 조사지의 토지이용 개황(도엽명: 기좌1987년, 하의1989년 작성도면을 기본으로 제작함.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 2. 경관자원

### 1) 지형<sup>2)</sup>

전남해안은 매우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리아스식 해안과 수많은 연안도서로 구성된 역동적인 아름다운 해안이다. 해안은 오랜 지질시대 동안 조륙운동과 해수면 변동 등을 거치면서 북북동-남남서 내지 북동-남서 방향의 지질 구조와 동고서저의 지형특성을 토대로 서남해안의 주요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서남해안 일대는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시작된 1만여년 전부터 해수면이 상승하여 바닷물에 잠기면서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을 형성하였고 수많은 섬들과 크고 작은 만을 형성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서남해안 지형은 해수면이 현재와 거의 유사하게 된 약 7천년 전부터 현재까지 육지와 바다의 다양한 자연작용의 결과로서 형성되었으며, 특히 서남해안에는 육지로부터 공급된 많은 퇴적물과 태풍·해일 및 파랑 뿐만 아니라 이들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로서 광활한 갯벌, 해변, 암석절벽, 파식대, 해식암주, 해안사구, 육계도와 육계사주 등 다양하고 독특한 해안지형을 형성하였다.

퇴적해안에는 해변, 간석지, 사주, 사구 등이 특징적이며, 이들의 구성물질은 자갈, 모래, 실트, 점토로서 전남 서남해안의 만, 도서, 해안 등의 대부분 해안에서 발달하고 있다. 침식해안의 지형은 파랑의 침식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집중되는 암석해안이나 해안돌출부에서 잘 발달하며, 급경사지, 암석절벽(sea cliff), 파식대(shore platform), 해식동굴(sea cave), 해안암주(sea stack) 등의 지형특성은 주로 태풍과 파랑 등에 의한 침식작용과 차별적 풍화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다(김동주 외 2008).

---

2) 본 내용은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출간한 『정책연구』 〈전남해안의 지형지질 및 관광자원 연구〉(2009-03)를 인용하였다.



사진 1. 신의면의 지질 및 지형

## 2) 갯벌

대부분이 펄 갯벌로 구성되어 있으며, 낙지잡이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태도 월항리 갯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갯벌이 염전이나 농경지, 양식장 조성을 목적으로 방조제가 쌓여있어서 갯벌생태계 순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신의면은 신안군의 대부분의 도서와 마찬가지로 갯벌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으나 대표적인 갯벌로는 유미리 갯벌을 비롯하여 6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 유미리 갯벌 : 신의면 유미리, 펄 갯벌 (낙지, 게, 조개)
- 피도 갯벌 : 하태동리 피도 북측 방조제, 펄 갯벌 (망둑어, 게)
- 노은리 갯벌 : 노은리, 펄-자갈 (밤게)
- 원항리 갯벌 : 원항리, 펄-모래-자갈 (방게, 칠게, 쪽, 망둑어, 굴 등)
- 타리 갯벌 : 펄 갯벌 (흰물떼새)
- 상태서리 갯벌 : 펄 갯벌 (게, 조개류)

대부분의 갯벌에서는 아직도 전통어업(맨손어업)에 의하여 낙지를 채취하고 있으며 기도와 소기도에서는 연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독살이 두 곳 발견되었다(그림 3).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갯벌생태와 어로체험과 관련된 생태관광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도의 경우, 다양한 해양생태계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판단된다.



사진 2. 기도와 소기도의 독살 (형성 연대 미상)

### 3) 해수욕장

신의면에는 크고 작은 사빈이 분포하고 있으나 해수욕장으로 활용할 대규모의 사빈은 없다. 단지 하태도의 황성금리해수욕장이 있으며, 주변에는 사구가 있어서 사구식생이 존재한다. 상부에는 하태저수지를 건설하면서 조성한 휴양공간이 있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고사도에는 규모는 작지만 매우 우수한 사질해변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여름 휴양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고사도 해수욕장 주변에는 곰솔(해송)이 대규모로 발달하고 있다.

#### 4) 무인도서

국토해양부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관리유형 지정방안 마련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에 신안군 신의면 일원에 대한 무인도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다. <표 1>은 본 조사에 의하여 파악된 신의면의 무인도서이다. 신안군 신의면에 부속하는 무인도는 13개이며, 이 중 신의면 상동 매월도, 상태서리 솔섬, 하태동리 기상도는 연육이 되어 원칙상 무인도에서 제외된다. 상태서리 솔섬(송도)의 경우, 신안군 도서개발계획에 의하여 라일락을 식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신안군 신의면 무인도서(2010년 국토해양부 무인도서 실태조사)

| 지도명     | 무인도서 명칭 | 무인도서 소재지                    | 면적 (㎡) | 관할 시·군·구 | 특징 | 여존계                      |
|---------|---------|-----------------------------|--------|----------|----|--------------------------|
| 송도      | 마도      | 전남 신안군 신의면 고평사도 산2          | 6446   |          |    |                          |
| 하죽도     | 하죽도     |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산312        | 59405  | 신안군      |    | 상태어촌계 (해조류)              |
| 상죽도     | 상죽도     |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산313        | 64662  | 신안군      |    | 상태어촌계 (해조류, 김)           |
| 소기도     | 소기도     |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산335        | 159569 | 신안군      |    | 상태어촌계 (김, 갯지렁이)          |
| 대과도     | 대과도     |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산345,346,347 | 42446  | 신안군      |    | 상태어촌계 (패류, 김)            |
|         | 현두도     |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산351        | 255    | 신안군      |    |                          |
| 인도      | 인도      |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리 산241        | 4661   | 신안군      |    | 노은어촌계 (김)                |
| 안도      | 안도      |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리 산242        | 6446   | 신안군      |    | 노은어촌계 (우뚝가서리, 전복, 미역, 톳) |
| 마도      | 어도      |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리 산243        | 5157   | 신안군      |    | 노은어촌계 (우뚝가서리, 전복, 미역, 톳) |
| 지실도     | 지실도     |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리 산219        | 16264  | 신안군      |    |                          |
| 매월도     | 매월도     |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동 산2-3          | 11613  | 신안군      | 연육 | 성태어촌계 (김)                |
| 솔섬 (송도) | 모도      |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산311        | 204307 | 신안군      | 연육 | 상태어촌계 (김)                |
| 기상도     | 토도      |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 산1-1        | 21719  | 신안군      | 연육 | 노은, 상태어촌계 (전복, 미역, 다시마)  |

### 3. 자연자원

#### 1) 식생과 식물

신안군 흑산면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신안군 도서의 대부분은 곰솔(흑송)이 우점하고 있다. 자연림이 아닌 인위적 영향을 많이 받거나 조림되어 오고 있는 이차림(Secondary forest)이다. 해발고도 0m에서 100m에 이르는 대부분의 저지대에 곰솔군락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100~150m사이에서는 사면방향과 경사도에 따라서 곰솔-줄참나무군락, 곰솔-소사나무군락으로 구분된다.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서 줄참나무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암반의 표면적이 많아지면서 소사나무군락이 확산된다.

표 4. 어은1구 방풍림 마을숲 주요 수목 직경급 조사자료(20m×20m)

| 조사번호 | 위치                           | 우점군락 | 교목                                  | 관목                                                                                                                  | 초본식물                                                                                        | 평가등급         |
|------|------------------------------|------|-------------------------------------|---------------------------------------------------------------------------------------------------------------------|---------------------------------------------------------------------------------------------|--------------|
| 1    | 굴암리<br>굴암바위<br>부근(해발<br>50m) | 곰솔   | 곰솔, 자귀나무,<br>매죽나무, 모람,<br>산벚나무, 음나무 | 사스레피나무, 줄참나무,<br>검노린재, 가막살나무,<br>작살나무, 참싸리,<br>청미래덩굴, 음나무,<br>함다리나무                                                 | 마삭줄, 보춘화, 줄박꽃,<br>자금우, 동백나무,<br>소엽맥문동, 그늘사초,<br>남산제비꽃, 고사리,<br>담쟁이덩굴, 주름조개풀,<br>평의다리        | Ⅲ 등급<br>(보통) |
| 2    | 굴암리<br>등산로 (해발<br>70m)       | 소사나무 |                                     | 소사나무, 진달래,<br>줄참나무, 생강나무,<br>노간주나무, 붉나무,<br>굴피나무                                                                    | 억새, 마삭줄, 보춘화,<br>굴잎원추리, 삼주, 참취,<br>산박하, 개머루, 고사리,<br>등글레                                    | Ⅲ 등급<br>(보통) |
| 3    | 굴암리<br>등산로 (해발<br>80m)       | 소사나무 | 소사나무, 자귀나무,<br>노간주나무, 산벚나무,<br>굴피나무 | 다정큼나무, 참싸리,<br>가막살나무, 청미래덩굴,<br>줄참나무, 음나무,<br>팔배나무                                                                  | 마삭줄, 원추리, 보춘화,<br>억새, 그늘사초,<br>나도희초미, 삼주,<br>청가시덩굴, 기장대풀,<br>애기나리, 마, 평의다리, 새,<br>노린재나무, 송악 | Ⅱ 등급<br>(우수) |
| 4    | 황성금리<br>등산로입구<br>(해발60m)     | 황성금리 | 곰솔                                  | 사스레피나무,<br>노간주나무, 진달래,<br>참싸리, 청미래덩굴,<br>줄참나무, 모새나무,<br>산초나무                                                        | 억새, 새, 총꽃나무,<br>계요등, 맑은대썩, 뚝갈,<br>기름나물, 당쟁이덩굴,<br>꽃머느리밥풀, 산해박,<br>고사리, 산박하                  | Ⅲ 등급<br>(보통) |
| 5    | 하태서리<br>큰민달기미<br>도로변         | 곰솔   | 곰솔, 오리나무                            | 사스레피나무, 보리수나무,<br>가막살나무, 청미래덩굴,<br>나도밤나무, 음나무, 검양꽃나무,<br>노린재나무, 송악, 누리장나무,<br>노간주나무, 쥐동나무, 생강나무,<br>팔배나무, 산초나무, 돈나무 | 주름조개풀, 담쟁이덩굴,<br>송악, 개요등, 고사리,<br>도깨비고비, 동백나무,<br>그늘사초                                      | Ⅱ 등급<br>(우수) |



〈표 2〉에서는 신의면의 우점식생군락이고 할 수 있는 곰솔군락지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식생의 등급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굴암리 주변 등산로와 정상부의 주요 식생군락을 조사한 것이다(굴암리 등산로 3건, 황성금리 마을주변 1건, 하태서리 큰민말기미 1건 등 총 5건). 곰솔과 함께 자주 출현하는 교목성 식물로서는 소사나무, 자귀나무, 노간주나무, 산벚나무, 굴피나무, 때죽나무, 모람, 음나무 등이 있었다. 또한 아교목층이나 관목층에서는 사스레피나무, 졸참나무, 검노린재, 가막살나무, 작살나무, 참싸리, 청미래덩쿨, 음나무, 함다리나무, 보리수나무, 가막살나무, 청미래덩쿨, 나도밤나무, 음나무, 검양옻나무, 노린재나무, 송악, 누리장나무, 노간주나무, 쥐똥나무, 생강나무, 팔배나무, 산초나무, 돈나무 등 다양한 식물들이 출현하였다. 활엽수림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은 많지 않았지만, 굴암리 등산로 주변 산록부에는 소사나무군락이 잘 발달하고 있었고, 안산성 내부에는 굴참나무군락이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다. 특히 안산성 내부에는 직경 30~40cm급의 굴참나무와 50cm급 곰솔이 혼재하여 출현하고 있었는데 향후 안산성의 복원, 보전과 함께 내부의 식생도 함께 보전하여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사진 3).



사진 3. 안산성과 내부 식생



표 3. 굴암리 마을 곰솔 개체군 구조

| 크기(직경, cm) | 개체수 |
|------------|-----|
| 30-40      | 13  |
| 40-50      | 4   |
| 50-60      | 3   |
| 60-70      | 3   |
| 100        | 1   |

굴암리 마을에 있는 곰솔 마을숲은 정확한 조성 연도를 알 수 없으나 곰솔의 직경급으로 예측할 때 최고 200년된 마을숲으로 평가된다(표3). 내부에는 묘지와 묘비가 있으나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여 비교적 잘 관리되어 있으며 마을숲 주변에는 대나무숲(이대)이 조성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태도 노은리 팽나무 (지정번호 10-27-7)가 있으며 마을 당산목으로서 보름달 풍년제를 지내는 곳이다.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락리 팽나무, 굴암리 마을숲 소나무군락 등은 보호수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지정을 요청한다. 특히 가락리 팽나무를 비롯하여 기도의 당바위 팽나무의 경우(사진 4), 관리 부실로 인하여 고사의 위기에 있다. 그렇지만, 이 두 나무들은 마을의 많은 역사문화적 스토리텔링의 소재로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철저한 고증과 함께 수목 관리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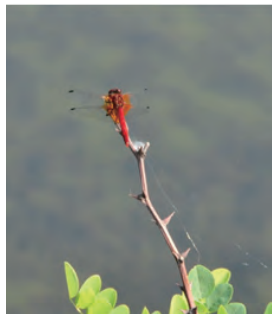


사진 4. 기도의 당바위 팽나무



사진 5. 굴암리 마을숲 곰솔군락과 전통생태계

하태서리 큰민말기미에 있는 도랑(늪)에서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노랑어리연꽃(*Nymphoides peltata*)의 군락지가 있다(사진 6). 이 식물은 우리나라 각처의 늪, 연못, 도랑에 나는 여러해살이 수초임에도 불구하고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서 생존율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서남해 섬 지역의 둑병에 서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신의면 큰민말기미에 서식하는 노랑어리연꽃의 서식지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꽃의 서식처는 대부분 다른 생물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곤충들의 산란장이고, 작은 어류들의 서식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둑병은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작은 생태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신의도의 생태체험관광 지역의 한 지소로서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식물 5포기가 시중가 15,000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신의면의 도랑과 늪을 이용하여 노랑어리연꽃을 재배하면 좋겠다.



신의면 자생식물 활용 생물.  
생태계가 인간에게 봉사하는  
생태계 서비스.  
(환경부 역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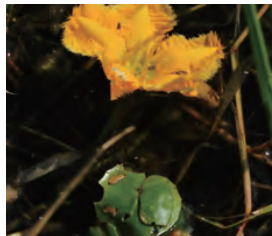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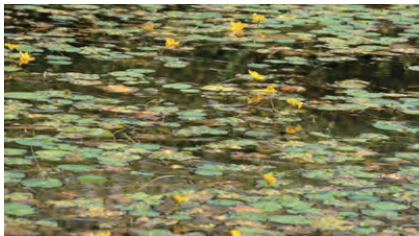


사진 6. 하태서리 큰민말기미의 노랑어리연꽃군락과 생물서식처

신의면은 상태도와 하태도 염전 주변에 통통마디 를 재배하고 있다(사진 7). 통통마디(합초)는 오래전부터 민간약초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차와 음식재료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통통마디 뿐 아니라 염전주변 갯벌에서 서식하고 있는 다른 염생식물(예, 칠면초, 해홍나물 등)에 대한 활용방안을 주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논의하면 좋겠다. 신의면의 천일염과 함께 통통마디 식물을 이용한 지역의 브랜드 상품을 창출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7. 상태도의 염전지역의 통통마디군락

## 2) 해양식물<sup>3)</sup>

신의면에 서식하고 있는 저서무척추동물의 경우, 좁쌀무늬총알고둥이 우점종으로 출현하며 그 밖에 암반틈새에는 갈고둥, 애기두드럭배말, 갯강구가 서식한다. 중하부에는 참굴이 우점하며, 눈알고둥, 개울타리고둥, 조무래기따개비, 고랑딱개비, 눈알고둥, 애기배말, 군부, 갈고둥, 대수리, 갈색꽃해변말미잘, 맵사리, 좀털군부, 담황줄말미잘, 사각게가 출현한다. 해조류의 경우,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등이 출현하고 있으며 주요 출현종은 녹조류의 구멍갈파래, 갈조류 툇, 홍조류의 서실, 애기가시덤불, 우뚝가사리, 부챗살이 출현하였다.



사각게



눈알고둥

3) 해양생물에 관한 내용은 2010년도 무인도서 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였음(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



담황줄말미잘



맵사리

사진 8. 신의면 송도(마도)의 해양생물(저서무척추동물)의 다양성 (사진출처: 2010년 무인도서 실태조사 보고서)



구멍갈파래



애기가시덤불



서실



톳



부챗살

사진 9. 신의면의 해조류 다양성 (사진출처: 2010년 무인도서 실태조사 보고서)

## 4. 활용방안

### 1) 등산로와 마을길(모실길)

신의면은 상태도와 하태도를 연결하는 국도2호와 해안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다. 또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군도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교통은 매우 편리하다. 최근 신안군에 조성되고 있는 모실길이 생태탐방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의면에서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상태도와 하태도에는 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이 있으며, 그러한 곳에 비포장 도로를 조성하여 탐방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

상태도와 하태도 모두 해발고도가 낮은 마을산들이 많기 때문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여러 마을들을 답사할 수 있는 "섬마을 걷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신의면 하태서리의 기동마을에서 큰민알기미까지, 황성금리에서 굴암리까지, 굴암리 등산로에서 전망대(182m)까지, 상태서리에서 자실리 염전 주변까지, 원항리 해안가 주변 등 포장, 비포장 도로의 마을길은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한다.

### 2) 아름다운 경관

- 굴암리 마을숲(200년 수령의 곰솔림)과 마을 돌담 : 대부분의 마을이 돌담을 개축하거나 또는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나 굴암리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 전체를 둘러싸는 돌담이 잘 보전되어 있다. 신의면의 대표적 어촌마을이며 포구인 굴암리의 경관을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또한 굴암리에는 최대 수령 200년된 해송숲이 있다. 대부분의 신의면 마을숲이 관리가 부재하거나 수목의 성장상태가 열악한 것에 비하여 매우 건강한 숲으로 존재하고 있다. 어촌마을의 돌담과 숲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 과부도 : 굴암리 등산로 전망대(182m)에서 바라보는 과부도의 모양이 돌고래와 유사하다(그림 11).



사진 10. 하태도의 과부도, 돌고래 형상을 하고 있음

- 하태서리 내기동 마을해안가 비포장으로 주변
- 하태도 원항리 마을앞 해안(하태서리의 무인도와 가망섬이 보임)
- 상태도의 낙조와 염생식물 군락 : 하절기의 일몰 때 염전 주변의 경관이 매우 독특하다. 염전의 흰 소금과 붉은 통통마디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낙조와 어울려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 안산성과 주변 식생 : 안산성 내부에 굴참나무와 소나무 군락이 혼재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특히 안산성 굴참나무 군락은 신의면 전체 식생자원에서 매우 독특하게 존재하는 식생자원이라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 신의면 자연경관을 활용한 이미지 메이킹

신의면이 가지고 있는 경관미학적 3박자(色: 바다, 흙, 숲, 香: 풀향기, 소나무향기, 音: 새 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미지 메이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의면과 하의면 사이의 연육교가 설치된 후에 하의면을 포함하면서 생태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등산로와 마을길 등 비포장도로를 활용한 “생태건강 체험로(웃섬마을 걷기)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안에는 신의면 염전지역과 주변 생태환경을 활용한 사진전이라던지 염생식물이나 노랑 어리연꽃, 그리고 기타 자생식물의 서식처를 활용하는 다목적 생태탐방방안이 권장된다.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1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⑩

# 신의면<sub>편</sub>

---

## Ⅱ 선사유적

최성락

고고학과 교수

1. 조사 개요 28
2. 고고유적 29
3. 고고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 40



## Ⅱ 선사유적

### 1. 조사 개요

신안군 신의면 지역의 선사시대 유적을 포함한 고고유적은 1986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신안군의 문화유적』에서 처음으로 정리되었다. 이후 상서 고분군의 존재가 알려졌고,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2002년에는 하태서리에 대한 지표조사가, 2007-8년에는 신의면 문화유적 분포지도의 작성과 상서 고분군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조사가 각각 실시된 바가 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인 신의면 지표조사 및 자원화방안 연구과정에서 고고학 분야는 두 차례의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답사는 2011년 10월 7일에 실시되었는데 신의면에 분포하고 있는 고고유적을 일차적으로 조사하였다. 두 번째 답사는 12월 21일에 실시되었는데 1차 답사에서 다소 미비하다고 판단된 자실리 고분군과 안산성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현지답사의 참가자는 필자 이외에도 김영훈(목포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김민근·박창성(인문대학 고고학과 3년) 등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고유적은 유물산포지 4개소, 고분군 2개소, 산성 1개소 등 모두 7개소이며 상태서리에 4개소, 하태서리에 2개소, 고평사리에 1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이번 조사보고서에서는 현지답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와 지금까지 보고된 각종 학술보고서를 바탕으로 신의면지역 고고유적의 현황과 성격을 파악한 후에 이들 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고고유적

### 1) 고고유적의 조사현황

〈표 1〉 고고유적 목록

| 번호 | 명칭                    | 위치           | 비고                          |
|----|-----------------------|--------------|-----------------------------|
| 1  | 新安 上台西里 서리 遺物散布地      | 新安 上台西里 서리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a              |
| 2  | 新安 上台西里 자실리 古墳群       | 新安 上台西里 자실리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a              |
| 3  | 新安 上台西里 上西 古墳群        | 新安 上台西里 上西   | 신안군 2006,<br>목포대학교박물관 2008b |
| 4  | 新安 上台西里 案山城址          | 新安 上台西里      | 목포대학교박물관 1987,<br>2008b     |
| 5  | 新安 下台西里 황성금리<br>遺物散布地 | 新安 下台西里 황성금리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
| 6  | 新安 下台西里 모래금리<br>遺物散布地 | 新安 下台西里 모래금리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
| 7  | 新安 高平沙里 平沙遺物散布地       | 新安 高平沙里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a              |

#### (1) 新安 上台西里 서리 遺物散布地(목포대학교박물관 2008a)

이 유적은 신의면 상태서리 서리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신원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으로 남쪽으로는 안산성과 상서 고분군이 자리한다. 현재 유물산포지의 중앙에는 서리마을이 들어서 있고 주변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도자기류 등이 산재해 있어 삼국시대의 유적으로 추정된다. 서리 유물산포지는 상서고분군과 관련이 있는 생활유적으로 판단된다.



(전경)



(수습유물)

## (2) 新安 上台西里 자실리 古墳群(목포대학교박물관 2008a)

이 고분군은 신의면 상태서리 자실리마을로부터 북동쪽으로 100m정도 떨어진 야산(83.6m)의 오리나무숲으로 불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동서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고분군의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이다. 고분군은 마을주민들 사이에 ‘고려장’이라 불리고 있으며, 다수의 석실분과 석곽묘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접한 상서 고분군과 같이 삼국시대 고분으로 추정된다. 석실분은 지표상에 몇 기가 노출되어 있는데 장축 방향이 남-북을 띠고 있으며, 야산 사면부의 경사면을 L자형으로 굴착하여 하단부에 묘실의 입구와 연고부를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어, 정확한 기수와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다.



(전경)



(석실 노출 양상)



### (3) 新安 上台西里 上西 古墳群(신안군 2006,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b)

이 고분군은 신의면 상태서리 소장동마을 서쪽에 위치한 나지막한 구릉(45.8m)의 사면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신원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고분군의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이다. 고분군은 마을주민들 사이에 ‘고려장’이라 불리고 있으며, 30여기 정도의 석실분이 자리하고 있다. 석실분은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어, 정확한 기수는 파악할 수 없다.

다만 2008년에 실시된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고분군에서 14기의 석실이 확인되었고, 이곳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서 두 기의 석실(15호와 16호 석실)이 더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8호, 9호, 11호, 13호의 석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호 석실은 고분군의 중앙에 위치하면, 천정석과 일부 벽석만이 지표상에 드러나 있다. 석실의 축조는 야산의 사면부를 L자형으로 굴착하여 묘광을 조성한 후 석축을 쌓고, 천정석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석실의 규모는 장축길이 270cm, 단축길이 89cm, 깊이 70cm 정도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벽의 축조방법은 할석의 편평한 면을 석실 내부로 향하도록 하고, 할석을 가로나 세로로 세워서 마무리하고, 장벽은 할석을 세로나 가로로 세우고, 그 위의 단은 가로로 눕혀서 벽석을 쌓았다. 천정석은 장대석을 이용하였다.

9호 석실은 8호 석실에서 동쪽으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석실은 장방형의 묘실과 우편재의 연도부를 갖추고 있는 횡혈식 석실분이다. 석실의 축조는 야산의 사면부를 L자형으로 굴착하여 묘광을 조성한 후 석축을 쌓고, 천정석을 올린 후 석실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벽석 주변에 흙을 쌓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석실의 규모는 장축길이 420cm, 단축길이 100cm, 깊이 90cm 내외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벽의 축조방법은 대체로 8호 석실과 유사하다. 다만 북단면은 장대석 1매를 가로로 세운 후 키 높이를 맞추어 할석 1매를 세로로 세우고 2·3단은 가로로 눕혀 마무리하였다. 천정석은 대형 석재 2매로 석실의 상면을 덮고 있다.

11호 석실은 8호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장방형의 묘실과 우편재의 연도부를 갖추고 있는 횡혈식 석실분이다. 석실의 축조는 야산의 사면부를 L자형으로 굴착하여 묘광을 조성한 후 석축을 쌓고, 천정석을 올렸다. 석실의 규모는 장축길이 312cm, 단축길이 82cm, 깊이가 50cm 내외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벽의 축조방법은 할석의 편평한 면을 석실

내부로 향하도록 하고, 할석을 가로로 세우거나 눕혀서 벽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소형할석을 벽석의 빈틈에 끼워넣어 단의 균형을 맞추었다. 연도부는 일자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벽석의 유실상태가 심하다. 특징적으로는 벽석 상면에 문비석으로 보이는 대형석재가 확인되었다. 천정석은 석실의 중앙에 2매의 편평한 석재가 놓여있었다.

13호 석실은 11호 석실로부터 남쪽으로 10m 정도 떨어져 위치한다. 석실은 장방형의 묘실과 연도부를 갖추고 있는 횡혈식 석실분으로 추정된다. 석실의 축조는 야산의 사면부를 L자형으로 굴착하여 묘광을 조성한 후 석축을 쌓고 천정석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석실의 규모는 장축길이 240cm, 단축길이 90cm, 깊이 40cm 내외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축조방법은 벽석 대부분이 지하에 매몰되어 있어 구조를 판단하기 어렵다. 천정석은 2매가 확인되었다. 상·하면이 편평한 대형석재로 석실의 상면을 덮고 있다.

나머지 석실들도 모두 장방형의 횡혈식으로 천정석만 노출되거나 일부 파괴된 상태로 땅속에 묻혀있다. 수습유물은 회청색경질토기 구연부편과 저부편이 확인되었다. 이 고분들은 축조상태나 주변에서 수습된 유물로 미루어 보아 삼국시대 백제계 석실분으로 추정되며 현재 신안군 향토자료 제4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경)



(근경)





(8호 석실분)



(9호 석실분)



(11호 석실분)



(13호 석실분)

#### (4) 新安 上台西里 案山城址(목포대학교박물관 1987, 2008b)

이 유적은 신의면 상태서리 서리마을의 남쪽에 있는 案山(120.5m)으로 불리는 야산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소장동 마을 뒤편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산성의 동문지 근처에 이른다. 동문에서 확인되는 성벽의 규모는 높이 4m 정도이며, 20단 내·외의 석축 단으로 이루어졌다. 성벽의 하부는 길이 60cm 정도의 장대석으로 쌓고, 그 위로는 길이 40~45cm, 높이 25cm 내·외의 석재들로 축성하였다. 산성은 크게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 되었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확인되는 것은 내성뿐이다. 내성의 둘레는 150m 정도이며, 내성 안쪽에서는 봉수대와 건물지로 추정되는 석축단도 확인된다. 봉수대는 안산 정상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수습유물로는 조선시대 백자편과 옹기편들이 있다. 이 유적은 현재 신안군 향토자료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원경)



(서벽 일부)



(봉수대)



(북문지)



(그림 1) 신의면 상태서리 고고유적 분포도  
(1. 서리 유적, 2. 자실리 고분군, 3. 상서 고분군, 4. 안산성지)

(5) 新安 下台西里 황성금리 遺物散布地(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이 유적은 신의면 하태서리 황성금리 모라지미골에 위치한다. 황성금리는 마을의 중앙에 난 소로를 중심으로 모라지미골과 벌어지미골로 나누어지는 데 이 유적은 모라지미골 마을 동쪽 해발 20m 정도의 낮은 구릉 상에 100×60m 범위로 분포하고 있다. 수습유물은 어망추 1점과 적갈색토기편 1점 등이 있다. 이 유적은 출토된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후의 생활유적으로 추정된다.



(근경)

(6) 新安 下台西里 모래금리 遺物散布地(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이 유적은 신의면 하태서리 황성금리 마을 중앙에 난 소로를 따라 남쪽으로 200m 정도 가면 모래금리 해수욕장이 나오는데 구릉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유적의 정면(동남쪽)은 길이 100m 정도의 소규모 백사장이 형성되어 있고 삼면이 해안단애와 소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다. 유적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범위는 20×30m 정도이다. 기존에는 4m 정도 높이의 언덕이었으나 훼손되어 패각과 유물이 표토에서 확인되었다. 현재 해수욕장 정비를 하면서 유적이 있는 곳의 일부가 복토되어 더 이상 유물의 수습이나 패각층의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수습된 유물은 태토에 굵은 사립이 섞인 적갈색의 무문토기가 대부분이고, 평행사선문이 새겨진 토기와 압인문이 수평으로 시문되어 있는 파수부토기 등도 있다. 이 유적은 출토유물로 보아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근경)



(수습유물)



(그림 2) 신의면 하태서리 고고유적 분포도  
(5. 황금성리 유적, 6. 모래금리 유적)

## (7) 新安 高平沙里 平沙遺物散布地(목포대학교박물관 2008a)

이 유적은 신의면 고평사도 고평사리 평사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나지막한 구릉(27.5m)의 동쪽편에 위치한다. 이곳은 고사도와 마주보고 있는 곳으로 해안가와 인접한 곳이다. 현재 유물산포지의 대부분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부근에 가옥이 들어서 있다. 이 유적에서는 적갈색연질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자기류 등이 수습된 바가 있어 삼국시대 이후의 생활유적으로 추정된다.



(근경)



(수습유물)



(그림 3) 신의면 고평사리 사평유적 위치

## 2) 신의면 고고유적의 성격

신의면에서 확인된 고고유적은 유물산포지, 고분, 산성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유물산포지는 모두 4곳이 확인되었다. 하태서리 모래금리 유물산포지에서는 선사시대로 올라가는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즉 표면에 평행사선문이나 압인문 등의 문양이 있어 신석기시대의 빗살문토기의 잔재가 남아있는 토기편으로 신석기시대 말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신안지역에서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된 바가 있다. 즉 가거도 패총,



흑산도 패총, 하태도 패총, 우이도 패총, 어의도 패총을 비롯하여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석기시대 토기가 발견되었다. 이곳에서는 용기문토기, 압인문토기, 단도마연토기, 이중구연토기 등 남해안에서 나타나는 거의 모든 토기류가 확인되고 있어 신석기시대 전기부터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주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최성락 1990). 따라서 신의면 하태서리에서도 신석기시대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현재 이곳은 해수욕장 정비공사로 복토된 상태이며 더 이상 토기편을 수습하거나 패각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유적의 성격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 이 유적과 인접한 하태서리 황성금리 유물산포지는 적갈색토기편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후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상태서리 유물산포지의 경우, 이웃하는 상서 고분군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생활유적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유물산포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삼국시대 이후의 유적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분군은 자실리 고분군과 상서 고분군이 있다. 자실리 고분군은 지표조사 결과 석실분이라고 추정되지만 정확한 성격을 파악할 수 없기에 상서 고분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상서 고분군은 수 십 기로 구성된 집단 분묘군으로 추정되지만 지표조사를 통해 군집된 14기와 이와 떨어져서 2기가 확인되었다. 석실분은 야산의 사면부에 등고선방향과 직교하게 L자형으로 굴착하여 석실을 축조하고, 경사면의 아래쪽에 입구와 연도부를 시설하였다. 이 고분군의 석실은 모두 연도부를 가진 횡혈식 석실분이다. 석실의 특징은 장방형의 묘실과 연도를 갖추고 있으며, 지상 또는 반지하에 묘실을 마련하고, 분구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벽석은 할석의 편평한 면을 묘실내부로 향하도록 쌓고, 각 벽석의 모서리 부분에 각을 죽여 내경시킨 석실분도 확인되었다. 이것은 천정석을 용이하게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단이 올라갈수록 천정부가 좁아지는 효과를 주지만 상서고분군의 석실 벽석은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 이를 밝힐 수가 없다. 이외에도 동일한 장축방향을 띠고 있고, 석실간의 중복이나 파괴행위, 석실의 축조기법 등이 유사하여 혈연집단이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였던 사람들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석실의 규모나 구조 등으로 볼 때 전남지방에서 6세기 중엽 이후에 축조되는 백제계 석실과 유사성이 많다. 신안지역에서 이미 장산면 도창리 석실분(최성락 1985a), 안좌면 읍동리 석실분(최성락 1985b) 등 같은 시기의 백제계 석실분들이 알려지고 있다. 이보다는 다소 이른 시기의 고분으로는 안좌면 대리 배널리 고분(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1)이 있다. 이 고분은 5세기 중엽경의 수혈식 석곽으로 그 내부에서 철제투구와 갑옷이 발견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 고분의 성격을 5세기경 서남해안에 자리잡았던 해상세력의 무덤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신안지역에서 백제계 고분이 발견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것은 백제가 서남해안의 해양교통로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백제의 중앙관리가 파견되어 이 지역을 통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다른 지역의 경우, 소수의 고분만이 확인된 반면에 이곳 상서 고분군은 집단적으로 고분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백제의 중앙관리가 파견된 것이 아니라 백제계 주민들의 집단적인 이주가 이루어졌거나 백제계 무덤양식을 이 지역 사람들이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고분들의 연대가 6세기 이후인 점은 문헌상으로 보이는 백제의 서남해안 진출시기인 4세기 후반과 달라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안산성지는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墩臺로 알려져 있다. 즉 1872년에 간행된 『南桃鎮誌』掌內條에 의하면 珍島 南挑浦鎮 소속의 領長級の 소규모 墩臺로서 봉수대를 겸하던 방어시설이다. 이 墩臺에는 領長 1명, 隊軍 53명이 배치되었다. 남도포진 소속의 墩臺로는 이곳 이외에도 하태도, 하의도, 能山島, 薪島, 大也島 墩臺 등이 있었다. 안산성지에 대한 조사기록은 1942년에 편찬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나타나는데 높이 8척, 둘레 약 90간의 석축으로서 거의 완전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1987년 목포대학교박물관에 의해 간략하게 조사된 바가 있고, 2008년 상서고분과 함께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또 전설에 의하면 壬辰亂 때 왜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목포대학교박물관 2008b).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안산성은 내부에 봉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기존의 산성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산성은 상태도와 하의도 사이의 좁은 수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을 뿐더러 북쪽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변 해역이 잘 조망되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안산성은 산성이기보다는 주변의 해로를 감시하기 위해 축조된 보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축조연대는 출토유물로 보아 조선시대 후기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진도 남도포진의 설치연대가 1438년(세종 20) 정월인 점을 감안하면 초축연대는 더 올라갈 것이다. 또한 전언에 의하면 내성 밖으로 외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외성의 경우, 내성보다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그 성격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 3. 고고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

현존하는 고고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유적의 보존과 정비복원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지 연구되어야 한다.

먼저 신의면지역의 고고유적은 지금까지 수차례 지표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유적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학술적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상태서리 상서 고분군과 안산성지는 학술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유적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아직 성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서리 자실리 고분군도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유적의 보존 및 정비복원을 위한 방안이다. 현재 상서 고분군과 안산성지의 경우, 신안군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발전시켜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안산성지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보루로 잘 남아있는 편이고, 상서 고분군은 신안지역에 분포하는 백제고분 중에서 가장 많은 고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기 때문이다. 유적의 보존과 더불어 고려될 사항은 유적의 정비복원이다. 즉 상서 고분군의 경우, 대부분의 고분이 파괴되어 있어 그 원형을 알 수가 없다. 이에 일부 고분을 복원하여 정비한다면 적절한 유적의 보존대책일 뿐만 아니라 백제 고분의 온전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어 교육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안산성지의 경우, 무너진 축대와 건물지 등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끝으로 이 유적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유적들은 교육자원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유적의 복원정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유적 안내문의 설치와 탐방로의 개설 등이 필수적이다. 지금도 간략한 안내문이 있으나 지역주민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 관람객들에게 유적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유적 안내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서 고분군을 둘러보거나 안산성지에 오르기 위한 탐방로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1, 「신안 안좌도 읍동리 및 대리 고분 발굴조사 회의 자료」.
- 목포대학교박물관 1987, 『신안군의 문화유적』.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신안군 신의면 하태지구 지방상수도시설 사업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a, 『문화유적분포지도-신안군』.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b, 『신안 안산성지 상서고분군』.
- 신안군 2006,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유적』.
- 최성락 1985a, 「장산도 · 하의도의 유적 · 유물」, 『도서문화』 4,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 최성락 1985b, 「안좌도지역의 선사유적」, 『도서문화』 5,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 최성락 1990, 「서남해도서지역의 선사문화」, 『도서문화』 7,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1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⑩

# 신의면<sub>편</sub>

---

## III

# 역사문화유적

최성환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조사 개요 44
2. 건축유적 56
3. 신의면의 문화인물 60
4. 신의면 방조제 62
5. 신의면의 인물 65
6. 역사문화유적 활용방안 67



## Ⅲ 역사문화유적

### 1. 조사 개요

#### 1) 역사문화유적

신의면은 상태도와 하태도를 중심으로 주변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천일염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하의면신의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다가, 1983년에 신의면으로 승격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지역이다. 신의면의 유적은 상태도 지역의 안산성지와 상서 고분군이 대표적인 유적이다. 이를 근거로 매우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 섬에 밀집해서 살았고, 고대문화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현재 신의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임진왜란 이후 입도하여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신의면은 상태서리, 상태동리, 하태서리, 하태동리, 고평사도리로 구분되며, 1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상태도와 하태도가 연결된 것은 염전조성을 위한 방조제 공사의 결과이며, 그 시기는 한국전쟁 발발이후인 1952년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역사문화유적은 타 읍면 도서에 비해 그리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 소장동 선창 부근에 있는 4기의 비군이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다. 이 가운데 이호준 공덕비는 하의3도 토지탈

환운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는 마을 주민 공덕비와 정려(열녀)비 정도가 알려져 있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선정비 1기와 공적비 5기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특히 흔질 해안가에 조성된 절도사 허계 공덕비는 건립연대와 목적에서 매우 주목되는 자료이다. 신의면 비갈 유적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이며, 신의면 주변 도서의 조선시대 사회상을 살필 수 있는 유적으로 이번 지표조사의 최대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 2) 역사유적 목록

신의면에 현존하는 문화유적 가운데 역사 유적의 목록(선사 및 고대유적, 민속유적을 제외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신의면 역사유적 목록

| 번호 | 명칭                 | 위치    | 연대                    | 비고 |
|----|--------------------|-------|-----------------------|----|
| 1  | 上台西里 소장동碑郡         | 소장동마을 | 19c후반 · 1930년 · 1947년 |    |
| 2  | 上台西里 祥原金氏烈女閣       | 서리마을  | 1942년                 |    |
| 3  | 下台西里 尹永炫永世不忘碑      | 기동마을  | 1934년                 |    |
| 4  | 下台東里 祥原金氏貞閣        | 홍촌마을  | 1958년                 |    |
| 5  | 下台東里 尹炳銀慈善碑        | 윤촌마을  | 1949년                 |    |
| 6  | 高平沙里 天安全氏烈女閣       | 평사마을  | 1946년                 |    |
| 7  | 節度使許榮淸德善政碑         | 흔질 해안 | 1832년                 | 신규 |
| 8  | 前中樞院議官朴公敬欽永世不忘碑    | 가락마을  | 1932년                 | 신규 |
| 9  | 申升翰紀念功績碑 및 申東述功績碑  | 노은마을  | 1961년 · 1975년         | 신규 |
| 10 | 秀堂申福山 松巖洪完泰 功績紀念碑  | 원항마을  | 1982년                 | 신규 |
| 11 | 迎秋門守門將密陽朴公七善令德不忘之碑 | 염분동마을 | 1947년                 | 신규 |

### 3) 상태서리 소장동 비군(碑郡)

신의면 당두 선착장 주변에 4기의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 3기는 관찰사 선정비이고, 1기는 입도조 기념비이다. 현 위치상 왼편부터 첫 번째는 ‘박규동목사선정비’로 전면에 ‘行牧使朴公圭東恤民善政碑(행목사박공규동홀민선정비)’라 새겨져 있다. 건립년도는 조선후기로 추정된다. 비문의 년도부분에 ‘崇禎紀元後伍丙○四月 日(송정기원후오병○사월 일)’이라 새겨져 있는데, ‘병(丙)’자 다음 한글자가 마모되어서 정확한 년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안좌도에 남아 있는 박규동 목사의 선정비가 1855년에 건립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와 유사한 시기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뒷면 하단에 글로 적은 이름이 金載王(김재왕)으로 적혀있고, 참여한 대표자 상태 ○○, 하태 ○○ 이름이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10cm, 너비 42cm, 두께 16cm이다.

두번째비는 ‘정건조불망비’로 전면에 ‘觀察使兼巡察使鄭公健朝永世不忘碑(관찰사겸순찰사정공건조영세불망비)’라 새겨져 있으며, 건립년도는 1930년이다. 비의 규모는 높이 126cm, 너비 45cm, 두께 18cm이다.

세 번째는 가장 주목되는 ‘관찰사이호준불망비’이다. 전면에 ‘觀察使李公鎬俊永世不忘碑(관찰사이공호준영세불망비)’라 새겨져 있다. 뒷면은 확인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신안 지역 내의 또 다른 이호준불망비(암태도 1873년, 안좌면 자라리 1872년, 하의면 옥도리 1873년)의 사례들로 미루어 보아, 이와 비슷한 시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55cm, 너비 50cm, 두께 20cm이다. 이호준 공덕비는 하의3도 토지탈환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호준은 1870년 6월에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했고, 1872년 1월 규장각직제학이 되었다. 약 3년 정도 전라도관찰사직을 수행했는데, 이때 하의3도의 농민들이 이중결세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한 바 있다. 이호준은 홍씨가의 국법위반을 질책하고 24결에서만 결세를 받도록 조치하여 섬 농민들의 입장을 옹호해주었다. 상태서리에 있는 이호준 영세불망비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1] 신의면 상태서리 공적비 4기

네 번째는 ‘박종신불망비’로 전면에 ‘入島密陽朴氏宗信永世紀念不忘碑(입도밀양박씨종신영세기념불망비)’라 새겨져있으며, 밀양박씨 집안에서 상태도에 가장 먼저 들어와 정착한 입도조(入島祖) 박종신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한 비이다. 비문에 의하면 박종신은 1639년 4월 3일 생으로 해남으로부터 처음 입도하여 북면 쪽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240여 년 동안 후손들이 지속되었다. 건립연대는 1947년이며, 규모는 높이 130cm, 너비 45m, 두께 20m이다.

당두 선착장에 보존되어 있는 이 공적비들은 조선후기 도서 지역사회상과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유적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변 환경이 다소 어수선했던 상태임으로 문화재 보호 테두리를 설치하고, 관련 안내문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가 있는 위치는 상태서리로 들어오는 입구와 같은 곳이므로, 비군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자원 및 지역의 역사를 알리는 교육장소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4) 상태서리 상원김씨열녀각(祥原金氏烈女閣)

상태 서리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의 길가에 있다. 비각의 정면 상단에 ‘烈閣門(열녀문)’이라고 쓰여져 있고, 주변에 돌담이 설치되어 있다. 비각은 정면1칸, 측면 1칸 규모이며, 기와와 주변 돌담 등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열녀각이다. 건물의 상부는 목조, 하단은 석조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비가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200cm, 너비 40cm, 두께 15cm 이다. 전면에 ‘烈女貞夫人祥原金氏之閭(열녀정부인상원김씨지려)’ 라고 새겨져 있으며, 부인의 후손들이 열녀 상원김씨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42년에 세운 것이다. 신의면에는 희귀 성씨인 상원 김씨 열녀비가 남아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태동리에 있는 비와 함께 상원 김씨 관련 유적으로 가치가 있다. 우이도에도 상원김씨 열녀각이 있어, 우이도 사람들과의 교류관계 등 섬사람들의 사회상을 보여주기도 하다. 이 비가 그중에 가장 오래되고 보존상태가 좋다.



[사진2] 상태서리 마을 초입 도로변에 자리한 열녀문



### 5) 하태서리 윤영현영세불망비(尹永炫永世不忘碑)

하태동리 원목마을에서 기동마을로 들어서는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다. 비의 하단부 일부가 땅속 묻혀있다. 이 비는 윤영현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 1934년에 세운 것이다. 윤영현은 여러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보답이 자손들에게 이어질 정도였다. 비의 전면에는 ‘贈忠義參奉兼監察尹公永炫永世不忘碑(증충의참봉겸감찰윤공영현영세불망비)’라 새겨져 있고, 공의 행적에 대해 4언 절구로 새겨져 있다. 규모는 높이 150cm, 너비 62cm, 두께 20cm이다. 기동마을 입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진3] 윤영현비의 정면 모습



[사진4] 마을 초입 도로변 윤영현비 위치

### 6) 하태동리 상원김씨정각비(祥原金氏貞閣碑)

상원김씨정각비는 구만교회에서 홍촌마을로 가는 소로를 300미터 정도 가다보면, 도로변 구릉의 하단에 자리하고 있다. 이 정각의 주인공인 상원김씨는 김성렬(金成烈)의 장녀로, 남양(南陽) 홍씨 홍순근(洪淳銀)과 혼인하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1남1녀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평생을 살았다. 이에 아들인 홍달표(洪達杓)가 1958년에 정각을 세웠다. 비의 앞면에는 ‘孺人祥原金氏貞閣(유인상원김씨정각)’이라 새겨져 있다. 비의 주변으로 돌담에 둘러져 있으며, 돌담 내부에 비각의 흔적으로 보이는 기둥과 기와가 흩어져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22cm, 너비 40cm, 두께 20cm이다. 현재는 정각에 대

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잡풀이 돌담을 덮고 있는 상황이고, 비의 하단부도 묻혀있어 온전한 형태가 노출되어 있지 않다. 상태서리의 상원 김씨 열녀문과 함께 상원 김씨 관련 유적으로서 주목된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이도에 상원 김씨들이 주로 살았는데, 이곳으로 이주하여 몇 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상원 김씨의 신안 섬지역 거주 상황을 보여주는 유적이기도 하다.



[사진5] 하태동리 상원김씨 정각비

## 7) 하태동리 윤병은자선비(尹炳銀慈善碑)

윤촌마을에서 간척지와 염전 사이에 난 소로가 2번국도와 만나는데 비석은 윤촌마을에서 이 소로를 따라 100여 미터 가다보면 우측의 큰 소나무 밑에 세워져있다. 윤병은(尹炳銀)은 학식이 높고 사리에 밝았으며, 효성이 지극했다. 이 비는 윤병은이 베푼 자선을 기리기 위해 1949년 파평윤씨 문중에서 건립한 것이다. 비의 전면에는 ‘尹荷潭諱炳銀氏慈善碑(윤하담휘병은씨자선비)’라 새겨져 있고, 4언 절구로 공의 행적에 대해 새겨져 있다. 규모는 높이 166cm, 너비 60cm, 두께 20cm이다. 염전 뒤편으로 연결되는 마을 소로의 중간에 오래된 고목과 함께 자리하고 있어, 인근 도로에서 마을 쪽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경관요소가 되고 있다.



[사진6] 윤병은 자선비 정면



[사진7] 나무와 어우러진 윤병은 자선비

## 8) 고사도 천안전씨열녀각(天安全氏烈女閣)

고평사리 고사도 마을의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이 비각은 김광율(金光律)의 부인 천안 전씨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부인은 혼인 후에,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을 공경하였다. 그러던 중 21세 때, 남편을 여의고 평생을 살았다. 이에 부인을 기리기 위해 평사도 주민들이 1946년에 비석을 세우고, 1947년에 비각을 완성한 것이다. 비각이 고사도에 있는 내력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원래 평사도 사람인데, 고사도로 시집와서 살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고사도와 평사도는 바로 인접한 섬으로 상태본도에 떨어져 있어 고평사리에 속한다. 비의 앞면에는 ‘烈婦學生金光律妻孺人天安全氏之閣(열부학생김광율처유인천안전씨지각)’이라고 새겨져 있고, 비의 뒷면에 부인의 행적에 대해 5언 절구로 새겨져 있다. 비각의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규모로 상하부 전체가 돌로 만들어졌다. 정면 상단에 ‘烈女閣(열녀각)’이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주변이 돌담장으로 둘러져 있다. 돌담은 시멘트로 보수된 흔적이 있으며 왼쪽 상부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정면 출입구는 사람 한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고, 쇠창살 문이 달려 있다. 내부 비의 크기는 높이 126cm, 너비 42cm, 폭 15cm이다.



[사진8] 고사도 천안전씨 열녀각



[사진9] 담장 내부 전씨 열녀각 모습

## 9) 절도사(節度使) 허계(許槩)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상태도 대장동 혼질 해안가 암반에 세워져 있다. 전라우수영의 수군절도사를 지낸 허계의 선정비로 비의 전면에 ‘節度使許槩淸德善政碑(절도사허계청덕선정비)’라 새겨져 있고, 후면 중앙에는 ‘道光十二年壬辰十二月 日(도광십이년임진십이월 일)’이라는 건립년도가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비의 건립년도는 1832년(임진) 12월임이 확인된다. 2012년이 임진년 이므로 정확히 180년 전에 건립된 것이다.

선정비의 주인공인 허계(1798~1866)는 조선후기의 무관이다.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이숙(而肅). 할아버지는 통제사 임(任)이며, 아버지는 군수 즈(澱)이다. 1814년(순조 14) 천거로 선전관이 되고, 1815년 무과에 급제, 1835년(헌종 1) 경상좌도병마절도사, 1837년 함경남도병마절도사, 1841년 함경북도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거쳐, 이듬해 삼도수군통제사 겸 경상우도수군절도사에 올랐다. 이어 1846년 평안도병마절도사를 거쳐 1851년(철종 2)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을 세 번이나 역임한 뒤 1858년 금위대장을 지냈다. 1865년 조두순(趙斗淳) 내각에서 공조판서·어영대장으로 경복궁 건영도감(建營都監)의 제조(提調)가 된 뒤 판의금부사·도총관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효민(孝敏)이다. 현재 남아 있는 경복궁 서쪽 궁문인 영추문(迎秋門)의 현판이 허계의 글씨로 알려져 있다.





[사진10] 혼질해안가 암반에 세워진 허계선정비

허계의 약력 가운데 전라우수영 수군절도사에 대한 부분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현존하고 있는 전라우수영 선생안에서 그 이름이 확인되고 있다. 1831(신묘)년 1월~1833년 10월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수군절도사를 역임하였다.

허계가 절도사로 부임한 초기부터 섬 주민들의 민정을 살피고 고치기 어려운 오랜 폐단을 혁파하도록 관인을 찍어 파급하니, 그 규정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영세불망하는 마음으로 비를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의 전면 좌우에 새겨진 글씨는 해풍으로 마모가 심해 확인하기 어렵고,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씨가 남아있다. ‘下車之初民衣主許持察民情諸島主席子弊·永革罷踏印目播給各島以植萬不·之規永世不忘(하차지초민의주허지찰민정제도주석자폐막영혁파답인목파급각도이식만불변지규영세불망)’. 비의 크기는 높이 106cm, 너비 42cm, 머리돌 너비 63cm이다.

이 비가 세워진 위치는 장산도 섬막금과 바라보는 장소이다. 바로 인근은 예전 주민들이 ‘혼질나루’라 부르며, 목포로 나다니던 배가 정박하던 선착장이었다. 비가 건립될 당시에 이 일대가 상태도를 출입하는 배들이 다니던 길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주변 해안가에 이 비를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상태도의 옛 지형과 섬사람들의 바닷길, 그리고 조선시대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여러 섬에서 공동으로 이 비를 건립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암태도남강에 건립된 ‘수사 김처한 공덕비(1755년)’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섬 주민들의 각종 불합리한 세금으로 인한 폐단을 개혁해 준 수군절도사에 대해 섬주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기념비를 건립한 사례이다.





[사진13] 해풍부식이 심한 허계비 정면



[사진11]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허계선정비



[사진12] 혼질 해안가 비의 위치



[사진14] 경복궁 서문(영추문) 허계의 글씨

## 10) 상태동리 박경흠영세불망비(朴敬欽永世不忘碑)

상태동리 가락리 마을 언덕 사장나무 옆에 세워져 있다. 전 중추원의관 박경흠이 흉년으로 마을 사람들이 굶어죽을 상황에서 사재를 털어 인근 주민들을 구제해 주었던 선행을 기념하기 위해 주민들이 1932년 10월 3일에 건립한 것이다. 전면에 ‘前中樞院議官朴公敬欽永世不忘碑(전중추원의관박공경흠영세불망비)’, 뒷면에 ‘大正二十一年十月三日(대정이십일년십월삼일)’이라는 건립년대가 새겨져 있다.

또한 건립주체로 마을 주민 장성규 등 4인의 이름이 적혀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박경흠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워 마을 주민들이 이 비를 세웠다고 하며, 현재 가락마을에 살고 있



[사진15] 가락마을 박경흠 영세불망비

는 박경흠의 직계 후손들은 없다고 한다. 비의 크기는 높이 136cm, 너비 45cm, 폭 15cm, 머리돌 높이 33cm, 너비 66cm이다. 비의 하단에 시멘트로 축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축대의 조성시기는 1984년이다. 비 주변에 철기둥과 철줄로 연결된 테두리가 쳐져 있다.

## 11) 신승한기념공적비(申升翰紀念功績碑) 및 신동술공적비(申東述功績碑)



[사진 16] 노은리 신승한과 신동술 공적비

하태동리 노은 마을로 들어오는 서쪽 어귀의 도로 옆 암반에 세워져 있다. 마을 일에 앞장선 신승한과 신동술을 기념하기 위해 노은리 주민들이 건립한 비이다. 신승한기념공적비는 전면에서 ‘申升翰紀念功績碑(신승한기념공적비)’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 건립내력이 적혀있다. 당시 대강자포(大綱子浦)라 불리던 농지는 크기가 작고 언덕이 많아 매년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커서 주민들의 손실이 많았다. 이에 신승한이 사재를 털어 무너진 언덕을 수리하니, 주민들이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해 이 비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비의 한쪽 측면에 ‘大綱子浦(대강자포) 作人(작인)’ 일동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한쪽에 건립시기가 단기4294년(1961년)으로 적혀있다. 비의 크기는 높이 121cm, 너비 42cm, 폭 23cm이며, 머리 돌은 없다.

신승한기념공적비 옆에 신동술공적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공적비의 왼쪽 측면에 노은리 개발위원장 신승한과 위원 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신동술이 마을 하천 복개, 마을회관 건립 등 노은리 마을이 특수마을로 발전하기까지 많은 공을 세웠기에 그 공로로 이 비를 세운다는 건립내력이 적혀있다. 마을주민 일동이 건립했고, 발기인은 신흥만 외 3인이다. 건립시기는 1975년 4월 8일이다. 비의 크기는 높이 113cm, 너비 46cm, 폭 21cm 이고, 머리돌은 없다. 비가 세워진 위치가 과거에는 마을로 들어오는 통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마을 앞쪽으로 차가 드나들 수 있는 큰 도로가 별도로 개설되어, 이 비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노출되지는 않고 있다. 노은리 마을은 노거수, 개마위

등 볼거리 등이 많은 곳이다. 이 비는 신의면의 마을 형성 내력을 보여주는 유적으로서 가치가 있다.

## 12) 신복산·홍완태 공적기념비(申福山 洪完泰 功績紀念碑)

신의남분교는 원항마을 도도 중, 굴암에서 기동마을로 가는 삼거리의 우측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공적비는 신의남분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학구(學區) 주민들이 1982년에 건립한 것이다. 비문은 발기인 대표인 신공석(申公碩)이 찬(撰)하였다. 비문에 따르면 이 학교의 원래 명칭은 하의남교(荷衣南校)였다. 행정구역상 하의면에 속했기 때문에 보인다. 당시 학교가 본래 하태서리 기동에 있었는데 위치가 편협하고 교사가 쓸어져가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1953년에 하태의 중앙이고, 환경이



[사진17] 신의남분교 공적기념비

좋은 현 위치에 가교사를 건립하기 위해 전체 학구민(學區民)의 부담과 노력이 있었다. 특히 수당(秀堂) 신복산(申福山), 송암(松巖) 홍완태(洪完泰) 두 사람이 선두에 서서 물심양면으로 열성을 다하여 남교의 터전을 닦는데 그 공이 지대하였다. 이러한 학교 발전과정에서 있었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학구민의 뜻을 모아 이비를 세운 것으로 그 내력이 적혀 있다. 비록 건립된 시기는 오래지 않으나, 신의면 섬마을 교육사의 일면을 볼 수 있다. 특히 현재는 학교가 폐지된 상태로 되어 있어, 향후 폐교의 처리문제가 주목된다. 신안군 각 섬 지역에 있는 학교가 폐교되면, 그 재산권은 전라남도교육감에게 귀속되고 관리는 관할 교육청에서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비는 섬마을 학교가 주민들의 땀과 노력에 의해서 형성되고,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비의 크기는 너비 45cm, 높이 140cm, 머리돌 너비 76cm, 높이 42cm이다.



### 13) 박복규 칠선영덕불망비(七善令德不忘碑)



[사진 18] 박복규 칠선영덕불망비 전면

상해도 염분동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에 조성되어 있다. 주변에 밭이 있고, 경사면 아래에 넓게 터를 잡아 비를 세워놓았다. 비의 전면에는 ‘迎秋門守門將密陽朴公七善令德不忘之碑(영추문수문장밀양박공칠선영덕불망지비)’라 새겨져 있다. 뒷면의 단기4280년 기록을 통해 1947년에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다.

비의 주인공은 밀양 박씨인 박복규(朴福圭)이다. 자(字)는 시안(時安), 호는 연익(蓮益), 정사(丁巳) 6월 5일 생이다. 37세의 나이 영추문 수문장 무과 시험에 급제한 인물이다. 영추문은 일반적으로 경북궁 서문을 칭하는 것이다. 비의 측면

과 뒷면에는 박복규의 일곱가지 선을 기록한 ‘칠선기(七善記)’가 적혀 있다. 갑오동란 시기에도 공을 세웠고, 효행 등 어린 나이에도 일곱가지 선(善)을 행하니 사방에서 칭송이 그치지 않아 그 후손들이 비를 세웠다.

## 2. 건축유적

### 1) 조사 개요

건축유적으로는 19세기 중반에 건축된 민가 건축 수채가 현존하는 정도이다. 대부분 현 대적으로 개량되거나 상당부분이 보수된 건물이 많다. 현재 기와 한옥형태의 가옥 가운데 규모와 전통성을 갖춘 대표적 건축물을 소개하였다. 또한 신의면 민가 건축의 전통성을 이해하기 위해 1987년 목포대 김지민 교수에 의해 조사된 대표사례를 당시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로서 첨부하였다. 당시 조사된 건축물들의 경우 현재는 대부분 원형

이 많이 변형되거나, 집주인이 이전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5년 전의 기록을 통해 신의면 전통가옥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함께 수록하였음을 밝혀둔다.

## 2) 박성모 가옥

안산길 65-4에 자리하고 있다. 신의면에서 현재 가장 주목되는 가옥 중 하나는 상태서리 박성모 가옥이다. 현재는 부인인 정미자씨가 거주하고 있다. 건물 내부에 남아 있는 상량을 확인한 결과 이 건물은 1977년에 이곳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거주자에 따르면 그 때 신안군 안좌면 읍동에 있던 가옥을 그대로 옮겨서 이곳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한다. 일(一)자형 구조에 정면 6칸 규모이고, 지붕의 기와가 매우 잘 보존되어 있다. 마루와 처마 끝에 유리된 창을 덧대어 설치 한 것이 특징이고, 지붕 끝에 낙수물이 모아서 흐르도록 양철시설이 첨가되어 있다. 내부 구조의 가장 특징은 집안 제사를 위한 감실이 내부 한칸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광과 제사 공간을 겸하는 마래적 기능을 하면서, 감실을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가옥 구조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신안 섬지역에도 보급되면서, 일부 개량형 가옥들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하의도의 김연 가옥(1933년 건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본건물은 박씨 종가로서 위상에 걸맞게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특히 지붕의 측면 부분에 적색벽돌로 장식되어 있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사진19] 일자형 구조의 박성모 가옥



[사진20] 가옥 내부에 별도로 설치된 감실



### 3) 조광석 가옥

상태동리 1구(가락마을 583-3)에 자리하고 있는 조광석 가옥은 일자형에 정면 5칸 규모이며, 지붕은 기와로 되어 있다. 건물 외벽에 나무 목재 사이를 토담으로 연결해 놓은 형태의 가옥이다. 상량문에 의하면 1954년에 이 건물이 조성되었음을 알수 있다. 현재 조광석씨 부부가 살고 있다. 원래 밭터였던 곳에 300평 부지를 조성하고 본 건물을 신축해서 살았다고 한다. 마을 뒷산인 대봉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에 100여년 이상 된 팽나무가 마을에 보존되어 있다.



[사진21] 가락마을 조광석 가옥

### 4) 신의면의 전통가옥(1987년 조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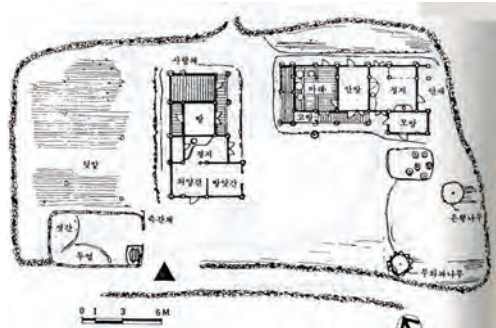
목포대 김지민 교수에 의해 1987년에 조사 보고 된 당시 신의면의 전통민가 중 대표적인 것은 아래의 표와 같다. 본 보고서에서 아래 해당 가옥의 당시 보고 내용을 축약하여 자료로 제시한다. 도면은 신안군의 문화유적(1987, 신안군)에 수록된 내용을 재인용하였다.

〈표 2〉 신의면 건축유적 목록

| 번호 | 명칭     | 위치       | 연대   | 비고 |
|----|--------|----------|------|----|
| 1  | 朴仁淑 가옥 | 상태서리 638 | 1879 |    |
| 2  | 朴文燮 가옥 | 상태서리 660 | 19C중 |    |
| 3  | 朴春安 가옥 | 상태서리 357 | 1832 |    |
| 4  | 金桂式 가옥 | 상태동리 302 | 1851 |    |

### ① 박인숙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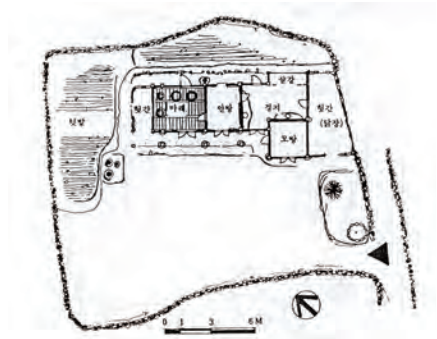
“崇禎紀元后僂己卯十一月初八日(송정  
기원후오기묘십일월초팔일)”이란 상량문  
이 있어 본 건물의 건축년대가 1879년임  
을 알 수 있다. 안채, 사랑채, 측간채 등이  
있으며, 배치는 안채와 사랑채가 뒤집어  
놓은 (ㄱ)자형으로 동쪽이 열려 있다. 측간  
채는 사랑채 안쪽에 배치되어 있다.



[도면1] 박인숙 가옥 배치도

### ② 박문섭 가옥

상량문이 없어 건축년대는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없다. 건물은 안채만이 대지의 안쪽에  
배치되어 있으며 기타 부속건물은 없다. 안  
채의 평면구조는 좌로부터 마래 1칸, 안방 1  
칸, 정지 2칸 그리고 정지 끝칸 전면으로 1  
칸 보방을 드린 이 지역 민간의 전형적인 구  
조이다.



[도면2] 박문섭 가옥 배치도



[도면4] 김계식 가옥 배치도

### ④ 김계식 가옥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측담구조의 측간채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민가이다. 안채의 건축년대는 1851년이다.  
“咸豐元年辛亥二月(함풍원년신해이월)”이란 상량문이  
있다. 사랑채는 보다는 늦은 20c초에 건립되었다.

본 가옥에서는 문간 입구에 들어서면 안채가 바로 보  
이지 않도록 담장으로 차폐시설을 하였으며 주위 담장  
은 강담으로 처리하였다. 안채 평면구성은 서쪽으로부터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배치하고 정지 전면으로는 모방을 설치하였다. 사랑채는 좌측으로부터 고방, 사랑방, 사랑정지, 외양간 순으로 꾸민 일자형(一字型) 스트레이트집이다.

### 3. 신의면의 문화인물 - 화가 홍성담

#### 1) 신의도와 민중미술가 홍성담

신의면은 하의3도와 함께 수백년에 걸친 농민들의 토지탈환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현장이다. 홍성담은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민중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의면 출신 화가이다. 그의 예술세계에는 인권과 평화로 상징되는 이지역의 문화적 전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민중미술 1세대 작가로 알려진 홍성담(1955년생)은 신의면이 배출한 한국을 대표하는 민중미술가이다. 그의 업적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하의3도 농민운동의 역사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적 이미지에 매우 잘 부합되는 예술세계를 지니고 있다. 평화와 인권이라는 하의3도의 지적 전통이 그를 통해 예술세계로 꽃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1980년대 연작 '5월판화'를 포함해 300여점의 판화작품을 남겼다.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와 수배를 받았고, 1989년 7월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보낸 걸개그림 '민족해방사'의 슬라이드 필름을 제작·배포한 주동자로 지목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간첩죄가 적용돼 7년형을 언도받았다. 상고심에서 간첩죄 등 5개 죄목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이적표현물 제작과 찬양죄를 이유로 인 3년간 복역했다.

3년간의 수감생활이 운동가에서 예술가로 변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수감 기간 동안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앰네스티본부에서 '올해의 양심수 3인'(1990년)으로 뽑았고, '양심수를 위한 독일 함부르크재단'은 그의 판화전을 개최했다. 영국 글래스고시는 '홍성담의 날'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전세계 많은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홍성담의 구명활동에 앞장서면서 그는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렇듯 그의 작품 활동은 하의3도가 지닌 수백년에 걸친 농민들의 토지탈환 운동, DJ로 상징되는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작품으로서 한국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앞장서 왔던 인물이며, 하의3도의 이미지와 가장 잘 부합되는 예술가이다.

홍성담 자신도 고향에 대한 강한 애정과 예술적 근원이 고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홍성담 화백은 ‘고향에 대한 어떤 애정을 지니고 있는지, 본인의 예술세계와 하의3도의 역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다. “예술가는 10살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내 예술의 모든 근원은 내 고향 하의도이다.”

당시 신의면이 하의면에서 분리되기 전이어서, ‘신의’라는 이름보다는 하의도라는 것이 작가에게는 더 익숙한 이름이다.

현재 하태동리 구만마을에 홍씨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홍성담 화백과 인척되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 주민들이 홍성담 화백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다.

## 2) 작가 약력

1955년에 현 신의면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1979년 ‘광주 자유 미술인회’ 조직에 참여했고,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선전요원으로 활동하였다. 같은 해 11월 첫 개인전을 가진 바 있으며, 1983년에 ‘시민미술학교’를 개설하여 미술대중화운동에 힘써왔다. 1988년에 독일 행체 화랑 초대전을 출발로 수차례의 해외전을 가졌으며, 1989년 평양축전에 ‘민족민중 미술인 전국연합’ 이 공동 제작한 「민족해방운동사」사진을 북한에 보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구속이후 독일, 영국, 미국 등지에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판화전이 있었으며, 1990년 국제 엠네스티본부에서는 예술가 3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하였다. 그의 젊은 의식전, 삶의 미술전, 우리시대 30대의 기수전, 오월미술전, 민중미술 15년 전, 동학 100주년 기념전 등 각종 단체전과 선전전에 수 십여 차례 참가하였다.

문규현 신부의 글과 홍성담의 그림으로 구성된 책 『그래도 희망입니다』(현암사, 2008)에는 홍성담 작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정의와 민중에 대해 고민하며 미술을 통한 실천 운동과 미술 대중화 운동을 펴 왔습니다. 판화, 걸개그림, 깃발 등의 친숙한 매체를 통해 민중의 삶과 해방운동, 통일운동 등을 그림으로 그려 내며 ‘5월 화가’, ‘통일 화가’라는 수식어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동아시아의 문화적 원형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림을 통해 폭력에 저항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토대로 2007년 11월에 일본 도쿄의 마키갤러리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주제로 개인전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3) 관련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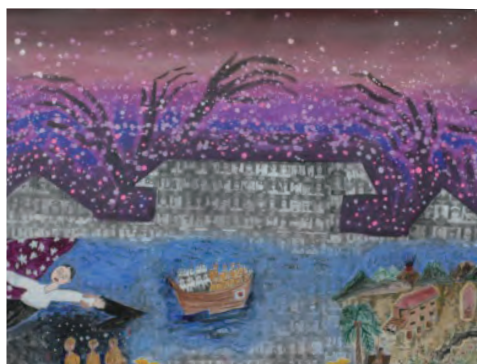
홍성담 판화 작품 이미지



독일신문에 소개된 홍성담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특별전



야스쿠니의 미망 특별전 중

## 4. 신의면 방조제

### 1) 방조제 개요

신의면은 상태도와 하태도, 그리고 주변의 작은 섬들이 간척을 통해 제방을 쌓고 연결되어 오늘의 형태를 갖추게 된 곳이다. 도서문화 연구에 있어서 방조제의 문제는 새롭게 주목되는 연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신의면에 있는 방조제의 현황을 파악



하여, 전체적인 목록과 건립년도, 규모 등을 자료로 수록하였다.

지도상에서 확인되는 방조제 명칭과 현재 신안군 방조제 관리대장에 등록된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도 상에서는 협진방조제와 삼성방조제가 별도로 명기 되어 있으나, 대장에는 누락되어 있고, 협진 방조제의 일부는 일성방조제에 포함되어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등록된 내용상 가장 빠른 시기에 조성된 것은 매월도와 매리끝(현 상태선착장)을 연결한 매리 방조제이다. 그러나 최근 신안군에 신규 등록 된 황성금리 방조제가 조성 시기가 1912년으로 되어 있어 확인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 지도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신의면의 방조제는 주로 1912년 ~ 1931년을 시작으로 하여 1940~70년대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규모가 큰 방조제는 하태동리 원항쪽에서 기상도쪽으로 연결된 ‘신제방’이다. 1975년에 염전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총길이가 2,613미터에 이른다.

## 2) 상태도와 하태도 연결과정

상태도와 하태도 두 개의 섬이 하나로 연결된 시점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상태동리와 하태동리 사이에 타리도, 피도와 연결되는 방조제가 조성되면서 하나의 섬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거쳤다.

신의면의 방조제 조성은 동쪽과 서쪽, 양쪽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1940년대에 하태동리와 피도, 상태동리를 연결하는 일성방조제가 조성되었고, 서쪽 맞은편에서는 삼성방조제가 만들어졌다. 삼성방조제와 관련 된 정확한 기록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주민들의 기억(고서임 구술)에 의하면, 1949년 무렵부터 방조제 조성이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이 발생한 이후 피난민들을 정착시키고 염전을 조성하기 위해 방조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홍완태, 홍삼표, 신승환 등 여러 지역주민들과 전쟁을 피해 피난 온 사람들이 참여하여 방조제 공사에 참여하였고, 완성된 시기는 1952년으로 볼 수 있다. 삼성방조제는 하태동리와 타리도로 연결된다.

신의면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나의 섬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섬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조금씩 간척되어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하나의 섬으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간척을 통해 방조제를 조성한 주요 목적은 염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광복 된 이후 천일염전이 신안군 도서 지역에 보급되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전

쟁이 발생한 후 피난민들의 정착을 위해 염전 조성이 활성화 되었다.

신의면의 간척사는 한국사회에서 천일염전이 조성되는 사회적 배경과 연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광복이 된 후 천일염전 개발이 민간에까지 개방되었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 소금생산의 필요성이 높아져 염전조성이 활성화되는 흐름이었다. 특히 한국전쟁 발생 후 남한 쪽에 소금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자, 천일염생산에 적지인 신안군의 각 도서에 염전을 조성하게 되었다. 염전 조성을 위해서는 간척을 통해 방조제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섬의 지형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신안군 증도면의 경우도 원래 전증도와 후증도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을 정착시키는 목적으로 섬과 섬 사이에 제방을 쌓고 태평염전을 조성하면서 하나의 섬으로 연결되었다.

앞으로 방조제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간척사, 간척을 통한 주변의 지형변화와 문화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조사한다면, 신의도 사람들의 삶의 내력과 섬 지형의 변화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피는 계기가 될 것이다.

### 3) 신의면 방조제 현황(2012.1월 현재)

| 번호<br>(등록순) | 시설명 | 소재지  | 규모(단위:m)<br>-길이, 높이 | 수해면적<br>(단위:ha) | 준공년도 | 비고 |
|-------------|-----|------|---------------------|-----------------|------|----|
| 1           | 신원  | 상태서리 | 767, 2.8            | 21              | 1970 |    |
| 2           | 소동면 | 상태서리 | 870, 2.8            | 43              | 1970 |    |
| 3           | 매리  | 상태동리 | 335, 2.5            | 28              | 1931 |    |
| 4           | 일성  | 하태동리 | 1500, 3.0           | 55              | 1942 |    |
| 5           | 당두  | 상태서리 | 1593, 3.0           | 34              | 1970 |    |
| 6           | 신제방 | 하태동리 | 2613, 3.0           | 140             | 1975 |    |
| 7           | 대장동 | 상태서리 | 580, 2.8            | 13              | 1943 |    |
| 8           | 우미  | 상태서리 | 324, 2.5            | 5               | 1945 |    |
| 9           | 두미  | 하태서리 | 250, 2.5            | 1               | 1960 |    |
| 10          | 황성  | 하태서리 | 200, 2.5            | 3.7             | 1960 |    |
| 11          | 기동  | 하태서리 | 220, 2.5            | 4               | 1940 |    |
| 12          | 송도  | 상태서리 | 1750, 3.0           | 69              | 1987 |    |
| 13          | 화랑  | 상태동리 | 1625, 3.0           | 1               | 1940 |    |
| 14          | 속전  | 상태서리 | 442, 2.5            | 10              | 1935 |    |
| 15          | 소장동 | 상태서리 | 589, 2.8            | 18              | 1940 |    |

| 번호<br>(등록순) | 시설명  | 소재지  | 규모(단위:m)<br>-길이, 높이 | 수혜면적<br>(단위:ha) | 준공년도 | 비고   |
|-------------|------|------|---------------------|-----------------|------|------|
| 16          | 가전   | 하태서리 | 437, 2.5            | 12              | 1960 |      |
| 17          | 오리평  | 상태서리 | 386, 2.5            | 6               | 1949 |      |
| 18          | 송화   | 상태동리 | 1350, 3.0           | 5               | 1954 |      |
| 19          | 그믐개  | 하태동리 | 350, 2.5            | 5.9             | 1935 |      |
| 20          | 황성금리 | 하태서리 | 150, 2.5            | 1.36            | 1912 | 신규등록 |
| 21          | 기동신  | 하태서리 | 190, 1.5            | 1.13            | 1981 | 신규등록 |

※ 이 목록은 신안군 관리대장에 근거한 것으로, 삼성방조제와 협진방조제의 경우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 5. 신의면의 인물

신의면 출신으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들의 면모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본 자료는『신안군지(2000)』에 수록된 인물, 신의면 추천 인물, 재경신의면향우회 추천인물 등을 전거로 하고 있으며, 누락된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신안군지』 개정판에 추가할 예정이다.

### 1) 신의면 출신 인물(가나다 순)

**고광남** 1954년생, 방송인,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2012년 3월 현재 YTN 상무 겸 신사업추진본부장.

**고서임** 1941년생, 신안군천일염생산자협의회 회장 역임, 4대에 걸쳐 염업에 종사하였으며, 천일염 관련 국내 최초로 식품허가를 받은바 있음.

**고순희** 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여성의 전화 지역자치위원, 광명갑 교육연수위원장, 국민대권도 세명학원 원장, 광명시 학원연합회 여성이사.

**고자산** 1919년생, 상태동리 출신, 화랑방조제 조성에 참여하고 화랑염전을 개척한, 초기 천일염 생산에 노력, 현 신의면에 지서 및 출장소 유치, 초등학교 인가 등 지역발전에 많은 공을 세움.

**고장명** 1902~1969, 하태서리에서 출생, 1920년대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노동운동에 종사, 1927년 1월 최용도와 함께 하의노동청년회를 결성, 하의3도농민운동 관련 1928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속되었다가 무죄석방.

**김유배** 1943년생, 상서3 출신, 연세대 졸, 미일리노이대학교 졸, 경제학박사, 성균관대 교수, 청와대 노동복지 수석비서관, 국가보훈처장,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남도학숙원장, 재경신안군향우회장 역임.

**김정택** 성균관대 교수

**박대환** 1954년생, 상서4 출신, 목포고 졸, 충남대에서 독일문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 현 조선대학교 독일어학과 교수, 조선대 외국어대 학장 역임, 현 조선대 문화산업연구원장, 한국독일어문학회 회장, 저서로 『카프카 문학사전』, 『듀렌마트 문학연구』 등이 있음.

**박상철** 1935년생, 전 경찰공무원, 총경 역임, 전남대학교 졸업,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무과 과장 역임.

**박용찬** 1955년생, 상태서리 출신, 제5대 신안군의회 의원 역임, 현 제6대 신안군의회 의원.

**박유환** 1964년생, 의학박사, 현 첨단박유환내과의원 원장, 남부대학교 대체의학과 겸임교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근로복지공단 자문 의사, 첨단종합병원 원장,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역임. 2004년 국제인명센터 '21세기 2000명의 탁월한 지식인' 선정.

**박재우** 상태서리 출신, 서울염전 개척, 1949년 무렵부터 천일염을 시작, 초기 천일염 생산에 노력.

**박재웅** 1974년생, 상서1 출신, 변호사, 명지대 법학과 졸업, 현 변호사박재웅법률사무소 대표.

**박정수** 1967년생, 상서2 출신,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현 법무법인단원 변호사.

**박철구** 1957년생, 상서1 출신,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센트럴미시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취득,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진출. 관세청 혁신기획관,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역임. 2012년 2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박흥기** 1971년생, 상서4 출신, 검사, 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검사. 해남지청 검사 역임.

**신승한** 하태동리 출신, 노은리 개발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 많은 공을 세웠고, 노은리에서 최초로 천일염을 시작함.

**양영대** 경기도 안산 소재 피혁제조업체 (주)해성아이다 대표이사, 해성아이다는 2007년 수출1억불탑을 수상하고 대통령상 수상, 미국 등에서 가족을 들여와 가공염색을 거쳐 역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샤넬, 구찌, 루이비통, 프라다 등 명품 브랜드 가방원단 공급.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제2대 이사장, 한양대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장, 상록이업종교류회 초대회장.

**윤대원** 목포 영동치과원장

**윤상욱** 1939년생, 하태동리 출신, ~~신안군의회~~ <sup>신안군의회</sup> 초대의원, 군의회 3선의원을 역임. 제2대 신안군의회 상반기 의장 역임. 2007년 10월 22일 별세.

**윤영옥** MBC논설위원, 2007년도 MBC연구대상에서 라디오 부문 특별상을 수상함. 보도국통일외교부장.

**윤창욱** 1952년생, 하동2 출신, 국방부 전기획조정관 지냄,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총괄조정담당관. 2005년 방산수출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 수상.

**이선우** 서울시 의원 역임.

**임신경** 1954년생, 전 행정공무원,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장,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역임.

**임종성** 1960년생, 상동1 출신, 행정공무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버밍엄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과장, 기획예산처 재정협력팀 팀장, 대통령 비서실 사무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등 역임. 2012년 3월 현재 조달청 전자조달국장.

**전정호** 1961년생, 화가, 1980년대 후반 이후 리얼리즘 미술운동에 앞장. 인권과 통일, 민족해방 등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원에 재학 중 이상호와 함께 제작한 대작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과 구속고문을 받음. 조직미술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걸개그림과 판화 작품을 창작. 민주화운동과 예술적 실천을 병행하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회화작품으로 승화시켰음.

**조홍식** 전 교육인, 나주동강 남초등학교 교장 역임. 정년퇴직

**한현섭** 1958년생, 하서2 출신, 국립수산물학원 생명공학연구단 박사, 갯벌연구소 소장역임.

**홍삼표** 하태동리 구관리 출신, 일성방조제 조성에 참여하고, 일성염전을 개척함.

**홍성구** 언론인, 광남일보 기자로 활동.

**홍성담** 1955년생, 상서 출신, 화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졸업. 1979년 '광주 자유 미술인회' 조직에 참여,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선전요원 활동. 한국을 대표하는 민중미술가, 판화작가.

**홍영기** 1956년 생, 하동1 출신, 서울경찰청장을 지냄, 정치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사,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경찰공제회 이사장,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전남지방경찰청 청장 역임. 2004 홍조근정훈장, 1998 근정포장 수상.

**홍완대** 하태동리 구관리 출신, 삼성방조제 조성에 참여하고, 삼성염전을 개척함. 신의남교 발전에 큰 공을 세워, 주민들이 세운功德비가 있음.

**홍현선** 1952년생, 하동1 출신, 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심의관부이사관.

**황남진** 1941년생, 상태서리 출신, 제4대 신안군의회 의원 역임.

## 2) 역대 신의면 면장

**김서인** 제1대 신의면장, 재임기간, 1983. 02. 15 ~ 1986. 02. 17

**박판순** 제2대 신의면장, 재임기간, 1986. 02. 18 ~ 1993. 07. 01

**박종훈** 제3대 신의면장, 재임기간, 1993. 07. 02 ~ 1997. 07. 23

**김철수** 제4대 신의면장, 재임기간, 1997. 08. 05 ~ 1998. 05. 10

**조서익** 제5대 신의면장, 재임기간, 1998. 05. 11 ~ 1998. 09. 22

**김상옥** 제6대 신의면장, 재임기간, 1998. 09. 23 ~ 2001. 07. 24

**이양호** 제7대 신의면장, 재임기간, 2001. 07. 25 ~ 2002. 09. 30

**정회국** 제8대 신의면장, 재임기간, 2002. 10. 01 ~ 2004. 09. 30

**박춘안** 제9대 신의면장, 재임기간, 2004. 10. 01 ~ 2005. 03. 01

**김익수** 제10대 신의면장, 재임기간, 2004. 03. 02 ~ 2006. 01. 26

**양재우** 제11대 신의면장, 재임기간, 2006. 01. 27 ~ 2007. 03. 30

**윤근학** 제12대 신의면장, 재임기간, 2007. 05. 09 ~ 2010. 12. 22

**김성갑** 제13대 신의면장, 재임기간, 2010. 12. 23 ~ 2011.08.19

**이충만** 제14대 신의면장, 재임기간, 2011. 08. 20 ~ 현재

## 6. 역사문화유적 활용방안

### 1) 공덕비 관련 안내문 설치 및 활용

#### ① 상태서리 공덕비군 정비 및 안내문 설치

이호준불망비 등 4기의 비가 한자리에 세워져 있는 상태서리 소장동은 신의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첫 길목에 해당한다. 공덕비 비군의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해당 비와 지역 문화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선사항** : 주변 환경 정비, 안내문 설치

• **활용방안** : 신의면의 대표적인 문화유적 중 하나로 명소화.

하의3도 농민토지탈환운동의 역사를 설명하는 답사 포인트로 활용.



## ② 혼질 해안가 허계 선정비 탐방로 및 안내문 설치

허계 선정비가 있는 혼질 해안은 과거에 목포나 주변 도서로 드나드는 배가 다니던 나루였다. 해안가 절벽 같은 곳에 수군절도사의 공덕비가 있다는 자체가 매우 희소성이 있으므로, 혼질나루 연결되는 탐방로를 조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허계 선정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조선후기 도서지역의 사회상과 허계라는 인물의 내력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조성하여 문화유적 탐방로 및 교육현장으로 활용한다.

- **개선사항** : 진입로 및 탐방로 정비, 안내문 설치
- **활용방안** : 문화재 탐방코스로 활용.  
주변의 해안을 활용한 산책코스로 개발.  
신의면 모실길 개발시 중용한 탐방포인트로 활용.  
해안전망대(경치좋은 곳) 조성.

## ③ 섬마을 탐방프로그램 코스로 활용

신의면에 산재한 10여 개의 공덕비는 제 각기의 지역문화상을 반영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신의면의 마을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와 연계하여 10개의 공덕비를 탐방객이 거쳐 가는 포인트로 설정하여 활용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인근 한 몇 개의 마을을 순회하는 섬마을 모실길을 설정하고, 각 마을마다 존재하는 노거수, 공덕비 등 각종 문화유산을 탐방포인트로 활용한다.

- **개선사항** : 섬마을 탐방을 위한 관광지도 개발. 마을 탐방코스 프로그램 개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동선 코스 설정.
- **활용방안** : 이야기가 있는 신의도 마을 탐방 프로그램 활용.  
신의도 답사여행 코스로 홍보.

## 2) 신의도 1박 2일 체험프로그램 개발

신의도는 KBS해피선데이 1박 2일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서 소개된 엽전체험, 개메기체험 등에 호기심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상설적으로 체험할 만한 체험마을이나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

서 '신의도 1박 2일'이라는 이름으로 신의도의 곳곳을 체험할 수 있는 탐방코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개선사항** : 1박 2일 프로그램 설정, 체험 장소 설정 및 육성.  
 염전체험, 마을체험, 개메기체험, 모실길 돌기, 굴암 탐험, 안산성 등반, 상서고분군, 생태체험, 야생화 체험 등을 내용으로 상설 프로그램 개발.  
 1박 2일 전문체험가이드 육성.
- **활용방안** : 신의도 관광프로그램으로 공식화.  
 주말이용 섬마을투어 프로그램 상설화 시도.  
 관광체험마을 육성.

### 3) 혼질 나루 체험장

혼질 나루는 상태도에서 육지 및 타섬으로 연결되던 대표적인 나루터로서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주변의 해안 경관과 허계 선정비 등을 활용하는 주변의 산책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혼질나루를 나루터 체험장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섬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나룻배를 전시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 **개선사항** : 나루터 문화를 소개하는 안내문 설치.  
 나루터로 진입하는 탐방로 정비.  
 주변 경관을 활용한 쉼터 조성.
- **활용방안** : 신안 전통 나룻배, 한선 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  
 나룻배 체험장으로 노젓기 등 체험활동.  
 보트 및 레저 활동 공간으로 활용.

### 4) 홍성담 신안생태아트갤러리

세계적인 민중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홍성담 작가의 미술세계와 신안군의 전통문화를 융합시킨 체험형 갤러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하의3도 농민운동을 주제로 한 연작, 셋김굿, 강강술래, 소작쟁의 등 신안 역사를 주제로 한 생태문화 작품으로 갤러리 구성. 걸개그림으로 상징되는 미술관 조성. 갤러리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하의와 연도 되

있을 때를 고려해서 가장 적지에 선정할 필요성이 있음. 하의도 평화공원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으며, 남초등학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개선사항** : 부지 선정, 홍성담 마을 활용, 홍성담의 고향 홍보.
- **활용방안** : 신안의 생태, 민속, 역사 등을 활용한 대작 시리즈로 작품화.  
민주화 운동의 상징, 걸개그림 야외전시공간 조성, 체험장활용  
판화미술관 및 체험장 조성.  
신의 천일염을 주제로 한 기획실도 조성 가능

#### 참고문헌

최성환, 『신안의 문화유산』, 신안군·신안문화원, 2008.

목포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신안군』, 2008.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1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⑩

# 신의면편

---

## IV 민속사회

송기태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조사 개요 72
2. 생태인지 ‘바람과 물때’ 73
3. 생업활동 ‘농사와 어로활동, 염전간척’ 78
4. 문화소통로 ‘나룻배와 노두’ 88
5. 공동체 신앙과 어로신앙 94
6. 가정신앙 ‘성주, 조상, 조왕, 지앙’ 107
7. 열두달 세시풍속 109
8. 활용방안 121



## IV 민속사회

### 조사 개요

신의면 민속문화자원으로 생태인지, 생업, 나룻배와 노두, 당제와 뱃고사, 가정신앙, 세시풍속 등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생태인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상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사례로서 바람과 물때를 파악했다. 조사는 2011년 8월 22일, 10월 9일~10일, 12월 30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생업으로는 농사와 어업, 염전 간척 등을 조사했다. 신의면은 전통시대에 농업을 주로 하던 섬이었다. 생업적인 측면에서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데, 상태도는 농업이 강하고 하태도는 어업이 강하다. 어업에서는 굴암리의 해조류 채취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염전 간척은 상태서리에서 간척을 진행했던 당사자들을 만나서 간척 당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신의면을 공간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나룻배와 노두를 조사했다. 나룻길과 노두길은 섬과 섬을 치밀하게 연결해주고 있었다. 상태도와 하태도는 노두로 길게 연결되었고, 상·하태도와 하의도는 각각 나룻배를 통해 연결되었다.

당제와 뱃고사는 기존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신의면의 경우 당제나 뱃고사가 전승되지 않



는다. 신안군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간신앙이 중단되거나 소멸한 상태다. 중단되거나 소멸해 있다. 그래서 기존 보고서를 원용하고, 현지조사는 대강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쳤다.

가정신앙은 성주와 조상, 조왕, 지왕에 대해 파악했다. 한 집의 사례를 파악했지만 다른 가정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체적으로 가정신앙 자체가 쇠락하고 있는데, 제사를 모시는 집에서는 성주와 조상에 대한 관념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시풍속은 주로 20~30여년 전까지 행해지던 풍속을 조사했다. 세시풍속의 대부분은 명절과 정월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정월 14일~15일에 의례와 관행이 집중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현상과 비슷한 양상이다.

## 2. 생태인지 ‘바람과 물때’

〈표1〉 바람과 물때 목록

| 항목 |            | 내 용       |           |           |           |           |           |          |          |          |          |          |          |          |          |          |     | 지역       | 비고 |
|----|------------|-----------|-----------|-----------|-----------|-----------|-----------|----------|----------|----------|----------|----------|----------|----------|----------|----------|-----|----------|----|
| 바람 | 풍향         | 북풍        |           | 북동풍       |           | 동풍        |           | 남동풍      |          | 남풍       |          | 남서풍      |          | 서풍       |          | 북서풍      |     | 상태<br>서리 | 신규 |
|    | 명칭         | 하늬바람      |           | 높새바람      |           | 셋바람       |           | 셋마       |          | 마파람      |          | 늦마       |          | 늦바람      |          | 늦하늬      |     |          |    |
| 물때 | 날짜<br>(음력) | 25/<br>10 | 26/<br>11 | 27/<br>12 | 28/<br>13 | 29/<br>14 | 30/<br>15 | 1/<br>16 | 2/<br>17 | 3/<br>18 | 4/<br>19 | 5/<br>20 | 6/<br>21 | 7/<br>22 | 8/<br>23 | 9/<br>24 | 굴암리 | 신규       |    |
|    | 물때         | 한물        | 두물        | 서물        | 너물        | 다섯물       | 여섯물       | 일곱물      | 여덟물      | 아홉물      | 열물       | 열한물      | 한객기      | 두객기      | 조금       | 무수       |     |          |    |



그림 1. 풍향과 명칭

조사일시 : 2011. 12. 30  
조사장소 : 신의면 상태서리 노인회관  
제 보 자 : 박홍대(남, 노인회장 1943년생) 외

상태서리에서 바람에 대한 명칭과 그 특징을 조사했다. 8개 방위에 대한 바람의 명칭과 특징을 파악했다. 8개 방위 중에서 동서남북의 기본 4방위가 바람 명칭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북풍은

하누바람이고, 서풍은 늦바람이다. 그래서 북풍과 서풍의 사이에 있는 북서풍은 늦바람의 ‘늦’과 하누바람의 ‘하누’를 결합하여 ‘늦하누’라고 부른다.

바람과 관련되어서 특징적인 점은 비가 오는 것을 짐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방위의 바람은 비를 몰고 온다거나, 같은 바람이라도 계절에 따라 비가 오거나 가물다고 예측한다. 바람의 명칭과 방위, 특징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2. 바람의 명칭과 특징

| 풍향  | 명 칭  | 특 징                                                                                         |
|-----|------|---------------------------------------------------------------------------------------------|
| 북 풍 | 하누바람 | 겨울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많이 불기 때문에 ‘하누바람이 불면 춥다’ 고 한다.                                |
| 북동풍 | 늪새바람 |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새바람이 섞여서 비가 온다’ 라고 한다.                                                     |
| 동 풍 | 새바람  | 봄에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새바람이 불면 비가 오기 때문에 ‘비올 바람’ 이라고도 한다.                                       |
| 남동풍 | 새마   | 남동쪽에서 불어오고 비를 동반한다.                                                                         |
| 남 풍 | 마파람  | 남쪽에서 비교적 세게 불어오고, 비를 동반하지 않는다.                                                              |
| 남서풍 | 늦마   | 늦바람과 마파람 사이에서 분다고 하여 ‘늦마’ 라고 한다.                                                            |
| 서 풍 | 늦바람  | 여름에 가장 많이 부는 바람이다. 늦바람이 봄에 불면 날씨가 가물고, 가을에 많이 불면 비가 온다. 그래서 ‘봄 늦은 가물 늦, 가을 늦은 비올 늦’ 이라고 한다. |



사진1. 상태서리 노인정에서 면담에 응하는 주민들.

## 2) 물때에 대한 인지

조사일시 : 2011. 10. 9~10

조사장소 : 신의면 하태동리 굴암마을

제 보 자 : 곽재구(남, 1940년생)



사진2 굴암마을 제보자 곽재구(남, 1940년생)

### 보름 단위의 물때

신의면에서는 물때를 ‘한물’부터 ‘열한물’까지 세고, 그 다음 물때부터는 한객기, 두객기, 조금, 무수 등으로 세어나간다. 물때를 셀 때는 ‘~물’이라고 세는 것이 보통이지만, ‘~무새’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할 때가 있다.

물때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여 보름 단위로 세어나간다. 따라서 음력 1일부터 15일까지의 물때와 16일부터 30일까지의 물때가 같다. 그런데 주민들은 같은 물때라도 보름이 되는 물때와 그믐이 되는 물때의 조류를 구분한다. 보름과 그믐의 물때는 모두 여섯물에 해당하는데, 보름에 드는 여섯물에는 물살이 약하고, 그믐에 드는 여섯물에는 물살이 세다고 한다.

물때를 음력으로 세기 때문에 29일까지만 있는 달에는 물때를 건너뛰어서 센다. 따라서 음력이 29일까지만 있을 경우에는 “다섯물도 되고 여섯물도 된다.”고 하여 두 물때를 한꺼번에 센다.

표3. 물때의 명칭과 특징

| 음력 날짜     | 물 때      |    | 조류에 대한 인지                      |
|-----------|----------|----|--------------------------------|
| 25일 / 10일 | 한물       | 조금 | 물이 속도 오르기 시작한다. 물고기의 먹이활동 기간.  |
| 26일 / 11일 | 두물       | 조금 | 물이 속도가 올라서 살아난다. 물고기의 먹이활동 기간. |
| 27일 / 12일 | 서물(세물)   |    | 물이 속도가 올라서 살아난다. 물고기의 먹이활동 기간. |
| 28일 / 13일 | 너물(네물)   |    |                                |
| 29일 / 14일 | 다섯물      |    | 29일까지만 있을 경우 다섯물과 여섯물 통합       |
| 30일 / 15일 | 여섯물      |    |                                |
| 1일 / 16일  | 일곱물      | 사리 | 물살이 세다.                        |
| 2일 / 17일  | 여덟물      | 사리 | 물살이 세다.                        |
| 3일 / 18일  | 아홉물      | 사리 | 물살이 세다.                        |
| 4일 / 19일  | 열물       |    |                                |
| 5일 / 20일  | 열한물      |    | 물의 유속이 줄어서 ‘죽는 물’ 이라고 한다.      |
| 6일 / 21일  | 한객기(객기물) |    | 물고기가 이동하기 좋은 물이다.              |
| 7일 / 22일  | 두객기      | 조금 | 물고기가 이동하기 좋은 물이다.              |
| 8일 / 23일  | 조금       | 조금 |                                |
| 9일 / 24일  | 무수       | 조금 | 물의 유속이 가장 느리다. 물고기의 먹이활동 기간.   |

## 조금과 사리

물때를 물의 세기에 따라서 ‘조금’과 ‘사리’로 구분한다. 조금은 음력 7일(두객기)부터 11일(두물)까지의 기간으로 물살이 약한 시기를 지칭하고, 사리는 음력 1일(일곱물)부터 3일(아홉물)까지의 기간으로 물살이 센 시기를 지칭한다. 조금과 사리 기간은 명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 기간을 짧게 잡을 수도 있고, 넓게 잡을 수도 있다.

조금과 사리를 중심으로 하여 조금을 지나면서부터 물살이 세지기 때문에 한물부터 세물까지는 ‘물이 살아난다’라고 하고, 사리를 지난 열한물에는 물살이 약해지기 때문에 ‘물이 죽는다’라고 한다.

“한객기 두객기가 그 거시기 고기가 제일 이동이 하기 좋은 물이여 이 물이. 그라고 무수에서, 인자 조금이 넘고 무수에서 한물, 두물, 서무새날까지 고기라든가 이런 것이 먹이를 구하러 많이 이동하는 때예요. 물이 이렇게 살어 여그는. 열한물에서는 물이 죽은 물이고 무수에서 한물, 두물, 서물까지는 물이 산 물이고 유속이 빨라진 그 시간이라 그말이여. 사리에서 물이 이렇게 속력이 바까진 저속으로 바까져. 기계 같은 저속이고 인자 조금에서 아니 무수에서 한물, 두물, 서물까지는 유속이 빨라질 그 시기를 ‘물이 살아난다’ 대개 그렇게 부르고.”

물때를 보면서 물고기의 생태도 짐작한다. 보통 한객기부터 서물까지는 조금기간과 맞물려서 물살이 약하기 때문에, 이때 물고기가 이동을 많이 하고 먹이활동을 하는 것으로 짐작한다.

## 산짐과 걸사리·죽사리

물때가 조금을 지나면서 조금씩 세지기 시작하면 물이 살아난다고 하여 ‘산짐’이라고 한다. 그런데 산짐의 시기가 한물 때부터 많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의 사리기간에는 물살이 평소보다 세다. 그래서 한물(한무새)이나 두물(두무새) 무렵의 물살을 보면서 사리 때의 물살을 점친다. 보통 한물 무렵에 물이 많이 들면 “사리 때에 물이 많이 들 것이다.”고 하고, 이때의 사리를 ‘걸사리’라고 한다. 반대로 물이 적게 드는 사리를 ‘죽사리’ 또는 ‘죽사리’라고 한다.

“겉사리. 한무새날이나 두무새날 보든 물이 많이 전 수위보다 좀 높아. ‘저 사리에 물이 많이 들란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요. 그라고 물이 거시기 저 적게 인자 쓰요. 적게 쓰든 ‘아! 이 사리는 족사리다.’ 그래요. 물이 팍 죽으블든 적게 써브려요. 족사리라는 것은 물이 안 쓴단 사리란 그 말이며. 이 겉사리는 물이 많이 쓴단 것이고. 그라고 이 족사리는 물이 덜 안 쓴단 그 말이며.”

“[어르신 아까 산짐 그거 말씀하신데 산짐은 뭐예요?] 산짐은 물이 이렇게 인자 사리가 닥칠라든 물이 많이 든 것보고 산짐이라혀. [사리 닥쳐가지고?] 아니, 닥치려고 물이 많이. 조금에 느닷없이 물이 많이 들것소. 그것보고 ‘이 사리는 물이 많이 들란가보다.’ 그렇게 해요.”

## 유두사리와 백중사리

1년 중 물이 가장 많이 들고 나는 때가 유두나 백중이다. 해에 따라서 유두에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클 때가 있고, 백중에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클 때가 있다. 유두나 백중 기간에 물이 가장 많이 들고 많이 빠지기 때문에 ‘유두사리’와 ‘백중사리’를 특별히 기억한다.

## 가을물과 봄물

현지 주민들은 물때에 민감하기 때문에 달력이나 조수표를 보지 않고도 물때를 알고 예측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인지는 달을 보고서 판단한다. 달의 위치를 보면서 사리 때의 물살을 가늠하기도 하고, 계절의 물때를 가늠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계절에 따라 달이 뜨는 지점을 달리하기 때문에 달의 위치 변화를 보면서 물의 흐름을 짐작한다.

“그라믄 우리는 보통 인자 아 이 달만 보고도 ‘이 사리는 물이 좀 더 들란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달 보고 이러는 것은 물때를 한 것 아니요. (중략) 여름에가 물이 많이 들제. 그라고 음력으로 8월이 가까워지믄 가을물이 많이 들고. 그라고 낮물이 많이 들어. 낮에가. 그라고 봄 되믄 밤물이 많이 들고 그래요. 봄철 되믄 밤에가 수위가 높고, 가을철 되믄 낮이 수위가 높다 그렇게만 쓰믄 될 것이요. 여그서 보면은 보통 ‘가을물’, ‘봄물’ 그래요. 지방마다 다 틀리니까 우리 고향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8월 쇠믄 무조건 가을 거시기여. 8월 보름 추석 쇠믄은 가을물이 많이 들어. 그



라고 또 이렇게 가을이 빠르믄 거시기 저 추석되기 전에 물이 또 많이 들기도 하고 그  
래. 저 물 든 데 보믄은 알아요. 물 들믄 ‘물이 가을 닥쳤는가베다’ 그래요. 물이  
많이 들믄. 그라고 설 쇠고 봄이 안 돼요? 그라믄 밤에 물이 나가서 이렇게 보믄  
‘아따 봄 되얏는 것이다’ 이렇게 대충.”

계절에 따라 8월 추석이 되면 ‘가을물 든다’고 하고, 입춘이 되면 ‘봄이 닥친다’라고 한  
다. 8월이 되어서 가을물이 들면 낮에 물이 많이 든다. 그리고 입춘이 되어서 봄물이 들면  
밤에 물이 많이 든다. 가을물이 되면 물살이 점점 세진다.

### 3. 생업활동 ‘농사와 어로활동, 염전간척’

〈표4〉 주요 농작물과 해조류 목록

|        | 품 종   | 수확시기        | 조사지역 | 비고 |
|--------|-------|-------------|------|----|
| 농 사    | 보리    | 음력 4월(망종)   | 굴암리  | 신규 |
|        | 고구마   | 음력 9~10월    |      |    |
|        | 나락    | 음력 8~9월     |      |    |
| 해조류 채취 | 미역    | 음력 6월 그믐~7월 | 굴암리  | 신규 |
|        | 툇     | 음력 6월 그믐~7월 |      |    |
|        | 가사리   | 음력 7월       |      |    |
|        | 우뭇가사리 | 음력 7월       |      |    |

#### 1) 전통시대 농사와 농작물

조사일시 : 2011. 10. 9~10

조사장소 : 신의면 하태동리 굴암마을

제 보 자 : 곽재구(남, 1940년생)

전통시대 신의면 사람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삼았다. 현재는 갯벌을 간척하여 염전을 만  
들고 그것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간척은 해방 이후에 진행된 것이다. 어업  
과 관련해서는 하태도 지역이 발달해있었다. 현재까지도 상태도 지역은 어업인구가 거의  
없는 편이고, 하태도 지역에서 양식업이나 어선어업을 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계가 발달  
하기 이전 굴암마을의 농사와 농작물을 파악한다.

“곡식이 없어 죽을 환경이 되도 종자는 비고 잠잔다고. 거 종자는 이녁이 농사짓기 때문에 항상 이녁이 딱 준비, 내가 뗏 마지기 갈든 뗏 말이 필요하다고 대개 낙낙하게 넘겨놔. 인자 수 마지기 간다 하든, 한 가마니가 필요하든 한 가마니 더 넘겨놔요 낙낙하게. 그라고 나중에 식량하고 뭐 그런 형태고 그라고 인자 토비, 금비, 비료 이런 거 미리서 다 준비해놓지요. 그라제 서로 옛날에 시방 간다 하든 십 분도 안 걸려. 트랙터 같은 걸로 쳐붙든 하루에 몇 십마지기씩 갈아부려. 그란디 옛날에는 거 놈을 갈라든 인자 쟁기질 한 두세 볼 해요. 그라고 덩어리 막 치고. 그렇게 해갖고 비료 뿌리고 그렇게.”

농사의 주된 작물은 나락과 보리, 고구마였다. 이외에 콩이나 깨, 조, 고추 등을 재배했다. 현재도 농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된 소득의 수단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 보리농사

가을이 되면 쟁기질을 하고 파종을 한다. 쟁기질을 세 벌 정도 해야 덩어리가 깨진다. 쟁기질은 밭의 토질에 따라 그 깊이를 달리하는데, 밭이 비옥하고 소가 쟁기를 잘 끌면 쟁기질을 깊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얇게 간다. 쟁기질은 너무 얇게 갈아도 안 되고, 너무 깊이 갈아도 ‘생땅이 일어난다’고 하여 곡식이 안 된다. 보통 좋은 밭은 20cm정도 깊이로 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15cm 정도의 깊이로 간다.

마지막 세 벌 쟁기질을 할 때 파종을 하고 흙으로 덮는다. 이때가 음력 9월 중순 무렵이다. 파종 이후에는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설달이 되면 싹이 튼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음력 2월 초에 웃거름을 한다. 거름은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구분하는데, 밑거름은 처음 쟁기질을 할 때 거름을 주는 것이고 웃거름은 봄에 보리 이삭이 나왔을 때 하는 거름이다. 밑거름은 볏짚 등을 썩힌 두엄으로 만든 퇴비이고, 웃거름은 화학비료로서 금비라고 한다.

이후 음력 2월~3월 사이에 호미로 김매기를 한다. 대개 보름 정도의 간격을 두고 품앗이로 두 차례 김매기를 한다. 김매기를 마치고 음력 4월 망종 무렵이 되면 보리를 수확한다. 보리를 수확한 후에는 다시 밭을 갈아서 콩이나 녹두, 깨, 조 등을 심는다.

### 고구마농사

고구마는 종자 관리가 중요하다. 사람의 체온과 비슷하게 따뜻한 곳에서 관리하여 순을

띄워야 한다. 그래서 불 때는 방에 놓아서 관리하다가 순이 나오면 음력 2월에 심는다. 최근에는 정월 중순에도 심지만, 과거에는 일찍 심으면 얼어죽기 때문에 대개 2월 그믐 경에 심었다. 보통 입춘을 넘어서면 땅에서 찬 기운이 빠지고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보아서 씨고구마를 심는 것이다.

“사람 온도하고 맞히믄은 고구마가 자연적으로, 사람 온도 벗어나믄 썩어브러. 그 란께 어린애같이 그라고 취급을 해야 고구마가 지대로 이렇게 순이 이렇게 나와요 호 칸 순이. 그놈을 갖다가 정월 그믐이나 2월 초순에 갖다 인제. 땅이 파수와 그때는, 온도가 좀 파습게 올라와져 그렇게 하면, 입춘이 넘어지믄 땅이 찬기가 빠져브러. 그렇게 하니까 그 입춘 거시기 저 봄이 들고 난 뒤로 그걸 넣어야 되야.”

씨고구마를 심어서 순이 나오면 고구마 순을 서너 매듭씩 잘라서 심는다. 이때가 보통 망종을 넘길 무렵이다. 고구마 순을 심기 전에 먼저 쟁기로 땅을 갈아서 발두독을 만들어 놓는다. 이 무렵에는 수분의 공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구마 순을 심어놓고 물을 주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시기에 비가 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두독 위에 보릿대 등을 덮어서 햇볕을 가린다.

고구마의 경우 특별히 거름을 많이 주지 않는다. 발두독을 만들 때에 밑거름을 조금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거름을 주지 않고 바로 심었다. 고구마는 거름이 많으면 썩어버리고, 거름을 주지 않아도 생육이 잘 된다. 이렇게 하여 고구마가 자라도록 하여 음력 9~10월에 수확을 한다. 보통 심은 후 100일 이후면 캐서 먹을 수 있는데, 일찍 캐면 맛이 들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캐서 먹어보고 맛있을 때 수확한다.

## 논농사

논농사는 겨울부터 논을 고르고 봄에 파종을 한다. 본격적인 농사는 못자리를 만들고 벼씨를 뿌리는 것부터다. 4월에 못자리를 만들면서 벼씨를 물에 담가서 싹을 띄우는 침종(浸種)을 한다. 벼씨를 일주일 정도 물에 담가서 건져놓고 따뜻한 곳에 보관하면 싹이 튼다. 보통 물에서 건진 후에 자루에 담아서 별이 잘 드는 마당에 놓고 흙을 바른다. 그러면 10일 정도 후에 싹이 트고, 이것을 못자리에 뿌린다.

“벼 종자를 담그믄 한 일주일씩 담가놔요. 항에다가, 담가서 그 물을 받아불고 새

로 담가갓고 인자 그 놈을 놔뒀다가 일주일 있다 건져갓고 옛날에는 항에다 그 물 빠지른 딱 담가갓고 얹어서 딱 이렇게 흙을 불라놔요. 마당에다가. 딱 해놓고 인자 그 라몬 햇볕 받아서 따뜻할 거 아니요 햇빛이 그라몬 인자 그 속에서 한 그것도 한 10일 걸신 되도록 놔두믄은 축이 하얗게 뿌리가 남시롱 축이 터요. 그라몬 그때에 쟁기 질 해갓고 씨레질 해갓고 논에다 뿌리지라.”

쟁기질과 씨레질을 해서 판판한 못자리를 만들고 그 위에 볍씨를 뿌리면 5월 무렵에는 모내기가 가능할 정도로 자란다.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논을 갈고 거름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겨울부터 5월 모내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을 갈고 씨레질을 한다.

보통 음력 5월에 모심기를 하는데, 물관리가 잘 되지 않거나 수리시설이 미비한 경우에는 6월 유두에 모를 심기도 했다. 모를 심은 후에는 바로 밑거름으로 비료를 뿌린다.

모를 심은 후 보름 정도의 터울을 두고 서너 차례 김매기를 한다. 하태도 굴암리의 경우는 농토가 적고 벼농사의 비중이 많지 않아 김매기를 두 번 정도 했다. 김매기 중간인 6월에 웃거름을 주고 8월 추석 이후에 수확을 했다.

## 2) 해조류 채취에서 양식어업으로

조사일시 : 2011. 10. 9~10

조사장소 : 신의면 하태동리 굴암마을

제 보 자 : 곽재구(남, 1940년생)

### 해조류 채취조직과 구역 ‘뚝’

신의면 굴암리는 주로 바다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농사의 경우 농토가 적어서 밭농사만 겨우 짓는 정도였다. 그래서 더욱 바다에 의존했는데, 주된 수익원은 미역이었다. 그래서 미역을 팔아 식량을 구입했다.

“바다에 의존을 많이 했죠. 그라고 인자 그때 이 바다 뒤에가 미역이 많이 질었어요. 지금도 많이 질었제마는 그때는 더 많이 질었어요 미역이. 그라몬 미역이 일 년에 팔믄 얼마 그라몬 식량 같은 거 팔아놓고 그것이 많이 있었죠.”

굴암리는 해안가를 ‘뚝’이라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해조류를 채취했다. 해조류 채취와 관련하여 ‘뚝’이나 ‘주비’ 등은 전통적인 해조류 채취조직이면서 채취구역을 지칭하는 용어다. 굴암리의 경우 과거에는 세 개의 뚝으로 ‘신촌뚝’, ‘중간뚝’, ‘건너미뚝’이 존재했다. 신촌뚝은 주로 신촌마을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중간뚝과 건너미뚝은 굴암리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건너미뚝의 경우 굴암리에서 조금 떨어진 건너미라는 곳에 몇 가구가 살았기 때문에 건너미 사람들과 굴암리 본 마을 사람들을 합쳐서 구성했다.

“신촌하고 굴암리가 하믄은 간당간당 한께 뚝 그래갓고 세 뚝으로 나뉘었어요. 신촌 한 뚝, 그라고 중간뚝, 건너미뚝이 있고, 세 뚝을 만들었어요. 그라믄 일 년에 1번이 했으면 그다음은 2번이 해 1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 바다에 가믄 표시가 있어. ‘여까지는 매믄 안 된다’ 그래갓고 그 사람들도 거그만 딱 매고 그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매고 그래요.”

“바다 해초는 다 뚝으로 나뉘서 했어요. 해초는 일절 또 이렇게 가서 ‘뚝이 필요 한께 내가 매러 왔다’ 그런 것은 없고, 그런 거는 불법이고. 그라믄 일절 마을에서 ‘우리 뚝에는 오늘 뚝을 매러 가야 된다.’ 그라믄은 딱 가서 이녁 뚝만 매, 다른 거는 일체 손 안대. 그렇게 하나까 규칙은 상당히 잘 정해졌어요. 만약에 뚝을 몰래 매와분다 하믄 그거이 갯발 짓을 안 줘브러. 그라고 갈 생각도 안하고, 가믄 기양 알아 불고.”

하나의 뚝에는 7~8가구가 속해 있었고, 세 개의 뚝은 채취구역을 해마다 교대로 바꾸었다. 만약 올해 A라는 지역을 신촌뚝에서 관리하면, 내년에는 그 지역을 중간뚝에서 관리하고 채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뚝이 채취구역을 교대하는 이유는 해안가마다 해조류의 서식 특성이 다르고, 채취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역, 톳, 가사리(세모), 우뚝가사리(천초) 등을 채취한다. 각각의 해조류는 서식지역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육지 쪽부터 보면 톳, 미역, 가사리, 우뚝가사리의 순서로 서식한다. 전체 해조류는 음력 6월 그믐에서 7월 말까지 채취한다. 대개 같은 기간에 채취하는데, 그 중에서도 톳을 가장 먼저 채취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미역과 가사리를 채취한다. 몇 가지 해조류 중에서 수익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미역이다.

한 달에 걸쳐 채취하지만 그것도 물때에 맞춰야 한다. 보통 다섯물에서 아홉물까지 물이 많이 빠지는 기간에 채취를 한다. 또한 하루에 두 번씩 물이 들고 빠지기 때문에 썰물



과 밀물의 시간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해서 채취하면 각 뜰별로 건조해서 수익을 분배한다. 현재는 마을마다 가구 수가 줄어서 별도의 뜰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나의 뜰으로 운영한다.

## 꽃게잡이와 김양식

하태도 굴암리는 한때 꽃게잡이로 유명했다. 1970년대 초반에 꽃게가 많이 들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앞 다투어 꽃게잡이를 시작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주낙으로 고기를 잡았는데, 1970년부터 그물을 들고 꽃게잡이 방법을 개량해서 본격적인 꽃게잡이를 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30여호의 작은 마을에서 7~8척의 꽃게잡이배를 부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목포에 집을 사두었을 정도였다.

“이 꽃게잡이를 했어요. 꽃게잡이배가 한 칠팔 척 됐어요 배가. 그라고 객지인구가 더 많았어요. 여 지방 산 사람보다. 한 배에 여섯이씩 탄다 하든 지방사람 한둘이. 나머지는 전부 객지사람들이 와서 했제. 그라고 여기서 그 수협 위판도 하고 그랬어요 막 참에 시작할 때는. 지금은 꽃게가 안 나고 또 먼 바다로 내려가블고 그렇게 하니까 또. 신의면에서도 안 빠지던 부락이었어요 이 돈으로는. 보통 이렇게 보몬은 목포가 그때로 봐서는 집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यो 그란디 여그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1980년대 중반이 되면서 꽃게잡이는 중단되고 만다. 그동안 근해에서 잡히던 꽃게들이 더 이상 잡히지 않게 되면서 꽃게잡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꽃게잡이가 쇠퇴하면서 마을에서는 김양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양식은 굴암리의 광재구 씨가 진도에서 하는 것을 보고 와서 연구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해갓고 와서 뜬 과정만 봤제 포자 부착하는 과정은. 인자 내 머리로 ‘이것은 틀림없이 이렇게 하든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인자 바다에다가 그 수위만 맞춰노든 될 것이다.’ 하몬은 그 철 되몬은 저것이 이십몇 도여 포자가 방출할 시기가. 그 라몬 어느 때냐몬은 추석 설 무렵이몬 그 온도가 자연적으로 와요 추석 설 때 되몬은.”

김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자를 채묘하는 것이다. 김 포자는 바다에서 스스로 착상하게 할 수도 있고, 별도의 포자를 부착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오로지 스스로 착상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김의 포자가 착상하는 시기는 보통 추석이나 추분을 전



사진3. 갯벌에서 낙지를 잡는 아주머니

후한 시기다. 이 때를 놓치면 온전히 김을 수확할 수 없게 된다. 제보자 곽재구는 진도에서 하는 김양식을 보고 연구를 하여 김 포자를 착상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굴암리 일대에서 본격적인 김양식을 시작했고, 20여년 동안 지속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떠나고 인구가 줄어들어서 양식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10여년 전부터는 양식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사진4. 갯벌에 놓인 통발

### 3) 갯벌을 간척해서 염전으로

조사일시 : 2011. 12. 30  
조사장소 : 신의면 상태서리  
제 보 자 : 김춘덕(여, 82세) 외



사진5. 해조류양식장

#### 해변산중 마을의 갯벌 간척

신의면에서 상태도 지역은 어업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지역주민들은 스스로를 ‘해변산중에 산다’고 한다. 바다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로 농사를 지었고, 근대에 들어 곳곳을 간척하여 염전을 운영한다.

“바닷일을 뭐 할 것이 있어야제. 여기는 해변 산중이여. 바다가 있고 뻘이 있어도 진자 자기 먹을 것만 쯤씩 나오제. 이 저 특산물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없어. 유명하게 나오는 것이 없어. 전복 그게 몇 집 안 되고 인자 해태 이게 조금 하고, 그라고

인자 자기가 자금으로 좀씩 그렇게 해요. 주로 인자 천일염. 우리 신의는 천일염 농사. 그라제잉? 천일염하고 농사 두 가지. 처음에는 원칙은 주로 농사가 제일 셋제. 밭매고 논매고. 인자 천일염이 좀 그렇게 됐제.”



그림2. 상태도지역 간척지 일부

신의면 사람들은 갯벌을 간척해서 염전을 만들었다. 갯벌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갯벌을 간척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이 원독을 막아서 간척을 하면 그것으로 염전은 개인 소유가 되었다. 마을사람들도 갯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땅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모두 찬성했다.

갯벌에 원독을 막고 염전을 만드는 것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본을 갖춘 사람만이 시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면에서 간척을 주도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간척을 하기도 했다. 개인이 간척을 할 경우에는 자본을 가진 일부만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 간척을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막었제라. 감독 우리 한자. 조합으로 뗏이 한 사람 있고, 인자 저 자기가 기양 단독으로 막은 사람 있고. 힘들제. 그란께 성공한 사람이 참말로 없다고 생각했어. [그 독 막아서 뭐할라고 막았어요?] 염전할라고 막었제. [그거 해가지고 성공?] 그러제 성공했제. 그래도 인자 집 지크고 산께 성공했제. 그란께 막 거시기 한 사람은 중간에 막다 또 못 막고 그런 사람들 인자 실패하고. 인자 우리는 그래도 어찌케 하든 간에 완공했은께 그래도 성공했다고 보제라.”

상태서리 김춘덕 할머니는 하의도에서 시집을 왔다. 20대에 시집을 왔는데, 그때 바로

집에서 원을 막아서 염전을 만들었다. 부유한 집으로 시집을 와서 농토도 많았다. 남편 박갑채는 마을의 박운기와 함께 원독을 막기 시작했다. 둘 다 마을 앞에 있는 갯벌을 절반씩 나누어서 원을 막았다. 원독을 막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안의 전답 일부를 팔아서 원독을 막는 데 사용했다.

이런 데가 인자 염전이 참 유명할 성 싶어서 염전을 만들기 위해서 인자 농토를 우리는 인자 농토를 한 고장을 팔아갖고 막았어라. 농토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야 농사는 짓고 인자 저것은 해서 놔를 주어도 인자 좀씩 나나묵으믄 소득을 본께 인자 그래서 그것을 농토 팔아갖고 일부팔아갖고 했제라.

### 원독 막기 과정

원독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돌을 실어다 날라서 갯벌에 독을 쌓아야 한다. 처음에는 육지에서 가까운 곳부터 조금씩 쌓아나간다. 그러다가 거리가 멀어지면 돌을 들고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배에 돌을 싣고 가서 독 쌓을 곳에 떨어뜨린다. 돌을 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근처에 있는 돌들을 긁어모으는 수준으로는 원독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석수(石手)를 데려다가 돌을 깨서 배로 싣고 왔다.

“내나 돌을 실어왔제. 저런 데서 막 배로. 돌을 인자 저런 데서 깨. 석수 델다가. 깨갖고 실어와. [다른 섬에 가서 깨와요?] 이런 데서 다 나오겠소? 배에 싣고 와서 그 인자 원을 막소. 그라믄 이 밑으로 와갖고 이것은 바닥인께 와갖고는 그 원 막을 옆에다 퍼. 들물에 들와갖고. 물 있을 때. 퍼노믄은 인자 거그서 집어서 인자 원을 막제. 그라믄 저 안에서는 요만한 독도 또 궤아야 굵은 돌을 논께, 또 그것은 인자 부인들이 또 부인들 사갖고 저 빨로 궤은 구멍이라고 있었어라. 그라믄 인자 그놈으로 궤어날려서 또 저 너메에다 붓어놓고, 이 너메다는 굵은 돌 붓어놓고. 그라니 가운데선 인자 이작 저작 궤어다 막제 인자. 쌓제. 인자 돌 짠 사람 또 사다가.

어느 정도 독을 쌓으면 돌 사이를 빨로 메워야 한다. 이렇게 빨로 독을 메우는 사람은 ‘빨 친 사람’이라고 한다. 빨 치는 사람은 신안 지도에서 데려왔다. 이때는 빨을 떠서 빨지게에 지고 부어놓고, 그것을 담에 발라서 물의 소통을 막는다. 빨을 많이 지어서 부어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다.

“그란께 어느 정도 썰몬은 인자 지도서 인자 뽕 친 사람 데꼬와서 인자, 뽕은 저다가 원에다 빌어. 새장구다 넣야 힘이 있제. 독에다 비벼야 되제. 뽕지게로. 그런 사람들 비리몬 잘 비리까잉 착착 잘잉. 담 썰듯이잉. 응 그람. 착착 빌어가 아주 맛차서. 그 사람들은 그때 시절엔 전문가들이었어.”

독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물이 소통되는 좁은 공간을 만들어놓고 뽕 치는 작업을 마무리 한다. 그리고 날을 잡아서 썰물이 되는 때에 마지막 구멍을 막아서 원독을 완성한다. 이때 마지막 구멍을 메우는 것을 ‘절강’이라고 한다. 절강을 하게 되면 원독이 완성되어서 원독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날은 원독이 완성되기 때문에 주인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일꾼들을 먹이고 즐겁게 하루를 보낸다.

“그란께 인자 그것도 차근차근 맨들아가갸고는 이 절강이라 한 것이 있어, 구멍 하나 내놔야, 물이 들왔다 나갔다 할 구멍을 내놓고 막어갸고 지일 만거듬에 그 구멍을 메꾸제. 인자 막판에 싹 막고는 막판에 그걸 그냥 한 번에 딱 막어부러. 그런게 그런 날은 성제간도 밥해오고 술 가져오고, 인자 마을 사람들도 그런 ‘절강 한다’ 그라몬 인자 나오제. 그 구멍 막은 날 보고는 절강한다 해요. 거 끝이어 그라몬 제방공 사는. 우리 솔으로 밥을 한나 해갸고 갸어도 모지래.”

### 뽕땅을 염전으로

원독을 막은 후에는 내부의 뽕땅을 일정한 크기에 맞춰 재단을 한다. 원독을 막은 주인은 뽕땅의 소유권을 갖는다. 그래서 이때는 전체를 염전으로 만들 것인지, 뽕땅 자체로 나눠서 팔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보자 김춘덕 할머니의 경우는 전체 뽕땅을 6개의 판으로 나누었다. 당시 하나의 판은 2.5정보(7,500평 24,793m<sup>2</sup>) 정도였다. 6개의 판 중에서 2개는 뽕땅으로 팔고, 나머지 4개의 판은 염전으로 만들었다. 이때는 주위에서 서로 뽕땅을 사려고 했었다.

“말하자몬 요렇게 요렇게 띠어서 한판씩 한판씩. 맨들아가갸고 또 이 새다구를 만들훈은 요 만든 새다구를 전수 뽕을 쳐갸고 요리 굽어내고, 요리 굽어내고 툇을 내 또. 그란께는 인자 또 장부가 그렇게 필요하드만. 그런 데 뭐 자를란께. 뽕 돌려 독이



라고 치고는 인자 또 똑똑 짜른게는. 장부라든 알까. 양쪽에서 줄 당기고 운전수가 자리 잡고, 양쪽에서 줄 잡고 운전수가 대로 삼에다 길게 자리해갖고 던진 거. 그것 보고 장부라 해. 양쪽 다 끈 달아갖고 요기서 요통고 밀어줘.”

#### 4. 문화소통로 ‘나룻배와 노두’

〈표4〉 나룻배와 노두 목록

| 번호 | 지도 표기 | 위치               | 거리           | 이동수단 | 현황 | 비고 |
|----|-------|------------------|--------------|------|----|----|
| 1  | A나루   | 상태도 당두 - 하의도 오림리 | 직선거리 910m 정도 | 나룻배  | 중단 | 신규 |
| 2  | B나루   | 하태도 기동 - 하의도 봉도  | 직선거리 500m 정도 | 나룻배  | 현행 | "  |
| 3  | A노두   | 상태도 모룽리 - 타리도    | 직선거리 550m 정도 | 노두   | 중단 | "  |
| 4  | B노두   | 하태도 뱃너력 - 타리도    | 직선거리 870m 정도 | 노두   | 중단 | "  |
| 5  | C노두   | 피섬 - 타리도         | 직선거리 510m 정도 | 노두   | 중단 | "  |

##### 1) 나룻배

###### (1) 상태도와 하의도를 연결하는 나룻배

조사일시 : 2011. 12. 30  
 조사장소 : 신의면 상태동리  
 제 보 자 : 전춘대(남, 1934년생)

상태도와 하의도를 잇는 나룻배는 1980년대 초반까지 운항했다. 나룻배는 하의도 오림리에서 운영을 했고, 구체적인 운항구간은 상태도 당머리와 하의도 거북바위 인근을 오가는 형태였다. 나룻배의 탑승객은 대부분 상태도 사람들이었다. 1983년 하의면과 신의면이 분면 되기 전에는 면사무소가 하의도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일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루를 이용해야 했다. 또한 인근지역에서는 하의도 오림리 매점이 가장 커서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하의도를 오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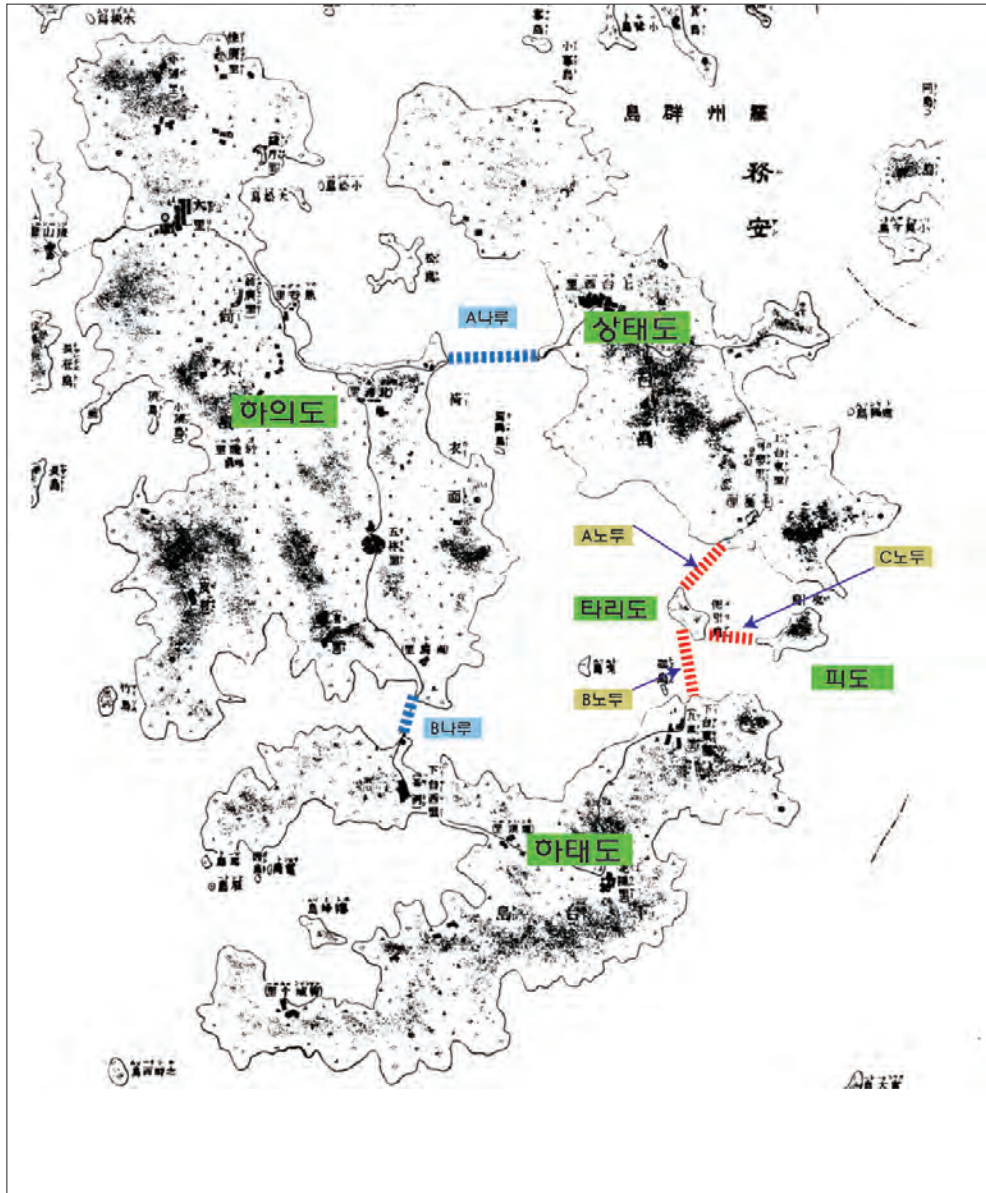


그림3. 하의도와 상태도, 하태도를 잇는 나룻배와 노두

나룻배의 운임은 1960년대까지 봄·가을철에 보리와 쌀을 건였고,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현금을 받았다. 보리와 쌀을 건는 것은 ‘역가’라고 하여 사공의 친척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건으러 다녔다.

나룻배의 운영은 1980년대 초반에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4년 하의면 신의출장소가 생기면서 하의도로 이동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1983년 분면이 되면서 행정절차를 위한 나루 이용은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여객선이 하의도와 신의도를 거쳐 목포로 다니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사진6. 상태동리 전춘대(남, 1934년생) 제보자와 그의 처

## (2) 하태도와 하의도를 연결하는 나룻배

조사일시 : 2011. 10. 9

조사장소 : 신의면 하태동리 기동마을

제 보 자 : 장론철(남, 1951년생), 김홍주(남, 1938년생)

나룻배는 하태도와 하의도를 잇는 교통수단이었다. 구체적인 운영 구간은 하태도 기동과 하의도 봉도를 오가는 나룻배다. 하태도와 하의도를 잇던 나룻배는 지금도 같은 구간에서 운항 중이다. 나룻배의 이용객은 주로 하의면사무소를 오가던 사람들이었다. 과거 신의면은 상태도와 하태도가 독자적인 섬이었고, 하의면의 부속도서였기 때문에 면사무소 일을 보려면 반드시 나루를 이용해야 했다.

나룻배는 기동마을에서 운영했었다. 나룻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태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동마을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파악되는 윗대의 나룻배 사공은 윤영신 씨다. 윤영신 씨는 기동마을 사람으로 1960년대 초중반에 사공을 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사공들을 나열하면 ‘윤영신(기동) - 김



사진7. 기동마을 제보자 장론철(남, 과거 나룻배 사공, 1951년생), 김홍주(남, 1938년생)

평국(봉도) - 장론철(기동) - 윤옥현(기동) - 김홍선(봉도) - 길영자(봉도)'의 순이다. 과거 하의면과 신의면이 통합되어 있을 때에는 나룻배로 인한 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나룻배 사공을 서로 하려고 했다. 그래서 기동마을에서 투표를 통해 사공을 선정했다.

나룻배의 뱃삿은 쌀과 보리를 낚는 것과 현금을 받는 것이 있었다. 1960년대 말엽까지는 쌀과 보리를 낚았고, 1960년대 말엽 이후에는 현금을 받았다. 쌀과 보리를 낚는 것은 '세공'이라고 했다. 세공은 보리를 수확하는 봄철과 쌀을 수확하는 가을철 2회에 걸쳐 걷었다. 당시에는 나룻배 사공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쌀과 보리를 걷었다.

“인자 그때는 인자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라고 저 그때 한 칠십년 초에나 되었을 때 내가 할 때는, 그때는 조금 생활이 있으니까. 그때는 현금을 주고 인자 나룻배 삿을 주고 건너다녔어요. 걷기가 인자 힘든게, 걷기가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 보면 동냥한 것 같고 그러니까 현찰 받고 다니고 그랬어요.”

나룻배 세공은 그 나루를 이용하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받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룻배를 이용하는 하태도 주민 전체와 하태도 나루를 이용하는 하의도 오림리, 어은리 주민들에게도 세공을 걷었다. 세공은 대개 쌀이나 보리 모두 한두 되 정도씩 걷은 것이었는데,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생활이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고 부유한 사람은 많이 냈다. 또한 이동이 잦은 하태도 주민들은 좀 더 많이 내고, 이동이 적은 하의도 주민들은 조금 적게 냈다. 하의도에 면사무소가 있어서 하태도 사람들이 나룻배를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많았다.

과거의 나룻배는 돛을 달고 노를 젓는 풍선이었다. 돛은 가운데 1개가 달렸고, 노는 배의 뒤편 고물에 1개가 달려 있었다. 나룻배는 1985년 무렵부터 풍선에서 기계선으로 바뀌었다. 197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김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기계선을 사기 시작했다. 나룻배의 경우 1985년 무렵 장론철 씨가 사공을 하면서 해태선으로 사용하던 기계선을 중고로 구입하여 나룻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풍선 나룻배에는 20~30명까지 실을 수 있었다. 당시 기동에서 봉도까지 보통 15~2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물때와 날씨에 따라 7~8분만에 도착하기도 했다. 또 돛풍이 좋을 때는 2~3분만에 도착할 수도 있었다. 나룻배의 운항은 쉬는날이 없었고, 보통 아침밥을 먹고 운항을 시작해서 저녁밥을 먹을 때까지 운항했다.

나룻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공의 운항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했다. 급한 환자 등이 발생했을 때는 밤중이나 곳은 날에도 나루를 건네주어야 했다. 또 탑승객으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나 돼지 등의 짐승들도 태웠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정확히 가늠하여 운항을 해야 했다.

“물이 썰물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 밀리니까 어느 정도 물때가, 사리 때는 빠르니까 더 많이 올라가서 방향을 이렇게 밀어감시롱 가고, 조금 때는 쪼끔만 올라가서 가기도 하고. 그런게 사리 때는 물발이 싸니까 이만큼 올라가야 되고, 물발이 안싼 조금 때는 이만큼만 올라가서 건너가고 그때따라. 상황에 따라서 틀려요.”

“아침에는 동풍이 불었다가 오후 되면 서풍이 분다니까요. 그러면 이 동풍이 불 때 물이 들어. 그러믄 물은 이리 오고 바람은 이리 부니까 노 한 번도 안 대고 계속 대고 하루내. 또 이쪽에 이렇게 불 때 썰물 때 이쪽서 바람이 불믄, 물은 이리 가고 바람은 이리 가니까 바람 딱 잡어 그러믄 그대로 가요. 동풍 오전에는 열시나 열시 넘어서 시작하믄 동풍이 불다가 오후에는 서풍이 불어요 서풍이 봄에. 앞으로 불었다 뒤로 불었다 그 말이어. 그런게 ‘드리부리 내부리’.”

나룻배는 현재까지 신의면 기동과 하의면 봉도를 운항하고 있다. 하의면 봉도에 사는 길영자 씨가 남편의 뒤를 이어서 마지막 나룻배 사공을 하고 있다.

## 2) 노두

조사일시 : 1차(2011. 12. 30), 2차(2011. 10. 9)

조사장소 : 1차 하태동리 기동마을, 2차 상태서리/ 상태동리 모룡마을

제 보 자 : 1차 장론철(남, 기동마을 舊나룻배 사공, 1951년생), 김홍주(남, 1938년생),

2차 박홍대(남, 노인회장 1943년생)/ 김용례(여, 73세), 전춘대(남, 1934년생)

노두는 갯벌에 돌을 놓아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갯벌길이다. 신안군을 비롯한 도서 지역 곳곳에 노두가 존재했고, 현재까지 존재하는 곳이 더러 있다. 신의면에는 상태도와 하태도를 연결하는 노두가 갯벌 위로 길게 놓여있었다. 지금은 상태도와 하태도가 제방으로 연결되고 갯벌이었던 지역이 모두 염전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의면 본섬 외에 기도와 소기도 사이의 노두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조



사를 하지 못했다.

상태도와 하태도를 연결하는 길은 노두밖에 없었다. 노두는 물이 빠지는 썰물 때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노두 이외의 방법은 없었다. 나룻배를 이용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상태도와 하의도, 하태도와 하의도를 잇는 것뿐이었다. 바닷물이 주기적으로 흐르는 갯벌에 노두를 놓았기 때문에 노두로 사용되는 돌은 그 크기가 상당했고 비교적 별도의 보수나 관리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

“상태는 배는 없었어. 배는 있어도 배로는 안 땡기고 좀 늦드라도 물이 빠지믄 인자 고리 땡기고 그랬제. 그것이 참말로 특이한 것이었어 노두로. [그게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라제. 그런 거 있으면. 그란디 여 다 염전, 다 요리 좌악 염전 되아브렀다고. 상당이 컷제 돌이. 굵은 돌로 해서 싹 아주 독이 딱 묻혀서 새카매. 아예 막 밭을 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많이 놔갖고 아주 완전하게 길이 백해져브렀어. 그란께 놀도 안 하고 돌이. 그란께 이 노두가 질 유명한 노두제. 상태, 하태를 연결해 준 도론께.” (상태서리 박흥대 구술)

신의면 본섬의 노두는 모두 타리도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형태였다. 타리도를 가운데로 하여 북쪽으로 상태도, 남쪽으로 하태도, 동쪽으로 피섬과 연결되는 3개의 노두가 있었다.

‘A노두’는 상태도 모룡리에서부터 타리도까지 연결되는 노두였다. 지금의 면사무소 앞쪽 염전에서 타리도와 연결되었다. 노두가 놓였던 곳은 염전이 되었고, 그 옆으로 도로가 놓였다.

‘B노두’는 타리도에서부터 하태도 뱃너럭 인근까지 연결되는 노두였다. 구체적으로는 타리도의 삼성염전 근처에서부터 하태도 구만교회 근처까지 연결되었다.

‘C노두’는 타리도에서부터 피섬으로 연결되는 노두였다. 상태도나 하태도 사람들이 피섬으로 갈 때 중간기점인 타리도까지 가서 피섬으로 이동했다. 노두가 있던 자리 위에는 도로가 놓인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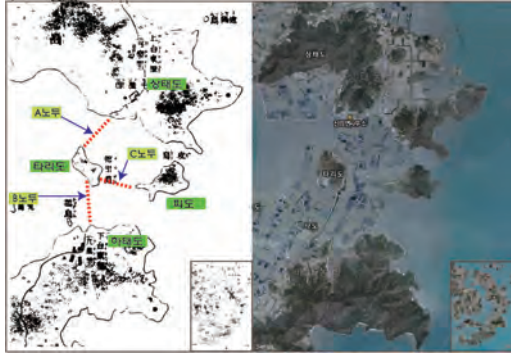


그림3. 신의면 본섬의 과거 노두 위치



사진8. 타리도와 상태도가 연결되어 도로가 놓인 모습

## 5. 공동체신앙과 어로신앙

〈표5〉 당제와 뱃고사 목록

| 번호 | 지 역        | 제 명 |                   | 제 당                              | 신 격                          | 제 일           | 제 관           | 제후행사                 | 전승현황            | 비고 |
|----|------------|-----|-------------------|----------------------------------|------------------------------|---------------|---------------|----------------------|-----------------|----|
| 1  | 하태서리<br>굴암 | 당제  | 상당제<br>하당제<br>거리제 | 암석<br>제단<br>모래사장                 | 스님<br>산신<br>당신               | 음)1/3~4       | 2명(제주,<br>보좌) | 허수아비<br>띄우기,<br>마당밭이 | 1980년대<br>후반 중단 |    |
| 2  | 상태동리<br>모퉁 | 당제  | 상당제<br>하당제<br>거리제 | 당산<br>수림<br>방천                   | 당할아버지(대사)<br>당할머니(보살님)<br>잡신 | 음)1/3         | 2명(제주,<br>보좌) | 마당밭이                 | 1980년대<br>중단    |    |
| 3  | 하태서리<br>기동 | 당제  |                   |                                  |                              | 음)1월중         | 1명(제관)        | 건국                   | 1973년<br>중단     | 신규 |
| 4  | 상태서리       | 당제  |                   | 대성산 정상                           | 당할머니                         | 음)1,3         | 3명            |                      | 1952년 중단        |    |
| 5  | 하태서리<br>굴암 | 뱃고사 |                   | 이물, 선장실,<br>기관실,<br>그물보관하는<br>장소 | 배서낭, 용왕                      | 세시명절,<br>서무셋날 | 1명(선주)        |                      |                 |    |

## 1) 신의면 하태서리 굴암마을 당제

조사일시 : 2011. 10. 9~10

조사장소 : 신의면 하태동리 굴암마을

제 보 자 : 곽재구(남, 1940년생)

### (1) 마을개관 및 조사개요

굴암마을은 면소재지에서 서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마을은 행정구역상 하태서리에 속하며 하태서리에는 굴암 외에도 신촌과 황성마을이 있다. 1980년대까지 교통이 불편하여 하루에 한 번 들르는 새마을 연락선이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굴암마을은 뒤로 굴바우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깊숙히 패인 만의 한쪽을 안고 있다. 굴암이라는 마을 이름은 마을과 앞 바다에 산재한 바위에 많은 동굴이 있다 해서 붙여진 것으로 ‘굴바우’라고 한다. 1960년대에는 30여호가 거주했고, 1980년대에는 20여호, 2011년 현재는 9호가 거주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꽃게잡이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크고 작은 배 10여척을 소유하면서 어업에 종사했으나, 현재는 인구도 적고 고령화 되어서 생업활동 전반이 약화된 상태다. 농업은 미미한 편이어서 그리 넓지 않은 밭에서 참깨, 콩, 고구마, 무, 배추 등을 재배하여 자급자족하는 정도다. 농업이 미미한 반면에 김, 톳의 양식업과 꽃게잡이 등의 어업이 주민들의 주요 생계원이다.

당제의 내용은 1987년 『신안군의 문화유적』 자료에 소개된 것을 토대로 하여 내용을 정리한다. 굴암마을의 당제는 1980년대 중반 꽃게잡이가 왕성할 무렵까지 전승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꽃게가 나지 않게 되고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외지로 떠나게 되면서 당제는 중단되었다. 현재는 중단된지 오래이기 때문에 이번의 조사내용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2) 제당의 구성과 신격

마을에서는 정월 초사흘날 밤 자정부터 나흘날 오전 11시경까지 상당제, 하당제, 거리제(‘풍어제’라고도 부름. 이하 거리제로 표기) 순으로 동제를 거행한다. 상당제에서는 ‘스님’, 하당제에서는 ‘산신님’, 거리제에서는 ‘당신님’이라 불리우는 신격들이 각각 제신으로 신봉된다. 상당제의 제장은 마을 뒷산의 정상부에 있는 소나무 숲의 자연 암석이고 하당제의 제장은 산 중턱의 돌담이 둘러쳐진 자연석 제단이며, 거리제의 제장은 마을앞 바닷

가 모래사장이다. 마을 뒷산 약 500m지점 잡목 숲 속에 제의 전에 제관이 기거하는 집이 한채 있다. ‘당집’이라 불리우는 이 집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방, 부엌, 마래(그릇 등의 용품이나 음식물을 넣어두는 마루방)가 있다. 마래에는 시루, 밥그릇, 절구통, 절구대 등 제의에 필요한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다. 한편 하당 아래쪽에는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당샘이 있다.

### (3) 당제 준비와 진행

상당제, 하당제의 제관은 남자 2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한사람은 제를 주관하고 다른 한사람은 보좌역할을 한다. 2명 모두 생기복덕이 맞고, 제관 선정 무렵에 개고기 등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야 하며, 가정에 출산과 상, 가족원 중에 월경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한편, 거리제의 제관은 위의 사람들 외에 다른 주민이



사진9. 굴암마을 당집(1987년, 도서관화연구원 소장자료)

선정되는데, 생기복덕까지 맞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상당·하당제의 제관들과 다르다. 상당·하당제의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그날부터 부정하지 않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변 후에는 엄동설 한이라도 냉수로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며, 소변 후에도 세수를 해야 한다. 또한 술과 담배를 삼가하여 몸가짐을 다듬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상, 출산이 있는 집 출입을 삼가야 하며, 구정에도 가세문안을 다녀 잡인으로부터 부정이 오염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만약 당제를 지낸 후 1년 사이에 마을에 변고가 생기면 주민들이 그 원인을 제관의 부정에 돌리곤 하기 때문에, 제관들은 자신의 행동에 상당한 신경을 쓴다.

이렇듯 제관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점은 몇 년 전부터 주민들에게 부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누구도 선뜻 제관의 역할을 맡는 것을 꺼려하더니 마침내 2~3년 전에도 당제를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대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로 마을 노인들이 이 의견에 반대하여 주민들은 당제는 계속하되 제관의 선정 방식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관 선정에 있어서 전에는 마을 전체에서 제관을 선정하던 것을, 마을을 몇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제관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마을을 총 22호가 5개의 통으로

나뉘고 각 통에 4~5가구가 포함되었다. 해마다 1개통씩 번갈아 당제를 맡고, 그 통에서 생기복덕과 부정 여부를 보아 2명의 제관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에는 2명의 제관 중 1명은 마을의 연장자였고 1명은 비교적 젊은 층이었는데 불과 4~5가구로 구성되는 한 통 내에서 연배가 맞고 제관의 자격에 부합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지자 연배 상의 구분이 없이 성인 남자 중에서 제관을 선정하게 되었다. 자격 조건 중에서 생기복덕 부분이 크게 약화되는 현상도 발견된다. 제보자들은 각 통의 주민들이 실제로는 성실하고 부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면 생기복덕을 크게 고려 않고 제관으로 선정하고서, 다른 통 주민들에게는 생기복덕이 맞다고 말하곤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해에 차례가 된 통에서 제관들이 선정되면 마을 전체 회의에서 이들을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통과 여부를 가린다. 만약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부정을 탄 일이 발견됐다거나 하면 그 해 당제는 다른 통에서 맡게 한다. 이렇듯 마을을 몇 개의 통으로 나누고 각통에 제관선정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은 마을 공동체가 제관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선정하는 각 통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력을 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제 후에 제관에게는 마을 공동자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해 주고 마을 공동해역 중 1개 구간을 떼어서 1년 간 미역·등복 등의 해초 채취권을 준다. 한편, 당제를 맡을 차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관을 선정하는 것을 꺼리는 통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마을 공동해역에서 해산물 채취를 할 권리를 박탈해 버리기로 했다. 또한 마을의 회의나 기타의 행사들이 있을 때 이 통의 주민들은 참석할 수 없게 하였다. 다만, 그러한 통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도 부양자가 없는 과부는 이상의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듯 마을의 자치적 규율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제를 거부함으로써 주어지는 심리적 압박감과 사회적 압력·소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제가 원만히 수행되기에 이르렀다.

제일 4일 전에 제관 중 1명이 목포에 가서 제물로 쓰일 쌀과, 소지 종이 등을 구입해 온다. 이 때 드는 경비는 마을 공동자금으로 충당한다. 상당 제신이 승려라는 이유로, 상당제는 물론 하당제 제물에까지 육류·어류를 쓰지 않는다. 육류, 어류를 기피하는 관념은 어느 한 제관이 겪었던 경험에 의해 더욱 강화된 바 있다. 어느 해인가 주민들이 마을회의 석상에서 제물이 너무 빈약하다 하여 돼지고기를 상에 올리기로 결정하였고 그리하여 그 후의 당제에서 돼지고기가 진설되었었다. 그러자 당시 제관을 맡았던 사람이 어장에서 조업을 할 때 사고가 빈번하여 생업에 큰 지장을 주었다. 이 제관의 불운은 주민들에게 당제에 진설된 돼지고기 탕으로 받아들여졌고 이 후 다시 육류, 어류 등 불가에서 금하는 음식은 일체 진설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음력 선달 그믐날 새벽에 2명의 제관은 3벌의 깨끗한 옷과 자신들의 식량·제물을 챙겨서 당에 오른다. 당에 오른 제관들은 당집의 내부와 시루·절구, 그 밖의 제기들을 씻고, 당집 외부와 당샘을 청소한 다음, 제터 주위에 황토를 깔고 원새끼 금줄을 친다. 이후부터 제관들의 목욕재계 등 정성스러운 행위가 계속된다. 목욕을 할 때 머리에서부터 찬물을 끼얹었는데, 만약에 추운 나머지 입 밖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오면 정성이 깎인다 하여 나뭇가지를 입에 물어 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막는다. 또 제일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들은 상당제에서 쓰일 쌀을 나누어 놓고 겨·돌 등의 잡물을 일일이 가려낸다. 음식의 조리에는 술 한 개를 이용한다. 우선 마을 주변에서 채취한 고사리·도라지를 술에 넣고 간장과 깨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익힌다. 다음 밥 세 말 세 되, 떡 일곱 말 일곱 되를 한다. 이 때 쓰이는 계량 단위는 일상 계량 단위의 10배이다. 한 홉이 한 되로 불리우는 것이다. 떡은 제관들이 절구로 쌀을 찧어 만든 흰머리떡(백설기)이다. 이상과 같이 제물은 조리과정에서 마련된 메·떡·도라지·고사리뿐이며 술조차 준비하지 않는다.

제관은 목욕재계 후 참기름을 축인 불을 켜고 제물들을 진설한다. 제는 <재배→구축→소지>의 순이다. 구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님한테 잔을 드리고 메를 올렸습니다. 우리 마을민이 스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을이 무사태평하게 해 주시고 농사도 잘되며 사업자는 고기도 많이 잡게 해 주십시오”

소지는 제관·마을 전체·각 가정의 순으로 행해진다. 소지를 올릴 때 제관은 ‘00씨집 소지 올리니 잘 되게 해 주시고 소지 잘 올라가게 하시고 잘 받으십시오’라고 축원한다.

상당제에 이어서 하당제가 거행된다. 하당제는 상당제의 절차에서 소지가 빠질 뿐 나머지는 같다. 새벽 2시경에 하당제가 끝난다. 이 때까지 주민들은 잠을 자지 않고 조용히 집에 머무르거나 밖에 나와 멀리서 당제가 거행되는 것을 지켜본다. 어떤 이는 짚으로 거리제에 쓰일 허수아비를 만든다.

오전 10시경에 마을 앞 모래사장에서 거리제가 거행된다. 이 곳 거리제의 다른 이름이 ‘풍어제’인 것에서 나타나듯, 거리제는 주로 어업의 안전과 풍요를 위해 거행하는 것이다. 모래사장에 거적을 깔고, 부녀자들이 거적에 놓인 상에 메·떡·돼지고기·명태 등의 제물을 놓는다.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는 제상 맞은 편에 놓아둔다. 거리제의 제관은 상당, 하당제 때와 다른 사람이 한다. 제의 순서는 재배, 구축의 매우 간단한 것이다. 구축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어장 사고 없게 해 주시고 질병 없게 해 주소서. 당신님께 이렇게 거리제를 지내니 잡귀 잡신은 숲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마을에 좋은 일만 있게 해 주시며 고기 많이 잡게 해 주소서’

구축이 끝나면 메·떡·명태·돼지고기를 조금씩 덜어 창호지에 싸서 허수아비에 묶어 놓는다. 다음 농악꾼들이 허수아비 주위를 돌면서 곳을 치다가 물살이 빠른 곳을 찾아가 물살에 허수아비를 띄워 보내면서 ‘마을의 재앙이나 나라의 재앙은 모두 김일성 갖다 주시오’라는 사설을 외친다. 허수아비를 바다에 띄워 보낸 후 남·녀·노·소의 모든 주민이 남은 음식을 모두 음복(飮福)하고, 농악꾼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며 마당밧기를 한다. 마당밧기를 하러 온 농악꾼들에게 각 가정을 방문하며 마당밧기를 한다. 마당밧기를 하러 온 농악꾼들에게 각 가정에서는 술과 음식을 내고, 얼마간의 돈을 희사한다. 이 돈은 동중(洞中)돈(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된다. 마당밧기를 비롯한 놀이는 2~3일 간 계속된다.

참고문헌 :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박물관 · 신안군, 1987, 229~233쪽.

## 2) 신의면 상태동리 모룡마을 당제, 거릿제

조사일시 : 2011. 12. 30

조사장소 : 신의면 상태동리

제보자 : 김용례(여, 73세), 전춘대(남, 1934년생)

### (1) 조사개요

모룡마을의 당제는 1980년대 후반에 중단되었다. 김용례, 전춘대 두 제보자를 통해 내용을 들을 수 있었으나 과거에 중단된 것이어서 대강의 상황만을 파악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1987년 『신안군의 문화유적』에 보고된 자료를 원용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 (2) 제당의 구성과 성격

이곳에서는 매년 정월 초사흘날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약 5시간 가량 마을의 평안과 제액을 비는 상당제, 하당제와 거릿제가 행해진다. 제신은 상당제의 경우 당할아버지-일명 대사-이고, 하당제는 당할머니-보살님-이며, 거릿제는 마을의 잡신이다. 상당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있으며 ‘당산’이라 한다. 상당에는 소나무와 활엽수림이 우거진 곳에 큰 암석이 있

어 그 양쪽에 자연석 돌담이 둘러쳐져 있다. 내부에는 상·하 1cm간격을 둔 2개의 석단이 나란히 놓여있다. 하당은 상당에서 동쪽을 20m 떨어져 있는데 인공의 건조물은 없고 수림으로만 되어 있다. 거리제 때의 제장은 마을 앞 ‘방천’이라는 곳이다.

### (3) 당제 준비와 진행

제일 5일전에 이 마을에 사는 점쟁이가 생기복덕을 맞춰 제관 2명을 선정한다. 점쟁이는 생기복덕 외에 출산, 상 등의 부정을 고려한다. 제관 2명 중 1명은 제를 주관하는 제주이고 1명은 그의 보좌역이다. 이들은 설날 그믐날부터 집안을 깨끗이 하고 상고나 산고가 있는 집의 출입을 삼가며 대소변 시는 꼭 목욕재계를 하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 제 전까지는 잡인과 대화해서도 안되며 혹 잡인을 접할 경우 부정의 오염을 막기 위해 고개를 숙여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 이 기간동안 세벌의 옷을 깨끗이 빨아 준비해 둔다. 만약 제관들이나 그 가족 중 누군가가 상해로 피를 흘린다든지 죽은 뱀이나 땡을 보게 되면 심한 부정을 탄 것으로 여겨서 그 해의 재를 포기한다. 사람들은 부정을 땀으로도 불구하고 제를 지내면 마을에 큰 화가 미친다고 생각한다.

제관들은 정월 초이튿날 이른 아침 당산에 올라 상당과 하당을 청소하고 내려와 제주 집을 깨끗이 청소한다. 제주집에는 원새끼를 꼬아 만든 금줄을 치고, 대문 밖에 황토를 뿌린다. 이때부터 제주만 남고 그의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며 금줄을 경계로 잡인의 출입을 금한다. 한편 마을 샘도 깨끗이 청소한 후 거적으로 덮어 놓는다. 일단 거적으로 덮이게 되면 아무도 이 물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마을 샘을 깨끗이 했는데도 물에 오물이 생기면 제주는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고 목욕재계하고 다시 청소한 후 깨끗한 거적으로 덮어둔다. 여러번 당샘 청소를 해도 물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마을에 부정한 것이 있거나 정성이 부족해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가 제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당제를 지내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는 당샘에 대한 정·부정의 관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이 정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당시 제관은 당샘의 물이 불결해 다른 곳에서 목욕재계를 했다. 그런데 돌연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변해버려 제관은 급히 당샘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물로 목욕재계를 드렸더니 다시 검은 머리로 되었다.

정월 초하룻날 이장이 목포에 나가 제물을 구입해 오고 제일 하루 전날(초이튿날) 제주는 목욕재계하고 그의 집에서 진설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은 명태, 산채, 쇠고기, 밥, 떡, 녹두나물, 듬북나물 등이다. 상당제의 제신인 당할아버지는 승려이기 때문에 육류

를 진설하지 않는다. 떡이나 밥을 만드는 쌀은 반드시 새 쌀로 해야 하며 쌀을 담는 그릇(쪽박)도 새 것으로 구비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일체 양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의 때 쓰는 술은 당샘(마을샘)의 물을 사용해 만든다. 제기는 제주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쓰지만 옛날에는 따로 목기를 마련해 두고 사용했다.

초이튿날 밤 11시가 되면 제주는 등불을 켜고 향불을 피운다. 그리고 나서 마을로 내려가 준비된 제물을 상당으로 가져온다. 상당제는 <진설→재배→헌작→구축→소지>의 순으로 진행된다. 메, 취나물, 고사리나물, 녹두나물, 도라지, 정화수가 진설되는데 메는 밥술째 놓는다. 구축에서는 ‘아무개가 젓상 모시니까 잘 잡수고 동네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원한다. 소지에서는 제주, 이장, 마을유지, 각 가정의 순으로 올린다. 이때 소지가 하늘로 올라가면 한 해의 운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매사에 조심해야 그 해를 무사히 넘긴다 한다.

상당제가 끝나면 제관은 진설된 음식을 그대로 두고 마을로 내려와 하당제의 메밥을 지어서 하당에 오른다. 하당제는 상당제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제물은 메, 편, 정화수, 취나물, 도라지, 녹두, 고사리, 명태, 쇠고기 등으로 육류까지 진설된다. 제주가 일단 제장으로 가면 제주집의 금줄이 거두어지고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당제가 거행되는 동안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거리제 때 진설할 밥, 듬복국 등을 준비한다. 하당제가 끝나면 제주는 진설했던 음식을 모두 거두어서 거리제장으로 내려온다.

거리제에서는 마람 한 장을 펴고 새로 마련한 밥과 듬복국, 당제 때 마련해 두었던 명태, 떡 등을 차려놓고 마을의 잡신을 위로하는 제를 지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리제에서는 단골이 제를 주관했다 한다.

오전 10시경이 되면 거리제까지 끝나고 음복이 시작된다. 제물 중 떡, 명태는 그 자리에서 온 주민이 함께 먹으며, 밥은 모아 두었다가 막걸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동회 때 나누어 먹는다. 음복의 음식은 약이 된다고 여겨져 모든 사람이 먹지만 부정한 사람은 제외된다.

음복을 끝낸 아침, 마을의 농악꾼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마당밧기를 한다. 각 가정에서는 이들에게 밥이나 술을 대접하기도 하고 돈이나 쌀을 내놓는다. 마당밧기를 하여 모아지는 돈은 동네 공동자금으로 비축된다.

제를 지낸 이튿날 마을 회의를 열고 한 해 동안의 결산과 제관들의 수고비를 논의한다. 전에는 보리수매 후에 생기는 돈에서 제관들에게 수고비로 다소의 금액을 주었다고 하나 지금은 이장이 매 호마다 쌀 1되씩을 각출해 수고비로 지불하고 있다.

모룡마을의 당제와 거리제는 기독교의 유입으로 점차 약화되어 되어 가고 있다. 우선 기독교신자들이 민간신앙을 부정하며, 다른 이들은 그 영향을 받아 당제·거리제의 효험을

점차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참고문헌 :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박물관 · 신안군, 1987, 227~229쪽.

### 3) 신의면 하태서리 기동마을 당제와 농악(건구)

조사일시 : 2011. 10. 9

조사장소 : 신의면 하태동리 기동마을

제 보 자 : 김홍주(남, 1938년생), 장론철(남, 1951년생)

#### (1) 조사개요

기동마을의 당제는 1973년 교회가 들어선 이후 중단되었다. 교회의 등장으로 종교적 관념이 변하고 당제가 중단되었지만, 당제와 함께 전승되던 농악(건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단되기 전의 당제를 파악했으나 오래 전에 중단되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다.

#### (2) 당제 개요

기동마을에서는 당제를 음력 정월에 지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당제일이 다가오면 마을에서는 제관 1명을 선정한다. 제관은 부정하지 않고 유고가 없는 사람으로 고른다. 선정된 제관은 당샘에서 물을 길어다 목욕재배를 하고 3일간 당에 올라가서 정성을 들인다. 이때 제관은 다른 사람과 일절 이야기도 할 수 없고 당집과 자신의 집만 왕래 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도 제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보자가 어렸을 때는 당 앞을 지나갈 때 반드시 인사를 하고 지나가야 했고, 당이 있는 쪽으로 소변도 누지 못했다. 당집은 돌담이 높이 쌓여져 외부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당제가 끝난 다음날에는 건구를 친다.

당제가 끝난 다음날에는 건구패(농악대)가 일렬로 서서 당에 인사를 한다. 건구패는 쇠 3명, 징 1명, 장구 2명, 소고 7-8명, 조리광대, 비비각시, 포수 등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조리광대는 마을에서 채담있는 사람이 맡으며 비비각시는 치마를 입고 여자분장을 한 남자가 맡는다. 조리광대와 비비각시는 부부이며 포수는 나무로 총을 만들어 맨다. 치배들의 복색은 흰옷에 삼색띠를 맨다. 굿을 치는 순서는 ‘당-샘-가가호호’ 순서로 진행되는데,



과거에는 하태도 마을 전지역으로 원정굿을 나가기도 했다.

#### 4) 신의면 상태서리 당제

조사일시 : 2011. 12. 30

조사장소 : 신의면 상태서리 노인회관

제 보 자 : 박홍대(남, 노인회장 1943년생), 정미자(여, 1942년생), 최화단(여, 1939년생), 김마동(여, 1933년생), 강정심(여, 1939년생), 김춘자(여, 1942년생), 정포덕(여, 68세), 김춘덕(여, 85세), 강오단(여, 85세)

##### (1) 조사 개요

상태서리의 당은 안산성지(案山城址)에 있었다. 1926년 6월 20일 <동아일보> 기록에 상태도의 명소로 당과 당제를 꼽고 있다. 이때 당시에는 정월과 7월에 당제를 지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섬의 명소라고 할 만한 곳은 상태도 서리 앞산에 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스니 임진란 때에 봉화불을 들든 망대라고 한다. 지금도 년년이 수축하고 도민들이 일년에 정월과 칠월 두차례에 제사를 지냄으로 퇴락되지 안코 엄연히 보존되어 있는바 그곳에 올라가면 여름이라도 시원키가 가을 절기와 갓다 한다.” 1926년 6월 20일 <동아일보> 5면.

일제강점기에는 명소로 소개되고 전승력이 강력했으나 현재는 그러한 당제의 모습은 찾기 어렵게 되었다. 당제가 중단된 지 50~60여년 정도 되어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여기서는 1980년대에 답사하여 소개한 『다도해의 당제』를 원용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 (2) 당제 개요

상태서리의 당은 대성산 산 정상에 있다. 대성산의 정상에는 인력으로 이룩할 수 없는 크기의 산상제성의 석상이 있는데 그 정상 중앙의 돌담의 밑받침이 당할머니를 모신 당이다. 제의는 음력 정월 4일과 8월 1일에 제사를 지낸다. 당제 당일엔 마을에 유고나 초상이 생기면 날을 따로 잡아 지낸다. 또한 전답에 피해가 생기거나 질병이 나돌면 길일을 맞

아 날받이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제관은 가정에 유고가 없고 생기복덕이 맞는 3명을 선출하고 제물로는 소를 잡는데 제관이 누구네 소를 잡는다고 말하면, 그 소는 헐값으로 제물이 되어야 한다. 제관은 삼일간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 때문에 부부 합방도 하지 않는다. 당샘은 본래는 말라있으나 제관이 가서 빌고 낙엽을 치우는 등의 청소를 하면 물이 솟는다고 한다. 제물을 준비하는 곳은 아랫당이다. 아랫당에서 준비한 제물은 윗당으로 올라가 차려지는데 윗당은 시멘트로 보기 좋게 정돈되어 있다. 제의는 음력 정월 초사흘날 지낸다.

참고문헌 :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40~41쪽.

## 5) 신의면 굴암리 굴암마을 뱃고사

조사일시 : 1987. 8. 8

조사장소 : 신의면 하태동리 굴암마을

제 보 자 : 한상채(남, 48세, 창영호 선주), 이갑배(남, 54세), 이병례(남, 74세)

### (1) 조사개요

굴암마을은 1980년대 후반까지 꽃게잡이가 왕성하여 소득이 높은 마을이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어업활동이 강한 마을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꽃게잡이가 중단되고, 마을의 젊은이들이 외지로 나가면서 당제를 비롯한 민속문화 전반의 전승력이 약해졌다. 따라서 현재는 뱃고사도 지내지 않는다. 여기서는 굴암마을의 뱃고사에 대해 『신안군의 문화유적』의 내용을 원용하여 기술한다.

이 마을은 어업에 대한 생계의존도가 높다. 전체 21호 중 8호가 꽃게잡이 배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가구들도 배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남의 배에서 조업을 한다. 이곳의 주요 소득원인 수산물에는 어장에 나가 잡는 어류로 꽃게·운저리·홍어·곶테기(농어의 치어)가 있고 양식장에서 채취하는 김과 톳이 있다. 어류 중에 서 꽃게는 8·9월에 성어를 잡는데 이곳의 꽃게는 크리스마스 절에 맞춰 거의 전량이 외국에 수출된다. 또한 마을에는 주민들이 관할하는 공동해역이 있어 마을민 공동으로 미역이나 듬북 등을 채취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렇듯 이곳 사람들의 생활은 바다에 크게 의존해 있기 때문에, 수산의례·금기, 나아가 주민들이 꾸는 꿈에 이르기까지 바다 및 어업에 관계된 전승이 민간신앙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 (2) 배서낭

이곳의 배서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꿈 속에 나타난 신격의 성에 따른다. 배를 건조하거나 새로 구입할 때, 흔히 선주의 꿈에 장차 배서낭이 될 신격이 여자 혹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보자는 이 마을의 경우 모든 배서낭이 여신이며 아마 남신을 모시는 배는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여성이 배서낭을 모실 경우 삼색 혹은 오색의 옷감과, 같은 색상의 실·바늘·화장품 따위의 여성용품을 상자에 넣어 선장실 벽에 걸어 놓는다. 제보자는 배서낭의 신체가 이러한 물품들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물품들은 단지 배서낭이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옷감, 실 등이 들은 상자를 ‘당’·‘당거리’라 한다. 전용 경위는 확실치 않지만 이 상자가 마을 당제의 당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믿는데서 ‘당’·‘당거리’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추정된다.

선원들은 배서낭을 모시고 난 뒤부터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조업 중의 조식과 석식에서는 음식을 당거리 앞에 진설하여 배서낭에게 먼저 바치고 그 음식을 선주나 선장이 다시 물려와야 식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은 사라져 버렸지만 배에 여자를 승선시키지 않던 관습도 배서낭과 관련된다. 여자가 승선하면 같은 성인 배서낭이 질투를 하여, 배에 고장을 일으키거나, 조업을 망치고 혹은 인명의 사고까지 일으킨다는 것이다.

## (3) 뱃고사

제보자 한씨는 구정·추석의 세시명절과 매달 서무셋날(음력 12일·27일)에 배 위에서 고사를 지낸다. 제관은 선주가 된다. 마치 당제의 제관들처럼 한씨도 고사 때가 다가오면 개고기 따위의, 추하다고 여겨지는 육류를 먹지 않으며, 출산·상이 있는 집에 출입을 않아 자신이 부정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사 전날에는 목욕제계하여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 한씨는, 만일 이러한 일들에 소홀하면 고사의 제신인 배서낭과 바다의 용왕이 노하여 고기가 잘 잡히지 않게 심술을 부리고 심지어는 사고까지 일으킨다고 믿고 있다.

고사상에는 상선일 경우 메·떡·주·국·나물류·돼지머리·민어·조기·서대·도미·꽃게 등이 오른다. 이러한 제물들은 메·국·나물류 등 일반적으로 제상에 놓이는 것과, 제보자 한씨가 귀한 음식이라고 여겨 선택한 어물들과 그리고 배서낭이 가장 좋아한다고 믿는 돼지고기로 그 부류를 나눌 수 있다. 어물은 바로 전 고사 이 후 첫 어획에서 잡은 크고 실한 것을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 두었다가 쓴다. 한씨는 민어를 귀한 고급 어물로 생각하고 고사 때마다 민어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 절대로 진설해서 안 되는 음식도 있다. 이

러한 음식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기피된다. 육류에서는 개고기가 가장 ‘추하다’하여 기피된다. 어물에서는 장어가 비늘이 없고 몸체가 길어 마치 뱀과 같다하여 진설되지 않는다. 한편 송어는 어물 중에도 지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수어’라는 이유 때문에 누구나 제상에 올리려할 것 같지만 오히려 기피된다. 송어는 제상에 올리지 않을 뿐 아니라, 조업 중에 몇 마리 잡힐 때에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낸다 한다.

제물은 이물, 선장실의 뱃서낭 앞, 기관실, 그물 보관하는 곳 등에 진설된다. 혹 선착장의 배를 매어 두는 곳에 진설되기도 한다. 큰 배의 경우에는 다섯 군데에 작은 배는 세 군데 진설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한다. 각 장소에 놓이는 제물은 유사하나 돼지머리만큼은 반드시 선장실 뱃서낭 앞에 놓는다. 제관인 선주는 우선 뱃서낭 앞에 가서 술을 단작하고 절을 하면서 “고기 잘 잡히게 해주십시오”라고 고하고 다시 절을 한다. 다른 장소의 제상 앞에서는 헌작만하고 배 주위를 돌며 끌고루 뿌린다. 바다 용왕에게 헌식을 하는 절차이다. 이 마을에선 이 헌식이 ‘신불’이라 불리운다. ‘산물’을 할 때 제관인 선주는 “자 이번에는 배가 사고없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라고 기원한다.

뱃고사의 제신은 이상과 같이 뱃서낭과 용왕이다. 그런데 제보자 한씨는 뱃고사를 지낼 때 지신도 포함되어 세 신격이 위안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씨는 세 신격이 위안을 받는다고 말할 뿐 구체적으로 뱃고사에서 지신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뱃고사가 제보자 한씨에게 주는 심리적 안도감은 상당히 큰 것 같다. 그는 뱃고사를 지내고 나야 자신과 가족원들의 마음이 편하고 평화로워진다고 진술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굴암마을 주민 중 기독교인들이 뱃고사를 미신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아직 대부분은 뱃고사를 당연시하고 있다 한다.

가까운 친지간에 기를 증여하고, 그 기를 세우는 관습도 수산의례적 성격을 띤 민속이다. 배를 새로 만들었을 때, 새로 샀을 때, 선주의 친족원이나 친구 이웃들이 기를 증여함으로써 그 배의 안전과 앞으로의 풍어를 기원해 준다. 기는 삼색 혹은 오색 등 홀수의 색에, 세자(척) 세치(촌), 다섯자 다섯치, 일곱자 일곱치 등 홀수의 횡수로 된 크기이어야 한다. 보통 ‘풍어’, ‘대어’라는 글귀가 씌어 있으며, 처음 건조된 배에 증여하는 기에는 ‘진수’라는 글자도 씌어 있다. 기를 받은 선주는 답례로 술을 내고 수건을 선물한다. 제보자 한씨는 기를 선물한 친족원, 친구, 이웃들에게 100장이 넘는 수건을 선물했다 한다. 이 기들은 뱃고사가 거행될 때, 이물에서 시작해서 고물 쪽으로 달아 나간다.

참고문헌 :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박물관 · 신안군, 1987, 259~262쪽.

## 6. 가정신앙 ‘성주, 조상, 조왕, 지앙’

조사일시 : 2011년 12월 30일

제 보 자 : 신의면 상태동리 모룡마을 김용례(여, 74세)

〈표6〉 가정신앙 목록

| 번호 | 신격 | 위 치       | 신 체  | 기 능           | 제사 및 차례                            | 제 관                          | 전승현황           | 비 고 |
|----|----|-----------|------|---------------|------------------------------------|------------------------------|----------------|-----|
| 1  | 성주 | 마래 기둥 밑   | 성주동우 | 가택신           | 조상제사, 설, 보름, 이월초하루, 유월유두, 칠월칠석, 동지 | 부인들이 간단히 음식을 올림              | 성주동우 없고, 의례 지속 | 신규  |
| 2  | 조상 | 시령위       | 조상독  | 조상신           | 조상제사                               | 부인들이 간단히 음식을 올림              | 조상독 없고 의례 지속   | “   |
| 3  | 조왕 | 부엌의 술단지 옆 | 조왕독  | 부엌신           | 설, 보름, 이월초하루, 유월유두, 칠월칠석, 동지       | 부인들이 간단히 음식을 올림              | 조왕독 없고 의례 소멸   | “   |
| 4  | 지앙 | 아이낳은 방문 앞 | 지앙독  | 출산과 아이들의 무병장수 | 출산 이후                              | 부인들이 향아리에 쌀을 담고 그 위에 미역을 올려둠 | 지앙독 없고 의례 소멸   | “   |

### 1) 집안의 어른 ‘성주’

성주는 집에서 가장 큰 존재로서 ‘성주조상’이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많은 가정에서 성주동우를 놓고 제사와 차례를 모셨으나 지금은 대부분 소멸한 상태다. 다만, 성주동우 신체(神體)는 없어졌으나 성주신앙 자체는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제사와 차례 때 성주상을 차린다.

성주 신체는 동우로 되어서 ‘성주동우’라고 부른다. 성주동우는 집안의 가신과 조상이 모셔져있는 마래의 기둥 밑에 놓았다. 성주동우 안에는 쌀을 담아놓고 그 위를 납작한 돌로 덮는다. 쌀은 해마다 햅쌀이 나면 묵은쌀을 덜어내고 햅쌀을 넣는다. 성주동우에 넣은 쌀은 벌레가 먹지 않는데, 쌀을 넣는 시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보통 가을에 쌀을 넣으면 벌레를 먹지 않는데 가을이 지나 설 무렵에 쌀을 넣으면 벌레 먹는다고 한다. 성주동우에 햅쌀을 넣은 후 묵은쌀은 밥을 해먹는다.

성주에 대한 독자적인 의례는 처음 집을 지을 때 하고, 그 이후부터는 차례나 제사 때



다른 의례들과 함께 행해진다. 성주에 대한 의례는 간단히 밥을 차려서 올리는 것으로 집안의 제사와 설, 정월 보름, 이월 초하루, 유월유두, 칠월칠석, 동지 등의 명절 때 행한다. 집안의 제사 때에는 제사 음식을 올리고, 명절 차례에서는 해당 명절에 먹는 음식을 올린다. 유두나 칠석에 개떡을 만들어먹으면 개떡을 올리고, 동지에 팔죽을 쑤면 팔죽을 올린다.

성주와 관련된 신앙은 과거에도 모든 집에서 행하지는 않았다. 성주를 모시게 되면 아무래도 조심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은 교회와 관련되어 종교관의 차이 때문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부모와 자식 간에 종교관이 다를 경우 제사나 차례의 진행이 원활할 수 없기 때문에 성주에 대한 신앙과 의례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짐작된다.

## 2) 집안의 뿌리 ‘조상’

과거에는 ‘조상독’이라 하여 조상의 이름을 쓴 종이를 담은 나무 독이 존재하였다. 본래 조상독은 단순한 네모 모양으로 나무를 깎아 만들었으나 그 뒤로는 기와집 모양으로도 만들어 사용했다. 보통 시렁 위에 모셔놓고 제사는 그 밑에서 모셨다. 이러한 전통도 약 41년 전 제보자의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없어졌다.

현재는 조상독 대신 사진으로 대체하여 제사를 모신다. 제보자는 조상독을 깨끗한 바위 밑에다 갖다 버렸다고 한다. 요즘에는 제사를 통합하여 모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사진을 나란히 놓고 제를 지낸다. 사진이 없는 조상은 지방으로 대신한다.

## 3) 부엌신 ‘조왕’

조왕은 부엌을 관장하는 신이다. 조왕의 신체는 종지기다. 보통 부엌 아궁이 위에 있는 솔단지 옆에 종지기를 놓는다. 종지기에는 물을 떠서 담고 뚜껑으로 덮는다. 조왕에 담긴 물은 매월 초하루나 초사흘날에 간다.

조왕에 대한 의례는 명절 때 간단히 상을 차려놓는 정도였다. 성주의 경우 기제사 때에도 상을 차리는데, 조왕은 조상들에 대한 제사 때에는 차리지 않는다. 조왕상에 올리는 음식도 매우 간소하다. 고기 종류는 올려서는 안된다는 금기가 있고, 밥과 국, 나물, 술 등을 간단히 진설한다. 상을 차릴 때도 숟가락은 놓지 않는다.

#### 4) 출산과 기자(祈子) ‘지앙’

지앙은 자손들이 무병하라는 뜻에서 산고가 들 시에 일시적으로 모시는 형태였다. 항아리에 쌀을 담아놓고 그 위에 미역을 올려 아이를 낳은 방 앞에 놓는다. 과거에는 아이를 낳고 일곱이레를 지냈다. 일곱이레를 망중이레라고도 한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일곱이레를 쇠는데, 손이 귀하여 공을 들일 경우에는 열두이레를 지낸다. 또 문전지앙이라고 하여 짚을 묶어서 세워 났다가 망중이레가 가면 걷는다. 지앙상을 놓으면 행동거지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과거에도 잘 놓지 않으려고 했다.

지앙맥이라고 하여 아이를 못 낳는 경우, 당골이 시루에다 떡을 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에 올려 손으로 내려받는 행위도 하였다. 이렇게 공을 들여 낳은 아이는 자손이 많은 집의 아이들 옷을 얻어 입히기도 했다. 제보자의 경우는 10남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집에 와서 옷을 가져간 적이 많았다고 한다. 현재는 지앙신앙이 소멸한 상태다.

## 7. 열두 달 세시풍속

조사일시 : 2011년 12월 30일

제 보 자 : 신의면 상태동리 모롱마을 김용례(여, 74세)

〈표7〉 세시풍속 목록

| 시 기 |         | 세시풍속                                                                                                                             | 음식 |
|-----|---------|----------------------------------------------------------------------------------------------------------------------------------|----|
| 월   | 절 기     | 내 용                                                                                                                              |    |
| 1월  | 섣달그믐과 설 | 염전고사, 집안 청소, 소밥 주고 점치기, 차례, 성묘, 세배, 옷놀이, 여자들 집밖에 나가지 않기, 복조리 팔기                                                                  | 떡국 |
|     | 초순      | 토정비결 보기, 액막이, 당제와 건구                                                                                                             |    |
|     | 보름      | 염전고사, 보름차례, 참기를 먹지 않기, 사내기 가내자, 진대꽃기, 뽕보라지 지지자, 잠 안자기, 치밥 얻어먹기, 불넘기, 유지지 세우기, 더위팔기, 맨발로 다니지 않기, 깍두기 먹지 않기, 샘물 걷기, 보름달 점치기, 까치밥주기 |    |
|     | 월중      | 옹날 물 걷지 않기, 뱀날 뱀 방지하기, 쥐날 불 켜지 않기, 연날리기, 묘 쓰지 않기                                                                                 |    |

| 시 기 |     | 세시풍속                                | 음식     |
|-----|-----|-------------------------------------|--------|
| 월   | 절 기 | 내 용                                 |        |
| 2월  | 초하루 | 차례, 콩복아먹기, 비영등 · 바람영등               |        |
|     | 월중  | 입춘 붙이기, 개구리알 먹기                     |        |
| 3월  | 삼짇날 | 제비가 돌아오는 날                          |        |
|     | 한식날 | 산일하기                                |        |
| 4월  | 초파일 | 절에 가기, 산소에 가기                       |        |
| 5월  | 단오  | 널뛰기, 그네뛰기, 찰떡먹기                     | 찰떡     |
| 6월  | 유두  | 유두차례, 수문고사(논고사), 보리떡 먹기             | 보리떡    |
| 6월  | 월중  | 복달임                                 |        |
| 7월  | 칠석  | 차례, 논밭에 나가지 않기, 신참봉 만나는 날, 밀문지 부쳐먹기 | 밀문지    |
|     | 백중  | 차례                                  |        |
|     | 월중  | 벌초, 머슴날                             |        |
| 8월  | 추석  | 차례, 성묘                              | 송편     |
|     | 월중  | 올벼심리                                | 올벼쌀    |
| 9월  | 중구  | 중구떡 먹기, 들국화 베개                      | 찰서숙떡   |
| 10월 | 월중  | 시제 모시기                              |        |
| 11월 | 동지  | 동지차례, 팔죽 점보기                        | 팔떡, 팔죽 |
| 12월 | 월중  | 빚 갚기                                |        |
| 윤달  |     | 수의 만들기                              |        |

## 1) 1월의 세시풍속

### (1) 선달그믐과 1월 1일

#### 염전고사

그믐날 아침에 염전창고와 수문에서 염전고사를 지낸다. 고사상은 염전창고 안과 수문 앞에 차린다. 고사상 지내면서 ‘일 년 열두 달 근심 없이 소금을 잘 내달라.’고 기원한다. 제물로 올리는 돼지머리는 살을 조금 벗겨서 먹고 수문에 던진다.



사진10. 상태동리 김용례(여, 73세) 제보자

## 집안 청소

선달그믐에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집안 곳곳을 청소한다.

## 소밥 주고 점치기

선달그믐날 밤에 소에게 콩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먹이로 갖다 준다. 그래서 소가 제일 먼저 먹는 작물로 새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소가 콩을 제일 먼저 먹으면 ‘콩 농사가 잘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기를 먹으면 ‘어장이 잘 되겠다’고 생각한다. 또 소가 밥을 먹으면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점친다.

## 차례와 성묘

신의면을 비롯한 서남해 도서지역에서는 설 차례를 그믐날 저녁에 지낸다. 그믐날 저녁에 조상과 성주, 조왕에 음식을 차례놓는다.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 중에서 국은 대체로 미역국을 많이 끓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석화화 두부와 소고기를 넣은 맑은국을 끓인다. 차례상에 떡국을 차례놓는 사람도 있으나 제보자의 가정에서는 밥과 국을 올린다. 차례를 마치면 음식을 싸서 잡귀들을 위한 퇴송밥을 만들어 집밖에 놓는다.

1월 1일 설날 아침이 되면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는다. 아침에는 손으로 빻은 새알떡국을 많이 해서 먹었다. 떡을 하려면 절구로 쌀을 빻고 치로 내려서 찌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한다. 오전에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옷놀이 등을 한다. 현재는 옷놀이를 하는 풍속도 줄어들었다.

## 초하룻날 여자들이 집밖에 나가지 않기

초하루에는 여자들이 집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게 했다. 제보자의 아버지도 초하룻날 여자들이 밖에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후정도만 되면 모두들 나가서 논다.

## 복조리 팔기

복조리는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팔러 오는데, 주로 도시에서 복조리 장수가 들어온다.

## (2) 1월 초순

### 토정비결 보기

토정비결 책으로 가족들의 운수를 본다.

### 액막이

정초에 집의 액을 몰아낸다고 하여 밥을 해놓고 독경을 했다. 제보자가 시집을 왔을 때 신의면에는 독경을 하는 법사가 많지 않았다. 당시 친정 하의도에는 독경하는 사람이 많았다.

### 당제와 건구(농악)

정월 초사흘날 마을에서 당제를 모셨다.<sup>1)</sup>

## (3) 1월 보름<sup>2)</sup>

### 염전고사

정월 열나흘날 아침에 염전창고와 수문 앞에서 고사를 지낸다. 고사의 진행은 설달그믐과 같다. 고사상 지내면서 ‘일 년 열두 달 근심 없이 소금을 잘 내달라.’고 기원한다.

### 보름차레

보름차레는 정월 열나흘날에 지낸다. 저녁이 되면 마래에 차레상을 차린다. 보름차레가 다른 명절 때와 다른 점은 쌀밥 대신 오곡밥을 차리는 것이다.

---

1) 당제는 공동체신앙 항목에 정리되어있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신의면을 비롯한 서남해 도서해안지역에서는 보름차레를 정월 14일에 지낸다. 그래서 정월 14일과 15일 모두 대보름이라는 의식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월 14~15일의 풍속을 묶어 대보름 항목으로 정리한다.



### 참기름 먹지 않기

정월 열 나흘날에는 참기름을 먹지 않는다. 이 날 참기름을 먹으면 모 이종을 할 때에 손이 미끄럽게 되어 잘 뽑히지 않게 된다고 하여 음식에 참기름을 넣지 않았다.

### 사내기 가내자, 진대꽃자

정월 열나흘날 지붕에 술가지를 올려놓고 소금을 뿌리며 ‘사내기 가내자’라고 외친다. ‘사내기’는 짚 지붕에서 서식하는 벌레의 한 종이다. 이어서 바로 피마주대를 원새끼줄로 묶어서 끌고 다니며 ‘진대 꽃자 배암 꽃자’ 또는 ‘진대 뿔자 배암 뿔자’라고 한다. 이러한 진대꽃기는 2인 1조로 진행하는데, 앞에 사람은 피마주대를 끌고 뒤에 사람은 피마주대를 때리면서 집을 한 바퀴 돈다. 진대꽃기를 마치면 피마주대를 밖에 갖다 버린다.

### 땔보라지 지지자

정월 열나흘날에서 열닷새로 넘어가는 새벽에 논밭에 불을 피우고 ‘땔보라지 지지자’라고 외친다.

### 잠 안 자기

정월 열나흘날 밤에 잠을 자면 눈에 ‘시슬 인다’고 하여 잠을 안자고 날을 샌다.

### 치밥 얻어먹기

정월 열나흘날 오곡밥을 하면 마을의 아이들이나 처녀총각들이 치를 가지고 밥을 얻으러 왔다. 밥을 얻으러 오면 그들을 맞이한 가정집에서는 오곡밥을 한 숟가락씩 내준다. 이때 치에 밥을 퍼주기 때문에 이 밥을 ‘치밥’이라고 한다.

치밥을 얻으면 절구통을 뱅뱅 돌면서 먹는다. 특별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절구통을 돌면서 치밥을 먹으면 좋다고 한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치밥을 얻으러 다니기 때문에 밥을 한 소쿠리씩 해도 하나도 남지 않았던 적이 많았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대보름에 퇴송한 음식들을 가지고 놀다가 모두 가져다 먹어버린다.

### 불 넘기

정월 15일 새벽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나이만큼 뛰어넘으면 좋다고 하여 날이 셀 때

까지 했다.

### **유지지 세우기**

정월 15일 새벽 긴 장대나 나뭇가지에 짚을 절어서 매단다. 이것을 ‘유지지를 세운다’라고 하는데,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함이다. 제보자는 지나가는 기러기나 갈매기가 앉았다 가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 **더위팔기**

정월 15일 아침이 되면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아무개야’ 하고 천연하게 부른다. 이때 부름에 대답하면 “내 더우!”라고 하여 더위를 판다.

### **맨발로 다니지 않기**

정월 15일 아침에 맨발로 다니면 발에 ‘조매 묵는다’라고 하여 꼭 양말이나 버선을 신는다. 이와 관련하여 여름에 발바닥이 ‘얼터얼터’하게 거칠면, “너 보름날 아침에 발 벗었지.”라고 말한다.

### **깍두기 먹지 않기**

정월 15일 아침에 깍두기를 먹으면 모심기를 할 때 벌레에 쏘인다고 한다. 그래서 벌레에 쏘이면 보름에 깍두기를 먹었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

### **샘물 길기**

정월 15일 새벽에 남들보다 먼저 샘물을 길어오면 좋다고 한다.

### **보름달 점치기**

정월 15일 보름달의 상태를 보고 그 해의 농사 풍흉을 점친다.

### **까치밥 주기**

정월 보름에 까치밥 주기를 한다. 중단된 지 오래 되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기억하지 못한다.

#### (4) 1월 월중

##### 용날 물 긴지 않기

용날에 물을 길으면 벼 이종을 할 때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여 물을 긴지 못하게 했다.

##### 뱀날 뱀 방지하기

뱀날에는 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자로 글씨를 써서 집 둘레에 거꾸로 붙여놓았다.

##### 쥐날 불 켜지 않기

쥐날에 불을 켜면 쥐가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여 불을 켜지 못하게 하였다.

##### 연날리기

정월 내내 연을 만들어서 연날리기를 하고, 이월 초하루에 연줄을 끊어서 연을 날려보낸다.

##### 묘 쓰지 않기

정월에 사람이 죽으면 ‘흙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여 묘를 쓰지 않고 초분을 한다. 유아기의 어린아이들의 경우 시기에 상관 없이 땅을 다루지 않는데, 주로 독에 담아서 돌무덤을 만든다.

## 2) 2월의 세시풍속

### (1) 2월 초하루

#### 차례

2월 초하루는 ‘세 번째 넘어가는 마지막 명절’이라고 하여 새벽에 밥을 차려놓았다. 성주와 조상, 조왕에 상을 차린다. 보통의 명절처럼 미역국이나 둥부국을 지어서 올린다.

## 콩볶아먹기

2월 초하루에 콩을 볶아먹으면 손에 ‘끄스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콩을 볶아먹었다.

## 비영등·바람영등

2월 초하루는 영등이 내리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날의 기상에 따라 영등의 성격이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 초하룻날 비가 오면 비영등이 내리고 초하룻날 바람이 불면 바람 영등이 내렸다고 하였다. 비영등이 내리면 비가 자주 와서 깨 곡식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고, 바람영등이 불면 ‘쉬운 닻새 하라척을 분다’고 하여 오랫동안 바람이 분다고 했다.

### (2) 2월 월중

## 입춘불이기

입춘을 잘 붙이는 것이 독경 한 번 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입춘을 붙이는 집이 많았다.

## 개구리알 먹기

추위가 풀려 따뜻해지면 개구리알이 생기는데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 약이 된다고 하여 먹기도 했다.

### 3) 3월의 세시풍속

#### (1) 3월 3일 삼짇날

## 제비 오는날

삼짇날에는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한다.

#### (2) 3월 월중

## 한식날 산일하기

한식은 음력 2월~3월에 주로 든다. 한식날에는 묘를 손보는 등의 산일을 한다.

## 4) 4월의 세시풍속

### (1) 4월 초파일

## 절이나 산소 가기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러 절에 가거나, 날이 좋다하여 부모 산소에 간다.

## 5) 5월의 세시풍속

### (1) 5월 단오

## 널뛰기와 그네뛰기

여자들이 큰 널판을 놓고 널뛰기를 많이 하고, 줄을 달아서 그네를 탄다.

## 찔레꽃떡먹기

단오에 찔레꽃을 따다가 그 꽃으로 떡을 해먹으면 얼굴에 버짐이 피지 않는다.

## 6) 6월의 세시풍속

### (1) 6월 유두

## 차례

유두는 여름 명절로서 조상과 성주에 차례를 모신다. 유두에는 보리떡을 상에 올리고

나눠 먹는다.

### **수문고사(논고사)**

유두에 논물을 대는 수문에 상을 차리고 고사를 지낸다.

#### **(2) 6월 월중**

### **복달임**

복날이 되면 개를 많이 잡아먹었다. ‘복날 개 맞듯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초복에는 나락이 한 살을 먹고, 중복이면 두 살이고, 말복이면 세 살을 먹어 나락이 다 편다’는 말이 있다.

## **7) 7월의 세시풍속**

#### **(1) 7월 칠석**

### **차례**

칠석은 여름 명절이기 때문에 성주와 조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낸다.

### **논밭에 나가지 않기**

칠석에는 칠석님들이 일 년 농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논이나 밭 등 농사와 관련된 곳은 일절 나가지 않는다.

### **신참봉 만나는 날**

칠석날은 ‘하늘의 신참봉도 은하수로 다리 놓고 둘이 만난다’는 말이 있다.

### **밀문지 부쳐먹기**

과거에는 부침개를 밀문지라고 했다. 직접 재배한 밀을 맷돌에 갈고, 치로 내려서 얇게 부쳐 먹는다.



## (2) 7월 백중

### 차례

백중에는 칠석과 마찬가지로 성주와 조상에 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낸다. 백중에 파를 심으면 파가 백가지 난다는 말이 있다.

## (3) 7월 월중

### 머슴날

세 벌 논매기를 마치면 부잣집 머슴을 소에 태우고 들어온다. 그러면 머슴을 많이 둔 부잣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사람들을 대접한다. 이날을 머슴날이라고도 하여 머슴에게 새 옷을 입혀준다.

### 벌초

7월이 되면 벌초를 시작한다.

## 8) 8월의 세시풍속

### (1) 8월 추석

#### 차례와 성묘

추석이 되면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추석도 모든 명절과 마찬가지로 하루 전날 저녁에 차례를 지낸다. 추석에는 송편을 찌서 먹는다. 신의도에서는 송편을 솔편이라고 부른다.

### (2) 8월 월중

## **올벼심리**

햅쌀이 나면 조상에 밥을 차려놓는데 이것을 ‘올벼심리’라고 한다. 이때 성주쌀도 새 쌀로 갈아넣고 형제끼리 햅쌀로 밥을 해서 나누어 먹는다.

## **9) 9월의 세시풍속**

### **(1) 9월 중구**

#### **중구떡 먹기**

9월 9일 중구에는 처녀들이 찰서숙으로 떡을 해서 모두 나누어먹었는데 이를 중구떡이라고 한다.

#### **들국화 베개**

들국화를 말려다가 9월 중구에 베개에 넣으면 좋다고 한다.

## **10) 10월의 세시풍속**

### **(1) 10월 월중**

#### **시제 모시기**

10월을 상달이라고 하여 시제를 많이 모신다.

## **11) 11월의 세시풍속**

### **(1) 11월 월중**

#### **동지차례와 팔죽 점보기**

동지가 드는 날짜에 따라 동지의 성격을 구분한다. 초순에 드는 동지를 애동지, 중순에 드는 동지를 중동지, 하순에 드는 동지를 노동지라고 한다. 애동지에는 차례도 지내지 않고 팔죽도 쑤지 않는다. 노동지에는 팔죽을 쑤어 차례를 지내는데, 접시에 1년 12달을 상징하는 팔죽을 따로 떠 놓고 죽에 갈라진 금으로 점을 친다. 예를 들어, 정월에 해당하는 팔죽에 금이 갈라져 있으면 정월에 가물 것이라고 점을 친다. 반대로 금이 가지 않으면 비가 온다고 한다. 그리고 액을 막는다고 하여 팔죽을 집 둘레에 뿌린다.

## 12) 12월의 세시풍속

### (1) 12월 월중

#### 빛 갇기

12월은 마지막 선달이라고 하여 묵은 빛을 갇는다.

## 13) 윤달의 세시풍속

#### 수의 만들기

윤달에는 굿은일을 해도 탈이 없다고 하여 수의를 만들기도 한다.

## 8. 활용방안

### 1) 세시풍속의 현대적 활용

세시풍속은 자연의 순환체계를 문화의 영역 속으로 끌어들인 문화순환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연속을 일정한 주기에 따라 맺고 풀게 하는데 자연의 순환원리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세시풍속은 각각의 의미를 재생산하면서 삶의 순환을 유의미하게 하는데, 근래에 들어서 대부분의 세시풍속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 세시풍속이 사장되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의 순기능마저 상실해가고 있다.

세시풍속 중의 하나로 행해지던 당제를 예로 들면, 당제는 공동체의 신앙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당제를 진행할 때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금기를 지키고, 집집마다 돈을 건어서 제의 비용을 충당했다. 그리고 제의가 끝나면 건구(농악)를 들고 축제판을 판들어서 온 마을 주민들이 흥겹게 놀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당제를 정초에 지냄으로써 움추렸던 몸을 활기차게 하여 농사일을 대비하게 하였다. 또한 이때 마당밧이를 행하여 마을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당제를 비롯하여 세시풍속의 대부분이 정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일 년의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각종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 공동체가 일종의 단합대회를 펼치는 것이다.

세시풍속의 순기능과 현대적 활용 측면에서 염전고사와 올벼심리, 당제 등을 융합하고 의미론적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염전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시풍속은 농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현재 신의면의 주된 생업은 염전에 있다. 따라서 염전의 생업주기를 중심으로 하여 첫 소금을 생산할 때나 마지막 소금을 생산할 때 염전고사나 소금축제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요식행위로서 고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고사나 축제를 통해 마을과 지역의 주민들이 자연의 혜택에 대해 감사하고 공동체적 유대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적 생업주기에 맞춰 제의와 놀이를 진행함으로써 공동체가 집중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공동체성을 담보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어떤 형태든 의례를 행한다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여 정성을 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금생산과 관련하여 의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지역 소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2) 나룻배와 노두의 교육 및 경관적 활용

나룻배와 노두는 섬과 섬을 연결해주는 문화소통로였다. 신의면의 경우 지금도 하의도를 왕래하는 나룻배가 운항 중이다. 신의면은 공간적인 변화를 겪었다. 과거 상태도와 하태도로 구분되어 있을 때는 하의도와 함께 ‘하의삼도’로 불렸다. 그러다가 상태도와 하태도가 제방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섬이 되고, 하의면으로부터 분면이 되면서 독자적인 신의면이 되었다.

섬의 공간 변화는 삶의 권역과 활동 공간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에는 하의도를 중심으로 세 개의 섬이 결합되었는데, 두 개의 섬이 되고 분면이 되면서부터는 상태도와 하태도가 하나의 독자적 생활권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행정의 중심지가 하의도였기 때문에 상

태도와 하태도는 각각의 나룻배로 하의도와 소통을 했고, 상태도와 하태도는 노두를 통해 서로 소통을 했다. 현재 나룻배는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노두는 제방공사의 과정에서 염전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나룻배와 노두는 과거 ‘하의삼도’ 문화권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따라서 나룻배가 다니고 노두가 놓였던 곳을 문화유적지화 하여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두의 일부분이라도 복원하여 경관과 관광요소로 활용할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간척의 문화사 정리와 전시관 건립

신의면은 섬 곳곳이 간척지다. 개인과 조합, 관이 경쟁적으로 갯벌을 간척해서 염전을 만들면서 섬의 지형 급격히 변화되었다. 심지어는 갯벌 일부분을 간척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대한 섬과 섬을 연결해서 광활한 염전을 만들어냈다. 상태도와 하태도가 연결된 것도 간척지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척활동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지금도 신의면 곳곳에는 간척을 하면서 독을 막고 갯벌을 염전으로 만들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다. 또 그들이 간척을 하면서 기록해 두었던 문서들도 남아있다. 직접 간척을 하던 세대들이 생존해있을 때 간척과 관련된 문화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신의면의 형성이 간척에서 비롯된 것임을 염두에 두고 간척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구술자료들을 정리하여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박물관 · 신안군, 1987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1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⑩

# 신의면편

---

## V 어로문화

김경완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1. 개요 126
2. 지역생산물과 로컬푸드 128
3. 섬과 갯벌에 대한 주민인식과 생활 136
4. 해양생태자원 활용방안 142



# V어로문화

## 1. 개요

신의면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천일염이다. 천일염은 오염되지 않은 바다와 염도가 높은 해수로 인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신의면 천일염은 바다와 갯벌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의면에는 천일염 외에도 바다와 연한 갯벌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다양한데, 김, 전복, 톳, 낙지 등 대표적인 로컬푸드로 사랑받는 해양수산물들이다.

신의면은 총 22개의 도서로 이루어졌는데 본도 외에도 고사도, 평사도, 기도가 유인도이다. 2010년 기준으로 신의면 전체 인구는 1,885명인데, 모두 4개의 섬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섬이다. 나머지 18개는 모두 무인도로 과거 사람이 거주하다가 무인도가 된 섬들도 있다. 신의면 해안선의 총 길이는 93.81km이다.

신의면의 갯벌은 크게 5개 구역으로, 양식장, 염전과 더불어 조성된 상태서리갯벌, 상태와 기도 사이의 넓은 유미리 갯벌, 상태도와 하태도를 연결하면서 방조제가 만들어진 타리도 갯벌, 동쪽의 피도갯벌, 집게만 안쪽의 깊은 원목갯벌로 구분할 수 있다. 갯벌 외에도 암반과 모래로 이루어진 황성금리해수욕장과 인근 연안에서 다양한 해양, 갯벌 생태체

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연안을 가지고 있는 탓에 신의면의 해양생물종 다양성은 뛰어나며 이를 이용하는 어로방식과 음식문화도 독특하고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신의면의 특징을 고려해 신의면의 갯벌과 어로문화를 중심으로 자원화가 가능한 내용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갯벌을 이용해 살아온 주민들은 바다와 갯벌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자연 대상을 자신들만의 지식과 경험체계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체계화된 체계를 토착지식(indigenous knowledge)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 지식과 경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준다.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자연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현실에서, 자연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면서 인간문화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토착지식의 발굴과 적용에 있다고 하겠다. 그 내용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적용할 때 신의면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1〉 신의면 어로문화자원 목록

| 구 분  | 자 원    | 개 요                                                                     |
|------|--------|-------------------------------------------------------------------------|
| 특산물  | 천 일 염  | 신안 최대의 천일염 생산지로 게르마늄을 비롯한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은 모든 음식의 재료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슬로푸드로 각광받음 |
| 갯벌연안 | 상태서리갯벌 | 인근에 대규모 새우양식장과 김양식장이 분포됨                                                |
|      | 유미리갯벌  | 낙지와 굴, 김 생산지로 유명. 과거 상태와 기도를 연결하는 노두가 있었던 곳임                            |
|      | 타리도갯벌  | 상태와 하태를 연결할 때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섬이 타리도임. 대규모 염전의 배후갯벌임. 낙지채취                  |
|      | 피도갯벌   | 타리도 갯벌의 동쪽으로 낙지맨손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임                                      |
|      | 원목갯벌   | 모래 해변과 갯벌이 잘 어울어진 곳으로 개맥이 체험이 가능함. 갯벌 바깥으로 김양식장과 피조개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음        |

| 구 분           | 자 원      | 개 요                                                                             |
|---------------|----------|---------------------------------------------------------------------------------|
| 유서 깊은 명소      | 황성금리해수욕장 | 모래해변으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으로 인공적인 시설물이 없어 원시적인 해안경관을 누릴 수 있음. 사구 위쪽에 갯방풍과 갯메꽃 등 사구식물이 서식함 |
|               | 버리기미     | 40여년 전까지 어시장이 열렸던 곳으로 이 일대에서 가오리, 부서, 민어, 상어 등이 대규모로 생산되었음                      |
|               | 남근, 여근바위 | 월빙등산로 하태 주능선에 위치한 이곳은 민속의례가 전승되지 않았지만,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장소로 자리매김이 가능해 명소로 발전 가능성이 큼 |
|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문화 | 낙지연포     | 낙지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식초와 각종 양념을 넣어 만드는 하의도 특유의 음식임                            |
|               | 전복회, 전복죽 | 대표적인 고급 패류로 회나 죽을 만들어 먹는데, 인삼을 넣은 전복죽은 회복기 환자에게도 좋은 건강식                         |
|               | 갈파래국     | 마을공동체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요리로 돼지뼈와 함께 오랫동안 삶는데 그 맛이 일품임                                |
|               | 바위웃우무    | 바위에서 채취한 바위웃으로 우무를 만든 다음, 각종 양념을 넣은 양념장을 뿌려 만드는 음식                              |
|               | 김, 톳 등   | 유기산을 이용한 김과 파래김과 톳은 슬로푸드, 건강식으로 각광 받고 있음                                        |
|               | 피조개, 새우  | 연안의 피조개양식장과 육상 새우양식장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대표적인 수산물임                                     |

## 2. 지역생산물과 로컬푸드

### 1) 천일염

‘천일염의 고장 신의면’은 신안군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염전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천일염 생산량이 306,000톤인데, 신안군이 67%인 204,000톤을 생산했다. 이중에서 신의면이 57,170톤을 생산해 신안군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다. 가히 천일염의 고장으로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상태도와 하태도가 마치 염전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 넓은 염전지대에 들어서면 낡은 소금창고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영화세트장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목조창고가 신기하기만 하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낡은 목조창고와 슬레이트 해주가 친환경적인 소재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소금산업진흥시책과 품질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금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내산 천일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다.



사진1. 친환경설비로 만든 소금창고



사진2.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친환경소재로 만든 해주 지붕

천일염 생산과정은 자연만을 이용해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먼저 바닷물을 담아 가둔 저수지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인다. 한번 양수기를 통해 염전 위에 올라온 바닷물은 증발자인 난치, 누치를 거쳐 결정지까지 자연스럽게 흐른다. 각각의 단계마다 자연스럽게 염수가 흐르도록 결정지가 가장 낮게 위치해 있다. 이렇게 단계별로 점차 염도를 높여간다.

바닷물의 염도는 평균 3.4%이다. 이 염도가 25% 이상까지 높아져야 물리적으로 소금결정체가 만들어진다. 이때부터는 오로지 햇빛과 바람만이 소금을 만들 수 있다. 최종 결정지에서 대패질을 하면 함수는 곧 소금결정체로 자기 몸을 바꾼다. 이것이 천일염이 만들어지는 비밀이다.

물과 소금은 인간의 인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다. 공교롭게도 바닷물의 구성성분은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바닷물을 이용해 만든 천일염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불린다.

국내에서 천일염이 천덕꾸러기가 된 것은 1997년 7월 소금이 수입자유화 되면서부터다. 이후 정부는 수입 소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2005년까지 폐전하는 염전업자



들에게 특별지원을 하게 된다. 이른바 폐전정책을 장려해 왔다.

다행히 2007년「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 3월부터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전까지 천일염은 식품이 아니고 광물이었다. 그러므로 가공식품에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즉, 과자를 만들거나 판매를 전제로 한 된장, 고추장을 만들 때 정제염만 사용해야 했다. 정제염이란 공장에서 만들어진 99.9%의 염화나트륨(NaCl) 덩어리다. 하지만 천일염은 약 85%정도만 염화나트륨이고 나머지 15%는 마그네슘, 요오드 등 각종 천연 미네랄로 채워져 있다. 이 때문에 천일염은 무조건 짜거나 쓴 맛이 나지 않고 다양한 풍미가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제염에서는 염화나트륨을 제외한 어떠한 미네랄도 불순물로 여긴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다.

그럼 과연 정제염으로 우리의 전통음식인 된장을 만들 수 있을까? 대표적인 슬로우푸드인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 때 정제염을 사용하면 발효가 되지 않아 상품가치가 전혀 없다. 전통고추장 제조자들은 밖에 전시용으로만 정제염을 쌓아 두고 천일염을 이용해 전통을 이어오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법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예이다.

KBS 다큐멘터리에서 정제염을 바닷물의 염도에 맞게 녹인 수조와 천일염을 녹인 수조에 똑같은 바닷물고기를 넣었는데 정제염을 넣은 수조의 물고기가 모두 죽는 장면이 공개되었다. 미네랄이 없는 소금물은 이처럼 바닷물고기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소금이 고혈압과 직결된다는 오해도 천일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양의학에서 정제염을 가지고 고혈압과의 관계를 실험한 사례를 기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현대의학계의 맹점이다. 인간의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천일염은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천일염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한해 30kg 한 포대의 현지가격이 6~7천원이었는데, 사고 이후 소금 값이 3만원 이상까지 폭등한바 있다. 현재는 과거 수준의 3배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 이제야 천일염의 가치가 새롭게 인정된 셈이다.

염전은 아름다운 경관을 넘어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염전의 결정지에서 바다로 방류되는 곳에는 플랑크톤이 대거 흘러드는데 이로 인해 연근해 어획량이 늘어난다. 이미 프랑스 게랑드 지역에서 1970년대 초반 염전을 메워 리조트를 만들었을 때 인근 해양의 어획고가 크게 떨어진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천일염의 고장 신의면도 염전으로



인해 인근 해양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갯벌수산물

### (1) 낙지와 낙지연포

신의면에서도 갯벌 낙지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연중 생산되는 대표적인 수산물이다. 신의면 전체적으로 갯벌 낙지만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10여명에 이른다. 아직 주낙을 이용해 잡는 경우는 없으며, 모두 갯벌 위에서 가래로 직접 잡는다. 잡은 낙지는 식당에도 판매하지만 아이스박스에 담아 외지 소비자에게 직접 넘기는 경우도 있다.

낙지는 살아있는 채 바로 먹지만, 다양하게 요리해 먹기도 한다. 하의도를 비롯해 신의면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요리로 ‘낙지연포’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연포탕’이라고 해 뜨겁게 끓인 요리인 ‘탕’으로 먹는데, 신의에서의 연포는 낙지만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 식힌 다음 찬물에 식초와 각종 양념을 넣어 시원하게 먹는다. 주민들은 “부드러운 낙지를 계속 끓이면 질겨지는데 왜 오래 끓이나?”며 식초국에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한다. 시원한 낙지연포는 숙취해소에 특히 효능이 좋다.

### (2) 전복

인근 하의도에서 뽕 전복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신의면에서도 전복양식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전복양식이 시작된 것은 불과 10여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향후 신의면을 대표할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의면의 전복 양식은 하의도와는 사이 해로에 집중되어 있는데, 신의면 전복이 좋은 것은 건강한 갯벌과 전복먹이인 다시마 때문이다. 전복양식으로 유명한 완도의 경우 다시마가 봄철에 집중 생산되고 여름 이후에는 생산량이 떨어져 가공된 다시마를 사료로 제공한다. 이에 반해 하의도와 신의도 일대는 다시마가 연중 생산되어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다시마를 먹이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갯벌의 영양이 풍부해 갯벌 속의 다양한 무기질인 게르마늄 등을 다시마가 섭취함으로써 이를 먹고 자라는 전복의 맛도 좋다고 한다.

전복은 패각을 분리해 전복 살과 내장을 회로 먹기도 하지만, 전복죽으로 먹는 것도 맛

있다. 전복죽은 찹쌀과 모쌀을 1:1 비율로 씻어 물에 불린 다음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전복 내장을 볶아낸다. 냄비에 불린 쌀과 전복내장, 전복살, 인삼, 대추 등을 넣고 7배의 물을 붓고 문근히 끓인 후 소금 간을 한 후 먹는다.

### (3) 피조개양식과 새우양식

신의면에서는 피조개를 ‘꼬막’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날것에 양념을 더해 먹기도 하지만, 꼬막처럼 ‘삶아서’ 먹는 것이 이색적이다. 과거에는 자연산 피조개가 많았지만 거의 생산되지 않아 2005년도부터 일부 지역에서 종패를 뿌려 양식하기 시작했다. 신의면의 꽃게다리만은 피조개양식의 적지로 인정받고 있어 향후 신의면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수산자원으로 기대가 크다.

이밖에도 상태도와 솔섬을 간척해 만든 50헥타르의 양식장에서는 대규모로 새우(대하)를 양식해 생산하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단일양식장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연간 130톤의 대하가 생산되어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다.

### (4) 굴

겨울철의 대표적인 생산물인 굴은 신의면에서 별도로 양식하지 않더라도 연안 암반에서 자연스럽게 채취할 수 있다. 어촌계원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각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채취해 먹을 수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연안을 어촌계별로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1년 가을에 비가 많이 와 겨울 굴이 작다고 여성들의 걱정이 유독 컸다.

“굴 여문 놈만 추려 담기는 한디, 워낙 죽었어... 잘아. 죽었다는 것은 안 여물었다는 뜻이여. ‘죽다’고도 그러제. 가을에 비가 많이 오면 안 여물어요. (만약 굶다면) 배는 조사 불지라. 굶은 것만 추려서 조사도...”

여성들이라고 해도 모두 60대가 넘는 분들인데, 조세를 노련하게 놀리며 굴을 까는



사진3. 겨울철 갯바위에서 ‘조세’를 이용해 굴을 채취하는 여성

모습은 재빠르다. 대부분 자신들이 직접 먹기 위해 굴을 채취하며, 일부만 식당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 3) 해조류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는 해조류를 바다쓰레기라는 의미로 ‘seaveed’라고 부르며 먹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해조류 음식이 건강식품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는 ‘sea vegetable(바다야채)’라고 부르며 즐기기 시작했다. 과학이 발달한 서구인들이 이제야 해조류의 맛과 기능을 알았다니,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지역자원을 활용해 왔는지 감탄스러울 따름이다.

신의면에서 생산되는 김, 갈파래, 툇, 바위옷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다.

#### (1) 김, 파래김

현재 신의면 김양식은 20개 면허지에서 318만 헥타르가 운영 중이다. 김가공 공장은 여러 곳 있었지만 대부분 문을 닫고, 지금은 실제 3곳만 운영 중이다. 김가공 공장이 줄어든 탓에 대부분의 김생산자들은 주로 물김을 바로 육지의 가공공장으로 출하하기도 한다.

김생산은 주로 겨울에 이루어지지만 준비하는 기간을 포함하면 1년 동안 김양식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가을에 김 포자를 심고 배양하며, 김발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간다. 한번 수확하면 다시 김이 자라는데 20일에서 25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꼴로 물김을 생산하는 셈이다. 이렇게 3~4월까지 김 생산을 한 후 다시 한해를 준비하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

과거에는 김이 자랄 때 파래가 붙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염산처리를 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파래가 붙어 자라도록 두고, 그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파래김’이다. 파래김은 염산처리를 하지 않은 김이라는 신뢰를 주어 오히려 선호도가 더 높다.

#### (2) 갈파래

갈파래는 5, 6월 갯가 바위에서 채취해 말려 두는데 이때 채취한 것이 가장 부드럽고 맛

있는 상품이 된다.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경우에는 완전히 마르지 않은 채 밀폐된 비닐에 담아 보관해 두는데 그렇게 하면 더 부드러워진다고 한다. 이렇게 밀폐시켜 둘 때 다른 해조류와 달리 곰팡이가 피지 않는 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갈파래국은 마을 공동행사나 명절, 애경사에서 빠질 수 없는 요리인데 돼지뼈(혹은 돼지고기)와 함께 삶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돼지 뼈가 물러질 정도로 삶아도 갈파래는 물러지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워져 더욱 맛있게 된다고 한다.

신의도에는 갈파래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예부터 ‘남의 덕을 많이 보면 가포래(갈파래의 지역명)로 갇는다’는 말이 있었다. 마을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에서 쌀이나 식량을 도움 받거나 다른 덕을 받을 경우 서민들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해변에서 직접 갈파래를 한 포대씩 매다 주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광대섬(신의면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현재는 조도면에 속한 무인도)의 영선이 영감이 생전 처음 목포에 나가 항동시장 막걸리 집에서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아이고 고맙게 잘 먹었소. 내년 여름에 가포래 한 짐 저다 주께라“

했다고 한다. 술값을 현금으로 내고 나와야 하는 식당에서, 섬과 같은 인심이나 관계인 줄 알고 자신으로서는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다.



사진4. 갈파래와 돼지뼈는 궁합이 맞는 음식이다



사진5. 손님을 맞아 갈파래국을 끓이는 여성

### (3) 툇

툇은 모자반과에 속하는 해조류로 『자산어보』에는 ‘토의채 土衣菜’로 기록되어 있다. 자연산 툇이 보통 60~100센티미터까지 성장하는 반면, 양식으로 자란 툇은 최대 2미터 길 이까지 자라기 때문에 소비자가 양식산을 선호하며 값도 자연산보다 양식산이 더 높게 거래된다.

신의면에서 툇은 노은마을과 고사도, 평사도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양식되고 있는데, 대부분 수협을 통해 위판되며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갯가 바위에서 자라난 툇은 9월로 접어들면서 녹아 없어지는데, 동시에 파리날개만한 크기로 종자를 키워낸다. 그로부터 2개월 정도 자라면 11월 경 주민들이 뿌리가 달린 툇을 채취해 준비한 로프에 매다는 작업을 한다. 이를 종묘이식이라고 하는데, 두꺼운 로프에 뿌리가 달린 어린 툇을 매달아 연안 가까운 바다에 띄워두면 뿌리가 로프에 안착해 자라게 된다. 이때 조류가 너무 센 곳은 경계해야 하는데 섬에 가까이 들지, 약간 거리를 들지 나뭇대로의 노하우로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섬으로부터 너무 멀 경우 ‘뽕’이라는 부유 물질이 붙어 어린 툇의 착상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다에 띄우는 작업이 끝나면 양식업자는 다음해 여름까지 별다른 관리 없이 둘 수 있다.

이듬해 7월 말부터 다 자란 툇을 생산하는데, 약 45일간 집중적으로 채취한다. 노은리의 신지운 이장은 ‘어리끼’에서부터 ‘동박끝, 긴끝’에 이르기까지 20헥타르의 양식장에서 매년 10~15톤 내외를 생산하고 있다. 채취한 툇은 자연건조를 통해 100% 완전 건조해야 한다. 가격은 건조 후 무게로 결정되는데, 매년 오르락 내리락 해 일정하지 않다. 2010년 기준으로 kg당 4,350원을 받았다. 10톤이면 4,350만원의 판매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동안 작업에 참여한 지역민들의 인건비, 기타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이다.

툇은 남해안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해조류 음식으로 신의에서는 툇장조림이나 콩나물과 함께 나물처럼 데쳐 무쳐먹기도 한다. 과거에는 보리쌀과 함께 툇밥을 해 먹기도 하는 등 구황식품으로도 이용되었다.



사진6. 툇채묘작업중인 노은마을주민들



사진7. 툇종묘를 밧줄에 매달고 있는 신지운  
노은마을이장

툇은 남해안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해조류 음식으로 신의에서는 툇장조림이나 콩나물과 함께 나물처럼 데쳐 무쳐먹기도 한다. 과거에는 보리쌀과 함께 툇밥을 해 먹기도 하는 등 구황식품으로도 이용되었다.

#### (4) 바위웃우무

바위에서 채취한 바위웃을 두드려 잔돌을 제거한 다음 찬물에 잠길 정도로 넣고 약한 불로 1~2시간 저은 후 체에 밭여 국물을 받아두면 바위웃우무가 된다. 굳은 우무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른 다음 간장, 참기름, 고춧가루, 깨, 마늘, 파를 넣어 양념장을 만든 후 바위웃우무 위에 끼얹어 내면 된다. 가족행사나 농사철 인부들에게 간식으로 내주면 인기가 좋다. 변비에는 최고의 특효약이다.

### 3. 섬과 갯벌에 대한 주민인식과 생활

#### 1) 지형과 지명

신의도는 하의도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하의도를 감싸듯 길게 남북으로 뻗다가 서쪽으로 휘감은 형태이다. 과거에는 신의도가 상태도와 하태도로 나뉘어 있었으며 노두로만 이



어져 있던 곳이 간척사업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섬이 되었다. 두 섬 사이에는 염전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신의면의 남쪽(과거 하태도)은 동서로 길게 이어진 형국이며 서쪽 끝이 두 개의 반도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두 반도 사이에는 깊은 만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신의도의 전체 모습은 전갈모양, 혹은 꽃게의 집게발 모양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섬 연안과 독특한 경관을 지닌 곳곳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고유하고 토속적인 이름으로 불리는데, 한결같이 한자화 되지 않은 우리말이라 정겹기 그지없다. 바람기미, 버러기미, 짚은기미, 막금, 모새등, 샷갓바우, 과장끝, 간대끝, 진끝, 불지끝, 덜거지, 매리끝, 어리끼, 동박 끝, 혼절나루, 그물개 등등이 있다. 갯벌도 각각 위치에 따라 인근 지명에 뺄을 붙여 이용한다. 가령 타리도뺄, 덜거지뺄 하는 식이다.

여기에서는 과거 어시장이 형성되었던 ‘버러기미’와 ‘남근바우’와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 처음 발견된 ‘여근바우’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 (1) 버러기미(버러김)

버러기미는 황성금리의 뒤편 해안의 작은 만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40여년 전까지 이곳에 파시 수준의 작은 어시장이 펼쳐졌다.

당시 버러기미에는 두 가구가 거주했는데 한 집은 술집이었고, 다른 한 곳은 어장을 운영하던 집이었다. 어장 운영자는 덩장을 이용해 멸치를 잡았는데, 갓 잡아온 멸치를 삶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었으며, 대규모로 건조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었다. 육지부 한 쪽에는 시멘트 구조물로 만든 탱크가 있어 이곳에 멸치젓을 담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멸치와 더불어 들어온 고기들을 주낙 미끼로 이용하기 위해 인근 진도 어선들이며, 외부 주낙배들이 버러기미에 모여들었다. 버러기미는 어선들이 바람을 피하기에도 좋은 위치였다.

한번에 2~30척씩 모인 배에서 갓 잡은 가오리(간재미), 부서, 민어, 상어 등등을 아주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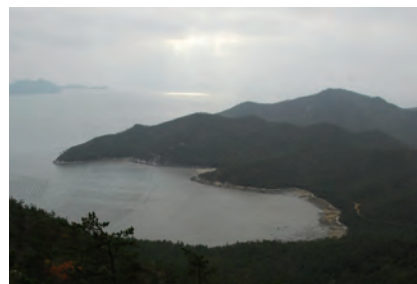


사진8. 웰빙등산로에서 바라본 버러기미 만

들이 받아 다라이(통)에 이고 신의면을 비롯해 하의 본도의 각 동네를 찾아다니며 팔았다고 한다. 심지어 하의 본도 주민들도 생선이 필요하면 버러기미까지 올 정도로 버러기미는 이 일대에서 보기 드문 온전한 어시장 역할을 해왔다.

## (2) 남근바우와 여근바우

신의면 하태에는 2008년 완공된 웰빙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다도해의 풍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등산로를 완공한 기념으로 신의면청년회가 주최해 2008 ‘전국섬등산대회’를 개최바 있다. 이로 인해 신의면 웰빙등산로가 전국에 널리 홍보되는 계기가 되었다.

웰빙등산로는 상태에서 하태에 이르기까지 전체 약 40여 km를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는 하태 노은에서 굴암선착장까지 12km가 완공되었다. 등산코스는 노은마을-문필봉-천왕봉(195m)-남근바위-정수장-큰산-봉화대-낙조전망대-굴암선착장까지이며, 능선으로 이루어진 등산로에서 주변 해역과 다도해의 경관을 차분히 둘러보면서 산행한다면 약 4시간 정도 소요된다.

등산로를 소개하는 지도에 남근바위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은 무척 적거나 아예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여근바위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사진9. 등산로상의 남근바위



사진10. 같은 등산로상의 여근바위

이번 조사에서 최초로 확인된 여근바위는 바위지대로 이루어져 특히 경관이 아름다운 문필봉의 동쪽 능선, 넓은 초지에 묘지 1기가 조성된 곳에 있다. 다른 지역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남근석과 여근석에 대한 민간신앙은 신의면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향후 신의면 남근석과 여근석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독특한 것은 신의면 인근 진도 조도면에는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섬과 바위가 두 곳이나 더 있다는 점이다. 신의면 동쪽에서 바라다 보이는 주지도와 양덕도, 관매도의 방아섬과 음부도가 그렇다.

주지도 정상에는 주먹바위, 엄지손가락 바위라고도 불리는 바위가 있는데 남성을 상징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양덕도 정상에는 갈라진 바위가 있어 여성성을 상징하고 있다. 더 남쪽의 관매도 방아섬의 남근바위와 맞은편 음부도 또한 관매도의 아름다운 경관만큼이나 세인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신의면에도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민중신앙의 의미를 부여해 남근바우와 여근바우를 널리 알려 명소화 할 필요성이 있겠다.

## 2) 갯벌과 연안어로

신의면에서 맨손어업으로 낙지를 잡는 전업 어민은 약 10여명으로 다른 읍면에 비해 매우 적다. 물론, 판매가 목적이 아닌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낙지를 잡는 사람들을 제외한 숫자다.

피도갯벌과 유미리 갯벌, 그리고 타리도 갯벌이 대표적인 낙지 생산지이며, 이 지역 낙지는 크기가 크면서도 부드러워 인기가 높다. 하지만, 낙지 잡는 어민들에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낙지잡이 전문선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목포나 인근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이곳에 옮겨 두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들어와 전문적으로 잡아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신의면 낙지 생산량의 90%는 이들이 잡아갈 정도라고 한다. 외지 사람들이 안 오면 ‘낙지가 더 굵어질 정도’라고 위기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어촌계원이 아닌 이들은 함부로 갯벌에 들어가 어떤 생산물도 채취해서는 안되는데, 빠른 속도의 배를 타고 직업적으로 다니는 이들을 지역주민들이 재제를 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외지 낙지 잡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갯벌 생물들이 무작위로 채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란철에도 잡고, 어린 개체도 막무가내로 잡아가니 지속가능한 어업에 큰 걸림돌이 된다. 또한 밤에는 외지의 주낙배들이 접근해 낙지잡이에 나서고 있어 이래저래 지역 주민들은 피해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갯벌맨손어업을 제외한 어선어업과 양식어업도 제한적으로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다. 어선어업은 이각망과 낭장망으로 계절별로 나타나는 어류들을 잡는다. 낭장망으로는 갯갈용 멸치를 주로 잡으며, 오징어, 병어도 잡는다. 이각망으로는 봄에 송어, 농어, 돔 등을 잡고, 여름에 민어, 가을에 송어, 농어, 돔을 잡는다.

양식어업은 김양식이 가장 많으며, 이밖에 피조개양식, 새우양식, 그리고 톳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름철 외지 관광객들을 위한 어촌체험프로그램인 개맥이가 기동마을과 원목마을에서 진행되고 있어 외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 3) 사구와 사구식물

신의면에는 모래로 이루어진 해안이 소규모로 몇 곳 존재한다. 그중 신의면의 동쪽과 남쪽 해안에 위치한 황성금리 해수욕장은 10여 년 전 까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바다 모래 채취로 모래가 심각하게 유실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현재는 모래채취 중단으로 과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여름 남풍(마과람) 남동풍과 파도에 의해 모래가 상당부분 해변으로 밀려와 쌓이고 있으며, 겨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다.

해수욕장의 배후지역에는 모래언덕인 사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어김없이 사구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사구식물들은 갯메꽃, 통보리사초, 쯤보리사초, 갯질경, 모래지치, 갯방풍 등이 있는데, 주민들은 사구 일대에 피어나는 식물들을 ‘잡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갯방풍에 대해서는 그 종을 명확히 구분하고 채취해 약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갯방풍이 ‘아사(입이 돌아가는 일명 풍)’에 효과적이라며 일상적으로 채취해 복용해 왔다고 한다. 잎이 부드러울 때는 나물로 무쳐 먹거나 생식도 하고, 뿌리를 채취해 깎아 먹기도 했다고 한다. 실제, 갯방풍이 ‘풍’을 예방한다고 해 이름도 ‘방풍’이 붙을 정도 민간에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다.

이밖에도 염생식물의 하나인 함초라 불리는 통통마디는 다양한 한방효능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미 함초환이나 함초된장 등이 출시되어 있지만, 앞으로 함초를 이용한 함초탕수육이나 함초고추장을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 지역특산품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 4) 연안해로와 통혼권

신의면 동쪽에 위치한 고사도와 평사도는 1983년 이전까지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에 속해 있었다. 그 후 행정개편으로 신의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만큼 가사도리는 신의면과 인접한 이웃 섬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진도군 조도면의 가장 북단에 위치한 가사도는 조도면 소재지가 있는 하조도와 직선거리로 19km나 떨어져 있는 관계로 1970년 이전까지 통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행정구역이 다른 신안군 신의면과는 직선거리로 불과 5km 밖에 떨어져 있는 않아 활발한 통혼이 이루어졌다.

이웃 섬끼리의 통혼관계는 풍선을 이용해 이동하던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상태서리에 거주하는 장금엽(94세) 할머니는 친정어 가사도인데 당시 신의 가락계에 거주하는 장씨가 중매를 서 19살에 신의면으로 시집왔다. 가사도의 대표적인 성씨가 인동 장씨인데, 그만큼 두 섬이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씨 할머니를 통해 당시에도 가사도와 신의도간에 혼인관계가 보편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19살(1937년)에 이리 시집 왔어. 가락계 우리 장씨가 중매 서 줬제. 나한테 여기가 좋다고. 나 처음에 시집 와서 못 살것든만. 저 오두막집에 살면서 하태 쪽을 내다만 보고 울었어. 맨 나무만 한게 징하든만. 그때는 맨 나무만 했제. (가사도) 우리 집에서는 산관 있는게 나무를 안해 봤어.

가사도에서 생전 처음 풍선을 타고 왔제. 저 납닥섬으로. 지금 객선 단테로. 결혼식은 가사도에서 해 갖고, 하루 만에 오제만은 바람이 불어서 한 사흘 있었어. 보통은 아적에 오면 저녁에 (신의도로) 가 부러.

여기 왔을 때 이 마을에 가사도에서 먼저 시집온 새댁이 넷이나 더 있었는데, 나이도 고만고만했어. 다 이녀 살기도 바쁘게 서로 도와준 것도 없었어.”

(장금엽, 94세)



사진11. 가사도에서 시집온 상태서리의 장금엽 할머니(오른쪽)

두 섬 간의 통혼관계는 정기여객선의 운항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당시 정기여객선 옥소호가 목포를 출발해 신의면을 경유 가사도를 거쳐 조도까지 운항했고, 이때까지도 종종 통혼관계는 유지된 사례가 있었다. 섬을 오가는 정기여객선은 젊은 청년 남녀들이 직접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고, 혼기가 찬 양쪽 섬 어른들간에 혼사가 오가고 결정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목포-신의-가사도를 연결하는 옥소호 운항이 중단되고, 조도를 가기 위해서 진도에서만 배가 출발하면서 부티는 ‘서울보다 먼 가사도’가 되고 말았다. 현재는 신의면의 고평사도와 가사도, 조도를 연결하는 여객선만 하루 한차례 운행하는데, 신의도 본도와는 별도인 관계로 신의도와 진도군 가사도와의 관계는 철저히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두 섬을 이어주는 정기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이어온 인근 섬끼리의 혼인을 통한 교류는 자연스럽게 단절되고 말았다.

## 4. 주민생애와 어민조직

신의면은 염전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염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어업이나 어로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 상태보다는 하태가 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 높다. 특히, 굴전마을과 황성금리, 노은마을처럼 바다에 연한 마을의 어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신의면에서 어업에 종사해온 한분의 생애사를 통해 신의면 어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듣고, 각 어촌계별 현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 1) 주민생애사를 통해 본 갯벌과 해양

□성 명: 박옥현(64세)

□주 소: 신의면 황성금리

이 마을에 8대조 선산부터 있어요. 과거에는 28호였는데 소득이 없었니까 다 나가고 현재 6호만 살고 있더라. 마을사람들은 대부분 농사짓고, 어장한 사람은 해태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같이 낭장망 하는 사람 있어요.



사진 12. 기항금자율관리공동체 박옥현 대표



김양식 하는 한집은 가공공장까지 가지고 합니다. 이 마을이고, 저 건너 마을이고 다 김을 했는데 시세가 안 맞으니까 전부 그만두고, 한반데로 몰려서 신의에서는 대여섯 사람만 김양식을 하고 있어요. 먼 전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각망 하나 하고, 낭장망 하나하고 두 틀 있어요. 공동체로 이 마을하고 기동마을하고 50여명이 피조개양식을 하고 있어요.

20대는 4H한다고 돌아다녔고, 우리 집에서 어장을 했어요. 배 선원들을 썼는데 해태도 했었고, 인부들 데려와서 또 물건 구매하러 다녔고, 또 고기 외상 주면 외상값 받으러 다니고, 위판 본 것은 없고, 여러 아줌마들이 와서 가져가니까 그것 받아야 식구미도 사니까, 팽 그런 일을 하고 다녔제.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이 안나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어장은 접었지요.

그때는 꽃게잡이고, 민어잡이 할 때는 5톤, 6톤 배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했지요. 지금은 혼자 하지만, 바다에서 손을 떼지는 않고 꾸준히 했지요.

이각망은 이 뒤(정등해)에서 하고, 여기(꽃게다리만 입구)는 김양식이 80헥타가 있고, 이 안(더 안쪽)에 72헥타가 꼬막양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식장 안쪽에. 꼬막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개를 말해요.

2005년도 이후 2년 키웠을 때 1키로에 15-18개 정도 다마가 됐거든요. 그래서 판매하려다가 너무 그것이 수출은 안 되고, 가공식품은 가능했는데, 홍정 과정에서 (상인들이) 좀 싸게 먹을라고 하니까, 우리는 제값을 받으려고 하다가 무산이 되버렸어요. 1년 더 키우면 활어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키울라고 했는데, 태안 타르 피해 때문에 몽땅 죽어 버렸어요. 그때는 10헥타 정도 됐을거요. 그리고 2007년도에 3월 30일날 65.5헥타를 추가로 해서 약 천만미를 더 뿌렸단 말이요. 그란디 이놈하고 같이 싹쓸이 죽어 버렸어요.

팽 타르 덩어리가 다 들어와 있었으니까. 꼭 글로만 죽었는지 모르지만, 폐사를 하면 여름에 하지, 겨울에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남해수산과학원에 문의를 했는데, 박사님들도 분명히 판명을 못합니다.

타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라고 재판이 종료가 됐다는데, 보상은 아직 안됐어요.

이 지역 꼬막은 연구대상입니다. 피조개는 수심이 40미터까지 땡기는 물건인데, 물 난 데서는 피조개가 난데는 없어요. 간조때 물이 빠져 분데. 그런데 우리 동네가 그래요. 그래

서 박사들이 의뢰를 해 보니까 (만) 밖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못나간 이유가 바다에 했을 경우 배나 모든 것을 갖춰야하고, 형망선도 갖춰야 하고, 잘 크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이 동네 몇 사람 있고, 이 건네 마을 사람들이요. 하서2구에도 이 너머 동네는 빠져있고, 굴암, 신촌까지 빠지고, 기동하고 황성 이 두 마을만 해요. 전국에 어촌계가 2,000개인데. 점수를 매서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름도 공모를 했죠. 이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양쪽 동네 앞자를 따서 하자고 됐어요. 꼬막이 잘 되니까 영어조합으로 등록을 해 냈어요. 계산서를 신고하라고 나오고 성가시드라고요. 그것도 소득이 있어야 신고를 하죠. 2005년 이후로 돈 되는 것은 없고, 돈만 들었지요. 천만미 뿌릴 때가 5천 몇 백만원이 들었어요. 종패가 네 번인가 들어갔어요. 한번 잘되는 것을 봐서 미련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여수에서 가공업자들이 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흥정을 하다가 흥정과정에서 거기서는 3억을 준다고 하고, 나는 5억을 주라고 하고, 몽땅 잡아간 조건으로 그렇게 했는디 그것이 단위가 크니까 그러면 느그가 잡아가는데 키로에 얼마나 먹냐고 그랬더니 2천원 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로 단위로 가져가라고 했죠. 그러면 하자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1,000톤이든, 10,000톤이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안 한다는거여. 나는 근만 단다 이거지. 나는 2천원에 하면 5억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자고 그랬죠.

가공공장은 통조림 만들라고 했던 업체예요. 계약을 했으면 2개월이면 2개월 한시적으로 가져가요. 다 캐 가면 없고, 대부분 다 캐가요. 형망으로 굶어버리니까.

기계가 다 쪼개 버리니까. 그러면 다시 종패를 뿌릴 계획으로 했는데...

목포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하루 1톤씩 요구하는데, 우리가 형망배가 있어가지고 매일 1톤씩 내면 되는데, 인력으로 하니까 물때 작업이라 한사리에 2-3일 밖에 작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사리때 물이 많이 빠질 때 사람이 들어가 작업으르 하니까. 형망은 언제나 하니까. 파도만 없으면 하는데....

짚은기미 끝. 여기가 2각망이 하나 있고. 보통 낭장망이라고 이 위치에 하나 있고. 낭장망이라고 하는 것은 닻 3개를 놓고 하나로 잡아요. 들물이나 썰물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쪽으로 잡아요. 여기는 버러김이라고 해요.

배가 황성 앞에 있지요. 여기는 황석끝이라고 불려요. 어장까지 돌아가려면 상당히 멀

어요. 약 40분 걸려요. 내가 가진 배 크기는 1.2톤이여라. 바다 일 나갈 때는 설비하고 철거할 때만 둘이 같이 다니고 대부분 혼자 나가요. 고기 털로 땀길 때.

낭장망으로는 주로 젓갈용 멸치를 잡게 되어 있는데, 힘이 딸리니까 안 잡고, 코를 크게 해서 오징어나 병치만 잡게 했어요. 큰고기 어종을 잡기 위해서 코를 크게 했죠.

낭장망은 봄에서 여름, 그 철에만 하지라, 예를 들어서 젓갈종류를 하면 사철하지요. 멸치 때에 많이 잡히지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저온창고도 있어야 하는데,... 힘이 딸리고... 하루 1톤씩 잡았을 때 집에 온다는 것도 힘든 일이고. 예전에는 멸치가 많이 났지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잔코로 앓고, 큰 코로만 하지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버리기미에 거주하면서 멸치 가공하고 젓갈도 담기도 했고, 큰 시멘트 탱크로 담아서... 물 끓여서 마른 멸치를 하기도 했어요. 그 흔적이 찾아보면 있어요.

동네는 아니고, 임시 거주한 흔적, 여기서도 고기 잡은 집이 있었고, 술 영업한 집이 있었어요. 내가 열일곱살 때나 잡았으니까? 약 40년 전. 한 스무살 때까지 있었을거요. 그 후로 없어졌어요. 두 집이 별도로 술 같은 것을 판 집만 있었고, 계절 따라 왔지만, 집 형태는 있었죠. 훗하고 담하고 마람으로 해서 초가로. 배도 몇 십척씩 되고, 이런데서도 하의에서도 이리 고기사러 오고....

신의는 물론, 하의사람들도 이리 왔다니까요. 장사꾼 아줌마들이 다라에 이고 여기까지 팔러 다녔네. 여기서 고기가 나서 하의 본도까지 봉도로 건너가서 여자들이 다라에 놓고 팔기도 했어요. 모든 고기가 여기가 항구 같이로 배들이 많이 모였어요. 몇 십 척씩 다니기도 했어요. 이 지역 배들이며 진도 배들이 많이 와서 이 근처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위판을 했제. 덩장이라고 멸치 잡는 것이 설치가 돼서, 그것으로 이깎으로 쓰기 위해서 모였지요. 바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덩장에서 나온 것으로 미끼 공급을 받았죠. 간재미, 상어, 부서, 민어 안 나온 고기가 없었죠. 주낙으로.

낭장망 하나, 이각망 하나로 병어나 갑오징어를 잡으면 면내 소비죠.. 개인들이 미리 주문을 해요. 잡으면 가지러 와요. 값은 대강 치루죠. 한 마리에 얼마씩. 그라고 농어금은 키로에 얼마씩. 키로에 2만원, 옛날에도 2만원, 지금도 2만원. 여기는 한번 정해진 값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값이여.

가을에는 이각망을 철거해 부러요. 지금은 철거했어요. 이번에 철거를 못하고 태풍에 낭장망은 날라가 부러웠어요. 2각망은 철거했는데, 2각망은 겨울에는 안돼요. 계절별로 봄에

개숭어하고 농어, 돔, 오징어 그리고 가을 때는 숭어, 농어, 돔이 주로 잡히죠. 여름에는 민어나 한 마리씩 들고, 별로 안 들어요.

숭어는 개숭어 있고, 참숭어 있고 그래요. 참숭어는 늦은 봄이 나쁘고, 찬 바람 불면 쫄깃쫄깃해져요.

이 안쪽 만은 따로 이름이 없어요. 안쪽을 세분해서 부르는 이름은 큰골, 모랫등, 하여튼 복잡해요.

(정등해에 연한 바다를) 뒷면이라고만 그러지요. 등산로가 노은리에서 올라가 보면 보이지요. 여기 가다보면 남근석이 있었다는데... 우리집에서도 보이는데, 산 봉데기예가 있어요. 자연석이에요. 멀리서 보면 꼭 사람 그것 같이 보여요. 지금은 나무가 많아 거의 가려 갖고 있어요. 선창에 가면 신의면 사진 찍어 놓 것 보면 풀 속에 하얗게 나온 것이 있어요. 전경 속에 있어요. 남근석은 제일 가까운 동네가 여기인데, 남근석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어요. 가보기는 했지만, 꼭 사람이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위에 샷샷같이 올려놓은 것 같아요.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는 없어요. 꼭 멀리서 보면 진짜 뭐 같아요.

## 2) 어민조직

### (1) 상태어촌계

상태어촌계는 노은어촌계에서 분리되어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어촌계원은 64명이다. 어장면적은 523ha이며 양식어업이 211.5ha, 마을어업이 311.5ha이다. 주어업은 김양식과 패류양식이며, 전국 최대 규모의 새우양식장이 운영되고 있다. 어촌계원은 누구나 수협 조합원에 가입하면 활동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입어료는 없다.

### (2) 노은어촌계

신의면에서 가장 먼저 입도한 마을이 노은마을로 알려져 있으며, 어촌계도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어촌계원은 69명으로 김양식과 패류양식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어장면적은 318ha이며 양식어업이 211.5ha, 마을어업이 107ha이다. 어촌계원은 누구나 수협 조합원에 가입하면 활동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입어료는 없다.

### (3) 고평사어촌계

고평사도는 고사도와 평사도의 두 개 유인도가 하나의 어촌계를 이루어 활동하고 있다. 어촌계원은 모두 31명이며, 어장면적은 30.5ha로 모두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질 좋은 톳 생산지로 유명하다. 2009년 이후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 (4) 기황금자율관리영어조합

2005년 기동마을과 황성금리 마을 주민 50여명이 공동체를 구성해 피조개 양식을 운영하기 위해 만든 조합이다. 기동마을의 ‘기’자와 황성금리 마을에서 ‘황금’을 따 ‘기황금 공동체’로 명칭을 만들어졌다.

첫해 과부도가 있는 집게다리만 안쪽에 피조개 종패를 살포했고, 2년 후 성공적으로 자라나 판매하려고 했지만 가격 조정이 원만하지 않아 1년간 더 키우기로 결정하고 판매를 보류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침몰로 인해 타르피해가 신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군다나 2007년 3월 기존 10ha에서 72ha로 면허지를 넓히고 새로 약 1,000만미를 추가로 뿌린 후라 그 피해는 더욱 컸다.

현재 어업피해에 관한 소송은 종료되었지만, 아직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신의면에서 피조개가 양식되는 지역은 간조시 갯벌이 드러나는 지역인데, 통상 이런 지역에서는 피조개 양식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보통 피조개가 수심 40미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이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여기며 새로운 서식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 5. 해양생태자원 활용방안

### 1) 천일염 힐링 센터(Healing Center) 운영

#### (1) 개요

- 천일염의 고장 신의면을 대표하는 천일염이 왜 중요한지 기존의 오해를 버리고, 천일

염의 가치를 배우고 깨닫는 체험공간 운영.

## (2) 내용

- 천일염 힐링센터에서 휴식하며, 진정한 웰빙과 힐링에 대한 인식 확대
- 천일염의 소포장, 고급화, 상품다양화로 신의면 힐링 소금 브랜드 확보

## (3) 추진방향

- 천일염 힐링센터 체험과 인근 염전체험장에서 천일염 생산 체험
- 신의면에 소재한 소금가공공장과 협력해 힐링센터 운영

## (4) 기대효과

- 신의면을 대표하는 관광, 휴양시설로 새로운 관광거점지 역할
- 지역기업과 민간 협력의 모범 사례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

# 2) 갯벌연안 생태문화체험

## (1) 개요

-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갯벌은 경관측면이나 생태적 측면에서 중요한 곳임
- 갯벌과 연안의 생물종과 이를 활용한 생태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 내용

- 갯벌, 모래해변, 암반에 각각 서식하는 생물들에 대한 생태문화적 탐구
- 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해 개맥이 체험이나 피조개 채취 체험 운영

## (3) 추진방향

- 자칫 무차별적인 자연파괴적 운영이 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매뉴얼 적용
- 생명의 소중함과 생태계 안에서 함께 공존해 살아가야할 대상이란 인식고취
- 어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필수



#### (4) 기대효과

- 생태관광의 새로운 분야를 확장해 개척함으로서 신의면의 새로운 가치 부각
- 어촌마을에서 먹고, 자고, 체험함으로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확보되며, 향후에도 도농협력 관계를 유지해 지역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음

### 3) 섬의 로컬푸드 체험

#### (1) 개요

- 웰빙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안전한 지역 먹을거리 체험
-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원산지 음식을 먹음으로서 먼 거리를 수송하는데 소요되는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

#### (2) 내용

- 신의도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낙지, 전복, 피조개, 각종 해조류를 활용한 지역음식을 원재료 확보에서부터 요리에 이르기까지 직접 만들고 먹음
- 간장과 된장, 토착적인 요리방법을 배우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관계 형성

#### (3) 추진방향

- 도시인들을 지속적으로 초대해 섬의 로컬푸드를 알리고 중요성을 인식시킴
- 도시와 농촌의 자매결연으로 지역의 로컬푸드(농수산물과 기본양념 포함)가 안정적으로 도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통로 마련

#### (4) 기대효과

- 도시와 농촌 교류의 활성화로 지역에는 경제활성화, 도시민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 섬의 청정성이 웰빙시대에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인정받는 계기 마련

#### 4) 웰빙등산로 산행과 민속문화 순례

##### (1) 개요

- 신의면에는 상태와 하태를 잇는 웰빙등산로가 잘 갖추어져 있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음
- 자연생태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다도해의 경관, 일몰경관, 민속문화의 다양한 사연들도 포함하고 있어 훌륭한 스토리텔링 자원이 됨

##### (2) 내용

- 등산로에서 해남, 진도, 우이도 일대의 다도해국립공원의 다도해 전망 가능
- 긴 등산코스과 바다로 떨어지는 일몰경관이 훌륭해 외지 등산동호인들의 산행이 늘어나고 있음
- 남근바위와 여근바위가 등산로 상에 위치해 있어 섬 지역 성민속의 단면을 체험할 수 있음

##### (3) 추진방향

- 등산로 정비는 잘 되어 있으나, 코스별 등산로 정보(길이와 정상 높이) 오류가 많아 실측을 통한 수정 필요
- 등산객들이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쉬면서 간식이나 지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4) 기대효과

- 등산로가 잘 갖춰진 조건 하나로 외지 방문객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음. 이들이 지역에 장기간 머물며 지역의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가능
- 등산과 민속 문화의 접목으로 재미와 의미를 더할 수 있음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1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⑩

# 신의면편

---

## VI 구비전승

홍순일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 1. 조사 개요 152
- 2. 조사 내용 153



## VI 구비전승

### 1. 조사 개요

현지조사는 신의도의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남 신안군 신의면(2011.08.22-23, 2011.10.26-28, 2011.01.04-05, 2012.02.23-24)에서 홍순일이 현지조사한 후, 채록은 김세인이 했다. 조사자는 조사시 「신의도의 민속공동체와 구비전승물」을 주제로 신의도의 구비전승자원을 조사하여 조사목록, 내용, 활용 등을 작성하고자 했다. 타분야인 고고, 언어, 경제, 생태, 민속, 인류(사회)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활용이라는 자원화에 도달하고자 했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제보자별, 구역별, 주제별로 유형화한 후 주제별로 소개하기로 한다. 주제별은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 등으로 구분되는데, 신의도의 구비전승자원과 관련하여 신의도의 이야기(설화, 생애담 및 경험담), 신의도의 민요·판소리, 신의도의 속담(구조어)·언어(인지어, 속신어), 신의도권 구비연행자의 민요공동체(산다이)와 밤달애 등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그 결과 한 목소리로 말하고, 노래하는 신의도민의 섬문화를 살피고, 특히 민속공동체 속의 구비전승물의 지속과 변화도 함께 살피고자 했다. 동시에 구비전승물에 나타난 신의

도사람들의 해역·지역의 정서를 연구하는 토대가 되고자 했다.

이번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용역(신의면 편)”의 성과물은 각종 지역 개발계획과 신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나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의 압해도, 비금도, 흑산도, 도초도, 안좌도, 팔금도, 지도, 증도, 임자도, 하의도의 같은 사업을 이어받고, 이후에도 계기가 된다면 장산도, 자은도, 암태도에서 같은 사업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한 전남 신안군 신의도사람들,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 도서관화자원화연구단 참여연구자, 신의면사무소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 2. 조사 내용



사진1. 신의도 축척 1:25,000 지도



사진2. 신의도 축척 1:25,000 지도

## 1) 구비전승자원 목록

| 번호  | 조사일시                    | 조사<br>(면담)<br>지역                                                         | 조사자<br>(채록자)                                                                                                                                         | 제보자                | 조사내용                                                                                                                                                                                                                                                                           | 비고   |
|-----|-------------------------|--------------------------------------------------------------------------|------------------------------------------------------------------------------------------------------------------------------------------------------|--------------------|--------------------------------------------------------------------------------------------------------------------------------------------------------------------------------------------------------------------------------------------------------------------------------|------|
| 1-1 | 2011.08.22<br>(월) 10:01 | 전남<br>신안군<br>신의면<br>신의로<br>661번지<br>(상태동리<br>373-5)<br>신의면<br>사무소<br>면장실 | 강봉룡<br>고두갑<br>홍순일<br>최성환<br>송기태<br>김경완<br>신미영<br>이유리                                                                                                 | 신기문<br>(남,미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섬현황설명(40분54초)</li> <li>=방조제, 신상, 천일염(1), 김 · 대아, 낙지, 개매기, 톳 · 전복, 송어, 천일염(2), 초분, 다리, 전통문화(쟁무리농약), 상여소리, 이야기(간척), 염전, 고분, 제당, 안산성지, 고서임(염전, 방조제), 입도민, 독살 · 노두, 관내 배편, 뱃사공, 섬답사 일정(1), 굴암굴, 성씨간 이야기, 섬답사 일정(2), 홍성담, 면민의 날</li> </ul> | 현지조사 |
| 1-2 | 2011.08.22<br>(월)12:40  | 전남<br>신안군<br>신의면<br>일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봉룡</li> <li>고두갑</li> <li>홍순일</li> <li>신미영</li> <li>- 최성환</li> <li>송기태</li> <li>김경완</li> <li>이유리</li> </ul> | 신기문<br>(남,미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섬답사 12:40(03분58초)-</li> <li>15:13(12분40초)</li> </ul>                                                                                                                                                                                   | 현지조사 |
| 1-3 | 2011.08.22<br>(월) 15:48 | 전남<br>신안군<br>신의면<br>상태동리<br>378-18<br>숙소<br>(중앙식당)                       | 홍순일<br>(김세인)                                                                                                                                         | 고서임<br>(남,71,41년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금(04분24초)</li> <li>=아버지의 기록, 천일염, 간척, 소금랜드(대한민국 천일염 제1호), 제보 예약</li> </ul>                                                                                                                                                            | 현지조사 |



| 번호  | 조사일시                              | 조사<br>(면담)<br>지역                                               | 조사자<br>(채록자)                 | 제보자                                             | 조사내용                                                                                                  | 비고   |
|-----|-----------------------------------|----------------------------------------------------------------|------------------------------|-------------------------------------------------|-------------------------------------------------------------------------------------------------------|------|
| 1-4 | 2011.08.22<br>(월) 17:15           | 전남 신안군<br>신의면 신의로<br>661번지<br>(상태동리<br>373-5)<br>신의면사무소<br>총무계 | 홍순일                          | 김승필<br>(남,미상)                                   | -<고>문헌자료(도서, 비도서) 조사                                                                                  | 현지조사 |
| 2-1 | 2011.08.23<br>(화) 10:10           | 전남<br>신안군<br>신의면<br>하태서2리<br>노은마을<br>(노른목)<br>경로당              | 홍순일<br>(김세인)                 | 신지운<br>(남,미상)<br>장순단<br>(여,75)<br>신금기<br>(여,88) | -민요(93분50초)<br>=자녀, 소리배우기, 상여, 산다이,<br>친정, 교회, 밤달애, 놀기 “놀자”                                           | 현지조사 |
| 2-2 | 2011.08.23<br>(화) 13:38,<br>16:36 | 전남<br>신안군<br>신의면<br>상태동3리<br>모룡마을<br>고서임씨<br>자택                | 홍순일,<br>김경완,<br>신미영<br>(김세인) | 고서임<br>(남,71,41년생)                              | -소금(176분02초)<br>=오줌싸개 이야기, 육형제이야기,<br>아랫바람, 속담과 이야기, 휴식,<br>산다이<br>-언어(속담)(00분17초)                    | 현지조사 |
| 3-1 | 2011.10.26<br>(수) 16:15           | 전남<br>신안군<br>신의면<br>상태동리<br>378-18<br>숙소<br>(중앙식당)             | 홍순일<br>(김세인)                 | 최정수<br>(남,62)<br>신필식<br>(남,68)                  | -노인이 참여하는 면민의<br>날(2011.10.25), 면개발위원장의<br>주요활동내용<br>-설화(하태동2리 노은마을의<br>사자바위, 개바위, 쥐바위,<br>상태서리의 개바위) | 현지조사 |

| 번호  | 조사일시                    | 조사<br>(면담)<br>지역                                   | 조사자<br>(채록자) | 제보자                                                                   | 조사내용                                                                                                                                                                                                                                                                                              | 비고   |
|-----|-------------------------|----------------------------------------------------|--------------|-----------------------------------------------------------------------|---------------------------------------------------------------------------------------------------------------------------------------------------------------------------------------------------------------------------------------------------------------------------------------------------|------|
| 3-2 | 2011.10.26<br>(수) 17:38 | 전남<br>신안군<br>신의면<br>상태동3리<br>모롱마을                  | 홍순일<br>(김세인) | 고인철엄마<br>(여,미상)<br>홍복단<br>(여,82)<br>신정심엄마<br>(여,미상)<br>고웅그리<br>(여,미상) | -유행가, 성주풀이, 동당에타령,<br>남한산성, 산하지로구나~~~~,<br>아침에 우는 새는~~~~                                                                                                                                                                                                                                          | 현지조사 |
| 4-1 | 2011.10.27<br>(목) 15:10 | 전남<br>신안군<br>신의면<br>상태서3리<br>동면마을<br>이기철씨댁         | 홍순일<br>(김세인) | 이기철<br>(남,71)                                                         | -노인대학, 동면마을의 특성, 물때와<br>그 영향(해태인 김, 염전, 토판), 제방,<br>종업원, 생업, 사위)                                                                                                                                                                                                                                  | 현지조사 |
| 4-2 | 2011.10.27<br>(목) 16:52 | 전남<br>신안군<br>신의면<br>하태동1리<br>구만마을<br>홍길용씨댁<br>앞 정자 | 홍순일<br>(김세인) | 홍길용<br>(남,54)<br>한중기<br>(남,75)<br>홍상기<br>(남,65)<br>외 2인               | -노은마을의 개바위, (홍성담.)<br>굴암8경, 상태서리의 고인돌과 산성,<br>구만마을의 벼락바위, 홍촌과 윤촌에<br>있는 능선이 저울 형국이라는 이야기,<br>귀한 물, 흔적만 있는 당, 독담, 인구,<br>생업, 지명, 소리하는 사람(문애자와<br>홍성국)<br>-홍성담(남,57,형,일산)과<br>한국화 홍성룡(제,광주), 청장<br>홍영기(남,58,형)와 시인 홍원기(제),<br>천일염개발자 홍태근(부)과<br>홍형선(자)<br>-세금이 다른 면에 비해 적자<br>150평마다 쌀 한 가마를 받은 이야기 | 현지조사 |

| 번호  | 조사일시                    | 조사<br>(면담)<br>지역                                  | 조사자<br>(채록자) | 제보자                                                              | 조사내용                                                                                                                                                                                                                                       | 비고   |
|-----|-------------------------|---------------------------------------------------|--------------|------------------------------------------------------------------|--------------------------------------------------------------------------------------------------------------------------------------------------------------------------------------------------------------------------------------------|------|
| 4-3 | 2011.10.27<br>(목) 19:00 | 전남<br>신안군<br>신의면<br>하태동3리<br>모룡마을<br>모룡경로당        | 홍순일<br>(김세인) | 이울례<br>(여,71)<br>천금자<br>(여,62)<br>전영례<br>(여,65)<br>외 7인          | -이울례: 상여소리1, 동당에타령,<br>《춘향가》〈이도령이 갈 때〉,<br>〈이도령과 춘향이 이별할 때〉,<br>논매는소리,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br>상사소리, 아리룽타령, 새타령,<br>발매는소리(하중=목화 발매러<br>가는소리), 진도아리랑, 상여소리2(산,<br>분묘), 강강술래, 날 버린 남자,<br>어화청춘, 물어물어 찾아와서<br>-천금자: 흑산도 아가씨, 사랑이<br>야속하더라, 당신이 나 버리고 | 현지조사 |
| 5-1 | 2012.02.23<br>(목) 13:53 | 전남<br>신안군<br>신의면<br>하태동2리<br>노은마을<br>(노른목)<br>경로당 | 홍순일<br>(김세인) | 장순단<br>(여,75)<br>신동안<br>(남,70,43년생)                              | -구비전승(채록자료 확인 및<br>추가조사)<br>=남한산성, 강강술래, 육자배기,<br>판소리, 민요로 부르는 찬송가<br>-개바위이야기                                                                                                                                                              | 현지조사 |
| 5-2 | 2012.02.23<br>(목) 13:53 | 전남<br>신안군<br>신의면<br>상태동3리<br>모룡마을<br>대영만물<br>슈퍼   | 홍순일<br>(김세인) | 박방란<br>(여,미상)<br>이울례<br>(여,71)<br>전영례<br>(여,65)<br>전애자<br>(여,65) | -음성파일 채록본의 수정 · 보완<br>-밤달애                                                                                                                                                                                                                 | 현지조사 |

| 번호  | 조사일시                    | 조사<br>(면담)<br>지역                          | 조사자<br>(채록자) | 제보자                                                              | 조사내용                                                                                                                                                                                                                                                                                                                                                                                                                                    | 비고   |
|-----|-------------------------|-------------------------------------------|--------------|------------------------------------------------------------------|-----------------------------------------------------------------------------------------------------------------------------------------------------------------------------------------------------------------------------------------------------------------------------------------------------------------------------------------------------------------------------------------------------------------------------------------|------|
| 6-1 | 2012.02.24<br>(금) 08:37 | 전남<br>신안군<br>신의면<br>상태동3리<br>모룡마을<br>누나펜션 | 홍순일<br>(김세인) | 전연자<br>(여,59)<br>김정길<br>(남,65)<br>전준면<br>(남,62)<br>장내훈<br>(남,57) | <p>—구비전승(추가조사)<br/>=19살 때까지와 55살 때부터<br/>겪은 고향, 부여사람이 태안사람과<br/>신의사람을 만난 이야기,<br/>식염, 소유권, 대한염업조합<br/>신안·목포·무안지부(신안인<br/>280명), 시기(4월 1일-10월 15일),<br/>호황, 인권, 소금생산이야기,<br/>규모(1정=3천평, 1반=3천평,<br/>2정3반 보통), 면관계, 염전을 한<br/>사람(윤인우, 최대), 고용, 교통,<br/>목포와의 관계, 염전 소유자(홍완태,<br/>최고), 염전 소유자(윤인우,<br/>최대), 제보자(김영희, 남, 70세<br/>정도, 하의도), 제보자(고평사도),<br/>제보자(토판, 장판), 고평사의 인문,<br/>단골 최가주 이야기(쟁풀이농약),<br/>단골 최가주 이야기(씻김굿과<br/>밤달애와의 관계)</p> | 현지조사 |
| 6-2 | 2012.02.24<br>(금) 14:20 | 전남<br>신안군<br>신의면<br>상태서리<br>염분동<br>220-22 | 홍순일<br>(김세인) | 박남선<br>(남,74)                                                    | <p>—아버지, 할아버지의 족보,<br/>비석이야기</p>                                                                                                                                                                                                                                                                                                                                                                                                        | 현지조사 |
| 6-3 | 2012.02.24<br>(금) 15:35 | 전남<br>신안군<br>신의면<br>하태동<br>1리<br>구만마을     | 홍순일<br>(김세인) | 홍상기<br>(남,66)                                                    | <p>—구비전승(채록자료 확인)<br/>=홍성담 형제이야기</p>                                                                                                                                                                                                                                                                                                                                                                                                    | 현지조사 |

## 2) 구비전승자원 현황

구비전승자원은 신의도의 이야기(설화, 생애담 및 경험담), 신의도의 민요·판소리, 신의도의 속담(구조어·언어(인지어, 속신어), 신의도권 구비연행자의 민요공동체(산다이)와 밤달애 등이다. 얻은 자료는 주제별로 서술하기로 한다.

신의도 구비전승자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민요·판소리를 중심으로 설화, 구비연행자의 생애담, 속담, 민요공동체와 이와 관련된 언어, 밤달애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구술상 민요를 중심으로 설화(무속신화), 언어(토속인지어, 기억속신어, 민속구조어) 등으로 제한하고, 민속공동체, 구비연행자, 생애담과 연관시킬 수 있다(홍순일 2006.12:519-567). 이때 언어는 토속인지어, 금기어의 기억속신어, 수수께끼, 속담 등의 민속구조어 등이다.

이와 대응하여 신의도 구비전승자원은 상대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다. 민요·판소리를 중심으로 설화, 구비연행자의 생애담, 속담, 민요공동체와 이와 관련된 언어, 밤달애 등의 개별성을 살피는 것이다.

### (1) 신의도의 이야기(설화, 생애담 및 경험담)

우선 신의도의 이야기이다. 설화(인물, 지명), 구비연행자의 생애담 및 경험담 등이다.

#### 가. 설화(인물, 지명)

신의도의 설화는 인물설화와 지명설화로 구분된다. 인물설화에는 사람, 바다, 섬, 연안, 강, 들, 산 등이, 지명설화에는 지명유래 등이 포함된다.

#### 가) 인물설화

○하태동1리 구만마을의 벼락바위<sup>1)</sup>

1) 홍순일 조사, 홍길용(남,54) · 한중기(남,75) · 홍상기(남,65) 외 2인 제보. 조사내용 <구만마을의 벼락바위>,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1리 구만마을 홍길용씨택 앞 정자, 2011.10.27(목) 16:52.

베락바우라고도 한다. 진끝 북쪽에 있는 바위이다. 큰 바위가 베락(벼락)을 맞아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 있다.

#### ○하태동1리 구만마을의 능선 이야기<sup>2)</sup>

홍촌이 득세하면 윤촌이 실세한다.

#### ○하태동2리 노은마을의 개바위 이야기<sup>3)</sup>

쥐가 해를 끼치면 개가 막아주고, 개가 해를 끼치면 사자가 막아주고, 사자가 해를 끼치면 죄와 개가 막아준다.

나) 지명설화

#### ○상태서리

상태도의 서쪽이 되므로, 상태서 또는 상태서리라고 불렀다.

#### ○상태동리

상태도의 동쪽마을이 됴므로, 상태동이, 또는 상동리라고 불렀다.

#### ○하태서리

하태도의 서쪽마을이 됴므로 하태서 또는 하서리라고 불렀다.

---

2) 홍순일 조사, 홍길용(남,54)·한중기(남,75)·홍상기(남,65) 외 2인 제보, 조사내용 〈구만마을의 능선이야기〉,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1리 구만마을 홍길용씨택 앞 정자, 2011.10.27(목) 16:52.

3) 홍순일 조사, 최정수(남,62)·신필식(남,68) 제보, 조사내용 〈노은마을의 사자바위, 개바위, 쥐바위 이야기〉,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378-18 숙소(중앙식당), 2011.10.26(수) 16:15; 홍순일 조사, 신동안(남,70,43년생) 제보, 조사내용 〈개바위 이야기〉,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2리 노은마을(노른목) 경로당, 2012.02.23(목) 13:53.



### ○하태동리

하태도의 동쪽마을이 됴므로, 하태동 또는 하태동리라고 불렀다.

### ○고평사도리

본래 본래가 많은 지역으로 고사도, 평사도의 이름을 따서 불렀다.

## 나. 생애담 및 경험담

가) 하태서2리 노은마을 구비연행자 장순단의 생애담(1)-가족(자녀)<sup>4)</sup>

▶개요: 장순단(여, 75)님은 남편은 돌아가신 지 16년차가 되고, 아들은 2명, 딸은 4명이다.

[여기 마을 이름이 뭐예요?] 노은리2구(노은리가 ‘노른목’ 이라고도 불림).

[자제분은요?] 남자 둘, 딸 넷.

[할아버지는 계세요?] 없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16년차 되야 가요.

[따님은 어디서 살아요?] 큰머이마는 서울가 있고, 막둥이하고 큰딸하고는 대구가 있고, 셋째 막둥이 우게 가이나는 미국에 가있고 그래요. 둘째 딸은 안좌에 큰동네가 있고, 넷째는 안산에 있고.

---

4) 홍순일 · 김경완 · 신미영 조사 · 김세인 채록, 장순단(여, 75) 제보, 조사내용 〈구비연행자 장순단의 생애담(1)-가족(자녀)〉,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2리 노은마을(노른목) 경로당, 2011.08.23(화) 10:10.

나) 하태서2리 노은마을 구비연행자 장순단의 생애담(2)-친정<sup>5)</sup>

▶개요: 장순단님의 친정은 하의도 대리마을이다. 엄마와 할머니도 하의도 시깁에서 태어났다. 친구들끼리 모소리를 했으나, 생애소리를 안했다.

[할머니 친정이 어디예요?] 하의도 시깁인디 엄마가 서울로 가브렸어.

[하의도 어디요?] 대리서 가차웠어.

[그럼 그 마을이 대리가 아니죠? 운곡인가요?] 운곡은 곶실이고 대리라고 있어요 김대중이 사는데.

[고향이 대리세요?] 고향은 시깁이가, 첩에 우리 엄마가 거기서 살았어. 그란디 대리로 이사가서 대리서 살았어.

[엄마가 대리 어디요?] 엄마가 고향이 시깁이지라. 의동 너머에 시깁.

[동네 이름을 시깁이라 그래요?] 예.

[그럼 어머니는 시깁에서 태어나셨고, 할머니는 대리에서 태어나셨구요?] 나도 거기서 어매가 살 때 태어났어. 그란디 클 때는 대리가 커갓고 시깁갓제. 어매가 시깁가갓고 외할마니가 자식이 없은게, 우리 아버지가 데릴사우로 있었어라. 그래놔서 조금 살았어.

[그러니까 할머니에 외할머니가?] 외할마니가 시깁에서 살았지라.

[그럼 외할머니가 시깁에서 사시고, 엄마도 시깁에서 사시다가] 외할마니가 자식이 없은게 데릴사우로 데렸다고 아버지를.

[그럼 할머니가 대리에서 크시다가 이쪽에는 몇 살 때 시깁오셨어요? 신의로 오신 것이 혼인을 하면서 이쪽으로 오셨겠어요. 처녀 때는 거기 있었고, 대리예] 야.

[그럼 언제 이쪽으로 오셨어요?] 21살에 여기 왔어요.

[그럼 이 마을에 오셔서 계속 여기에서 사셨어요?] 예.

[처녀 때 대리에서 살 때 밤달애를 했었어요?] 처녀 때는 안 했지라.

[그 마을에 밤달애가 있어요?] 같이 친구들이랑 놀기는 했어도 모아서는 못소리도 하고

---

5) 홍순일 · 김경완 · 신미영 조사 · 김세인 채록, 장순단(여,75) 제보, 조사내용 <구비연행자 장순단의 생애담(2)-친정>,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2리 노은마을(노론목) 경로당, 2011.08.23(화) 10:10.

대리서 삼시로 했어요. 상여소리는 안 해봤지라. 여기 시집와서 나이 먹어간 게 했제.

[대리에서 사실 때 동갑끼리 놀았죠?] 동갑끼리도 놀고, 안된 사람하고도 같이 놀고. 모도. [같이 놀 때 위아래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몇 살 정도?] 1~2살 차이도 있고. [나이차가 많이 나면 놀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같이 놀아라.

[이때 놀 때, 그러니까 이때 놀 때 밤달애가 거기는 없었죠? 그때는. 하는 걸 보셨어요?] 여기서도 젊어서는 각시 때는 안 했어요. 아그들 낳고 나이 먹고 그란게. [대리에서는 밤달애가 있었어요? 초상나고 했을 때?] 그런 데는 나는 가이나 때는 안 땡겨 봐나서 잘 몰라요.

[여기에 시집와서 여기서 밤달애를 했었지만 처녀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밤달애 가서 못소리는 하셨어요 아니면 나중에 나이드시고] 못소리는 친구들하고 했지라.

[여기 와서도요?] 가시나 때. 여기 와서도 하고.

[거기 있었을 때도 하고?] 예.

[못소리를 못 들었네]

여아~ 허이~ 여허이~ 여로~ 상사디여~~

여보라 농부들아~ 내 말 한자리 들어보아라~

하나 농부야~ 말 들어라~

여아~ 허이~ 여허이~ 여로~ 상사디여~~

그렇고 했제라.

[할머니 소리 지금도 힘이 좋으시니 젊었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목도 한창 때제라. 자꾸 목도 써부를 해라야. 그란게 교회 땡길 때도 노래로 찬송가 한께라. 서울서도 찬송 듣고, 대구서도 찬송 듣고 그랬어. 찬송가로 노래를 한게.

다) 상태동3리 모롱마을 고서임의 오줌싸개 이야기<sup>6)</sup>

6) 홍순일 · 김경완 · 신미영 조사 · 김세인 채록, 고서임(남, 71, 41년생) 제보, 조사내용 〈소금 관련 오줌싸개 이야기〉,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3리 모롱마을 고서임씨 자택, 2011.08.23(화) 13:38, 16:36.

▶개요: 오줌싸개가 소금을 얻으러 오면 놀라게 해준다. 오줌싸개가 그것을 계기로 오줌을 싸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는 소금과 관련된 속담, 이야기 이런 것들 전해 내려오는 것들 있습니까? 전에 있는 것도 있고 만들어진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흔히 하는 얘기들 없습니까? 교훈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내가 못 들었고. 오짐싸개 있으면 소금 얻으러 보내, 글쁜 그 집서 깜짝 놀라게 해갖고 소금 얻으러 온 애가 깜짝 놀라서 와갖고 그것이 마음에 계기가 돼갖고 오짐을 안 싸게 한다는 그런 얘기.

[그런 것은 경험하셨겠네요] 그렇죠. 또 치쓰고, 까부는 치 있잖아요 그 치쓰고 소금 얻으러 보내고.

라) 상태동3리 모룽마을 구비연행자 이울레의 생애  
담-소리배우기<sup>7)</sup>

▶개요: 이울레는 하의도에서 처녀 때 들노래를 배웠고, 시집와서 신의도에서 어깨너머 그 소리를 얼른 배웠다.



사진3. 신의도 고서임(남, 71)

[또 이울레 할머니는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하셨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하는 소리를 자주 듣다보니까 알게 되신 거죠? 처녀 때도 그렇고?] 예.

[그럼 처녀 때 하의도에 있을 때 배운 것이죠?] 네.

[이쪽에 신의도에 시집와서 배운 것이 상여소리에요?] 예.

[들노래는 거기서 배우셨었고?] 들노래도 여그서 시집와갖고 늙은 노인네들 따라 다닐서 모내기를 하다보니까 얼른 배워집디다.

---

7)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울레(여, 71) · 천금자(여, 62) · 전영례(여, 65) 외 7인 제보, 조사내용 <산다이>,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3리 모룽마을 경로당, 2011.10.27(목) 19:00.

## 마) 신의도사람과 신의도 이야기<sup>8)</sup>

▶개요: 19살 때까지와 55살 때부터 겪은 고향, 부여사람이 태안사람과 신의사람을 만난 이야기, 인권, 소금생산이야기, 염전을 한 사람(윤인우, 최대), 고용, 염전 소유자(홍완태, 최고), 염전 소유자(윤인우, 최대), 단골 최가주 이야기(쟁풀이농약) 등이다.

### ○19살 때까지와 55살 때부터 겪은 고향

[오셔서 또 어떤 것이 다른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전씨, 고씨, 서씨 집안들이 살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고 상하태가 자동차가 있어서 오고가고 하니 생활권이 묶여있는데 옛날에는 이 마을밖에 몰랐어요.

-우리가 고작 놀러가 봤자 초등학교 다니던 데하고 이 앞동네 다녔는데, 지금은 차를 가지고 나가니까 상태서리도 가고 불암리 하태까지도 같이 모임을 하고 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고.

-또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염전에서 소금나는 거,

=염전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생활이 되고, 염전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살고.

-그런 것이 달라진 점 같아요.

[고기는 잡지 않았어요?] 고기는 많이 잡지 않았어요. 밖에서 고기를 잡은 사람이 여기 와서 소금하고 바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물교환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는 고기를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 잡았겠네요?] 예, 조금 잡았어요.

[그 전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 전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신경을 안 쓰더라구요. 그 시간에 소금을 해서 사먹는 게 싸다.

[아주머니는 19살 때까지 여기 계셨다고 했죠?] 예.

[그러고 목포에서 결혼하면서] 아뇨. 목포에서 살다가 서울로 갔는데 중매해 갖고.

[여기 오신 것은 몇 년?] 작년에 왔어요.

8)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전연자(여,59) · 김정길(남,65) · 전준면(남,62) · 장내훈(남,57) 제보, 조사내용 〈신의도사람과 신의도이야기〉,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3리 모퉁마을 누나펜션, 2012.02.24(금) 08:37.

[지금 연세가?] 56세.

#### ○부여사람이 태안사람과 신의사람을 만난 이야기

[어르신은?] 65세.

[성함이?] 김정길.

[고향이 부여라고 하셨죠?] 예.

[여기가 고향이어서 오셔서 낯설지는 않았겠어요?] 저는 낯설지 않지만 우리 양반은 낯설죠. 처음에 적응을 못 해서 5kg이 빠졌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신의도를 좋게 말하는 것도 있고, 안 좋게 말하는 것도 있고 할텐데 심정이 어떠셨어요?]

-안 좋을 때가 많죠. 신의도는 발전성이 없을 것이다. 할 때. 내가 볼 때 발전을 시키면 도시보다 많이 좋아질 것도 같고. 다리가 첫째 놔지면 좋아질 것 같고. 여기 신의면은 여성분들이 많이 뭉쳐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여기 오면 좋을 거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힘들고 그런 점이 있어요.

[막상 들어왔을 때 안 좋았던 것 혹은 좋았던 것이 차이가 있던가요?] 순수함이 많이 없어졌고.

[전보다?] 예. 지금은 억척스러워졌다고 해야겠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정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도시보다는. 도시에서는 한 건물에 살아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도 많이 좋지는 안더라구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외부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가족들이 흩어져서 나뉘지니까 그런 것 같고.

[어렸을 때 할머니나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잘 몰라요. 우리가 형제가 많거든요. 8남매여서.

[8남매 중에 몇 켜세요?] 여섯 번째. 남동생이 둘 있어요. 광주조대, 바로 밑에 동생은 서울에. 언니가 셋, 오빠가 둘. 가족이 많았었는데요 그때는 부모다 계시고 오빠, 언니들이 많으니까 일도 못 하게 하고 저기하게 자랐는데 지금 와서는 형제가 다 안 사니까 지금은 형제가 같이 살아서 오고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떠났어요?] 예, 전부 떠났어요.

[그럼 흔적이 없어요? 땅이라든지] 땅은 있어요. 집은 허물어지니까 팔고, 큰오빠집도 팔



고, 어머니 아버지 살던 집도 팔고, 땅은 밭만 있어요. 논이랑 염전은 팔고. 큰오빠는 애들이 공부를 잘 해서 염전을 팔고, 그때는 염전 시세가 없었거든요. 내가 힘이 들어서 죽겠다 해서 일찍 가셨어요. 가서서 애들 교육은 잘 시켰는데.

[어렸을 때 밭농사 하면서 소리같은 거] 저는 일을 한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성함이?] 전연자.

[여기는 모룡리죠?] 예. 모룡리가 상태동리 2구, 3구.

[번지요? 2939?] 아뇨. 가락리가 1구, 저기가 2구, 여기가 3구.

[전화번호가?] 271-8255.

[아주머니 전화번호가?] 010-2309-2136. (다른 사람과 대화)

[어르신 서울 서 사시다가 이쪽에 와서 적응하면서 어려운 점들 고런 점이 뭔가?] 인간 관계가 잘 이뤄지지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고. 여기는 텃세도 없고. 태안같은 경우는 텃세가 심해요. 외부사람이 오면 환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팔세한다거나 텃세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태안은 하수도 같은 경우도 허가가 났는데도 자기나 하수도하고 연결을 못 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잘못됐죠. 여기는 그런게 없고 동네 분들도 좋고.

## ○인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사람을 쓰면서 생기는 문제가 꼭 여기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러면서 인권에 대해서 사각지대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을 하다보면 염전을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 식전에 해 놓고 놀다가 오후 4시쯤에 채렴을 하거든요.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외국근로자를 쓴다고 하면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하면 공백시간을 빼서 옮길 수도 없잖아요. 오후 4시에 하면 8시면 끝나거든요. 염전이 크면 9시간까지도 하고. 그 시간내에 대한 수당을 줘야한다 도저히 뭐시기. 시간외 수당으로.

[식전에 시간하고 4시부터 8시까지 모아서 8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식전에 시작했으면 쪽 8시간을 얘기하는 거네요?] 예.

[고용자 입장에서는 그 점이?] 예. 소금하는 입장에서는 애매하죠.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쓴 경우는 없어요?] 예.

[신의는 없는 거예요?] 예.

### ○소금생산이야기

[소금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셨거나 한 이야기 없어요?]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많이 내고 어떻게 하면 시기 맞춰서 조금 더 받고 파냐 이런 얘기만 많이 해.

[소금을 더 많이 만들자 하고 교육을 하거나 한 경우는 없으세요?] 소금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더 내지 특별한 과학적인 빛은 없어요.

[어떻게 더 내요?] 바닷물이 통상 3도라고 하든 로라(땅 다듬는 것)해갓고 바닷물을 퍼서 하루 있다가 내리몬은 안 한놈하고 1~2도 이상은 차이가 나요. 노력을 하든 차이가 나지 안 하든 안 나요.

[바닷물을 한 번 더 퍼서 증발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내려오면서 계단계단 계속 그놈이 증발이 되죠.

[다른 사람보다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한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힘을 써야 하니까] 예. 그런게 로라질이 힘들어서 그러지 하면 훨씬 염도가 더 빨리 올라요. 요즘은 귀찮은게 그렇게 로라질을 안 하드라고요. 그런데다가 진짜 신염으로 갈라든 봄소금, 가을소금을 뭔가 조치를 내려야 되거든요. 봄소금, 가을 소금은 이를테면 젓갈공장으로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염을 쓰는데는 짜가지고 쓴맛이 많이 나요. 가정에서 진짜로 신염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제가 해 보니까 5~9월까지 소금.

### ○염전을 한 사람(윤인우, 최대)

[신의에서 처음 염전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다 돌아가셔블고 있어야지.

[지금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윤인우.

[이 분이 가장 크게 해요?] 두 판을 하는데 면적이 커요. 거기가 평년 3만5천에서 4만개 낼 거예요.

[그럼 사람을 많이 쓰겠어요?] 아니, 염전이 붙어있는 게. 염전이 떨어져 있으면 세 사람, 세 사람 써야한디 같이 붙어있는 게 두 사람, 두 사람 해도 같이 운영이 되요.

[염전이 붙어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떨어져 있는 걸 가진 사람은 하나만 하고 다른 하나는 임대를 줘볼데요.

### ○고용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해서 와요. 근디 막상 와서 보든 애간장 빼는 애들이 많아요. 또 왔다가 며칠 안

되서 가본 사람도 있고. 그러면 소개비도 줘야 되거든요. 글고 또 어떤 애들은 일부 선불도 줘야 되거든요. 소개서를 쓴 애들 그라든 그놈까지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르신은 소개비를 얼마?] 지금 소개비가 50만원이에요. 또 보너스로 7~80 정도 줘야 얼른 사람을 소개해 줘요. 순수 소개비는 그러고 그애가 여인숙에서 조금 먹고 자고 했었다 그러든 거기다 돈 백만원 더 붙은 경우도 있고.

[왜 더 붙어요?] 소개서에서 여인숙비에다가 지 술에다 뒀에다.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그걸 빨리 처리해야 올 수 있으니까?] 응.

[그게 170~180 들어가요?] 많이 준 사람은 3백 몇 십 만원까지 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갖고 한 달도 못 하고 도망가는 놈들이 허다해요. 그라든 어따 하소연도 못 하고.

[그게 애를 먹이는 경우네요] 일 년에 몇 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분은 인건비를 얼마큼 약속을 하나요?] 보통 먹고자고 한 달에 70만원선.

[선불은 일 년으로 하면 800 정도 되는데 몇 퍼센트 정도 선불로 주고 하나요? 계약할 때] 보통 선불이 몇 십 만원에 불과하제 그란디 3백 몇 십 만원까지 준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근디 도망가블른 하소연도 못 하고 파출소에서는 주인들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파출소에서는 그 애들이 못 하겠다면 무조건 보내라고 그러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사람을 바꿔서 잡는 것도 그렇고요.

[어르신은 모퉁리 사시구요?] 예. [몇 번지 사세요?] 상태동리 368-5번지.

[여기가 3구쥬?] 예.

[전화번호가?] 271-6868, 010-5276-1300

#### ○염전 소유자(홍완태, 최고)

[신의도에 염전을 처음 하신 분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천일염을 하기 전에 화염이 있어요. 천일염이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전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황해도 해주 그쪽에서 천일염을 먼저 했다고 하드라고요. 인천 그쪽애가 어떻게 보면 천일염에 근원지라고 지금 염업조합에서는 인천 어디에 가면 그 표시적이 서있을 겁니다. 천일염을 처음 한 사람은 상태쪽은 잘 모르겠는데 하태는 황해도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여기서 처음 했다고. 우리들은 잘 모르고 어르신들 말 들어보면 홍완태씨라고 그분이 천일염을 여기 와서 처음 시도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드라고요. 그분이 화염에서 천일염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처음 시도를 했다고 그러드라고.

[홍완태씨는 어디분이세요?] 구만리요.

[이분은 작고하셨죠?] 예.

[염업을 처음 하셨다고?] 아니, 그말이 아니라 염업도 처음에는 이 상태 천일염을 한 게 아니라 화염을 했는데

[홍완태 이분이?] 아니, 그 전에 다른 사람이 화염이라고 여러 사람이 했는데 최초로 화염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는 모르죠. 화염이 어렵고 생산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황해도 인천 그쪽에서 천일염 방식을 처음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분이 거기 가서 보고 여기서 시도를 처음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염전자리가 천옥이네 염전 그 자리가 꽤간하게 있다고 하데 그쪽에서 처음 했다고 그러디다.

[그러니까 홍완태 이분이 화염을 한 게 아니라 황해도에 가서 배워서 보급시켰다고] 예. [구만리는 하태] 동리에요. 여기도 염전이 이 안쪽으로 조그만 것 밖에 없었어. 옛날 버터굴 저수지(?-25:02) 거기도 염전이라 한 것 같애. 요렇게 그 길이 구 제방자리제. 그래갖고 염전이 그쪽밖에 없었어. 그리고 나중에서 막어져서 생긴것이고. 그리고 홍기네 창고자리가 옛날 화염터예요. 그라고 백기형이 거기서 하고. 거기도 겁나게 등높은 데라더만 그란게 옛날에 어떡하든 등 높은 데서 시작했것지라. 그란게 웅기 쪼가리같은 것이 엄청나게 전에 가면 막 나와.

[이 황성금리는] 하태서리에요.

[아까 홍완태 이분이 한 천일염을 한 방식을 얘기하셨는데 화염을 얘기한 것은 천일염이 보급되기 이전에 신의도 분들이 화염을 소금을 했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 소금을 만들었는디 경제성이나 모든 것이 안 맞으니까 그 뒤로 인천이나 경기도 쪽에서 천일염을 처음 시작했다드만 그걸 보고 여기와서 보급 정착을 했다고 나이드신 분들이 얘기를 하드라고. 그 세대 분들이 살아계시든 확실하게 얘기가 나온디 다 돌아가셔나본게.

[벼락바위는 하태동리고 노은리도 하태동리인가요?] 예, 거기도 하태동리에요.

(중간에 동리, 서리, 1,2,3,4구 등 설명)

[아까 소리하신 분 장득철 그분 말씀하셨고 이쪽 동네는 아시는 분이?] 서리는 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 ○염전 소유자(윤인우, 최대)

[어르신 염전이 어디 있어요?] 모룡리, 면사무소 앞에 있어요. (지도 보며 위치설명-전준면 어르신 염전이 있는 곳)

[윤인우라는 분이 크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쪼개갖고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윤인우 이분은 연세가?] 54살 정도.

[지금 염전하세요?] 두 판 하나까(위치 설명)

[장득철 요분 전화번호 있으시죠?] 집전화가 271-7153. 010-4040-7153

[이분은 교회 집사신가요?] 천주교를 다닌 것 같드라고요.

[잘 하시는 소리가?] 모든 소리를 잘 해요. 그 분이 상여소리도 잘 하고.

#### ○단골 최가주 이야기(쟁풀이농악)

[최가주 이분이 모룡리 분이세요?] 하태동리 원앙마을에 살았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게 어르신 몇 살 때?] 우리들도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해방된 지가 한 60년 정도 되얏쥬. 돌아가신 지가 한 60년 정도 되얏을 거요. 확실하게 모르는데 나이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든 다 그 사람 얘기를 하데. 전에 보든 그러드라고 거기도 아들네미, 딸네미가 있는데, 친구들도 무시를 하드만. 옛날에는 단골네 아들이라 해갖고 무시를 했어요.

-최가주씨가 뗏을 주특기로 잘 했냐든 말 들어보든 시골에서 쟁풀이 농악이라고 있어요. 그게 상쇠를 하면 상모를 돌리면서 상쇠놀이를 하면은 안 반할 수가 없을 정도라 하드라고. 지금 진도에서 췌김굿 하신 분들 있잖아요 무형문화재 하시는 분. 그런 분들하고 같은 계열이여. 그런 끼를 가지고 있던 분들인데 돌아가셔서 그랬는데 자식네들은 그런 것들이 싫어서 이주해 가블고 그래갖고 전수를 못 받아본거쥬 한 마디로.

[다른 데 또 있으시다면서요?] 여기요 상태 모룡리.

[그분은 성함이?] 모르겠어요 아줌마라.

[그분도 단골이세요?] 예.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신 지 꽤 됐어요.

[여기가 하태?] 상태동리. 그런 문화로 보면 그분네들이 우리 신의면에서, 옛날 상하태에서 상태도 모룡리쥬, 하태서리. 서리는 최신관씨라고 그분네도 같이 세 그룹이 연대해서 모든 단골을 하는

[상태서리요?] 예.

[성함이?] 최신관.

[역시 돌아가셨구요?] 예. 그분 후손들이 서울에 가 계신다고. 그분 연락처들이 서리쥬에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그쪽의 길을 안 걷는데.

[그러면 상태동리, 상태서리, 하태동리 몇 분이 서로] 연대해 가면서, 그런게 보든 남자들은 췌과리 갖고 하고 인변에 아짐은 췌김굿 하고 하드만. 그래갖고 동네전체에서 애들을

왕따시키고 하고 그러드라고.

#### 바) 신의도사람과 진도사람과의 관계<sup>9)</sup>

▶개요: 신의도와 진도 사이에 영향관계가 없고, 최근 이 마을에는 진도에서 오신 분이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할머니하고, 한 분은 젊은 분이다.

[할머니 여기하고 진도에 가까운 마을이 있던데요 지산면 말고 소포리?] 예.

[여기서 가깝다고 들었는데요] 바로니까.

[그럼 신의도하고 진도하고 관계가 지리적으로 봐도 가깝잖아요 그럼 영향관계가 있어요? 이쪽으로 사람이 왔다든지 갔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진도에서 시집 오신 분이 있나 했더니 없네요?] 예. 이 부락엔 있긴 있는데 여긴 안 왔어요.

[그럼 진도에서 시집 오신 분은 있긴 있으세요?] 거긴 젊은 애기예요.

[진도에서 시집오신 분 성함이?] 몰라요.

[그 남편되는 분 성함이?] 젊어요. 애기예요. 액쳐서 우리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최근에 왔나보죠?] 예. 이 부락은 진도에서 오신 분이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할머니하고, 한 분은 젊고 그런디, 친정이 진도란 건 알아요. 그란디 이름은 모르고, 우리하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젊은이는 그런데 할머니는 오래 여기서 같이 사셨다면] 재개 왔어요. 못 해요. 노래도 못 하고.

---

9) 홍순일 조사·김세인 채록, 이울레(여,71)·천금자(여,62)·전영례(여,65) 외 7인 제보, 조사내용 〈산다이〉,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3리 모룡마을 모룡경로당, 2011.10.27(목) 19:00.



## (2) 신의도의 민요·판소리

다음은 신의도의 민요와 판소리이다.

### 가. 민요

가) 하태서2리 노은마을 구비연행자 장순단의 소리배우기<sup>10)</sup>

▶개요: 장순단님은 어깨 넘어로 소리를 듣고 배웠다. 목성이 좋다는 말을 들었고, 젊어서 노래하고, 60살 넘을 때 더 배웠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그 취미가 없어졌다. 밤달 애할 때 상여소리, 모심을 때 모소리, 먼민의 날에 노래자랑할 때 소리를 한다. 동네에서 하고, 상태에서 두 번 소리를 한 적이 있다. 초상날 때 가락, 모롱에서 소리를 했다. 상여소리, 하나님어, 육자백어 등 소리를 한다.

[아까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배우게 되셨어요?] 내 목이 쪼까 좋아나서 노래로 여기서 소리도 하고 하른 해주고 그라지라.

[목청이 좋다는 소리를 주위에서 많이 하셨어요?] 모르것소 나는, 이장님이 그말하요. 먼에서 그말 했다고.

[소리는 젊어서부터 하셨어요?] 젊어서 각시 때는 안 했쥬. 나이 묵음시로 했지. [그러면 언제?] 몇 년 안 되었어요. 60살 넘고 그랄 때 했제. 요 동네 초상나고 말이 없으른 내가 거사하고 그랬제.

[소리를 누구한테 배우신 것은 아니구요?] 배



사진4. 신의도 장순단(여,75) (2011.08.23)

10) 홍순일 · 김경완 · 신미영 조사 · 김세인 채록, 장순단(여,75) 제보, 조사내용 〈민요-소리배우기〉,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2리 노은마을(노른목) 경로당, 2011.08.23(화) 10:10.

운 것도 없고 내가 듣고 노래로 연구하고. 노래로 여서 소리를 하제라.

[소리를 초상났을 때 하고 또 일하실 때도 하셨어요?] 전에 모할 때 못소리하고, 초상나  
른 상여소리하고 그랬어.

[또 다른 때는요?] 밤달애할 때.

[밤달애할 때 하는 소리가 모내기 소리예요?] 아니, 밤달애할 때 <상여소리>로 하제라.

[상여소리를 여자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모르것소 나는.

[그런 것 상관 았고 하셨어요?] 나는 나맹기는 사람이 아니라서 동네나 하고 상태에서 오  
라고 해서 두 번 가기는 갔어도 인자 요 동네서 했지. 소리도 할지 몰라라.

[상태 두 번 간 것은 언제 가셨어요?] 몇 년 되았소.

[상태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초상나른 가제라.

[상태라면 어느 마을이예요?] 저 가락개하고 무렁지기하고, 가락개 두 번 가고.

[밤달애 때 상여소리 한 번 해 주세요]

나) 하태서2리 노은마을 구비연행자 장순단의 밤달애 상여소리 외<sup>11)</sup>

▶개요: 장순단님은 상여소리 외에서 소리를 메겼다.

#### ○〈밤달애 상여소리〉

어~ 늑~ 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와~ 늑~

북망산천이 멀다고 허이여도 저건네 안산이 북망이세~

어~ 늑~ 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와~ 늑~

[계속 소리를 넣어서 하시죠?] 자꾸 그라지라. [한 곡 더 해 주세요]

#### ○〈하나님이~ 사람을 빛을 적에~〉

---

11) 홍순일 · 김경완 · 신미영 조사 · 김세인 채록, 장순단(여,75) 제보, 조사내용 〈민요(민요로 부르는 찬송가 포함) 관련 상  
여소리〉,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2리 노은마을(노른목) 경로당, 2011.08.23(화) 10:10.

하나님이~ 사람을 빗을 적에~ 별로 구별이~ 없었건만~  
 이녀린 신세는 무산 일이~ 신세던고~  
 날고새면은~ 지게갈~ 길~ 짧어지고~ 심산~골~ 부엌이~ 웬 말이요~  
 여그봐라 친구들아~ 너는 저 골을 비고 나는 이 골을 비어다가~  
 부러진 참목 부러진 낙엽을 꺾고 어메고~ 어인 끝으로~  
 흰끝으로 뭉쳐다가~ 집의~ 처자식을~ 걱정근게~ 허여 불라네~  
 어~ 하이~ 요 갈거나 누가 누구 웃나~

[이건 무슨 소리라고 해요? 앞에 것은 상여소리였었고] 진도 상여소리도 그렇고 합니까.  
 [이걸 상여소리라 그래요 애소리라고 그래요?] 상여소리는 사람 죽으면 상여 뒤에 따라  
 다님서 상여소리 하제라.

[그럼 ‘하나님이~’ 이것도 상여소리구요?] 아니 그건 노래고.

[그럼 밤달애할 때도 이런 소리를 하시구요?] 그라지라. 노래도 부를라든 부르고, 상여  
 소리도 할라든 하고, 인자 밤달애 하든 그렇게 하제라.

[그럼 한두 곡 갖고는 안될 것 같은데] 목이 갈려갖고. 노래를 한 지가 오래 되야 갖고  
 목도 갈리고 힘도 없고.

[할머니가 60세 때 노래를 배우셨죠?] 소리는 보통 젊어서부터 배웠제.

[젊어서 하시다고 60세 넘어서 취미가 있어서 더 배우신 거구요?] 나 아니든 누가 상여  
 소리할 사람도 없고 한게 인자 한다고도 하고, 늙어지든 어찌고 하것소.

[아까 밤달애할 때, 상어나갈 때, 그냥 노래. 그냥 노래 또 있을 것 같은데, 장단치면서  
 하는 노래도 있다고 하셨죠?] 장단치면서 그런 노래도 하고, 육자배기도 하고 그러제.

[다른 마을가서 누구한테 일부러 배우지 않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소리 듣고 기억  
 했다가 해 보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녹음기에 담았다가 틀어서 듣고 그러셨어요?] 내가 노  
 래로 여서 소리를 하든 되것다 그렇게 뭐시기 해서 하제라.

[육자배기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육자배기는 장단치고 넘시로 육자배기. 노래자  
 랑에 나가든 육자배기 하고 그랬어.

[노래자랑은 면에서 노래자랑할 때요?] 야. 면민의 날. 시방은 안 나가는데 옛날에 나가  
 젊을 때 나갔제. 한 번은 상도 타고, 안 타긴 안 해봤소만은.

[면민의 날 나가서 부른 노래는 어떤 거예요?] 옛날에 노래자랑할 때 부락부락 밤에 노

래해요. 할 때 옆 동네서 여문은 나가서 하고 그랬어요.

[그때 할머니도 나가셨구요?] 예.

[〈육자배기〉 한 번 해 주세요]

### ○〈육자배기〉

호나~아~ 에~~ 날더리여~~ 가는길~~ 없구나~~

나를~~ 따를~ 갈 이~ 없구나~~

한양~ 에~ 간꾼~ 나를 다리여~ 가~ 거라~ 에헤~~

### ○[제2차 면담]〈육자배기〉

허나~아~ 에헤~ 날 다리여~~ 가~는~구~~나~ 나를 다려~~어~ 가리는~ 구~~나~

한양~에~ 낭~군~임~이~ 나를~ 다리여~~ 가~는~구나~~아~~ 에~~~

새야~~ 새~~야~ 정주~~우~~새~~야~~ 가~지~~가~~지~~ 앉지를~ 말어라~

어나~ 보오~~ 고이~ 들고 보문은~ 날 버~~?? 구나~~ 에~~

[초상나서 밤달애한 것은 기억으로 얼마 정도 됐어요?] 날새기로 할라든 하고 그랬지라.

[다른 마을에 갔을 때 아까 한 상여소리를 안하실 것 같은데, 상여를 직접 뗏을 때는요]  
상여소리요?

[네] 노래를 여서 하제라. ‘어~ 넘자 어~ 넘자’ 하고.

[그럼 상여 메고 장지까지 갈 때 노래가 달라지는가요?] 월 때는 ‘자자자’ 놓고 쉬라고  
자자하고.

[쉬라고 할 때는] 쉬라든 ‘자자’하고 상여를 놓고 쉬어요. 그라든 음식도 먹고 쉬어가고  
그러제.

[상여할 때 처음 들어가는 소리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관을 옮길 때도 소리가 들어가  
요?] 널 띠고 갈 때는 ‘자자자’ 하고 상여를 뜨메갖고 상여소리를 하제라.

[그럼 마당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니, 들에서, 동네 신작로에서 그라지. 우리 동네는  
사장에서 하고 저기 상태는 질에다 놓고 합디다. 상태는 벌판이 없은게 그라제, 사장이 없  
은게.

[사장] 여기 동네는 사장이 있어봐서, 뉘은데 있어봐서 여기서 하지만은 상태는 길에서  
왔다갔다 함시로 하지.

[그럼 사장에서 처음 하는 소리는요?]

‘어~ 늴~ 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와~ 늴~’ 하믄 옆에서 받아주는 소리를 하제라.

[받는 소리는요?] 받는 소리도 ‘어념 어념’ 그래요.

[메기는 소리를] 처음에는 내가 노래로 여서 하고.

[그럼 할머니가 아까 먼저 한 소리를 하시면 받는 사람들이 할머니 하신 같은 노래로 받고요?] 응, 그라고 받제.

[그러면 또 메기셔야죵?] 그라지라.

불쌍하구나~ 가는두~ 갔구나~ 죽음에 보니 불쌍하네~

어~ 늴~ 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와~ 늴~

그렇고 하고 그러지라.

[그렇게 소리를 넣으면서 가요?] 늘 그렇게 하제.

[소리를 하면서 어디까지 가요?] 이렇고 놀다가 가게 생기믄 ‘자자자’하고 묻으러 가제라, 인자 다 놀고 시간되믄.

[그럼 사장에서 계속 하다가] 사장에서 놀 때만 소리하다가.

[그럼 사장을 떠날 때는 그냥 ‘자자’하면서] 자자 하고 그냥 상여 가브러. 그리고 문을 때는 ‘어영차 가래야 어영차 가래야’ 그러고.

[사장에서는 메기고 받고 하면서 여러 번 하다가 떠날 때는 ‘자자자’하고 상여 메고 걸어서 가요?] 예.

[계속 그렇게 가진 았잖아요?] 가다가 쉬믄 그때는 소리 안 하고. 음식 나눠 먹고 그라고 큰 다리 같은 거 건널 때는 돈 놔둬야 건너고. 질세라고 놓라고 하제라 자식이나 사위 보고.

[돈은 누가 내요?] 상 한테서 내제. 사우내들이나 선정한네들이나.

[돈을 받고 다리를 건너니까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때는 감시로 소리하다가는 그냥 갈 때 되믄 ‘자자자’하고 그라고 가제라.

[이때 소리는 어떤 소리를 해요? 소리를 하다가 갈 때가 되면 간다고 하셨잖아요 이때 소리는 사장에서 놀았던 소리하고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똑같어. 가믄 ‘자자’하고 그냥 가브러.

[그러면 ‘자자자’하고 갈 때 할머니는 따라가시죠?] 다리 아픈게 가도 안가라.

[예전에는 가셨어요?] 옛날에도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가시면 어디까지 가세요?] 뽕 뭉은 데까지 가지라 갈라몬. 인자 다리 아파븐게 소리만 했제 안 갔어.

[뽕은 데 가셨을 때는 그때 소리를 하시죠?] ‘어영차 가래야’ 하고 메기고 그라제. 뽕으러 갈 때 ‘가나님 보살 가나님 보살’ 이라고 합디다 남자들이.

[그러면 이때 갈 때라는 것은 뽕을 때 거기 가서 관을 옮길 때 ‘가나님 보살’ 하는 건가요?] 뽕을 때 ‘어영차 가래야’ 하고 그라제라.

[‘가나님 보살’ 이건 어떻게 해요?]

가나님~ 보~살~ 가나님~ 보~살~

죽자니 청춘이고 살자니는 고생이다

가나님~ 보~살~

그렇고 하제라.

[아까 가래소리는 뽕을 때, 달구소리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시신을 뽕고 흙을 덮으면서 밟을 때 하는 거예요?] 흙을 떠서 뽕음시로.

[그때 하는 소리가 ‘어영차’ 이거예요?] ‘어영차 가래야’ 그라고 하제.

[그럼 이걸 또 받아요?] 어, 미기는 사람은 미기고.

[그럼 메기는 소리는요?] 메기는 소리도 상여소리같이 메기지라.

[그럼 ‘어영차 가래야’ 하고 뽕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뽕고 때 붙이몬 끝나제. [뽕고 때 입힐 때는 소리 안하구요?] 안 하제.

다) 하태서<sup>2)</sup>리 노은마을 구비연행자 장순단의 민요로 부르는 찬송가<sup>2)</sup>

▶개요: 장순단님은 서울, 대구(구만교회) 등의 교회에서 찬송가로 노래를 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예수님이 좋은 것은~~~ 등이다. 성경, 찬송가를 넣어서 해 보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었다. 구주의 십자가는~~~ 안되었다.



○〈민요로 부르는 찬송가-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올아버지로 부르른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루 손잡고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에 구주로 부르른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루 즐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에 인도로 부르른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제2차 면담]〈민요로 부르는 찬송가〉〈하나님을 올아버지로 부르른 자는〉

하나님을 올아버지로 부르른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루 즐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에 구주로 부르른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루 즐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에 구주로 부르른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루 즐겁게 사랑한다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방금 부른 소리도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소리를 교회에서도 하셔요 아니면 따로] 교회에서도 노래를 첨에 한 게 목사님이 듣고 몇 번 시켰었어. 그란디 인자는 안 해라.

[지금 다니시는 교회가 어디예요?] 구만리.

[교회 이름이 구만교회예요?] 예.

[이런 곡으로 여러 번을 하셨어요? 또 다른 곡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좋은 것을 어찌 하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요. 대구에서도 권사님이 자꾸 하라고 한게 한디 한자리 하고 나온께라 목사님이 들을 만 했던가 “아이고 한자리 더하시고 나가시지 어찌 한자리만

12) 홍순일 · 김경완 · 신미영 조사 · 김세인 채록, 장순단(여,75) 제보, 조사내용 〈민요-민요로 부르는 찬송가〉,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2리 노은마을(노른목) 경로당, 2011.08.23(화) 10:10;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장순단(여,75) 제보, 조사내용 〈민요(민요로 부르는 찬송가 포함) 관련 음성파일 채록본의 수정 · 보완 및 추가조사〉,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2리 노은마을(노른목) 경로당, 2012.02.23(목) 13:53.

하고 나가세요?” 그러다만 그런게 들어가서 한자리 더하고는. 서울서는 가쁜 서운하다고 장로님이 가쁜 시키고 가쁜 시키고 나보고 가지 마라고 하고.

[구만교회에서는 주로 어떤 소리 하셨어요? 아까 하신 거는 어디서 했어요 서울서?] 서울서도 하고, 구만교회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사도신경, 기도문 그런 것도 노래로 불러지고.

[사도신경도 하세요? 그럼 주기도문도?] 예.

[그럼 주기도문도]

### ○〈민요로 부르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를 내가 믿사오니  
이 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어 죽으시고  
장사치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삽니다. 아멘.

### ○〈민요로 부르는 찬송가-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어난 것치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삽나이다 아멘.

### ○[제2차 면담]〈민요로 부르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 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선택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어 죽으시고  
 장사 치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삽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삽나이다 아멘.

그렇고 하고 그라제.

[노래를 하실 때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하세요 할머니가 맘에 들도록 고쳐서 하세요?  
 고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노래 곡대로 하제라.

**○[제2차 면담] 〈민요로 부르는 주기도문〉**

하날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일어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좋은 것은〉**

예수님이 좋은 것은 어찌 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은 어찌 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순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것은 어찌 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은 어찌 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은 어찌 합니까

그것도 노래도 그렇다. 그런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 따라 한다고 해 보다가 하다하  
다 못 하고 그렇다. 그것도 타고 났제 다 해진다우 다 타고난 거시기로 한게 그라제.

[좀 가르쳐 주시지 해 보니까 안 되던가요?] 그런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다리 수술해  
서 있을 때도 교인들이 있어와서 맨 소리만 하라하고 나 없으믄 심심하다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좋은 일을 가사로 넣어서 해 보신 것은] 없어요. 노래도 찬  
송가에 여서 해 보니까 안 됩디다. 되는 찬송가가 있고 노래로 안 되는 찬송가가 있고 그  
래라. 구주에 십자가~~~ 그것도 해 본 게 안 되고. 노래 가사가 찬송가로 넣어서 할 노래  
가 있어라.

[구주에 십자가~~~ 좋은데 소리가 또 안 맞아요?] 노래로 안 되야라. 다 해봤제라.

#### 이[제2차 면담 추가]〈남한산성〉

남한산성 올라가 기와문전을 바라보니

술천지?(01:33-음성파일)천지 해당청 앞바람에 떴다 보아라 저 종달새

석양은 늘어지고 갈마귀 울고 능수버들은 축늘어졌는디

피꼬리는 짝을 매어 이 산으로 감시로 피꼬리 호~~ 으응 어야~

어야 뒤여~ 허허등가~ 허허등가~ 등가 내사랑이로다~

니가 나를 몰라면 수양산 건너라 이친구 내친구 다정한 내친구

설마 설마 서설마 어야~ 뒤여~ 허허등가~ 허허등가~ 등가 내사랑이로다~

라) 하태동3리 모룡마을 구비연행자 이율례(천금자 포함)의 소리<sup>13)</sup>

▶개요: 이율례의 소리는 〈물어몰어 찾아왔소~〉, 〈성주풀이1〉, 〈성주풀이2〉, 〈산아지로  
구나~1〉, 〈산아지로구나~2〉, 〈아침에 우는 새는~〉, 〈산아지로구나~3〉, 〈산아지로구나~4〉,  
〈상여소리1〉, 〈둥당개타령1〉, 〈논매는 소리〉, 〈모심는 소리〉, 〈상사소리1〉, 〈둥당개타령2〉, 〈  
아리통타령〉, 〈아까운 내청춘을~~~〉, 〈성주풀이3〉, 〈논매는 소리〉, 〈밭매는 소리(하중=  
목화 밭매리 가는 소리)〉, 〈진도아리랑〉, 〈둥당개타령3〉, 〈상여소리2〉(산, 분묘), 〈모찌는 소

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논을 오갈 때 하는 소리〉, 〈강강술래〉, 〈날 버린 남자〉, 〈물어 물어 찾아와서〉, 〈강강술래〉, 〈논을 오갈 때 하는 소리〉 등이다.

천금자의 노래는 〈흑산도 아가씨〉(천금자), 〈사랑이 아속하더라〉(천금자), 〈당신이 나 버리고〉(천금자) 등이다.



사진5. 신의도 이울례(여,71) (2011.10.27)

[하시고 싶은 소리 해 보세요]

#### ○〈물어 물어 찾아왔소〉

물어 물어 찾아왔소 그 님이 계시는 곳  
차거운 강바람만 몰아치는데 그 님은 간 곳이 없네  
저 달보고 물어본다 임 계신 곳을 울며불며 찾아봐도 그 님은 간 곳이 없네  
사랑이 무어나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느날 당신이 나를 버리신다면 서로가 헤어지며 모두가 괴로워서 올 때 님 가요.  
세월아 가지마라 가지마라 세월아 가는 세월 간다한들 남들이 붙잡을쏘냐  
기나긴 세월이 청춘도 흘렸건만 가는 세월 보내놓고 오는 세월 반기리라

[이건 누구 곡이에요?] 모르겠어.

[옛날에 할머니한테 들었던 거 있죠? 〈진도아리랑〉도 좋고, 〈동당애타령〉도 좋고] 다 하제. 우리들은 옛날 일본 때부터서 유행가를 많이 배워나서 유행가도 하고 이런 노래도 다 하제.

13)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울례(여,71) · 천금자(여,62) · 전영례(여,65) 외 7인 제보, 조사내용 〈이울례(천금자 포함)의 소리〉,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3리 모룡마을 모룡경로당, 2011.10.27(목) 19:00;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박방란(여,미상) · 이울례(여,71) · 전영례(여,65) · 전애자(여,65) 제보, 조사내용 〈음성파일 채록본의 수정 · 보완〉, 전남 신안군 신의면,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3리 모룡마을 대영만물슈퍼, 2012.02.23(목) 13:53.

○〈성주풀이1〉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나  
절대가인 그누구나 우리네 인생 한번 가면 저기 저모양 될 것이냐  
에라만수~ 허라 대신이야~

저근네 찬 솔밭에 솔솔 기는 저 포수야 저 산 비둘기 잡지 마라  
그 비둘기도 나와 같이 임을 잃고 밤새도록 임을 찾아서 해매노라  
에라만수~ 허라 대신이야~

한성주 솔 비어 울렁출렁 배 띄워 놓고 술이나 가득 싣고 만경창파를 달구경 같그나  
드와 동실 달 구경 같그나  
에라만수~ 허라 대신이야~

○〈성주풀이2〉

등당애당 등당애당 당기등당애 등당애당  
내려온다 내려온다 유네윤선이 내려온다  
금 꽃도 붉은 꽃도 거둬지고 내려온다

등당애당 등당애당 당기등당애 등당애당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 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시가 울고간다  
에라만수~ 허라 대신이야~

남원산성 올라가 이화문전을 바라보니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매  
떴다 봐라 저 종달새

새벽 바람 찬 바람에 울고가는 저 기러기  
너나 슬피 울고가제 잠든 나를 깨우고 가나  
에라만수~ 허라 대신이야~



세월아 세월아 가지마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어진다  
에라만수~ 허라 대신이야~

노래를 안 부른 게 다 잊어버리지네  
[같이 부르시면 기억이 나요, 옆에서 받아주시고 조금만 더 해주세요] 사람은 늙으면 물  
이 되고 뼈따구는 늙으면 흙이 된다고 하드나 들을 만하구만.

○〈산아지로구나~1〉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고야 병이들른 내가 못 논다네  
에헤라~ 디여라~ 에헤헤야~ 어하~ 디여라~ 산아지로구나~

[생각나는 곡 하나 해주시죠]

○〈산아지로구나~2〉

석탄 백탄 타는 데는 연기만 풍풍 나는데  
요내 가심 타는 데는 어느냐 누가 알아줄까  
에헤라~ 디여라~ 에헤헤야~ 어하~ 디여라~ 산아지로구나~

○〈아침에 우는 새는~〉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서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임이 그리워서 운다  
너냐~ 나냐~ 두리둥실 너냐~  
낮이 낮이나 밤이 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잊어버려서 못 하겠다.

[할머니, 〈강강술래〉도 있고 〈진도아리랑〉도 있고 생각나는 대로 해 주세요]

○〈산아지로구나~3〉

노자~ 노자~ 젊어서 노자~  
우리가 늙어블른 못 노는구나~  
노래를 불러서 유녀가 되드냐~  
행실이 굳어야(필자: 안좋아야) 유녀가 된단다~  
아리롱~ 아리롱~ 아라리요~  
아리롱 고개고개로 넘어넘어만 가구나~

널 보고 나를 보아라 내가 널 따라 사누나~  
돈 많고 잘난 놈만 내가 따라 갈란다~  
에하라~ 디야라~ 에헤헤야~ 어하~ 디여라~ 산아지로구나~

시엄씨 잡년아 욱보지 말어라  
니야 자석이 염려맘을 내가 ooo구나~

노래가 짱패야 하하하~ 옛날 사람들이 노래를 그렇게 딱딱 맞춰서 지어놨어. 얘기는 거짓말 해도 노래는 하나 거짓말이 없어. 살아나간 사람이 자꾸 노래를 불러갖고 노래가 퍼져서 딱 맞아.

[할머니 그런 퍼져나간 소리, 신의도에서 많이 부르는 소리. 지금 하신 것도 많이 부르죠?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산아지로구나~4〉

서방님 오실 줄 알고 개를 벗고 왔드니  
문풍지 바람에 설삼이 났네~

그 노래 처음 부를 때 우리는 생전 없고. 인자는 가세. 우리 식구도 있고.

[할머니 소리하다보면 밥도 잊어버리잖아~] 개도 새끼를 여섯 마리나 나서 개도 묵고 나도 바빠.

○〈상여소리1〉

허이 녀~ 어허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 녀~  
 허이 녀~ 어허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 녀~(받는 소리)

어화 청춘~ 수년 돌아~ 백발 날 보구~ 웃지 마소~  
 허이 녀~ 어허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 녀~

어제 나도~ 청춘이드니~ 오날 날 보니~ 백발이 되었네~  
 허이 녀~ 어허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 녀~

저기 가는 저 생애는 남 생애가~ 여 생애가 어허~  
 허이 녀~ 어허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 녀~

남 생애면 무엇하고~ 여 생애면 무엇을 하나 어헤형~  
 허이 녀~ 어허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 녀~

저승길에 가져가들랑~ 우리 엄마를 만나거들랑 어헤형~  
 허이 녀~ 어허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 녀~

실근 동상은 밥을 주라고 우는다구만 젓마니 주고 어허~  
 허이 녀~ 어허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 녀~  
 어른 동생은 젓마니 주고 우는다구만 젓마니 주소~  
 허이 녀~ 어허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 녀~

백주 병에다 젓마니 저이여서 안개갠데로 보내주소~  
 허이 녀~ 어허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 녀~

만숨으로 마개 달아서 눈물로마니 끈만 달아서~  
 허이 녀~ 어허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 녀~

보내주소~ 보내주소~ 안개갠데로 보내주소~

허이 넘~ 어허이 넘자~ 어이가리 넘자~ 어화~ 넘~

산아~ 산아~ 이영산아~ 움이 적다고 백두산 어허~

허이 넘~ 어허이 넘자~ 어이가리 넘자~ 어화~ 넘~

꽃은 피어서 청산이요 임은 비워논 하산이 됐네~

허이 넘~ 어허이 넘자~ 어이가리 넘자~ 어화~ 넘~

청산하산을 넘어 가문~ 우리 엄마를 만나게들랑~

허이 넘~ 어허이 넘자~ 어이가리 넘자~ 어화~ 넘~

날 마다고 가시는 엄마를 내가 찾아간들 무엇을 할그~

허이 넘~ 어허이 넘자~ 어이가리 넘자~ 어화~ 넘~

달 떠 오네~ 달이 떠 오는구나~ 저산 밑에가 달이 떠 오네~

허이 넘~ 어허이 넘자~ 어이가리 넘자~ 어화~ 넘~

저야 달은 누 달이 되었냐~ 장꼬방네가 달이로세~

허이 넘~ 어허이 넘자~ 어이가리 넘자~ 어화~ 넘~

좌우방은 어디를 가고~ 저 달이 비춘디 뜬지도 몰랐네~

허이 넘~ 어허이 넘자~ 어이가리 넘자~ 어화~ 넘~

산아산아~ 이영산아~움이 적다고 백두산~ 어허~

허이 넘~ 어허이 넘자~ 어이가리 넘자~ 어화~ 넘~

꽃은 피어서 청산이고 임은 비워논 하산이 되었네~

허이 넘~ 어허이 넘자~ 어이가리 넘자~ 어화~ 넘~

산아산아~ 이영산아~ 움이 적다고 백두산 어허~  
허이 녀~ 어허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 녀~

이산 저산에 나무들 비어 저 산천에다 절만 주오~  
허이 녀~ 어허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 녀~

어허이 녀~ 어허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가 어허~ 녀이여~  
허이 녀~ 어허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 녀~

중양이 산에 피었던 저 꽃은 남이 오기만 기다리네~  
허이 녀~ 어허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 녀~

걸렸구나~ 걸렸구나~ 거무줄에 걸렸구 어헤허~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원술래라~ 악술내라~ 거미줄이 원술래라~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북망산천이 멀다고 하여도 저근네 안산이 북망일세~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어와 청춘 소년들아 백발 나를 보고 웃지마 어허어~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어이 녀~ 어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이여~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쉬어 가세~ 쉬었다 가세~ 우리가 술 한 잔 묵고 쉬어가세~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자~자자자 (끝내는 박수를 칩)

우리가 장구를 쳐야 되겠다. 장구를 쳐야제. 그라고 내가 또 한 자락 할라.

#### ○〈동당개타령〉

애가 목 석자 없다고 집안에 난리가 났는데~

속 굶는 저 잡년 새 버신 신고서 내 집에 왔느냐~

아기~ 동당개 동당개당 동당개당 두당개당 당기 동당개 동당개당~

그것도 또 잊어브렀다.

[이 할머니 앞에는 〈상여소리〉였고, 지금은 〈동당개 타령〉이었죠?] 네.

[이렇게 쪽 하시는데 시간이 없다고 조금씩 하면 재미가 없어요. 한 곡이라도 생각나시는 데로 계속 하시고, 가사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시는 데로 계속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내용이.]

...증략...

[아까 〈상여소리〉는 어느 부분이에요?] 〈상여소리〉가 마당에서 노는 것이여. 상여가 나와서 어깨에 띠맬 때.

[발인할 때?] 응.

[요령을 잡고서 소리할 때 하시는 거죠?] 어.

[동당개 타령은 조금 하시다 마셨죠?] 예. 〈동당개 타령〉도 잊어브렀어야.

[그러면 처녀 때 어깨너머로 배웠던 것이, 〈상여소리〉는 나중에 했죠?] 〈상여소리〉는 여기 와서 했제.

[그럼 처녀 때는?] 처녀 때는 우리가 논을 맏거든. 논을 맬 때 어떻게 하나문

#### ○〈논매는 소리〉

이리 뻥뻥~ 들어 간다~ 어허허이허~ 들어 간다 들어 간다 이 논 빼미로 들어만 가구나~

아해야~ 아해 아릴 타도 홀로 못 하야~ 아이고 이 허리 못 핀다~

이리 번쩍~ 이리 번쩍 장판방에는 살찐 큰애기 뒤집어 졌구나~ 아헤헤야~ 아헤야~

참 잊어브른다. 모 할 때 한 것 또 하쇼. 모 뜨고 그런 거.



[모 짚 때도 있고, 모 땀 때도 있나요? 구분할 수 있죠?] 모 심글 때 해.  
[그러면 모 짜면서 모 심는 거 쪽 한 번 해주세요]

○〈모심는 소리〉

아하~ 아하~ 아오아~ 허헨디아~  
못 하것네~ 못 하것네~ 이놈의 못소리 못 하것네~  
아하~ 아~ 허~ 디야~ 허디요~(받는 소리)

아하라~ 무언데~  
아하라~ 무언데~(받는 소리)

이놈 땀에 앞산은 점점 가까워지고  
에헤라~ 무언데~(받는 소리)

뒷산은 점점 멀어진다  
에헤라~ 무언데~(받는 소리)

아하라~ 무언데~  
에헤라~ 무언데~(받는 소리)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에헤라~ 무언데~

새참 바구리 또 들어온다  
에헤라~ 무언데~

죤네 마누라 술동우 이고  
에헤라~ 무언데~

논가에서 궁치짓 친다.

에헤라~ 무언데~

얼른 잠깐 부어내고~

에헤라~ 무언데~

니기 반짝 말뱅이로

에헤라~ 무언데~

우리가 심그로 가서 보세~

에헤라~ 무언데~

상사소리를 하러 가세~

에헤라~ 무언데~

아하라~ 무언데

아하라~ 무언데

우리가 술 한잔 묵고 가세~

아하라~ 무언데

권네 마누라 술동우 이고~

아하라~ 무언데

일꾼 대접을 하러 갔네~

아하라~ 무언데

이 논빼미가 다 되얏네~

아하라~ 무언데

앞산은 가까우고~

아하라~ 무언데

뒤에 뒷산은 멀어진다~

아하라~ 무언데

에헤라~ 무언데~

에헤라~ 무언데

술 한잔을 묵고 보니~

에헤라~ 무언데~

무언데 소리가 저절로 난다~

에헤라~ 무언데~

에헤라~ 무언데~

에헤라~ 무언데~

우리가 인자 <상사소리>로 들어간다. (일동- 어~)

#### ○<상사소리1>

허이~ 허이~ 저~허~이~ 저 흐러~ 상사디요~오~

허이~ 허이~ 저~허~이~ 저 흐러~ 상사디요~오~(받는 소리)

앞산은 점점 멀어지고~ 뒤산은 점점 가까워 진다~

허이~ 허이~ 저~허~이~ 저 흐러~ 상사디요~오~

여그도 놓고~ 저그도 놓고~ 열방 없이만 놓아지 어~어~

허이~ 허이~ 저~허~이~ 저 흐러~ 상사디요~오~

여~이~ 여~이~ 여~ 여로~ 상사디요~

여~이~ 여~이~ 여~ 여로~ 상사디요~(받는 소리)

또 들어오네 또 들어오네 풍장 지고서 또 들어오네 예헤~

여~이~ 여~이~ 여~ 여로~ 상사디요~

요기도 놓고 저기 저기도 놓고 열방 없이만 놓아두서~

여~이~ 여~이~ 여~ 여로~ 상사디요~

앞산은 점점 멀어멀어지고 뒷산 점점 가까워 졌네~

여~이~ 여~이~ 여~ 여로~ 상사디요~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네 말을 들어보세 어이와 이놈의 소리가 잊어블네~

여~이~ 여~이~ 여~ 여로~ 상사디요~

아이고 인자 잊어브러서 못 하겠소. 아까 단가 몇 했잖아.

## ○〈동당개타령2〉

아가 목 석자 없다고~ 집안에 난리가 났는데~

속 없는 저 잡년~ 새 버선 신고서 내 집에 왔느냐~

당기 동당개 동강개당~ 동당개당~ 동당개당~ 당기 동당개 동당개당~

내려온다 내려온다 윤희운선이 내려온다.

검고도 붉은난 운선이 거덜거리고 내려온다.

동당개당~ 동당개당~ 당기 동당개 동당개당~

꽃자집~ 꽃자집~ 옷꾸락 밑에 꽃자집~

맹기 감으러 다 나가구나 아리롱 oo 저절로 난다

동당개당~ 동당개당~ 당기 동당개 동당개당~

○〈아리롱타령〉

또 아리롱노래 부를라~

[아리롱?] 〈진도아리랑〉~

아리롱~ 문제는 그 누가 났냐~ 건방진 큰애기 아다씨(필자: 본인인 나)가 났다~

아리롱~ 알따쿵~ 알지를 말어라~ 너 알던 속내는 나도 만치 알었네~

갈라른 가고 말랑말라른 말었제~ 등질놈 따라따라서 내가 따라 갈소냐~

이러다~ 저러다~ 내가 날 죽어 붙든 너 떠난 저 잡년들도 나를 새질 못하네~

아이고~ 당장도 쓸쓸한 내 마음~ 어느 누구를 부어잡고서 누구 못된 탓만 할끄냐~

강바람은 뚫고 넘어가는 저 친구~ 사구접시가 갈라지듯이 짝 갈라서 나간다~

갈라른 가고 말랑말라른 말었제~ 내가 널 따라서 에이 내가 갈소냐~

화류계 여자가~ 살림살임을 한다든 전봇대 저꼬작에 못한 꽃만 피었네~

정든님은 떠나면~ 나만 홀로 남기~ 너 떠난 이 잡년들도 나를 두고 가네~

아리롱~ 알따쿵~ 아리 알치(필자: 장난체)를 말어라~ 너 알던 속내속내는 나도 만치 알었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에고 잘하요~

[한숨 돌리고 하셔요. 그리고 계속 하시는 것도 좋은데 좀 숨차시면 다른 분이 하시고] 못해.

[어떤 곡은, 〈아리랑 타령〉은 아리랑 노래라 그래요?] 〈아리랑 타령〉.

[여기 계신 분들 성함하고 연세를 알고 싶는데] 전영례(여, 65세), 천금자(여, 62세), 이울래(여, 71세), 윤진이(여, 55세), 윤미순(여, 58세), 김재님(여, 66세)

[아까 잠깐 오셨다가 가신 분은?] 최춘아(여, 58세).

원채 놈의 세상살이 이렇고도 세상에는 나이를 먹어갖고 허망하고 아까운 내 청춘 누가 잡아 갔냐.

○〈아까운 내청춘을~~~〉

아까운 내청춘을~ 어디 누가 잡아갔냐~

어른도 안 잡아가고~ 새끼들도 안 잡아가고~  
 동네 사람도 못 잡아가고~ 이놈의 세월이 잡아 갔네~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오고가지 말어라~  
 아까운 이내 내 청춘이 칠십이 넘었네~  
 이내 청춘만 다갔나~ 장한에 허굴(필자: 허무하게)도 다 늙어 나간다~  
 세월아 세월아~ 또 세월아~ 시계바늘같이~ 돌릴수만 있으면~  
 ooo 스물 얼마나 좋구나~ 이 아까운 내 청춘~ 다 늙어 간다~

아까운 청춘 다 늙어버렸어. 부끄러울 때는 못 한다고, 젊어서는 못 한다고. 늙어지믄 늙어진 게 또 숨도 가빠서 못 한다고. 어떻게 해야 쓸 것인지. 그때 마치 좋을 때 해야 한다. 그라고 내 영감도 하라고 할 때 할 것(웃음) 념의 영감같이 못 하것으면 내가 글 안 하제. 인자 모OO 아버지가 죽었는디, 녹음을 해 났는디 상여소리. 나는 밥 한다고 일찍 와브렀는디 상여소리를 어찌고 잘 한디 대차 내 목소리 조금 타졌더만. 그랬는디 ‘여자가 가서 밥을 하제 상여소리를 퍼 할까’ 그랬다고 해. 그랬는디 집에 있는 게 “어야, 상여소리 안 했는가?” “어서 내가 상여소리를 해”, “나는 꼭 자네 상여소리 한다고” (웃음) 그라고 봉이네 엄네가 “어야, 저 미친년은 어른들, 새끼들 밥도 안 차려주고 상여소리만 한다” 또 그랬다고 해. 녹음해서 나오른 형님 소리 같단 게. 아 그라고 온 게 “어야, 거기서 밥 안 했는가?”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미쳤다고 아무도 없는디 상여소리가 나올까” 근게 “아이고 그라고 그런디 꼭 자네 소리 같테” 아, 내 소리가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웃음)

인자 와도 모른 척하고 논만 매제 그라믄 “어야 민선 어매 얼렁 오게” 그라믄 모른 척해. “어야 민씨 어매” 3번 부르믄 “예?” 해. 그라믄 얼른 오라고 그래. 글믄 “뭐 갖고 왔소? 아무 것도 안 갖고 왔구만” 글믄 뒷 춤에서 전에 가스활명수 병에다 2개를 담었어. 그놈을 들어내믄은 아따 그놈을 먹어놓믄 참말로 기분이 그렇고 좋을 수가 없어. 어찌 잘 되 소?

[이야기가 끝이 없네요] 나는 노래를 불렀거니, 술을 묵었거니 안 묵었거니 이것들은 항상 즐겁게 해줘야 그런게 이것들이 다 좋다고 날 따라.

[생각나는 것 해주세요]

### ○〈성주풀이3〉

저근해 찬 술밭에 술술 기는 저 포수야 저 산 비둘기 잡지 마라



저 비둘기 나와 같이 입을 잃고 밤새도록 입을 찾아서 헤매노라  
에라만수~ 헤라 대신이야~

한성주 술을 비어 조그마하게 배를 지어 영천바닥에 띄워 놓고  
술이나 안주를 가득 싣고 만경창파에 달구경 가세 두리 동실에 달구경 가세  
에라만수~ 헤라 대신이야~

[아까 <상여소리> 하기 전에, <모찌는 소리> 하다가 <상여소리> 들어가셨어요?] <상여소리>를 먼저 했제.

[아까 <논매는 소리> 하다가 <모찌는 소리> 하셨어요? <모심는 소리>하고 구분이 되요?] 맨 처음에 내가 “애가 목이 적다고 집안에 난리 났네” 고것 하고, 그라고 <상여소리>하고, <모찌는 소리> 했제. (논맨 소리)

#### ○<논매는 소리>

들어간다~ 허허~ 이야~  
들어간다 들어만 가는구나 이 논배미로 들어만 가구나  
아헤야~ 아리사 좋다~ 내 호로구나야~ 아이고 이들이 못 파것네~

이리 번쩍~ 니기 장판 단칸 방에서 살쩍 큰애기 데집어졌구나  
아헤야~ 아리사 좋다~ 내 호로구나야~ 아이고 이것 못 파것네~

얼른 잠깐 어허이야~ 얼른 잠깐 베어블고 정자 나무에 쉬어나 보세  
아헤야~ 아리사 좋다~ 내 호로구나야~ 아이고 이기나 살기~

[이건 <논매는 소리>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여. 이건 <논맨 소리>. 논을 매요, 여름에. 인자 또 밭 매러 가. 그것도 잘 잊어브렀어야.

[자연히 생각나는 대로 하시구요]

○〈발매는 소리(하중=목화 발매러 가는 소리)〉

가세~ 가세~ 하중 발(필자: 목화발) 매러 가세~  
날은 뜨겁고 망태(필자: 바구니)를 들고 껌껌하기는 하고~  
아주 발 파세~ 집이라고 들어가믄~  
영감탱이는 방에 있고~ 보리밥은 삶아야 하고~  
아주 발 매러 어서 가세~

또 그라드만. 그래갖고 호미로 따르랑 땅 그래. 그것도 많이 잊어브렀다.

[할머니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더란 거예요?] ]

-전에 늙은 사람들이 한 것을 어깨 너머로 처녀 때 들었어.

-이런 시얌이로 어깨 너머로 공부를 배우라 했으믄 배웠을 건디, 이 사주가 국악으로만 갈라 했었나봐.

-그란디 우리 아버지 똥을 파다가 이장을 한다, 우리 근처여. 근디 “숙모님 녀의 딸네들은 울기도 하더만” 근게 “너나 많이 울어라 나는 못 울것다” 나 멋하믄 즈그 아배 밥 해주러 가라고 보쌀 이렇게 퍼다주고 공책하고 연필하고 사다놓믄 즈그 아배 밥 안 해주러 간다고 부삭에다 쳐 여브러, 불 살라브러. 그라믄 대여섯 시간 뒤에 오믄 녀은 국어책을 떠었네 야단인디 나는 벽에다 일이삼사 적어놓고 이거 오리 하믄 나는 몰라, 아무 것도 몰라. 이런 시상 살았은 게 그 영감 빼다구하고 그래도 딸 요령고 찼다고 그래도 여가 들어가 자쇼 내가 그랬제.

[할머니 진도 소리도 들어보셨죠?] 야.

[들으먼 다른 것 같아요? 할머니 하시는 것하고,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할 때] 진도 소리는 인자 하라우, 이 사람들 내 아래로 하라고?

[진도 소리도 좋구요 알고 계시는 것] 또 하라고.

○〈진도아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헤~에~ 아리롱~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헤~에~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임은 죽으믄 극락세계로 가시고 이네 나는 따라 가서 나무아미타불~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헤~에~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노랑저구리 선코에 떨어진 눈물은 니 탓이냐 내 탓이냐 중신애비 탓이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헤~에~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중신애비는~ 죽으른 구릉박에다 담어서 양갈쿠로 막개 막어서 한강 물에다 띄워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헤~에~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막걸리 술 한잔에 내 중신 눈 놔아 오뉴월 삼복에 가슴에 피나 나거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헤~에~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술집이 삼년에 주전자 꼭대기 남고 큰애기 삼년에 아이고 아차 잊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헤~에~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갈라른 가고 말랑말랑은 말았제 저기 놔 따라따라서 내가 따라 갈거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헤~에~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아리롱 문제는 그 누가 났냐 건방진 큰애기 아가씨가 났다~  
술집이 딸년아 술 걸러 내어라 환자는 못 먹더레도 큰애기 솜씨로 걸러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헤~에~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낮에는 올 때는 미친 새들만 난다기에 나를 데려다 놓고는 나무깎만 시건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헤~에~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못 살른 말았제 대동강이 올렸냐 누구 문전 아니래도 내가 살 데가 있단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헤~에~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바닥에 이 쌀은 장부리 올리고 시어마니 말 한 자리는 이내 내가슴 올린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헤~에~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시업씨 모르게 술을 돈 받아 먹다가 이방저방에 땡기다가 시업씨 태산봉을 밟았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헤~에~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우리 딸 남자는 개뿔이 났던가 남자만 고와도 사우가 줄줄이 딸린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헤~에~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아이고 당당코 쓸쓸한 내 마음 어디 누구를 부여잡고서 내 속 탓만 할까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헤~에~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애가 목 석자 없다고~ 집안에 난리가 났는데~

속 없는 저 잡년~ 새 버선 신고서 내 집에 왔느냐~

당기 둥당개 둥강개당~ 둥당개당~ 둥당개당~ 당기 둥당개 둥당개당~

내려온다 내려온다 윤희운선이 내려온다. 큰 굵고 붉은난 운선이 거덜 기르고 내려온다.

이것이 옛날 노래요. 옛날 옛날. 그런 걸 해야제.

### ○〈둥당개타령3〉

둥당개당~ 둥당개당~ 당기 둥당개 둥당개당~

둥당개 다랑에 물길러 갔더니 둥당개 세매가 풍당개 빠졌네~

당기 둥당개 둥당개당~ 둥당개당~ 둥당개당~ 당기 둥당개 둥당개당~

꽃자집~ 꽃자집~ 옷꾸락 감으러 다 나갔자구나 땡기 감으러 다 나간다

둥당개당~ 둥당개당~ 당기 둥당개 둥당개당~

-오매 요것을 뽕뽕 송어장사 시 해줬더니 그렇고 좋다고 아조 서울서 돈이 폭폭 기어나  
왔단 게.

어릴 때 참말로 돈이 뭉텅이로 나왔소.

[이 할머니 아까 아까운 내 청춘 고거는 뭐예요? 판소리?] 〈청춘가〉. 그것을 내가 청춘가  
여도 청춘가도 하몬은 그것도 상여소리를 내가 배웠은게 그라제.

세월아~ 봄철아~ 오고가지를 말어라~ 아까운 이내 내 청춘 다 늙어 나간다~

이래. 그라고 <상여소리> 하면은, <상여소리> 한 번 메겨보자.

[또 하셔도 되요]

○<상여소리2>(산, 분묘)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어와 청춘 소년들아 백발 나를 보고 웃지마 어허어~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어제 나도 청춘이었는데~ 오날날 보니 백발이 되었네~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세월아 세월아~ 또 세월아~ 오고가지를 말어두어~ 어어~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이내 내 청춘만 늙어 가잔나 장안에 하굴(필자: 허무하게)도 다 늙어 나가네 예헤~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북망산천이 멀다고 하여도 저근네 안산이 북망일세 예헤~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간다 봐라 나는 가는구나 황천 속을 나는 가네 예헤~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쉬어 가세~ 쉬어여 가세~ 여그서 잠깐 쉬어가세~ 어헤~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자자자자자~~~

그리고 또 산에 마지막 하직하러 가요. 마지막 또 이 동네 하직하고 가. 그 소리가 또 있어. 그 소리는 어찌고 하나면은. 뭘 묻으러 갈 때.

간다~ 가네~ 가네~ 나는 가네~ 황천초목도 잠들었네~에허~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자식들도 잘 있어 두고 좋은데 방천도 잘 있어 주소~어허~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자~~~~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이요~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하적이요~ 하적이로다~ 하적 한번 하였으니 이내 나는 마주막 가네~에헤~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자~~~~~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가~ 어화녀이요~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잘 사세요~ 잘들 건강하세요~ 이내 나는 마주막 가네~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 어화녀~

자~~~~

어이~ 녀~ 어허어이~ 녀자~ 어이가리~ 녀자가~ 어화녀이요~

하나리보살~

하나리보살~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하나리보살~

어화 녀자 어화 녀~

하나리보살~

어화 녀자 어화 녀~

어화 녀자 어화 녀~

이내 나는 아주 간다~

어화 녀자 어화 녀~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어화 녀자 어화 녀~

황천초목에 나는 간다~

어화 녀자 어화 녀~

이것이 뭇이요. 그라고 뭇으면은 또 분묘를 다 지른 또 분묘진 노래가 있어.

어이 영천 가래야~

어이 영천 가래야~

이팔 청춘 소년들아~

어이 영천 가래야~



이 가래가 누 가랴~  
어이 영천 가래야~

동네 사람에 가래로구나~  
어이 영천 가래야~

물기밭이 꼭 살이는~  
어이 영천 가래야~

가뭇이 들까 수심이요~  
어이 영천 가래야~

삼자 독자 외아들놈~  
어이 영천 가래야~

병이 들까 수심이로다~  
어이 영천 가래야~

어이 영천 가래야~  
어이 영천 가래야~

이 분피가 다 지어서~  
어이 영천 가래야~

병투술 한잔 묵고 가소~  
어이 영천 가래야~

자~~

끝났어. 〈상여소리〉를 할라든 진짜로 해야제.

[아까 〈상여소리〉 처음 하셨죠? 그때는 동네에서 출발해서] 인자 동네 상여 막 나올 때 근디 밤달애는 안 하고 상여가 나와서 핵 돌려서. 호상한 거여. 여기 이 부락은 이렇게 해.

[그리고 ‘간다 가네 나는’ 이것은 동네를 떠나서 산으로 넘어갈 때] 응. 하적이여. ‘하적 이여 하적이여’ 합디까 내가 그때는 동네 자손들도 잘 있고 동네 부락도 잘 있고 동네 산 천초목도 잘 있드라 나는 간다. 할라든 제대로 알려줘야제.

[기왕할 것 내용있게 해가야 저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신의도에 있다 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여쭙보고 그런 거구요. 아까 두 분 또 오셨는데 성함이?] 장송심(여, 43세), 조영난(여, 56세), 최춘화(여, 58세)

[〈상여소리〉는 순서대로 해주셨죠?] 네.

[아까 〈논매는 소리〉 그건 들노래라고 하지요?] 들노래.

[들노래 속에 처음 하셨던 게 〈모찌는 소리〉를 하셨어요?] 모찌는 소리는 따로 있고. 모 찌는 소리는.

#### ○〈모찌는 소리〉

아하~ 하라~ 하~ 무언이요~

앞산은 점점 가까워지고 뒷산은 점점 멀어지네~

아하~ 하라~ 하~ 무언이요~

그라고 심근 소리는 앞산은 멀어지고 뒷산은 가까워졌다고 인자.

#### ○〈모심는 소리〉

허이~ 허이~ 여~허~이~ 여 흐러~ 상사디요~오~

허이~ 허이~ 저~허~이~ 저 흐러~ 상사디요~오~(받는 소리)

앞산은 점점 멀어지고~ 뒤산은 점점 가까워 가네~

허이~ 허이~ 여~허~이~ 여 흐러~ 상사디요~오~

여그로 오네 더 들어온다~ 새참 바꾸리 더 들어 온다~

허이~ 허이~ 여~허~이~ 여 흐러~ 상사디요~오~

여그도 심으고 저기저기도 심으고 얼방 없이만 심어조게~  
허이~ 허이~ 여~허~이~ 여 흐러~ 상사디요~오~

권네 마누라 술동우 이고 뒤에뒤에서 궁치침 침구나~  
허이~ 허이~ 여~허~이~ 여 흐러~ 상사디요~오~

앞산은 무정 멀어가지고~ 뒷산은 점점 가까워 왔네~  
허이~ 허이~ 여~허~이~ 여 흐러~ 상사디요~오~

손발을 싹싹 우리가 시치고 막걸리 한잔을 벌써 요이세~  
허이~ 허이~ 여~허~이~ 여 흐러~ 상사디요~오~

여~이~ 여~이~ 여~ 여로~ 상사디요~

이렇게 끝이여. 그런게 니기들 보고 이해하라고 이 노래를 한 것이여. (어떻게 그 노래를 머리 속에다 다 외우고 있어요?-옆에 사람) 그란디

#### ○〈논배는 소리〉

들어간다~ 허허~ 이야~

들어간다 들어만 가는구나 이 논배미로 들어만 가구나  
아헤야~ 아리사 좋다~ 내 호로구나야~ 아이고 이들이 못 파것네~

두손이로 퍼뜩 파서 지심이 풍 담그드록 파여만 주소~  
아헤야~ 아리사 좋다~ 내 호로구나야~ 아이고 이것 못 파것네~

-옛날 논 맨거야.

=전에 사람들은 지심이 뒤에 떠라야 논을 맨다. 쪼신을 던져 놓고 매려 가드만. 그거이 흙이 뒤집어. 그것은 눈에 들어감시로 모내기를 했은 게 그때는 쪼신이 엄청 있어. 나도 칠

십 몇 살 목어서 그걸 뻗어. 거머리가 붙어서 막 이라거든 그라믄 그놈을 안 매고 후적후적 하다가 소리만 하다가 간 사람이 있어 그런게

‘두 손으로 허허~ 두 손으로 흙을 파서 지심이 동동 뜨드룩 긁어 긁어 긁어만 주소  
아헤 아리사 좋다~ 내 호로구나야~ 아이고 이것 못 파것네~’

그거여. (근게 연구원들이 와서 이런 노래를 남겨놔야 나중에 안단계-옆 사람) 근디 노래를 잊어블드라

[〈홍타령〉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것도 몰라.

[할머니 그러면 많이 해주셔서 잘 했고,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상여소리〉, 〈들노래〉는 잘 해주셨는데 〈강강술래〉는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참말로 특히나 잘 했어.

#### ○〈강강술래〉

강~강~ 수~월~래~

달아~ 떠라~ 망내 떠라~

강~강~ 수~월~래~

강~강~ 수월~래~

강~강~ 수월~래~

강강수월래~(빨라짐)

강강수월래~

달아달아 밝은 달아

강강수월래~

이태백이 놀던 달아

강강수월래~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강강수월래~

계수나무가 백혔으니  
강강수월래~

금도끼로 찍어내여  
강강수월래~  
녹도끼로 다듬아서  
강강수월래~

청간산간 집을 지어  
강강수월래~

양친부모를 모셔다가  
강강수월래~

어이 어이 잘 살았네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딸아딸아 막내 딸아  
강강수월래~

고운 밥 먹고 곱게 커라  
강강수월래~

오동나무 이 장롱에

강강수월래~

가래장석을 걸어주마

강강수월래~

강강~ 수월래~

강강수월래~

달떠온다 달떠온다

강강수월래~

저산 아래 달 떠오네

강강수월래~

떠야 달이 노다진가

강강수월래~

좌우밤네 달이로세

강강수월래~

좌우방은 어디 가고

강강수월래~

저 달이 뜬지 저 이 몰라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우리 동네 처녀들이

강강수월래~

연비연비(필자: 소개)로 다 나가고

강강수월래~

딸아딸아 막내 딸아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우리 동네 큰애기들

강강수월래~

영비영비 달아간다

강강수월래~

이래 봐도 이산이고

강강수월래~

OOOO 띄워다가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이산 저산에 나무를 비어

강강수월래~

이구산천에 절을 지어

강강수월래~

이절 아래 피었던 나비

강강수월래~

화초귀경(필자: 구경)로 오시다가

강강수월래~

거무줄에 걸렸구나

강강수월래~

한 거미줄에 걸렸구나

강강수월래~

원 술래라 악 술래라

강강수월래~

너무 애기 원 술래라

강강수월래~

산아 산아 이 영산아

강강수월래~

움이 적다고 백두산아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꽃은 피워 청산이요

강강수월래~

임은 비워서 하산인디

강강수월래~

청산하산을 넘어가든

강강수월래~

우리 엄마를 만나거든

강강수월래~

날 만나고 가신 부모

강강수월래~

내가 간들 무엇하리

강강수월래~

그만하고 그칩시다

강강수월래~

그것도 쓰요?

[쓰죠. 지금은 연습, 본격적으로 한 번 더. 한 번 더 해 주시죠] 전에 나 죽여본 게 또 있  
소. 그것은 인자.

[그럼 할머니 조금 아까 하신 것 또 하시고 요건 이어서 또 하세요]

○〈날 버린 남자~〉

사랑이 야속하드라~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나를 두고 떠나거든~ 떠나버리면~  
 정 때문에 나는 어떡해~ 날 올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게 잘못이드라~ 사랑한 것이 잘못 이더라~

니그 시숙 죽어갔고 이 노래를 내 아들 앞에서 불렀거든 부른게 “엄마~” 하고 보듬고 돌아보게 혼났다.(웃음)

[사랑이 야속하다 이게 누구 곡인가요?] 하춘화. 곡이 나빠도 쪼까 이해하쇼.

[아들이 엄마하고 울었다는데 너무 좋죠] 아들이 “엄마, 엄마가 그런 노래를 불렀소?” “아야 나도 또 부른 노래 있어야”(웃음) 우리 아들이 마흔 여덟인디 우리 아들이, 딸네들이 “오빠, 엄마 상여노래 좀 못 부르게 하쇼” “아야, 니미 씨발놈의 가이나 새끼들아 우리 엄마가 가수다 가수” 내 아들이 그러요.

(이야기 하다가 술 마시고 얼굴이 빨개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즉흥적으로 부름)

[아까 하춘화 노래 하고서 더 좋은 것 있다고 하셨죠]

○〈물어물어 찾아와서~〉

물어~ 물어~ 찾아왔소~ 그 님이 계신는 곳~  
 차거운 밤 바람만 몰아치는데~  
 그 님은 간 곳이 없네~  
 저 달보고 물어본다~ 님 계신 곳을~  
 울며불며 OO를 찾아가도 그 님은 흔적도 없더라~  
 물어~ 물어~ 찾아왔소~ 그 님이 계신는 곳~  
 차거운 밤 바람만 몰아치는데~  
 그 님은 간 곳이 없네~

저 달보고 물어본다~ 님 계신 곳을~  
울며불며 또 찾아가봐도 흥떡같은 염감은 간 곳이~

○〈흑산도 아가씨〉(천금자)

[생각나신 곡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 곡이 담겨질수록 좋거든요. 혹시 생각나는 곡이 있으세요?]

남 몰래 서러워 세월은 가고  
물결은 천 번 만 번 밀려 오는데  
못견디게 그리워 따뜻한 저 육지를  
OOO보다 검게 타 버린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사랑이 야속하더라〉(천금자)

사랑이 야속하드라 가는 당신이 무정하드라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나를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면  
정 때문에 나는 어떡해 날 올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게 잘못이더라 사랑한게 잘못이드라

○〈당신이 나 버리고〉(천금자)

당신이 날 버리고 한 없이 떠나갈 때  
이 몸이 돌아서서 피 눈물을 흘렸다  
어차피 가실 바에는 정 마저 가져가야지  
정 만 남겨놓고 피 눈물을 흘려가누나

인자 그만합시다. 한 번 틀어보쇼. 인자 들노래도 하고 다 했소.

[그럼 쉬면서 몇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 성함은?] 박현감(여, 71세)

[알고 싶은 게 친정이 어딘가.] 나는 하의도 오름 옆에 유월리 2구라고 있어요. 나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옛날 노래는 아가씨 때부터 배웠어요? 상태 오셔서 배웠어요?] 처녀 때 요런

것(글자)을 배워야 한디 사자가.

“들어간다~ 허~ 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 논 배미로 들어만 가는구나  
아리사 좋다~ 내 호로구나야~ 아이고 이러리나 살려주소~”

고것만 배웠단게. 나도 이것 배울라고 힘들었더라. 그때는 칩간에 가서도

“들어간다~”(웃음)

니그들 그 칩간 몰라, 그라고 지붕 빼갓고 짹짹 비벼갓고 밑그댕이 시치고(웃음). 그때는 화장지도 없고 그런게 칩간 지붕을 빼갓고 짹짹 비벼서 시쳐서 내브렸어.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때 화장지가 어디 있었어.

[제가 여기 오신 분께 세 가지 간단하게,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21살에.

[그러니까 하의도 유위리에서 태어나셔서 결혼하면서 이쪽] 그라고 굴암리 우리 할아버지 밥 해주러 땡기다가 내 이름자도 몰라본단게. 그라고 우리 아버지가 공책도 태워블고.

[천금자 할머니는요?] 친정이 하의도 뒹개요.

[몇 살 때 시집오셨어요?] 21살 때.

[그리고 전 할머니는? 여기 토박이세요?] 예.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동네.

[여기가 모룡리 글쎄?] 예.

[몇 살 때?] 23살 때.

### ○〈강강술래〉

[여기 오신 분이 소리도 찍이시고 하셨는데 소리를 어디서 배우셨나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간단한 거,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2시간이 넘었거든요. 강강술래를 듣다 보니까 소리가 길게 계속 소리가 나오는데] 강강수월래는 처음에 뿔라 할 때게, 손을 처음에 잡을 때게 “강~강~수~월~래~(소리를 길게 함)” 그렇게 해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렇게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예,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할 때는 손을 잡으론 인자 믹일라 할 때게 모 일라몬 모이라고 할라고 진소리를 이렇게 내요. 모여서 둥그런 원을 만드는 그 소리예요. “

강~강~수~월~래~” 하든 사람들이 모여서 딱 원이 이렇게 맞어요. 다음으로 사람이 다 모여지든 다른 소리로 가. 그러든 “강강수월래~” 고렇게 해요.

-전에 가이나들이 그런 소리를 못 했어요. 근데 저는 했어요. 하다가 뺨치면 그때는 덕석이 있어요. 짚으로 엮은. 거기서 앉아서 소리를 하든은 우리들은 손바닥으로 손뼉을 치면서 박자를 맞춰. 그러든 우리 아들놈은 “니그 엄매 밤 새도록 뛰드라”(웃음) 문턱을 못 넘어댕긴디 전에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또 전에는 “청~청~청애나 워자 질솔바닥에 조구나 워자” 우리들은 클 때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강강술래만 해도 이 할머니가 하의도에서 배웠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를] 근데 이 사람들은 잘 못해요 받아줘야 하니까. 인자 보쇼.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우리들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못 했어요- 이 할머니 왈)

달~떠~온~다~ 달~떠~오~네~

강~강~수월~래~

저산~밑에~달~떠~온~다~

강~강~수월~래~

저~야~ 달~은~누~달이~되었~나~

강~강~수월~래~

좌우~뵈~네~ 달~이~떠~다~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빨라짐)

강강수월래~

좌우방은 어디가고

강강수월래~

저 달이 뜬지 다 몰랐네

강강수월래~

또랑또랑 갯까또랑

강강수월래~

유자복숭아에 꽃이 피어

강강수월래~

그 꽃 한쌍 떨어다가

강강수월래~

어매가 좋냐 꽃이 좋냐

강강수월래~

꽃이 좋제 어매가 좋냐

강강수월래~

그 꽃보고 잘 살아라

강강수월래~

이내 나는 이별한다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산아 산아 희영산아



강강수월래~

움비적다 백두산아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그만합시다.

[근데 진도도 있고, 해남도 있고. 그런데 신의만에 끊이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담겨지면 문화재도 있잖아요. 그거랑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게 부르시니까 전체 담어지면 비교도 되고 우리만에 강강술래도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밤달애는 안 했지만은 우리는 쑥 해드렸어요.

[조금 아까 하신 것하고 지금 하신 것하고 반복된 것도 있지요? 앞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해 주신 거죠?] 네.

[아까 했던 것은 뒷부분에 확인하면 되는데 궁금하게 덕석몰자, 청어엮자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는 안 들어갔죠?] 예.

[그러면 이걸 실제 동작으로 하고, 하면 기억도 나고 그러시죠?] 예. 전에는 우리들 시절에는 쑥 원을 그리고 앉아요. 강강수월래 함시로 그러다가 시방 꼬사리 꺾어 그걸 우리들은 어찌게 했냐면 옛날 시절에는 “꼬사리 꺾어 바구리에 얹고 사사리나 넘세” 그랬는디, 시방에는 그렇게 안 하지요. 시방은 “꼬사리 꺾어 바구리에 담고 사사리나 넘세” 그렇게 넘었거든요 그랬는디 시방들은 그렇게 안 하드만요. “껌자 꺾자” 그라드만.

[지금은 그렇게 하더라도 하의도에서 어깨너머로 배워서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시고 담아놔야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란디 우리는 “꼬사리 꺾어 바구리에 담고 사사리나 넘세” 그래요. 또 청애엮어요. 전에는 청애 엮었는디, 옛날에는 “청~청~청애나 넘자 칠선바다에 조구나 엮자” 그랬거든요. 전에 하고 아주 틀려요. 우리가 70이 다 되야 가요. 지금은 우리 시절하고 다 틀려요. 우리 시절에는 그랬어라. “꼬사리 꺾어 바구리에 담고 사사리나 넘세” ‘사사리’가 뭐냐면 산을 넘자 그 소리여. 그라고 또 “청~청~청애나 넘자 칠선바다에 조구나 엮자” 그랬어. 우리 시절에는. 그래갖고 엮는 방법은 똑 같드라고요. 그라고 고사리도 ‘꼬사리’라 했제. 우리 시절은 그랬다 그거여.

[할머니 텔레비전과 다르다고 하셨죠. 이걸 담으려면 따로 시간을 내야 할까요 지금 할까요?] 지금 하세요.

[그럼 텔레비전과 같이 하지 말고 배운 거] 내 시절에 하라고.

[그걸 그대로 담아주시면 좋죠] 그러지요.

[힘은 드시겠는데 차이가 구분이 되어야 지금 해 주신 게 더 돋보이거든요] 우리 시절은 텔레비전하고 틀려요.

[마무리도 할 겸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강술래는 따로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구요 <발매는 소리> 아까 한 곡 하셨는데 여러 곡 있으시죠] 그것은 잊어버렸어. <발매는 소리>는 엄마들이 하는 소리를 잠깐 들었어요.

“가세~ 가세~” 그것이 하중발이요. 옛날에 명 발 매러, 그것이 목화요.

[아까 하셨던 거죠?] 예. 아까 목화발을 매러 간다는 소리를 옛날에는 하중발이라 했어요. 그란게 하중발 매러 간다는 소리를 “가세~ 가세~하중발 매러 가세~ 발은 땅땅에 호무” 호미. 전에는 호무라 했제. “호미가 안 들어가고~ 하중발 매러 가세~” 그라요. 전에 그래요. 조금 잠깐 들었어요.

가세~ 가세~ 하중발을 어서 매고 선선한 그늘 밑에~ 한숨떨고 나오세~ 따그랑 땅~

그래요.

#### ○〈논을 오갈 때 하는 소리〉

[할머니 아까 들노래 하셨는데 올 때 혹은 갈 때 부르는 곡이 있지 않아요? 소타고 온다든지] 소타고 온 것은 모르는데 여기 늙은 분들한테 조금 배웠는데 조금 배워 갖고 내 스스로 곡으로 했어요.

[한 번 해 보세요] 늙은 사람들 하는 것을 본디, 저는 밥이나 갓다 주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걸 재미삼아 해 본 게 되드라고요. 들어올 때는 그라드만

들어가세~ 어허~이야~ 들어가세~ 들 들어가세~ 집에 집예를 들 들어가세~  
아헤~ 헤야~ 아리사 좋다~ 내호로구나야~ 아리사 좋다~ 얼싸 좋다~ 매화~

집에 들어오면 그렇더라구요. 집에 들어오면은. 그렇고, 다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는

들어가세~ 헤에~

그것은 곡을 이렇고 다른 곡하고 틀려요 이곡은. 그라고 또 논매러 갈 때에는 그라드라고요.

들어~가세~헤에~헤야~ 들어가서 두 손 뻗고 열싸 좋다 하믄은 지심 동동에 뜨게 파서  
~ 에~헤~헤야~ 아리사좋다~ 내호로구나야~ 아고 이것을~ 못~ 하것네~

그라더라고요.

[할머니 그러면 지금 하신 거가 논에서 집에 들어올 때] 논에서 집에 들어올 때는

[아까 하셨죠?] 응. 아까 할 때에는

들어가세~ 에~헤~ 히히여~ 들어가세~ 들어만 가는 구나~ 집으로 들어만 가세~  
아헤~ 헤~ 아리사좋다~ 집으로 가세~ 집으로 가세~ 예야~ 아헤헤헤야~헤야~  
아리사좋다~ 매화 허로구나~

그라더라고요.

[이게 집에 올 때?] 예.

[아까 논 매러 갈 때 하셨었고?] 예.

[이게 있는데 조금 다르네요] 예.

[지금 <논매는 소리>나 <상여소리>나 하셨는데 이것 말고 아이를 키우면서 소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이들 키울 때는 무작정 키웠어요.

[애가 안 자고 그럴 때 아기 재우는 소리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은 모르것소. 옛날 어른들이나 알까 우리들은 목고살기 바빴어요. 그때게는 애기를 키웁시로 애들 4남매를 키웠는디 자장가도 못 불러주고 그랬어요. 그라고 나는 이제나 저제나 노는 걸 좋아하고 소리를 좋아한 게 나와서나 있을까 집에서는 복잡했어요.

## 나. 판소리

### 가) 하태동3리 모룡마을 이울레의 판소리<sup>14)</sup>

▶개요: 이울레는 《춘향가》〈이도령이 갈 때〉, 《춘향가》〈이도령과 춘향이 이별할 때〉, 어화청춘, 〈저기~ 가는~ 저 기차야~〉 등을 불렀다.

[방금 하셨던 게 춘향가에 있는 건가요?] 예.

[어떤 대목이에요?] 이도령이 갈 때 한 소리여. 한번 들어볼라

#### ○《춘향가》〈이도령이 갈 때〉

일절 동고 내 원석을 당장 우그로 슬피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이제 가쁜 언제 와요~ 오실 날짜를 일러주오~

금방 하기에 춘풍 초시에 꽃이 피거든 오실라요~

동서남북~ 넓으난 저 바다가 육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ooo에 가거든 오실라요. 마두가 가거든 오실라요~

병풍에 그림장사~ 자른 고개 길게 빼고~

두 활개를 훨훨 치른 저 닭 울거든 오실라요~

[이것은 춘향가에서 어떤 대목?] 둘이 이별을 할라 함시로 한 것이여. 그래갖고 너와 나와 명늬명색

---

14)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울레(여,71) · 천금재(여,62) · 전영례(여,65) 외 7인 제보, 조사내용 〈이울레의 판소리〉,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3리 모룡마을 모룡경로당, 2011.10.27(목) 19:00.

○《춘향가》〈이도령과 춘향이 이별할 때〉

너와 나와~ 명늚명색~ (이것은 인제 둘이 한 말이제-부르다 중간에 한 말)  
한문 한 장 지었으니  
쭉국같이 굳은 마음  
석류같이 굳은 한 저 절개~  
다시 나 오기만 기다려 주소~

잊어버려서 안돼.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요. 태어나기를 아조 구석지에서 태어났어. 염병하고 나를 안 갈켜브렸어. 어저께서나 왔으믄 좋은 사람들 많은디, 여가 잘 한 사람들이 많은디 다 목포 가블고 병원에 가블고. 한 번 더 오쇼.

[판소리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깨너머로. 전에 젊어서 처녀 때 쪼금씩 어깨 너머로 배운 게 뭣이 뭣인지 잘 몰라. 넘 같으믄 책이라도 보고 하제. 내 이름도 못써. 그래도 어쩍 해서 <상여소리>는 되더란게. 한 번 해 본 게. 그래서 했어.

○〈어화청춘〉

어와 청춘~ 저소년 친구들아~  
백발 날 보고 웃지 마라  
내일모레 니그들도 내 나이가 되믄은  
느그들도 아 이렇게 민수네 OOO가 그랬던 것이구난 할 것이다  
세월아 세월아 가지마라~  
아까운 이내 청춘 돌려눌 수도 없이 OO 간다.

○〈저기~ 가는~ 저 기차야〉

저기~ 가는~ 저 기차야~ 우리 임을 실었거들랑~ 나도~ 마저~ 신고 가그라~  
이 정 통곡~ 내 원석을 단곡으로 슬피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이제 가믄 언제 와요~ 오실 날짜만 일러 주요~  
금방 허기에 춘풍 초시에 꽃이 피거든 오실라요~  
동서남북~ 저 넓은 바다가~ 육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모든 배에 가거든 오실라요~ 모두가 가거든 오실라요~

병풍에 그림장사~ 두 활개를 찍 뺏으고 요 자른 고개 길게 빼고~  
 두 활개를 턱 꺾이면 저 닭 울거든 오실라요~  
 오냐 춘향아~ 울지 말아라 나와 나와 명음명색 한문 한 장 지었으니  
 쑥국같이 구드난 마음 석류같이 구드난 한 저 절개~ 다시 나오기만 기다려 주소~

잘 몰라라, 가사를 잘 몰라라. 다 잊어브렀어.

나) 하태동2리 노은마을 장순단의 판소리<sup>15)</sup>

▶개요: 장순단은 <하나님이 사람을 내실제>, 《홍보가》, 《춘향가》 등을 불렀다.

#### ○<하나님이 사람을 내실제>

하나님이 사람을 내실제 별로 구별이 없었건만~  
 이노무 신세는 무슨 저기 신세든고  
 날고 새별은 지게 갈 길 짧어지고 심상골목이 웬말이오~  
 여보 봐라 친구들아~ 여보 봐라 동무들아  
 너는 저 골을 베고 나는 이 골 베어다가  
 ?? 잠목 ?? 낙엽을 긁고 그어 매고  
 흰끝 흰끝 대고  
 흰끝대로 묵혀다가 지 부모 처자식을 ?? 공대에 베어나 불라네  
 어~ 하이~ 어디로 갈 끄나~ 어가로~ 구나~

15)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장순단(여,75) · 신동안(남,70,43년생) 제보, 조사내용 <장순단의 판소리>,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2리 노은마을(노른목) 경로당, 2012.02.23(목) 13:53.

온다 간다~ 온다~ 간다~

한성 천리를 올라간다 주목받기를 성가서니 그래도 생각나서 섰던 자리~

주저 앉저 예헤~ ???을 ?? 모른다~

아이고~ 신세 내 신세야~

아이고~ 팔자 내 팔자야~

박복한 저리 신세로구나~

내가 만일이 눈이나 뜨고 보면은 앞에는 선산있고 다 가는 길은~

어~어~느 곳으로 갈까 보이요~

질척 굵은 모다른 요 병신이 요거를 매고 한성을 갈끄나~

??? 매라 ??? 허허이야~ 둥근~ 두둥실~ 떠나간다~

우리가 내년부터 얻어먹고 빌어먹어도 요놈의 동살을 그만두세~

#### ○《흥보가》

집안 어른이 어디를 갔다가 집안이라고 돌아오니

누구 누구를 쫓아나가 영감 오실 줄 왜 몰랐소~

내 잘못 되얏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면 이리와~

아~ 아아아~ 어허~ 어허야 디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나 났거드니

큰 독으로 찍어내어 옥독으로 다듬아내

산간초간 집을 지어 산천 부모를 모셔다가 천면 만년을 살고싶네~

아~ 아아아~ 어허~ 어허야 디야~

충청도 충북산(?-09:55) 우리 가니까 열려있고

간단테 간 데 끝은 아래 아래 열려있네~

아~ 아아아~ 어허~ 어허야 디야~

[판소리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깨 너머로 다 배웠어.

[그럼 대리에서 이쪽으로 와서? 아님 대리 때?] 가이나 때부터 배웠지라. 시방도 총 없  
으른 못 배워라. 인자 목이 갈려부렸어.



○《춘향가》

이근내근을 들어봐라 이그내를 들어봐  
 앞내 버들은 홍주잔 들고 뒷내 버들은 초록잔 들고  
 한 가지는 늘어지고 한 가지는 펴퍼지고 단풍이 불때마다 우리들은 춤만 친다~  
 어찌같은 저 돌길~ 우무중에 있던 공산자락에 팔랑~  
 니가 넘어스고 불렀냐~ 도련님이 넘어스고 불러지가니 잔소리 말고 건너가~  
 건너간다 건너가~ 춘향이 다리러 건너간다~ 어야 춘향이 가구~  
 아~ 아~ 아아~ 아아~ 어허~ 어기야~

목이 안 해븐게 그냥 갈려븐게. 요샌 안 했어. 안 해븐게 게양 잊어브러.

### (3) 신의도의 속담

그 다음으로 신의도의 속담과 언어이다. 속담은 민속구조어이고, 언어는 토속인지어, 기억속신어(금기어) 등이다. 수수께끼는 미채록으로 제외했다.

#### 가. 속담(구조어)

○상태동3리 모룡마을 고서임이 속담 관련 속담<sup>16)</sup>

▶개요: 속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노인들도 별로 아는 게 없다. ‘부두막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삼대를 적선하면 남향에 동문이(의) 집을 얻는다.’ 등이 있다.

---

16) 홍순일 · 김경완 · 신미영 조사 · 김세인 채록, 고서임(남, 71, 41년생) 제보, 조사내용 〈속담〉,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3리 모룡마을 고서임씨 자택, 2011.08.23(화) 13:38, 16:36.

[소금에 대한 속담이나 전해내려오는 이야기 있을까요?] 내가 소금에 대한 속담에 대한 것은 아는 것이 없고.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유래같은 것은 없냐?” 그런게 별로 아는 게 없드라여. ‘부두막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인자 그런 것밖에 없어.

#### 나. 언어(인지어, 속신어)

##### 가) 상태서3리 동면마을 이기철의 물때<sup>17)</sup>

▶개요: 신의도의 물때는 하의도의 물때와 같다.

물때의 경우 음력 초여드레인 초8일은 조금(물이 제일 적게 들 때), 초9일은 무수, 초10일은 한물, 초11일은 두물, 초12일은 서물, 초13일은 너물, 초14일은 다섯물, 초15일은 여섯물, 초16일은 일곱물, 초17일은 여덟물은 사리(물이 제일 많이 들 때), 초18일은 아홉물, 초19일은 열물, 초20일은 열한물, 초21일은 열두물, 초22일은 열세물이다. 그리고 들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매일 1시간씩 차이내고, 이 물때의 이름은 하의도의 그것과 같다.

##### 나) 상태동3리 모룡마을 고서임의 아랫바람<sup>18)</sup>

▶개요: 아랫바람은 서풍, 서남풍, 남풍, 동남풍, 동풍 등 서풍에서 동풍까지이다. 남풍이 A급인데, 여름철에 고기잡이 태평양에 있으면 날이 좋으나, 가을철이나 봄철에는 비가 온다.

---

17) 홍순일 · 김경완 · 신미영 조사 · 김세인 채록, 고서임(남, 71.41년생) 제보, 조사내용 〈속담〉,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3리 모룡마을 고서임씨 자택, 2011.08.23(화) 13:38, 16:36.

18) 홍순일 · 김경완 · 신미영 조사 · 김세인 채록, 고서임(남, 71.41년생) 제보, 조사내용 〈언어(인지어)〉,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3리 모룡마을 고서임씨 자택, 2011.08.23(화) 13:38, 16:36.

[아랫바람이란 것은 남동풍을 말하는 건가요? 북서풍 하듯이] 아랫바람이라는 것은 서풍부터예요. 서풍, 서남풍, 남풍, 동남풍, 동풍 요쪽을 아랫바람이라고 한다. 서풍에서 동풍 까지를 아랫바람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아랫바람은 남쪽이 제일 A급이겠쥬. 근디 그 남풍이 불 때에, 여름 한 철 그때 남풍 불 때는 고기압이 태평양쪽에 있을 때는 날이 좋습디다. 근데 평상시에 가을철이나 봄철에 가까울 때는 남풍이 불면 비가 와버립니다. 저기압이 접근을 해갔고요. 근게 보통 비가 많이 온다든가 어짜든가 하믄 동풍, 동남풍, 남풍, 남서풍 이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란디 여름 한 철은 날이 좋쥬.

#### 다) 상태동3리 모룡마을 고서임의 식렴<sup>19)</sup>

▷소금을 걷어 일하기 위해 음식을 갖다주기

▶개요: 간식은 중식과 소금 채취 사이의 밥, 빵, 술, 떡, 돼지고기 등이다. ‘식렴(소금) 얻으러 왔다.’는 말은 소금을 얻기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해 왔다.’는 뜻이다.

[염부로 일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부릴 때도 그렇고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1년으로 본다면 회식을 한다든지 어디 놀러 간다든지 언제 그런 기회를 만들어요?] 그런 것은 제가 못 봤어요. 간식이란 것은, 소금을 생산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겠어요? 염전은 24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부터 일을 좀 하믄 공백이 많이 있어요. 근디 점심밥을 먹고 오후 4시부터 소금 채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 채취하기 전에 배를 채우는 거여. 밥도 먹고 빵도 먹고 술도 먹고 옛날에는 빵이 없으니까 밥도 먹고 그랬는데. 이런 적은 있어요. 염전이 없는 사람이나 소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음식을 잘 장만해 그래갔고 염전에 갖다 줘. 옛날에는 종업원이 4명 내지는 5명이여.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흡족히 먹게끔

19) 홍순일 · 김경완 · 신미영 조사 · 김세인 채록, 고서임(남, 71.41년생) 제보, 조사내용 〈언어(인지어)-식렴(소금을 걷어 일하기 위해 음식을 갖다주기)〉,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3리 모룡마을 고서임씨 자택, 2011.08.23(화) 13:38, 16:36.

간식을 갖다 준단 말이여. 갖다 주든 염전에서는 소금을 충분히 줘. 돈으로 따지든 한 가미니 밖에 아니어도 세 가마니, 네 가마니 준단 말이여. 그니까 그 사람들은 떡도 하고 돼지고기도 삶고 해가지고 가서 주고는. 그것도 소금을 식렴이라고 그래. “식렴 얻으러 왔다.” 그러믄은

[식렴?] 예. 우리가 먹는 소금이다 그 말인디, 그러니까 내가 먹을라고 소금을 얻으러 왔다 왔는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준비해 갖고 왔다. 그러면 그걸 먹고 소금을 후하게 준다 그말이여.

#### ▷소금을 걷어 일하기 위해 담배를 주기<sup>20)</sup>

[거기에 참여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렇죠. 그니까 우리가 여기서 소금을 걷어가지고 우리 마을이라든가 그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본을 모은 거여. 아까 내가 체육대회 했다고 했잖아요 젊어서. 그때도 소금을 모은 거여. 공동출자를 한 거여. 그러니까 담배를, 그때는 아리랑 담배가 최고니까 아리랑 담배를 사갖고 가서 염전에 인부가 4명, 5명 그때는 인부가 훨씬 많았으니까 그 사람 숫자대로 하나씩 줘요. 그러믄 담배값을 소금으로 계산하든 한 가마니든 죽한디 다섯 가마니도 주고, 열 가마니도 주고. 그 놈을 공동으로 모아갖고 체육대회 자금을 한 거여.

#### 라) 상태동3리 모룡마을 전준면의 식렴<sup>21)</sup>

▶개요: 소금을 얻어 먹고, 자식들한테도 주기도 한다.

---

20) 홍순일 · 김경완 · 신미영 조사 · 김세인 채록, 고서임(남,71,41년생) 제보, 조사내용 〈언어(인지어)-식렴(소금을 걷어 일하기 위해 담배를 주기)〉,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3리 모룡마을 고서임씨 자택, 2011.08.23(화) 13:38, 16:36.

21)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전준면(남,62) 제보, 조사내용 〈언어(인지어)-식렴〉,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3리 모룡마을 누나펜션, 2012.02.24(금) 08:37.

[물어보고 싶은 게 생선을 가지고 와서 소금하고 바꾼다든지, 어떤 분은 담배가 귀해서 담배하고 소금을 바꿔가고 또 어떤 분은 간식을 가지고 와서 소금을 얻어간다. 식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금이 그렇게 귀하고 돈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얻은 돈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소금을 얻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걸까요?] 자식들한테도 주고 먹기도 하고.

[소금을 얻어서 먹기 위해서도 그렇고 마을에서 또 활용을 하나요?] 아뇨. 이용해 먹거나 자식들한테 나눠주거나 그렇죠. 지금 여기 염전은 거의 개인 소유가 됐어요. 다른 지역은 서울 사람들이 대지주들이 많은데 신의는 개인들이 소유하게 되었거든요. 전에는 여기에도 몇 사람이 염전을 거의 장악했거든요. 그때는 주민이여도 소금을 먹기가 힘들었지요. 요즘은 개개인화 되다 보니까 암만해도 못하는 것은 많죠. 염전 없는 사람들에게 식렴하라고 갖다주는 사람이 많아요.

#### (4) 신의도의 민요공동체(산다이)와 밤달애

##### 가. 민요공동체(산다이)

##### 가)-1. 하태서2리 노은마을 구비연행자 장순단의 산다이<sup>22)</sup>

▶개요: 장순단님은 안해 봤으나 명일에 노래를 불렀다. 시방은 놀사람이 없고, 이야기하면서 논다. 노래나오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춤추고 논다.

[산다이 해 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명절에 놀 때, 장구치고 놀 때 하제 시방은 누가 그렇게 논 사람도 없고.

22) 홍순일 · 김경완 · 신미영 조사 · 김세인 채록, 신지운(남,미상) · 장순단(여,75) · 신금기(여,88) 제보, 조사내용 〈민요-산다이〉,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2리 노은마을(노른목) 경로당, 2011.08.23(화) 10:10.

[요즘에는 노는 사람이 없으면 뭐 하면서 놀까요?] 얘기하면서 놀고 아니면 라디오 틀어 놓고 춤추고 그러제.

가)-2. 하태서2리 노은마을 구비연행자 장순단의 놀기 “놀자” <sup>23)</sup>

▶개요: 장순단님은 각시 때 설, 추석, 유두, 칠석 등 명일에 할방구(명, 활, 쪽박), 장구치고 놀았다. 옛날에는 강강술래. 시방은 거시기(녹음기)를 틀고 춤춘다. 동네에서 남녀가 모소리, 강강술래, 육자백이, 등당에 등당에(등당에타령), 진도아리랑 등을 한다. 특히 방과 마당을 오가며 손잡고 뛰면서 강강술래를 했다.

[대리에서 놀 듯이 여기 와서도 놀고 그랬어요?] 명일 때 어른들이 장구치고 하든 노래하고 놀고 그랬제.

[언제 노세요?] 명절 때 놀제.

[가장 큰 명절이 뭐예요?] 설에나. 시방은 명절에도 노래부르고 놀도 안 해라. 옛날에는 강강수월래도 하고 놀고 노래부르고 하제. 시방은 녹음기 틀어 놓고 유행가나 할까 그러제.

[그렇게 노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같이 놀든 부르라 하든 부르고 놀고 그러제. [명일은 뭘 말해요?] 설에.

[중요한 명일이 뭐예요?] 추석에도 놀았는데 추석에는 바쁠 때는 놀도 안하고 밤에나 조금 놀까 안 놀제.

[명절이 뭐예요? 설, 추석. 한식도 지키나요?] 옛날에는 유두에 칠석에 그런 것 다 옛날에는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놀도 안해라. 옛날에는 다 세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도 안하고.

[여기서 놀 때 어디서 노세요? 친구집에서?] 시방은 잘 안 놀아요.

[옛날에는 친구집에서 놀죠?] 어려서는 친구들하고 놀고 그랬지만은.

---

23) 홍순일 · 김경완 · 신미영 조사 · 김세인 채록, 신지운(남,미상) · 장순단(여,75) · 신금기(여,88) 제보, 조사내용 〈민요-놀이 “놀자”〉,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2리 노은마을(노른목) 경로당, 2011.08.23(화) 10:10.

[그럼 주로 친구집에서 놀았어요? 할머니 집에서 놀았어요?] 친구집에서 놀지라. 전에는 할방구 치고. 옛날에는 장구도 없고 그런게 할방구 치고 그랬제.

[그때 놀자 그러면 몇 명이서 모여서 놀아요?] 조금도 놀고 많이도 놀고 그라제. [이때 놀 때는 저녁 때 만나요? 낮에 만나요?] 명일에는 밤에도 놀고. 옛날에는 낮에도 놀고 밤에도 놀고 그랬는디, 시방은 안 놀고.

[이때 놀 때는 여자들만 모였어요? 남자들도 모였어요?] 초상 때는 남자들도 논디, 명일 때는 여자들도 놀고 남자들도 놀고 그럽디다. 나는 그런데 취미 없은게.

[명일 때 여자들끼리 모여서 노는데, 다른 데를 보니까 남자들도 모여서 놀아요?] 남자들도 취미 있는 사람은 놀고, 안 논 사람은 안 놀고.

[같이 노신 적은 있으세요?] 전에는 놀았는데, 시방은 안 놀아.

[밤달애할 때는 동네분들이 다 참석하죠?] 그라지라.

[밤달애 말고 이렇게 놀 때 특별히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뭐예요? 아까 못소리, 강강술래] 육자배기도 하고, 강강술래도 하고, 못소리도 하고.

[둥당애타령도 하셨어요? 진도아리랑도 하셨어요?] 옛날에는 ‘둥당이 둥당이’ 했지라.

[또?] 시방 아리랑 타령은 다 진도아리랑으로 하제.

[춤도 추고 하셨어요?] 우리들은 춤에 소질이 없어서 못 춰.

[강강술래는 손으로 동작도 하면서 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놀아요?] 손 잡고 뽀시로 강강술래하제.

[그러면 친구집에서 노는데, 마당으로 막 나와서 놀아요?] 밤에 뽀 때는 너른 마당에서 뛰제.

[할머니 그럼 침에는 방에서 놀다가 강강술래 하자 그러면 마당으로 나와서] 그래갓고 모아갓고 강강술래하자 하고 그랬제.

[그러니까 방에서 놀다가 ‘밖에 나가자’ 이렇게요?] 침에 모일 때도 강강술래 하자고 모여갓고 하고.

[그럼 마당에서 침부터 만나겠네요?] 그라제. 다 만나제라.

[근데 침부터 강강술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란게 모여갓고 “강강술래 뽀끄냐?” 해갓고 강강술래하고 그랬제.

[그러면 침에 모여서 강강술래할 때도 있고 방에서 놀다가 밖으로 나와서 놀 때도 있고] 응.

[동작 들어가면서 노는 것이 강강술래밖에 없어요?] 마당에서 뽀라든 뛰고, 거울에 추



으른 들어가서 앉아서 노래부르고 놀제.

나) 하태동3리 모룡마을 고서임의 산다이<sup>24)</sup>

▶개요: ‘회식하자’고 한다. 산다이는 일본말인데, 많은 사람이 ‘산다이하자’고 했다. 자본이 되는 소금을 건어서 마을 등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한다. 체육대회 등이다. 이때 아리랑 담배를 주고 소금을 받는다.

[교회장님이 젊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맘 맞는 분들끼리 산다이하자 또는 놀자 해서 저녁 때 노는 전통이 있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회식하자.’ 그러죠.

[산다이라는 말은 잘 안 쓰시는 건가요?] 그건 일본말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쓰시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산다이하자.’

[거기에 참여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렇죠. 그니까 우리가 여기서 소금을 건어가지고 우리 마을이라든가 그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본을 모은 거여. 아까 내가 체육대회 했다고 했잖아요 젊어서. 그때도 소금을 모은 거여. 공동출자를 한 거여. 그러니까 담배를, 그때는 아리랑 담배가 최고니까 아리랑 담배를 사갖고 가서 염전에 인부가 4명, 5명 그때는 인부가 훨씬 많았으니까 그 사람 숫자대로 하나씩 줘요. 그러믄 담배 값을 소금으로 계산하믄 한 가마니믄 족한디 다섯 가마니도 주고, 열 가마니도 주고. 그 놈을 공동으로 모아갖고 체육대회 자금을 한 거여.

[그 당시에는 실제로 담배 한 갑이면 소금 한 차대기 가지고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그건 아조 소금이 쌀 때. 소금이 쌀 때 350원짜리 아리랑 담배 한 갑하고 똑같고, 소주 맥주병으로 한나 그때 80원 얼마 할 때 소금 60kg짜리 하나하고 비슷하고.

---

24) 홍순일 · 김경완 · 신미영 조사 · 김세인 채록, 신지운(남,미상) · 장순단(여,75) · 신금기(여,88) 제보, 조사내용 〈민요-놀이 “놀자”〉,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2리 노은마을(노른목) 경로당, 2011.08.23(화) 10:10.

[맥주 한 병이?] 소주 한 병이. 그래갖고 소금을 700개, 800개 갖고 목포로 가, 팔러. 자유판매할 때여. 가격이 싸면 소금을 한 800개나 싣고 가갖고 돈이 만원 밑졌네, 그런 경우가 있어.

#### 다) 하태동3리 모룡마을 전영례의 산다이<sup>25)</sup>

▶개요: 산다이는 명절 때나 어머니날에나 사람이 많이 모여 노는 것이다.

할머니 그리고 산다이가 뭐예요? 산다이 우리 아까침에 그것이지.

[아까 하춘화노래 잼있게 부르고] 그것이 산다이.

[그럼 유행가 부르고 노는 것이 산다이예요?] 그것 보고 '산다이'라 한다. 여기는 그걸 보고 '산다이'라 한다.

[유행가 부르고 노는 것?] 응.

[그럼 아까 부른 들소리든 유행가든 가지고 군에서 하는 경연대회 참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부녀회 분들이] 예.

[그럼 그 분 중에 아까 실버댄스 이름이 뭐예요? 실버댄스 팀?] 예. 실버댄스 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실버댄스 팀 회장이 누구세요?] 장소심.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부녀회에서 따로?] 그것이 아니고 군에서 강사를 보내줘 갖고 강사들이 14면을 나눠서 갈쳐요. 실버댄스 같은 체육을. 생활체조를.

[그럼 그 대상은 부녀회 전부겠어요?] 아니. 부녀회가 전부가 아니고 취미가 있는 사람

25)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울례(여,71) · 천금자(여,62) · 전영례(여,65) 외 7인 제보, 조사내용 〈산다이〉,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3리 모룡마을 모룡경로당, 2011.10.27(목) 19:00.

은 가서 하고, 전부가 아니죠. 한 12명이랄까. 그렇게 될까요.

[그럼 매일 저녁에 모여서] 대회가 있을 때. 우리가 도에 가요. 이번에 11월 6일날.

[이렇게 연습을 해서?] 예.

[경연대회예요?] 예. 대회를 해요. 이번에 우리가 14개 면에서 우리가 도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11월 11일은 군 대회가 앞해도를 가고.

[그럼 6일은 도 대회고, 11일은 군 대회가요?] 예.

[그럼 12명이 한 팀이 돼서 연습을 하고] 예.

[그럼 이 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경연대회가?] 한 3년 됐을까요.

[그럼 3년째예요 올해가?] 예.

[그럼 해마다 경연대회가 있어요? 도에서 하고 군에서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마을 경로 잔치를 하거나 하면 면에서 해주라 하고 그래요. 이참에 서울 향우회도 갔다오고.

[그럼 오늘 오신 분은 소속은 부녀회지만 그게 아니라 전아주머니께서 밤달애 늘 참여하시고 이런 분을 부르신 거죠?] 예.

[오시다 보니까 부녀회 소속원들이고 그런 것이죠?] 예.

[그럼 오늘같이 따로 모이자 해서 모인 경우가 있으시겠어요?] 인자 부락에 일이, 엄마 아버지가 죽소 그러든 여기 광장에 나와요. 나오든 밤에 집에 가서도 ‘밤달애’ 해 드리고, 또 나오든 제가 〈상여소리〉를 해주고 그래요.

[따로 산다이 하고 유행가도 부르고 놀자 이렇게 모일 때도 있고] 예.

[그러면 산다이 하고 놀 때는 언젠가요? 제가 헛갈리는 게 산다이가 있고, 밤달애가 있고, 〈상여소리〉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례가 되면 밤달애도 하고 그 다음날 〈상여소리〉도 하는 건데 그러면 산다이는? 산다이는 우리가 아무 때나. 어머니날에나 명절 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기분이 좋고 대명절 때 놀다 보든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우리가 노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날에 주로 잘 합니다. 어머니날에 술 한 잔 썩 주고 함시로.

[그러니까 산다이는 유행가 부르고 노는 건데 어머니날, 그러니까 어버이날 말씀하신 거죠?] 예.

[이럴 때 뿐만이 아니라 엇그제처럼 노인의 날?] 예. 그런 날에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모이고 놀고 이러고 할 때는 소주 한 잔씩 먹으면서 놀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상례 치를 때 자연히 밤달애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둘째 날 밤에, 상여

나가기 전날 밤달애하고 삼일상 치를 때에 상여소리 하고, 그러면 이럴 때 아까 했던 곡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죠.

[생각나는 데로 다 부르시구요?] 예.

[아까 하신 곡들에서 아까 하지 않은 또 다른 곡들이 있나요?] 꽤 그 곡이에요. 〈상여소리〉 하고 노는 데는 그렇고 밤달애 같은 거는 상주가 부모상을 당했다고 해서 슬프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달라서 다른 데는 화투도 치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락은 달라서 장구치고, 산다이도 하고, 상여소리도 하고, 상 당한데 가서 놀아요. 잠 안자고 상주들을 위해서 안 빈다고 해서 그 집서 놀아줘요.

[그러면 발인을 했어요, 장례를 다 치렀어요. 그날 저녁에는] 안 놀아요. 피곤한 게 상주들 주무시라고 안 놀아요. 우리가 가서 분묘까지 다 해주고는 인자 상주들도 잠도 자야하고 놀지 않아요.

[근데 안 놀 때, 안 놀아야 상주들도 쉬시잖아요 그럼 나와서 동네 경로당이나 다른 집에서. 왜냐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쉬시지만 또 이렇게 장례도 위로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동네에 모인 자리니까] 모인 자리니까 놀 때도 있죠.

[놀 때도 있으시죠?] 네.

## 나. 밤달애

### 가) 하태서2리 노은마을 장순단의 밤달애<sup>26)</sup>

▶개요: 장순단님은 참여해서 곳을 보다가 재미있게 놀아주고자 “조용하면 쓰것소” 하고 상여소리를 한다. 즐거움이 있는 남자도, 젊은 사람도 다 논다. 한편 명절에 강강술래를 한다.

[대리에서 나이 차이가 좀 있어도 놀고 하셨는데 밤달애에서 노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요?] 밤달애는 남녀노소 없이 곳 보니라 있고 그라지라.

26)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장순단(여,75) 제보, 조사내용 〈밤달애〉,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2리 노은마을(노론목) 경로당, 2011.08.23(화) 10:10.

[극본이 있어요?] 굿을 불라고. 남녀노소 없이 참여해서 굿불라든 온 사람 있고 그래라.  
[그럼 밤달애는 굿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장단 침시로 놀라고 여럿이 놀라고, 초상집  
서 셋김씩을 해야 좋다 합디까 그란게 그렇게 놀아줘야 좋은게 그랄라고, 조용하든 쓰것  
소 그러니까 밤달애 하고 놀제라.

[그럼 밤달애는 장단치면서 재미있게 놀아주는 거겠네요?] 야.

[이때는 뭐뭐 하면서 놀아요?] 노래도 부르고, 상여소리도 할라든 하고 그라고 놀제라.

[이때 밤달애는 마을 분들만 모여요?] 타관사람도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와서 놀고, 안  
온 사람은 안 오고 올 사람은 오고 그래라.

[혹시 밤달애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오시나요?] 밤달애도 남자들도 유행가도 하고  
재밋게 논 사람들이 있제라.

[전문적으로 노는 사람이 있어요?] 일 하면서 놀고 그러제. 항상 그러고 놀것소. [대리에  
서 처녀 때 밤달애하고 놀 때 하고 여기서 놀 때하고 뭐가 달라요?] 처녀 때는 모 할 때나  
같이 놀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못소리함서 모 심고 그러제. 평상시에는 모여서 안 놀고 명  
절 때나 강강수월래 한다고 모여갖고 놀고 그러제.

[강강수월래는 배워서 놀아요?] 강강수월래도 팽야 노래가 들어가제.

강~강~수~월~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강~강~수~월~래~

그렇게 하고 그랬지라.

[상여소리가 여기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상여소리는 초상난 데가 하고, 모할 때는 상사  
디여소리하고 그러제. 강강수월래소리는 명절 때 뛰든 강강수월래하고.

[강강수월래 메기는 소리 한 번 해 주세요]

강강수월래~

놀자 놀자 젊어 놀자 강강수월래~

늙어지면 못 논다네 강강수월래~

그렇고 하제라. 다른 소리, 진소리는 오래 길게 맥이고.

[침에 했던 게 진소리죠?] 네. 글고 자진소리.

## 나) 하태동3리 모룡마을 전영례의 밤달애<sup>27)</sup>

▶개요: 밤달애는 초상집에서 밤에 노는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상주들을 위로한다고 밤새 놀아준다.

[밤달애가 뭐예요?] 밤에 노는 것이 ‘밤달애’. 사람이 죽으면 밤에 전부 <상여소리>하고 놀아요. 이런 노래 반복하면서.

[그럼 초상집에서 밤에 노는 거예요?] 예. 초상집에서 밤에 노는 것을 ‘밤달애’라고 그래요.

[밤에 노래만 하는 것은 아니죠?] 장구도 치고, 술도 마시고, 화투하는 사람은 화투하고. 부락에서 재밌게 놀아요.

[밤달애가 초상집에서 밤에 노는 것을 말해요?] 네.

[신의도에만 있나요?] 아니, 다 틀리제라. 화투만 치는 데도 있고, 슬프게 하는 데도 있고, 각 마을마다 다르제라. 근디 우리 마을은 상인들을 위로한다고 밤새 놀아주고 그래요.

[위로를 받는 사람을 상인이라 그래요?] 아니, ‘상주’라 그러죠.

[상주를 위로하려고?] 예.

[언제까지 해요?] 날 새도록.



사진6. 신의도 상동3리 모룡경로당 이울례(71),천금자(62), 전영례(65) (2011.10.27)

27)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박방란(여,미상) · 이울례(여,71) · 전영례(여,65) · 전애자(여,65) 제보, 조사내용 <음성파일 채록본의 수정 · 보완, 밤달애>, 전남 신안군 신의면,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3리 모룡마을 대영만물슈퍼, 2012.02.23(목) 13:53.

[초상 이튿날 밤에 하나요? 첫째 날은 안 하나요?] 첫째 날은 안 하고 그 뒷날, 내일 상여나간다고 하면 그 전날, 이튿날 밤에 해요.

[다른 데는 물어줘요?] 어.

[어디서 보셨어요?] 외국같은 데서 봤지 우리나라에서는 안 봤어. 육지지방은 화톳치고 하는데, 전라도 지방은 웃고 논다고 우습게 보고 하드만.

[슬픈데 왜 놀아주죠?] 상주들이 너무 적적하잖아요. 적적하면 상주들이 잠이 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락에서 가서 놀아주죠.

[이때 참여하신 분들이 마을 분들 다예요?] 예.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서 해요. 동네에서 단체로 가서 하고. 자식들 친구나 부모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다 가서 해요.

[마을 사람이 다 참여를 하는데 그 위아래, 어린애들도 상관이 없나요?] 어린애들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또래 정도 되면 슬프다고 더 해주고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 나이가 맞는 사람이 가제. 어린아들이 갈 수 없잖아요. 이장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안 하고. 우리들 또래. 50이 넘는 사람들이 하지 젊은 사람들은 안 하고. 한 50대 60대 정도에 가서 해요.

[그럼 초상이 났다 하면 동네 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가야겠다 마음 먹고 있겠어요?] 네.

[그럼 이튿날 모이자고 할 텐데 그건 누가 알려주세요?] 다 자신이 알어요. 우리가 갔을 때 먼저 온 사람들도 있고, 연락을 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한 사람이 장구치고 있으믄 따라서 같이 하고.

[몇 시부터나 시작을 해요?] 아홉시나 열시나.

[밤새도록 하면 몇 시나 끝나요?] 세시도 되고 네시도 되고 날 새도록 하기도 하고.

[그럼 9~10시 부터나 시작해서 4~5시나 밤새도록 계속이요?] 네.

[당연히 상가집에서 하겠어요?] 그렇죠.

[상가집에서도 주로 어디서 하세요?] 마당에서. 상가집에서 식사대접도 하고, 죽도 써주고 해요. 성의껏 해주고 해요. 갈비도 해주기도 하고. 고생했다고.

[주인네가?] 네. 지기들도 맨날 잠 올텐디, 가서 재미있게 해주믄 자기네도 흥이 나고, 다만 슬픈 일만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늙은 사람들이 가시면은 즐겁게 놀아주죠.

[이런 거를 옛날부터 ‘밤달애’라고 불렀어요?] 네. 옛날 전통으로 내려왔어요.

[다른 지방에서 슬픈데 물어야지 왜 노냐 이런 반응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방에 풍습이라, 옛날부터 풍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풍습에는 장구도 치고 노래도 불러주



고 하는 것이 풍습이에요. 옛날부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 왔지라.

[옛날부터 해왔으면 할머니 어렸을 때도 해왔겠네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우에 충들이 하는 것을 봐왔죠.

[어머니하고 할머니들이 하는 것을 보셨어요?] 네.

[각 지방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신의면 안에서도 다르겠습니까] 아니, 신의면에서는 같아요. 요 지방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근디 육지쪽에서 오른 이렇게 하른 안된다고 하대요.

[신의면에서는 마을 간에 별 차이는 없고 육지하고 비했을 때는 차이가 있다는 거구요?] 네.

[이올레 할머니는 대리라고 하셨고 친정은 어디셔요?] 하의도.

[하의도에서 시집오셨는데 하의도하고 신의도하고 차이가 있나요?] 아뇨, 다 같아요.

[밤달애는 사람이 죽은 때만 하죠?] 그렇죠.

[혹시 신의도에 절이나 교회 다닌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럼 밤달애를 초파일에 기해서 한다는 것은 없구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럼 상가집에 이튿날 가면 상가집에서 다 준비하니까 따로 준비할 것은 없겠네요?] 예. 마지막 상여가 나오면은 거기서도 장구치고 놀아주고, 상여소리해 주고. 앞에서 상여소리 하고 막 놀아요. 그라고 묘에 가서도 하고. 죽은 명인을 위해서 호상을 해 준다고 3일된 날은 부락에 여자분들도 다 나와서 호상을 해요. 남자분들은 장구도 쳐주고. 묘에 가서도 하고. 묘에 가서 분묘해주고 와요. 그라고 상가집 와서 또 먹고 그래요.

[밤달애는 3일째 되는 날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아까 8~9시부터 새벽 요 사이에 하는 것만 말하는 거죠?] 예.

[그럼 산다이가 있잖아요? 산다이하고는 다른 건가요?] 다르죠. 명절에, 설이나 추석이나 모여서 산다이 한다고 노래나 부르고 놀죠. 상여소리는 아예 안 하고.

[산다이가 무슨 뜻이죠?] 산다이가 노래 부르고 시골말로 논다는 소리여. 꼭 명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노는 것이 산다이라 하제. 저번처럼 모여서 술 마시고 노래부름서 논 것을 보고 산다이라 하제.

[산다이? 산다위? 삼다위?] 그냥 일본말로 '산다이'라 하제.

[산다이?] 예.

[그럼 이렇게 모여서 놀자 할 때 산다이하자, 밤달애하자, 또는 놀자 이런 명칭을 쓰는가요?] 예. [그럼 모여서 놀자 하는 것을 산다이 하자 이렇게 써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놀자 그러죠. 산다이는 일본말이어서 지금은 안 하제. 지금은 논다고 하제 산다이란 말은

누가 안 하제.

[그럼 산다이 때 음식이 준비가 되나요?] 아뇨, 먹을라든 과자나 술 정도는 가지고 가지요. 사다 먹지요. 노는 사람들이 걷어서 사서 먹고 그러죠.

[산다이 때는 그러고, 밤달애 때는] 상가집에서 다 내고.

[상주가 음식을 다 내와요?] 그렇죠.

[그럼 이 때 음식은 술안주, 술 이런 거겠네요?] 그러죠. 초상집에서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한테 후히 대접해요.

[그럼 요때 고기도 나오고 술도 나오고 그러겠네요?] 그러죠. 밤에 고생한다고 상주편에서 많이 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동네일이니까 동네분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옆 동네 상가집에는 간 적이 없으세요?] 가제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다른 동네 사람들도 친구나 친척관계 사람들은 오고가고 그러죠. 남의 부락에서 우리 동네 밤달애를 한다고 초청하거나 사건 것을 없어요. 요 부락에서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을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을에 관계된 친구나 친척이 있으면 올 수도 있는 거구] 예. 념의 마을 가서는 잘 놀도 안해요. 여기 마을만 하제.

[우리 마을 상가집에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는 것은 동네사람인가가 기준이 되겠네요?] 그러죠.

[돌아가신 분이 친척이나 친구면 가슴이 더 아프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밤달애할 때 기회를 더 주나요? 마음이 아프니까 더 노래를 한다고 한다든지] 똑같아요.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한다구요?] 예. 상가에 친척들이 오셔도 놀 수도 있고 그래요.

[조문객도 밤달애에 참여해서 놀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예. 자기가 즐거움이 있으면 같이 놀지.

[그럼 어떻게 기회를 줘요?] 오라고 연락을 하죠.

[이때 어떤 노래를 많이 하나요?] 가요하고 상여소리도 하고 자유예요. 아리롱도 하고.

[아리롱은 <진도아리랑>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진도아리랑>.

[지난 번 모령리 경로당에서 부르셨던 곡이 다 그 자리에서 부를 수 있는 거죠?] 예. 다 그곡이에요.

[밤달애 때는 다 들어와서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산다이 때도 그런가요?] 산다이에서는 상여소리는 안 하제.

[그럼 밤달애에서는 부르는데 산다이에서는 안 부르는 곡이 있나요?] 상여소리는 안 하

제. 그것만 빼제.

[산다이에서는 상여소리만 빼고 다 부른다구요?] 예.

...중략...

[요때 하실 때 악기도 치고 해요?] 예. 장구하고 반구.

[반구?] 북을 보고 반구라고 해요. 또 노래방기기도 있구요. (음성 2번이 덧붙음)

[징도 사용해요?] 안 해요. 쇠소리 나는 것은 안 해요.

[누가 처음에 노래를 하나요? 사회를 보는 사람이 있나요?] 잘 한 사람이 해요.

[잘 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요?] 예.

[잘 한 사람이 상여소리를 먼저 해요?] 그러지라. 분위기 맞춰서 하지요. 상여를 매고 다닐 때는 상여소리를 하고 힘들면 내려 놓고 가요도 부르고.

[그럼 이튿날 저녁에 빈상여를 매고] 그때는 안 하제. 나가는 날 하제.

[밤달애 할 때 노래만 부른가요?] 춤도 추고 그러죠.

[연극 같은 것은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안 해요.

[동네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부녀회나 어촌계에서 더 나서서 한다든지 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 우리가 해갖고 하는 거지.

다) 상태동3리 모룡마을 장내훈의 씻김굿과 밤달애<sup>28)</sup>

▶개요: 씻김굿을 하면 그날은 밤달애를 안한다. 그날은 새도록 굿을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안했을 때 밤달애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씻김굿을 하셨겠네요?] 예.

[밤달애하고 관계는 있나요? 반달애가 삼일장에서 둘째 날에 마을 분들이 하시는 건데

28)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전연재(여,59) · 김정길(남,65) · 전준면(남,62) · 장내훈(남,57) 제보, 조사내용 〈단골 최가주 이야기(씻김굿과 밤달애와의 관계)〉,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3리 모룡마을 누나펜션, 2012.02.24(금) 08:37.

그 자리에 씻김굿 같이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제. 원래 밤달애라는 자체가 동네 사람들이 하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씻김굿을, 듣는 소리가 그러드만 ‘복걸려서 간다’고. 그러면 그분네들은 밤달애하는 저녁에 깨끗이 씻겨야 저 세상에 가서 좋은 뭇을 한다 그래서 씻김굿 유래가 그래서 전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달애랑 씻김굿을 구분하셨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씻김굿은 씻겨야 저 세상에서 복을 받는] 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듣는 얘기에요. 돌아가신 망자가 ‘복걸려 간다’고 그러드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 몫하기를 못 하고 가는 사람들을 ‘복걸려 간다’고 그러드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씻김굿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씻겨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저 세상에 가서 뭇을 안 한다 하는 차원에서 씻김굿 유래가 그래서 있다고. 씻김굿 자체가 미신이 아니고 유래성에 전래해 온 상황인데 현재 진도에서 하잖습니까. 그래서 한다고 하드라고요.

[씻김굿은 그렇구요. 밤달애는 씻김굿에 비해서 살아있는 분, 상주를 위로한다 그런 건가요?] 밤달애 유래는, 그러죠 그러기도 하고 마지막 간 날이라고 해서. 그것이 기준을 내리기가 애매하죠. 둘째날 하는 이유는 돌아가신 망자하고도 이별이고, 상주를 위로한다는 차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밤달애가 유래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밤달애 유래는 KBS 광주방송국에서 촬영해서 방영을 한 번 했어요.

[신의도에서요?] 그때는 신의도가 아니고 하의도, 비금, 완도 청산도, 또 육지도 한 군데 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특색을 해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장례식장이 생겨서 그런 문화가 없어졌지요.

[그럼 KBS는 언제적이에요? 몇 년 됐을까요?] 횡수로 3년 정도, 2010년 정도 방영을 했었어요. 내가 DVD를 구입했었어요. 제목이 ‘달이 뜨면 가오리다’ 그게 제목이여. 한마디로 이 세상을 이별하고 가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그때도 목포대서 어떤 교수가 역사문화 뭇을 해서 방영을 하더라고.

[그러면 밤달애하고 관계가 어르신이 자랄 때 이튿날 밤에 밤달애를 하려고 동네분들이 모이셨다면 씻김굿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죠? 씻김굿이 주도가 되면서 그 속에서 소리를 하나요?] 씻김굿을 하면은 그날은 밤달애를 안 해요. 그날 날 새도록 굿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안 했을 때 밤달애를 하제.

[같이 하는 것은 없네요?] 예, 같이 병행해서 한 것은 없어요.

[그럼 씻김굿을 하면서, 전문인들이잖아요. 씻김굿을 하면서 죽은 분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소리를 한 번 해봐라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것은

없었어. 하여튼 씻김굿을 하면 그날 망자에 씻김을 한다고 해서 그날 날 새도록까지 초저녁에 시작해서 날 새도록 행사를 치르드만. 그러면 인자 거기에 같이 구경도 하고 흥겹게 발도 맞추고 그런.

[씻김굿은 언제까지, 최가주 이분은 60년 전이면 태어나기 전이고. 근데 성장할 때 씻김굿을 보셨다는 말씀인데요] 그 가족들이 전해 받아서 하니까.

[그럼 씻김굿을 안 한 지가?] 한 30년 정도 됐죠.

[80년대까지는 했다는 말씀이죠?] 80년대까지는 모르겠고 70년대는 무조건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 그것도 가정형편이 여유있는 사람이 하고, 없는 사람은 못 하고. 행사한 사람들 행사비를 줘야 한 게.

[KBS 비디오는 방송된 것을 구워서 받으신 거네요?] 예.

### 3. 조사결과 및 활용방안

#### 1) 구비전승자료의 조사결과

민요공동체와 구비전승물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을 요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비전승 분야에서 조사한 신의도의 구비문화자료의 경우 학술답사 제1차 제1일인 8월 22일(월)에는 참여연구자 전체회의 참석, 신기문 부면장의 섬현황설명, 신기문 부면장과 섬답사, 고서임 회장 소금 면담(1), 김승필님 자료 면담, 등이다.

그 다음날은 장순단님 민요면담, 고서임 회장 소금, 언어 면담(2) 등이다.

학술조사 제2차 제1일인 10월 26일(수)에는 상태동리 최정수(남,62) 면개발위원장, 신필식(남,68)님 면민, 면개발, 설화(하태동2리 노은마을의 사자바위, 개바위, 쥐바위, 상태서리의 개바위) 면담, 상태동3리 모룡마을 고인철엄마(여,미상), 홍복단(여,82), 신정심엄마(여,미상), 고웅그리(여,미상)님 민요 면담 등이다.

그 다음날은 상태서3리 동면마을 이기철(남,71)님 생업, 언어 면담, 하태동1리 구만마을 홍길용(남,54), 한중기(남,75), 홍상기(남,65) 외 2인님 마을의 역사·지리·사회적 특성, 설화(인물, 지명) 면담, 하태동3리 모룡마을 이올레(여,71), 천금자(여,62), 전영례(여,65) 외 7인님 밤달애 면담 등이다.

학술조사 제3차 제1일인 2월 23일(목)에는 하태동2리 노은마을(노른목) 경로당에서 장순단(여,75), 신동안(남,70,43년생)님을 통해 구비전승(채록자료 확인 및 추가조사)인 남한산성, 강강술래, 육자배기, 판소리, 민요로 부르는 찬송가, 개바위이야기 등을 조사했다. 상태동3리 모룡마을 대영만물슈퍼에서 박방란(여,미상), 이윌레(여,71), 전영레(여,65), 전애자(여,65)님을 통해 음성파일 채록본을 수정·보완하고, 밤달애를 추가조사했다.

다음날은 상태동3리 모룡마을 누나펜션에서 전연자(여, 59), 김정길(남, 65), 전준면(남, 62), 장내훈(남, 57)님을 통해 구비전승(추가조사)인 19살 때까지와 55살 때부터 겪은 고향, 부여사람이 태안사람과 신의사람을 만난 이야기, 식염, 인권, 단골 최가주 이야기(씻김굿과 밤달애와의 관계) 등을 조사했다. 상태서리 염분동 220-22에서 박남선(남, 74)님을 통해 아버지, 할아버지의 족보, 비석이야기를 들었고, 하태동1리 구만마을에서 홍상기(남, 미상)님을 통해 채록자료 확인하기 위해 홍성담 형제이야기를 다시 들었다.

이를 다시 주제별로 정리하면 신의도의 이야기(설화(신화,전설,민담), 무속신화, 생애담 및 경험담), 신의도의 민요·판소리, 신의도의 속담(구조어)·언어(인지어, 속신어), 신의도의 민요공동체(산다이)와 밤달애 등이다.

## 2) 구비전승자원의 활용방안

신의도의 구비전승물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하회탈놀이 외에 하회마을과 하회탈을 지정하듯이(임재해 2007.10.25:17~44쪽), 구비전승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통시키는 문화장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겠다.

### (1) 구비전승자원(설화, 민요, 판소리) 자체 및 DB화

#### 가. 전국적 네트워크화

신의도의 설화, 민요, 판소리, 속담, 밤달애 등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해야 한다. 즉 전국적 네트워크화할 과정에서 경쟁적 구비전승물을 찾아야 하는데 구비전승물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 효용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구비전승의 관점에서 해역·지역의 문화자원을 선정한다.

특히 민요, 판소리 등 생태적인 소리는 도서민과 관광객의 정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작업에서 치유적 효용론이 거론되는 것이다. 음악치료학이 각광받고 있듯이, 정서의 건강성과 운율의 친생태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통적 소리가 활용되는 것이다. 관련 민요 전공학과에서 이 분야에 대한 교육화와 구체적인 모델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창식 2010). 공감의 소리를 결합시켜 정서 치유를 가능케 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분야에서 신기문 부면장의 섬현황설명과 섬답사에서 보듯이, 지명(바위), 인물(동물) 등과 관련된 설화가 복잡하게 전승되므로 이를 수집하여 정리할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삼을 만하겠다.

한편 하태동2리 노은마을의 사자바위, 개바위, 쥐바위, 상태서리의 개바위 이야기는 신필식(남,68)이 제보하고, 하태동1리 구만마을 홍길용(남,54)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상태서리에도 있다고 한다. 바위이야기의 지배적 우위를 느낄 수 있다.

홍성담(남,57,형,일산)과 한국화 홍성룡(제,광주), 청장 홍영기(남,58,형)와 시인 홍원기(제), 천일염개발자 홍태근(부)과 홍형선(자) 이야기, 세금이 다른 면에 비해 적자 150평마다 쌀 한 가마를 받은 이야기 등처럼 과거와 현재의 인물이나 성씨이야기도 추적할 만하다고 하겠다.

한편 고서임 회장 소금 면담시 아버지의 기록에서 보듯이, 고서임 회장의 지적, 물적 토대는 아버지로부터 인하므로, 이를 기록, 현전화(現前化)하면 간척 내지 염전(천일염)의 역사를, 문학을 다룰 수 있겠다. 또한 소금을 식품으로 허가를 낸 장본인의 삶과 그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할 수 있겠다.

민요 분야에서 장순단에서 보듯이, 대리마을에서 노은마을로 시집와서 소리하되, 지금은 교회에서 찬송하기 위해 개작 내지 편곡하는 구비연행자의 활동을 주목할 수 있다.

이울레에서 보듯이, 상태동3리 모룡마을의 밤달애를 통해 소리하는 구비연행자와 마을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볼 수 있다. 하태동3리 모룡마을 이울레(여,71), 천금자(여,62), 전영례(여,65) 외 7인은 고인철엄마(여,미상), 홍복단(여,82), 신정심엄마(여,미상), 고웅그리(여,미상) 등과 다른 팀에서 놀지만, 큰 일이 있을 때는 같은 마을에서 만나는 것이다.

속담 분야에서 고서임 회장 소금, 언어 면담에서 보듯이, 소금이야기를 할 때 한 “인간 상태부터 소금으로 간하자”라는 말 등을 포함하여 말 속에 들어 있는 인성과 인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이기철(남,71)님의 언어 면담에서 확인한 물때의 용어를 다른 섬과 대비해 볼 수도 있겠다.

민요공동체와 밤달애에서 고서임과 전영례에서 보듯이 각각 존재하는 동시에 장순단의 산다이와 밤달애처럼 신의도사람은 산다이를 밤달애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내훈의 셋김



굿과 밤달애처럼 씻김굿하는 사람이 밤달애를 주도했다.

장순단님 민요면담에서 보듯이, 신의도 사람들의 민요공동체인 산다이, 밤달애, 놀기 “놀자”를 보되, 하의면과 관련시키고, 또한 인적 네트워크가 신안군으로 외연 확대되는 면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하태동3리 모룽마을의 이율례(여,71)는 구비연행자로서, 전영례(여,65)는 부녀회원으로서, 그리고 8인의 마을사람들은 밤달애를 중심으로 소리와 이야기를 전승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겠다.

## 나. 데이터베이스(DB)화

신의도의 설화, 민요, 판소리 등의 DB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구비전승 자료를 자원화하기 위해 DB를 구축해야 한다.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은 다도해문화정보 통합시스템(429), 한국 바다문화의 원형 당제(429-430), 전통 어로·어구 디지털화 등의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구비전승의 자원화는 기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분야, 즉 위에 말한 고고, 언어, 경제, 생태, 민속, 인류(사회) 등과 연계해서 DB화해야 한다. 이러한 구비전승물의 아카이브 구축은 교육용, 연구용, 산업용, 세계유산등재용 등의 파급기대를 할 수 있다.

## (2) 구비전승자원의 교육·출판·문화콘텐츠·관광·축제적 활용

신의도의 구비전승자원은 다음과 같은 분야별로 활용될 수 있다.

### 가. 교육자원으로의 활용

교육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삶과 교육현장에서 전통적 이야기문화가 단절을 막을 수 있다.

### 나. 출판자원으로의 활용

출판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설화(이야기)는 아동과 청소년, 나아가 일반인을 대상

으로 토속적 요소를 반영한 동화책의 출간이나 지역 특성을 살린 이야기 기행서의 기획 출간이 가능할 것이다. 구비연행자의 생애담과 경험담, 마을의 독특한 내력담과 일화를 소재로 한 소설 작품의 창작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다. 문화콘텐츠 시나리오 소재로의 활용

문화콘텐츠 시나리오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캐릭터, 광고 등의 제반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전설이나 민담 외에 갖가지 경험담과 일화까지도 포함된다. 설화와 경험담, 마을 내력에 이르는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가 마을 민속과 관련하여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 라.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의 장면구성 자료로의 활용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의 장면구성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을민속의 일환으로 현장의 이야기 문화가 생생히 정리 보고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 마. 현장 문화체험·축제의 자원으로서의 활용

현장 문화체험 내지 축제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신동훈 2010).

### (3) 지역문화 정체성 회복

구비의 언어와 문학인 구비전승자원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일환이 될 수 있다. 지역문화의 같고 다름을 추구해야 한다. 구비의 언어와 문학은 도서민의 삶과 문화가 되고, 거꾸로 도서민은 구비전승자원을 통해 언어와 문학생활을 확대재생산해 나감으로써 지역문화의 정체성이 회복된다. 이 중심에 말의 이야기와 노래가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신동흔, 「설화(이야기)」, 임재해 외, 『민속조사의 현장과 방법』, 2010, 278-307쪽.

이창식, 「민요」, 임재해 외, 『민속조사의 현장과 방법』, 2010, 308-331쪽.

임재해, 「지역민속에 의한 지역문화 창출의 준거와 방향」, 2007 한국민속학자대회 「지역민속과 지역문화 창출」, 조직위원회·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2007.10.25, 17~44쪽.

홍순일, 「서해 도서지역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조기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2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12, 519-567쪽.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1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⑩

# 신의면편

---

## VII 방언 문화

1. 조사 개요 250
2. 친족어 251
3. 택호 259
4. 물고기의 크기에 따른 분류 260
5. 기타 해산물의 종류 264
6. 물고기의 부분 명칭 266
7. 바닷가 지형 267
8. 배의 종류 및 선원의 구분 269
9. 물때 270
10. 바람 271
11. 특이한 어휘 271
12. 방언의 활용방안 273

이기갑

목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VII 방언 문화

## 1. 조사 개요

신의도 방언에 대한 언어 문화적 접근 방식으로서 적어도 세 가지 관점이 가능하다. 첫째는 육지와 다른 신의도만의 독특한 방언의 존재이다. 신의도가 육지와 떨어져 있고 주로 인근 섬과 소통을 갖되, 육지와는 상대적으로 소통의 기회가 적었다면, 이런 양상이 언어에 반영될 것이기에, 육지와 다른 신의도의 독특한 방언이 있을 것이며, 이것들을 외지인에게 소개한다면, 그 이색적이고 독특함에 매료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특히 신의도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는 방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신의도 방언이 육지에 비해 옛말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일이다. 언어는 변화하기 마련이며, 그 변화의 속도와 정도 차이 때문에 지역에 따른 방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육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변화는 사람들의 왕래 통로를 따라 퍼져 나가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지리적 장애물이 있을 경우, 언어 변화의 전파는 그곳에서 멈추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로 지리적 장애물의 이쪽과 그 너머 사이에는 언어 변화의 유무에 따른 방언 차이가 생기

게 되는 것이다. 언어 변화의 전파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지리적 장애물로는 높은 산이나 사막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바닷길도 이러한 장애물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육지에서 생긴 언어 변화가 섬 지역까지 전파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마찬가지로 섬 지역에서 일어난 언어 변화가 육지로 퍼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결과로 섬 지역은 육지에서는 이미 사라졌거나 변해 버린 옛말을 보존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런 방언 자료를 찾아낸다면, 신의도는 언어적으로 옛말의 보고, 다시 말하면 우리 언어 문화의 전통적 모습을 고수하는 지역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는 신의도 방언에서 바다와 관련된 독특한 어휘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일이다. 신의도는 상태의 경우 농업이 주를 이루지만 하태는 어업이 주를 이룬다. 또한 염전은 신의의 주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의도 방언에서 바다와 관련된 어휘들을 찾고, 이들이 인근 어업 중심의 섬 지역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신의도의 특징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글에서 외지인들에게 소개할 신의도 방언을 발굴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그 결과로 신의도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 주는 방언, 신의도의 언어적 보수성을 보여 주는 방언, 그리고 신의도의 해양 관련성을 보여 주는 방언들이 주로 논의될 것이다.<sup>1)</sup>

## 2. 친족어

### 1)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는 ‘아부지’, 어머니는 ‘엄매’, 할아버지는 ‘하납씨’, 할머니는 ‘함씨’ 또는 ‘함씨’라 한다. 할아버지의 개신형으로 ‘하나부지’, 할머니의 개신형으로 ‘할무니’, ‘할마니’ 등이 쓰이기도 한다. 한편 할아버지의 존대형으로 ‘조부씨’가 쓰인다. 고모나 이모는 중앙어와 같으며, 고모부는 ‘작숙’, 이모부는 ‘이숙’이라 한다.

‘엄매’에 대해 “\*아배와 같은 형이 기대되나, 이런 형은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친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sup>2)</sup> 한편 ‘하납씨’는 ‘하나씨’처럼 /ㅅ/이 탈락되어 쓰일 듯하나, 이 역시 신의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아잡씨’는 신의에서 ‘아자씨’나 ‘아저씨’처럼 /ㅅ/이 탈락되어 쓰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

국 신의에서는 /ㅂ/ 탈락이 ‘아잡씨’에서만 일어나고 ‘하납씨’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셈이다. 신안의 암태, 지도, 흑산도와 전남의 육지 일부에서는 ‘하나씨’처럼 /ㅂ/ 탈락이 일어난 형태가 쓰이기도 한다.<sup>3)</sup> 할머니에 대한 ‘함씨’는 기원적으로 ‘한+엄+씨’와 같은 형태소 결합에서 생긴 것이다. 전남의 육지에서도 ‘함씨’ 형이 쓰이나, 이 경우는 매우 비하적인 말맛이 있는 점이 다르다. ‘함씨’는 신안의 하의, 장산, 암태, 흑산도, 그리고 완도의 평일도에서도 확인된 어형이다.

## 2) 누나와 매형

누나는 신의에서 ‘누님’ 또는 줄여서 ‘님:’이라 한다.<sup>4)</sup> ‘누나’라는 말도 쓰이지 않는 바는 아니나 이는 육지에서 들어온 개신형이다. 한편 ‘님:’의 존대형은 ‘매씨’이다. ‘매씨’의 ‘매’는 한자어 妹이며 여기에 존대의 접미사 ‘-씨’가 붙은 것으로서, 전남의 육지에서도 부분적으로 쓰이며, 완도의 소안도에서도 확인되는 형이다. 진도 조도에서는 ‘님:매’가 사용되었으나<sup>5)</sup>, 신의에서는 이런 말은 사용되지 않는다. 누나의 남편은 ‘매양’이라 한다. 이 ‘매양’은 ‘매형(妹兄)’에서 변이된 것으로서 전남의 육지에서도 사용되는 어형이다.

## 3) 오빠와 올케

오빠는 신의에서 ‘오람’ 또는 ‘오랍씨’를 사용한다. ‘오람’은 ‘올+압’에서 변이된 것이며, ‘오람’에 비해 ‘오랍씨’는 존대형이다.<sup>6)</sup> ‘오빠’는 육지에서 들어온 개신형으로서 최근에 쓰이기

1) 신의도 조사는 2011년 10월 24일에 이루어졌다. 조사지는 신안군 신의면 모룡리와 황성금리 두 곳이었다. 제보자로서 상태의 경우, 전환홍(남, 93세, 신안군 신의면 상태 동리, 모룡리 태생)과 김광삼(여, 79세, 신안군 신의면 상태 서리 태생, 전환홍의 처), 하태에서는 박을배(남, 78세, 신안 신의면 하태 황성금리 태생 및 거주)님이 도와 주셨다.

2) 그러나 완도 평일도에서는 ‘아배’와 ‘엄매’의 대립이 보인다.

3) 완도 평일도에서는 ‘하랍씨’와 ‘하라씨’가 공존하고 있다. ‘하랍씨’는 물론 ‘하납씨’에서 /ㄴ/이/ㄹ/로 바뀐 것인데, 여기서 /ㄴ/의 탈락이 수의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님:’으로의 축약은 완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길도, 소안도, 청산도에서 ‘님:’이 확인된다.

5) 완도의 약산도에서는 언니를 부를 때 ‘성매’가 쓰인다.



시작한 말이다. 오빠의 부인은 ‘오라부댁’이라 하며, 호칭은 ‘성님’이다. 손위 올케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큰 성님’, ‘작은 성님’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오라부댁’은 전남의 육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형으로서 신의가 이 어형을 사용하는 것은 흥미롭다. 여자들의 택호를 나타낼 때, 서남해 섬지역은 육지의 ‘댁’ 대신 ‘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케의 지칭어는 택호는 아니지만 택호처럼 섬지역에서는 ‘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sup>7)</sup> 신의에서는 특이하게 ‘오라부댁’처럼 ‘댁’을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신의는 육지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셈이다. 사실 신의뿐 아니라 신안의 대부분의 섬 지역, 예를 들어 장산, 하의, 암태, 지도, 흑산도 등지에서는 ‘오라부덕’이나 ‘오라부댁’이 쓰이고 있어 육지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동생은 신의에서 ‘동승’이라 하며 그 부인은 ‘동승에댁’ 또는 ‘동승에’라고 한다. 장산도에서는 ‘동상에댁’이라 하여 신의와 차이를 보인다. ‘동상에댁’은 전남의 육지에서 확인되는 어형이다.<sup>8)</sup> 중앙어 ‘동생’을 육지에서 ‘동상’이라 부르는 일이 일반적이다. ‘학생’을 ‘학상’, ‘고생’을 ‘고상’처럼 ‘생’을 ‘상’으로 발음하는 것이 전남 육지 지역의 일반적인 음운 현상인데, 장산도는 이러한 육지의 음운 변이 양상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의나 하의는 ‘동승’이라 발음함으로써 육지와는 다른 섬 지역의 특징적인 변이를 보여 준다.<sup>9)</sup>

#### 4) 언니와 형부

언니는 ‘성’이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언니의 남편은 ‘아잠’이라 하였다. 이 ‘아잠’은 하의에서도 사용되었던 형이다. 개신형으로 ‘정부’가 쓰이기도 하지만, 이는 육지형이 그 대로 유입된 것이다. ‘아잠’은 ‘앗-압’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잠’은 ‘오람’ 등에 동화되어 ‘아잠’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6) ‘오람’은 신안의 장산, 하의, 흑산도 그리고 완도의 보길도와 소안도에서 확인되고, 이의 존대형 ‘오람씨’는 신안과 완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쓰이고 있다.

7) ‘오라부댁’ 또는 ‘오라부덕’은 완도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쓰이는데, 완도의 약산도, 소안도, 평일도, 청산도 등에서는 ‘오라부덕’ 외에 ‘오라부성’이 함께 쓰이고 있다. 이 ‘오라부성’은 ‘댁’을 기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택된 어형으로 보이는데, 신안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형이다.

8) 완도의 일부 지역(약산도, 소안도 등)에서는 ‘동승에처’와 같은 형이 확인된다.

9) 신안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동상’이 쓰이며, 완도의 대부분의 지역은 ‘동상’과 ‘동승’이 혼용되고 있다.

## 5)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아들을 부를 때는 ‘손자 이름 + 낱씨야’라고 하며, 며느리는 ‘친정 이름 + 아그야/엄매야’라 한다. 여기서 ‘낱씨’는 ‘-네압씨’의 준말이므로, 예를 들어 아이의 이름이 ‘학순’인 경우 ‘학순 낱씨야’라 부르는데, 이것은 ‘학순네 압씨야’가 줄어든 말이다.<sup>10)</sup> 또한 며느리의 친정이 ‘상태’인 경우, ‘상태 아그야’, ‘상태 엄매야’라 한다. 그리고 시집간 딸을 부를 때는 ‘아기 이름 + 에미야’, 사위를 부를 때는 ‘아기 이름 + 낱씨야’라고 한다. 전남의 육지에서 사위를 부를 때에 사용되는 ‘-서방’은 신의에서 쓰이지 않는다. 또한 전남의 육지에서는 시집간 딸을 부를 때, 시댁의 성을 따서 ‘김실이’, ‘이실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신의에서는 역시 이런 호칭법은 없다. ‘-실이’의 ‘실’은 한자어 室에서 온 것이며, 중앙어에서는 ‘-실이’ 대신 순수 우리말인 ‘-집이’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집이’는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접미사이다.

## 6) 시아주버니와 시아주머니

시아주버니의 지칭과 호칭으로서 ‘아저씨’ 또는 ‘시숙’이 쓰인다.<sup>11)</sup> 제보자들은 ‘아저씨’가 구형이고 ‘시숙’은 신형으로 이해하고 있다. 만약 ‘아저씨’가 구형이라면 옛날에는 사아주버니와 시동생이 모두 ‘아저씨’라는 단일한 형태로 불린 셈이다.

신의에서 ‘시숙’이라는 말은 남편의 형님을 가리키는 것 외에,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동네의 남자 어른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지칭과 호칭법은 하의에서 이미 확인되었던

---

10) 완도의 노화도나 고금도에서는 결혼한 아들을 부를 때, 아이 이름에 ‘-남’, 며느리는 ‘-님’을 붙여 말한다. 예를 들어 아이 이름이 ‘복남’이라면 ‘복남이남’, ‘복남이님’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남’과 ‘-님’은 물론 ‘-네압’과 ‘-네엄’의 결합체로서 여기에 포함된 ‘압’과 ‘엄’은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압’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어머니의 ‘엄’에 유추되어 ‘압’에서 ‘엄’으로 바뀐 것이다.

11) 완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아주버니는 ‘시숙’, 시동생은 ‘씨아재’라는 지칭어를 사용하며, 부를 때에는 ‘시숙님’과 ‘아재’를 각각 사용한다. 보길도, 노화도, 고금도 등에서는 호칭으로서 ‘아잡씨’가 쓰여 신안의 장산, 하의, 흑산도 그리고 진도의 조도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것인데, 신의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원래는 친족 관계에만 썼던 이 말을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넓혀 사용한 것이다. 섬처럼 좁은 지역 안에서 폐쇄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친족이 아니더라도 친족과 같은 유대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집단의 성격이 친족명을 확대 사용하게 만든 이유로 보인다. 육지에서 ‘아재’의 경우 원래 당숙을 가리켰던 이 말을 동네 남자 어른을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로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친족어 확대의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육지에서는 ‘시숙’을 결코 친척이 아닌 관계에 사용하지는 않으므로 이 점에서 신의와 하의의 ‘시숙’에 대한 사용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여자들의 호칭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호칭 가운데 친족이 아닌 관계에까지 친족어를 넓혀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애초 가까운 친족 관계를 나타내던 말이 먼 친족 관계에까지 확대되어 사용되는 말도 있다. ‘오촌’이란 말을 오촌 이상의 관계에까지 사용하는 것이 그런 예일 것이다. 즉 7촌, 9촌뿐만 아니라 아주 먼 친족의 당숙을 가리켜 ‘오촌 당숙’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렬을 엄격히 따져 부르지 않고 가까운 관계의 친족어를 사용함으로써 가깝게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오촌’의 이러한 확대 사용법은 신의와 하의 두 지역에서 모두 확인되는 것들이다.

결국 ‘친족어 → 비친족 관계’와 ‘가까운 친족어 → 먼 친족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모두 친족어를 엄격히 따지지 않고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가까움 또는 가깝게 느끼기 위해 확대 사용한 결과인데, 이러한 친족어의 확대 사용이 좁은 지역의 섬 지방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12)</sup>

숙모는 작은어머니를 가리키는 말로서 신의와 하의에서 모두 사용하는 말이다. 특히 가까운 당숙모를 가리켜 ‘숙모’라 하며, 신의에서는 숙향 향렬의 육촌이나 칠촌처럼 먼 관계에게는 ‘아짐/아짐씨’라는 말을 쓴다. 따라서 ‘숙모’와 ‘아짐’은 가까움의 정도에 따라 달리 쓰이는 셈이다.

한편 ‘숙모’와 ‘아짐’이 동네의 여자 어른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때에 ‘숙모’는 ‘아짐’에 비해 높이는 말맛이 있는 점이 다르다. 제보자에 따라서 일가 간에는 ‘숙모’, 타성바지에게는 ‘아짐’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 7) 시동생과 동서

신의 지역에서 시동생을 가리킬 때 ‘씨아재’라 하며, 부를 때는 ‘아저씨’ 또는 ‘아자씨’라

한다. 그래서 “느그 씨아재 어딴냐?”라고 지칭하거나, “아저씨 이리 오씨요.”처럼 호칭으로 쓰이는 것이다. 이웃한 하의에서 시동생의 지칭을 ‘씨아재’ 또는 ‘씨아재비’, 호칭을 ‘아잡씨’ 또는 ‘아자씨’라 하는 것과는 대조된다.<sup>13)</sup>

신의의 호칭 ‘아저씨’는 하의의 호칭 ‘아잡씨’로부터 변화한 것이다. 즉 ‘아잡씨 > 아자씨 > 아저씨’와 같은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변화가 육지의 방언형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하나씨’와 명령의 어미 ‘-으씨요’ 등이 이런 경우이다(‘하납씨 > 하나씨’, ‘-읍씨요 > -으씨요’ 등). ‘하나씨’와 ‘-으씨요’는 육지에서 널리 일어난 변화이다. 그렇다면 ‘아잡씨 > 아자씨’에서 보이는 /ㅂ/ 탈락은 섬보다는 육지에서 활발히 일어난 음변화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신의에서 보인다면, 신의는 하의에 비해 육지와 더 비슷한 언어적 성격을 보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1. 시동생의 지칭어 및 호칭어

|    | 육지, 장산 | 신의      | 하의       |
|----|--------|---------|----------|
| 지칭 | 씨아재    | 씨아재     | 씨아재비/씨아재 |
| 호칭 | 아재     | 아자씨/아저씨 | 아잡씨/아자씨  |

지칭은 하의가 ‘씨아재비’와 ‘씨아재’를 혼용하고 신의는 ‘씨아재’를 사용한다. ‘앗-아비’는 ‘아자비 > 아재비 > 아재이 > 아재’처럼 모음 사이의 /ㅂ/ 탈락을 거쳐 ‘아재’로 발달한다. 비슷한 변화가 ‘할아버지’의 방언형 ‘하네’에서도 찾아진다(‘하나비 > 하내비 > 하내’<sup>14)</sup>).

12) 진도에서도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를 부를 때에는 흔히 ‘아버지’라고 한다는 지적을 진도 지산면의 제보자에게서 확인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작은어머니나 큰어머니를 그냥 ‘어머니’라 호칭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좀 더 가깝게 부르기 위함이다.

13) 완도에서 시동생의 호칭은 ‘아재’인데, 이 점에서 ‘아저씨’나 ‘아잡씨’를 쓰는 신안의 신의도나 하의도와 차이를 보인다. 전남의 육지에서도 ‘아재’ 형임을 감안하면, 완도는 신안에 비해 육지와 비슷하나, 신안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4) ‘하납씨’ 형이 서남해 섬 지역에서 사용되는 반면, ‘하네’ 형은 전남의 육지 지역에서 쓰이는데, 이러한 지리적 분포 상황은 ‘아잡씨’와 ‘아재’의 분포 상황과 같다. 다시 말하면, ‘아잡씨’는 서남해 섬 지역의 전형적인 방언형이라면, ‘아재’는 전남의 육지의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하네’는 완도의 약산도에서도 확인된다.

신의와 하의는 지칭의 경우 ‘아재비’ 계열의 방언형을 쓰는 반면, 호칭으로는 ‘아잡씨’ 계열의 방언형을 쓰고 있다. 이것은 기원적으로 ‘아비’와 ‘압씨’로 환원되는바, ‘아비’ 계열은 지칭, ‘압씨’ 계열은 호칭으로 쓰는 셈이다. 이처럼 지칭과 호칭을 ‘아비’와 ‘압씨’로 구별하는 것은 두 섬이 같지만, 하의는 원래의 형을 유지하는 반면, 신의에서는 /ㅂ/ 탈락이 일어나 형태적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 /ㅂ/ 탈락이 육지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난 음변화였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육지와 신안의 장산도에서 지칭과 호칭에 모두 ‘아재’ 형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아자비’의 /ㅂ/이 탈락한 것으로서 신의나 하의처럼 ‘압씨’ 계열의 낱말이 사용되지 않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신의는 ‘아비’와 ‘압씨’에 의해 지칭과 호칭을 구별하는 점에서는 하의와 같으나, /ㅂ/ 탈락을 겪었다는 점에서는 육지 또는 장산과 같다. 이러한 신의의 중간적 성격은 신의가 장산과 하의 사이에 존재한다는 지리적 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 8) 시누이

시누이의 경우 손위와 손아래에 따라 다르다. 손위 시누이의 경우 ‘씨누’라 하고, 호칭은 ‘정님’이라 한다. 반면 손아래 시누이의 경우 지칭은 ‘씨동숭’이며, 호칭은 ‘동숭’이다.<sup>15)</sup> 육지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시누이를 ‘애기씨’라 하지만 신의에서는 이런 지칭이나 호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씨동숭’은 그 음만을 따져 중양어로 바꾼다면 ‘시동생’이 될 텐데, 신의의 ‘씨동숭’과 중양어 ‘시동생’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인다. ‘씨동숭’이 손아래 시누이를 가리킨다면, 중양어 ‘시동생’은 남편의 남자 동생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의에서 시동생은 ‘씨아재’이므로, ‘씨동숭’이 시누이를 가리킬 수 있는 것이다.

시누이의 남편은 ‘씨누 남편’ 또는 ‘아저씨’라 하며, 시동생 남편 역시 ‘아저씨’라 한다. ‘아저씨’와 ‘아자씨’를 혼용하고 있으나, 신의에서는 ‘아저씨’를 더 많이 사용한다.

15) 완도의 소안도나 약산도에서 손아래 시누이의 호칭은 ‘동숭’ 또는 ‘동숭매’이다. 그리고 완도 고금도에서는 ‘동숭애기’와 같은 호칭도 쓰인다.

## 9) 처형과 처남

처형과 처남은 신의에서도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처형’, ‘처남’을 쓴다. 처남의 부인은 ‘처나무댁’이라 하며, “\*처아짐씨”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처나무댁’은 전남의 육지에서도 사용되는 어형이다.

## 10) 외삼촌

외삼촌은 지칭과 호칭 모두 ‘외삼촌’이라 하며, “\*외아자씨/\*외아재”라고는 하지 않는다.

## 11) ‘아재’와 ‘아저씨’

신의와 하의에서 모두 ‘아재’라는 말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신의와 하의에서 이 말을 여자들이 사용할 때는, 자신의 남편보다 손아래 남자에게 주로 쓰는데, 아이의 이름과 결합하여 ‘아무개네 아재’라고 한다. 이와 대립적으로 자신의 남편보다 손위의 남자에게는 신의의 경우 ‘아저씨’ 또는 ‘아자씨’, 하의에서는 ‘아잡씨’라는 말을 사용한다.

‘아재’를 남자들이 사용할 경우, 하의도의 오림리 정복기 할아버지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같은 씨족으로서 항렬은 화자보다 높으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지칭하거나 호칭할 때 ‘아재’라는 말을 쓴다고 한다. 반면 신의에서는 나이는 어리지만 항렬이 높으면 ‘숙’이라 하며 ‘아재’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남자들이 동네의 손아랫사람을 가리킬 때에도 ‘아이의 이름 + 아재’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개 남씨’라 한다고 하여 하의와 차이를 보여 준다.

한편 신의 하태에서는 숙항 정도의 친척 또는 동네 어른에게 ‘아재’ 또는 ‘아저씨’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하여, 전남의 육지 지역과 유사한 용법을 보여 주었다. ‘아재’ 대신 ‘오춘’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오춘’이나 이의 높임말 ‘오춘님’은 ‘아재’나 ‘아저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존대하는 느낌이 있다고 한다.

### 3. 택호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는 결혼한 성인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예의였다. 그래서 발달한 것이 택호(宅號)이다. 이것은 남자의 경우 처가 동네의 이름 그리고 여자는 친정 동네의 이름을 따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부르는 방식인데, ‘수원’에서 시집온 여자를 ‘수원댁’이라 부르는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친정 지명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들의 친정 지명이 다르므로 이들을 구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전남 지역도 이러한 택호를 이용하여 성인의 남녀를 부르는데, 남자는 ‘양반’, 여자는 ‘떡’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그래서 만약 그 여자가 담양에서 시집온 사람이라면 ‘담양떡’이 될 것이고, 그 남편은 ‘담양양반’이라 불린다. 접미사 ‘-떡’은 宅을 뜻하는 말 ‘덕’에 사이시옷이 결합한 말이니, ‘담양떡’은 ‘담양의 댁’이라는 뜻일 것이다.

이처럼 여자의 친정 지명을 이용한 택호 외에 아이의 이름을 이용하는 호칭 방식도 있다. 예를 들어 그 여자의 첫 아이 이름이 ‘갓난이’라면 ‘갓난이네’라 부르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남 지역에서 주로 천민처럼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택호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계층을 구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전남의 서남해 섬 지역은 육지에서 사용되었던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독특한 택호의 방식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하면 아이의 이름과 여자의 친정 지명을 모두 이용하는 방식인 것이다.

우선 섬 지역에서는 아기를 낳을 경우, 정식 이름을 짓기 전에 이른바 속명으로 부르는 전통이 있다. 그런데 이 속명은 아기의 성별과 아기를 낳은 어머니의 친정 이름을 결합하여 만든다. 아기가 아들이면 진도, 신안 등지의 섬에서는 접미사 ‘-수’를 결합시키며, 딸인 경우에는 진도의 경우 ‘-단’, 신안의 경우 ‘-니’를 붙인다. 그래서 ‘하태’에서 시집온 여자가 낳은 아들은 ‘하태수’라 불리게 되며, 딸은 ‘하태단’(진도), ‘하태니’(신안)처럼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첫 아이의 속명이 정해지면, 그 어머니의 택호는 여기에 접미사 ‘-네’를 결합하여

정해진다. 아이가 아들이면, ‘하태수네’가 될 것이고, 딸이면 ‘하태단네’ 또는 ‘하태니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안 신의에서는 ‘모롱지수네’, ‘기동수네’, ‘상탯니네’ 등과 같

표2. 아이 이름에 붙는 접미사

|    | 진도, 조도 | 신안(하의, 신의) |
|----|--------|------------|
| 아들 | - 수    |            |
| 딸  | -단     | -스니        |



은 택호가 흔히 쓰이고 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서 시집온 경우는 어떠한가? 예를 들어 하의도 대리에서 대리로 시집온 여자를 ‘대리수네’라고 부를 것인가? 이런 경우 하의에서는 ‘본토수네’라 하고, 신의에서는 ‘한물수네’라 부른다. ‘한물’은 ‘한 마을’의 방언형으로서 같은 마을에서 시집온 여자라는 뜻이다.<sup>16)</sup>

이제 갓 시집와서 아직 아이가 없는 여자의 택호는 어떠할까? 이런 경우는 남자 아이를 가리키는 접미사 ‘-수’가 무표적으로 붙는다. 그래서 ‘모룡지’에서 시집온 여자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모룡지수네’라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사정은 신안의 신의나 하의 두 곳에서 공통적이다.

## 4. 물고기의 크기에 따른 구분

전반적으로 신의면 상태의 경우 바다에 관한 지식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상태는 하태에 비해 바다와 관련된 산업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하태는 어장을 하는 등 바다 일을 하는 수가 많아서 바다 관련 어휘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지식을 보여 주었다.

### 1) 숭어

**a. 참숭에/개:숭에(씨렁이)** : 참숭어와 개숭어를 구별한다. 개숭어는 ‘씨렁이’라고도 부른다. 개숭어는 머리가 크고, 색깔이 검으며, 맛이 없어 제사상에 놓지 않는다. 접두사 ‘참’과 ‘개’는 우리말에서 흔히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때 붙인다. 예를 들어 ‘참꽃’과 ‘개꽃’이 그것이다. 신안의 하의도와 조도에서도 ‘참숭에’와 ‘개숭에’를 구별하였는데, 이 점을 보면, 신안과 진도 지역에서 숭어를 ‘참’과 ‘개’의 접두사를 붙여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의도에서도 ‘개숭에’를 신의와 마찬가지로 ‘씨렁이’라 불렀

---

16) 전남 광양에서는 ‘제동때기’라 하는데 이것은 재귀대명사 ‘제’에 한자어 洞이 결합한 것이다.

다. 따라서 참송어와 개송어의 구별, 개송어를 ‘씨랭이’로 부르는 점에서는 신의와 하의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b. 송어는 크기에 따라 이름이 다양하다.

쌀모치(15센티 정도) - 보릿모(20센티 정도) - 모치(25-30센티 정도) - 외손재비(송어 동생)<sup>17)</sup> - 누렁모 - 무겔모 - 송에

일반적으로 송어는 크기에 따라 새끼와 다 큰 것 등의 두 종류를 구별하여 이름을 달리 부른다. 진도의 조도에서는 새끼를 ‘모치’ 또는 ‘모텡이’라 하고, 다 큰 것을 ‘송에’라 한다(왕한석 2010:68). 신안의 하의에서도 ‘모치’와 ‘송에’의 두 가지를 구별하였다. 신의의 경우, 어장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의와 마찬가지로 ‘모치’와 ‘송에’의 두 가지만을 구별하였으나, 하태에서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가지를 구별하였다.<sup>18)</sup> 위의 7가지의 이름 가운데 ‘외손재비’와 ‘송에’를 제외하고는 모두 ‘모’라는 형태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모’가 다 사라지 않은 송어를 가리키는 말로 보인다.

다른 물고기와 달리 송어에서는 왜 이와 같이 크기에 따른 다양한 이름이 발달했을까? 아마도 송어가 가장 흔하게 잡히고,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이며, 섬 지역 사람들이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 2) 농어

### 꼰떡/꼰치막 - 보꼰떡 - 농에

농어는 크기에 따라 ‘꼰떡’, 보꼰떡, ‘농에’의 세 가지가 구별된다. 진도 조도에서는 ‘꼰따구’와 ‘농어’, 신안 하의에서는 ‘꼰떡’과 ‘농어’의 두 가지가 구별되었었다. 조도의 ‘꼰따구’와

17) ‘외손재비’는 아마도 한 손으로 들 만한 크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18) 하태의 제보자는 목포에서 ‘모치’ 대신 ‘모당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신안의 신의/하의의 ‘결떡’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것이며, 조도 어형의 ‘갈따구’는 ‘결떡’과 달리 모음이 양성모음이며, 접미사 ‘-아구’가 결합한 점에 차이가 있다.

신의에서 흥미로운 것은 크기에 따른 세 가지의 구별과 함께 ‘결떡’을 ‘갈치막’이라고도 한다는 사실이다. ‘결떡’이라는 명칭이 신안을 비롯한 섬 지역의 공통된 것인데, 여기에 덧붙여 ‘갈치막’이라는 이름이 발달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다.

신의에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전’씨의 5대 조부 가운데 이가 두 줄로 난 분이 계셨다. 그런데 신안 안좌면에도 마찬가지로 이가 두 줄로 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5대 조보다 나이가 많았다. 이가 두 줄로 난 것은 농어의 이빨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가 돌아난 사람을 ‘농어’로 부르게 된다. 그런데 안좌와 신의의 두 사람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을 ‘농어’, 적은 사람은 ‘결떡’이라고 부르게 되니, 이 5대조의 별명이 ‘전결떡’이 되게 되었다. ‘전결떡’이라는 별명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 ‘결떡’ 대신 새로운 이름 ‘갈치막’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다. 이후에 ‘갈치막’은 ‘전갈치막’이라는 별명뿐 아니라 농어의 새끼를 가리키는 새로운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 3) 민어

#### 통치/민어새끼 – 민어

민어 새끼에 대해 상태의 제보자들은 단순히 ‘민어 새끼’라고 할 뿐 다른 이름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으나, 하태의 제보자는 ‘통치’라는 명칭을 알고 있었다. 이 명칭은 신안 하의와 진도 조도에서도 함께 쓰이는 명칭이다. 진도 조도에서는 ‘민어’보다 큰 것을 ‘민둥이’라 하였으나, 신의에서는 그러한 명칭을 알지 못하였다.

### 4) 조기

#### 조구새끼 – 조구

조기의 새끼에 대해서는 상태와 하태 모두 특별한 이름이 없다고 하였다. 하태의 제보자는 특히 조기 새끼는 어부들까지도 새끼를 어디에서 어떻게 낚는지 모른다고 하여, 조기의 새끼를 보는 일이 매우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이런 터에 조기 새끼에 대한 이름이

있을 리 만무하다는 뜻이었다. 결국 자주 보고, 자주 접하는 사물에는 명칭의 분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칭의 분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진도 조도에서는 크기가 작은 조기를 ‘깡치’ 또는 ‘잔 조구’라 하였다. ‘깡치’와 유사한 형태의 ‘깡다리’가 신의에서도 확인되나, 이것은 조기와 종류가 다른 ‘황석어’를 가리키는 말로서, 신안을 비롯한 서남해안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다.

## 5) 갈치

### 풀갈치 - 갈치

갈치 가운데 작은 것은 풀갈치, 큰 것은 갈치라 한다. 진도 조도에서는 ‘풀갈치’에 대해 ‘풀치’라는 말을 사용한다.

## 6) 멸치

### a. 멜 - 통멜

멸치에 대한 신의의 명칭은 ‘멜’이다. 이 ‘멜’은 기본적인 멸치를 가리키며, 이보다 크기가 큰 멸치는 ‘통멜’이라 부른다. ‘통’은 둥글고 긴 동강으로서 속이 빈 물건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나뉘지 않은 전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기본적인 것이 무표이고, 이보다 작은 것에 지소접사 등 일정한 표지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숭에’는 무표형으로서 제일 큰 것을 가리키고, 이보다 작은 여러 종류에 각각 다른 이름이나 접미사들이 결합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민어의 경우도 큰 것을 ‘민어’, 작은 것을 ‘통치’라 하여, 별도의 이름이 쓰인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멜’과 ‘통멜’의 대립에서 무표형인 ‘멜’이 작은 것을 가리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멸치가 본질적으로 크기가 작은 물고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민어의 새끼인 ‘통치’와 큰 멸치인 ‘통멜’의 ‘통’의 지시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통치’의 ‘통’은 작은 것을 가리킨다면, ‘통멜’의 ‘통’은 큰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 b. 멜(생것, 굵은 것, 작은 것.) – 멜치/이르꼬(마른 것)

신의에서 멸치와 관련된 또 다른 대립은 ‘멜’과 ‘멜치’이다. ‘멜’이 생 멸치를 가리킨다면 마른 것은 ‘멜치’ 또는 일본말 ‘이르꼬’라고 한다. 아마도 ‘멜치’는 중앙어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육지에서 멸치는 대체로 마른 것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이 어형을 유입한 신의에서도 마른 멸치를 가리켜 ‘멜치’라 부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멜치’ 이전에는 일본말 ‘이르꼬’가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7) 낙지

### 갈낙지(작은 낙지) – 낙지

낙지 새끼를 가리키는 말로서 단순히 ‘작은 낙지’라고도 하고, 때로는 ‘갈낙지’라고도 한다. 무안 등지에서 ‘세발낙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갈낙지’이다.

표3. 크기에 따른 어휘 분화

| 小                            | 무표형 | 大  |
|------------------------------|-----|----|
| 쌀모치, 보릿모, 모치, 외손재비, 누렁모, 무걸모 | 송어  |    |
| 겉떡/갈치떡, 보겉떡                  | 농어  |    |
| 통치                           | 민어  |    |
| 조구새끼                         | 조구  |    |
| 풀갈치                          | 갈치  |    |
| 갈낙지                          | 낙지  |    |
|                              | 멜   | 통멜 |

## 5. 기타 해산물의 종류

### 1) 게

게는 신의에서 ‘가.’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가 있다.

- \* 화랑기 : 개펄에서 산다. 크기는 작고 까맣다.
- \* 꽃기 : 밭 하나가 길다.
- \* 수둥기/수통기 : 여름에 난다. 숫컷의 발은 두 개가 크고, 암컷은 발이 작다. 등은 매끈하며, 살과 발이 하얗다.
- \* 빨떡기 : 신의에서는 나지 않는다. 크기는 잘다.
- \* 살기[살끼] : 크고 노랑거나 빨간 색을 띤다. 맛이 있다.
- \* 풀기 : 옛날에 많았다. 논이나 풀 등 땅에 산다.
- \* 툇짱기 : 돌 밑에 산다. 크기는 작다.
- \* 빨떡기 : 돌 밑에 산다. 크기는 꽤 크다.

## 2) 고동

- \* 또아리/또가리 고동 : 튀리처럼 생겼다. 얇다.
- \* 미영씨 고동 : 눈동자처럼 둥글게 덮혀 있다.
- \* 세:고동 : 껍질이 얇다. 껍질이 둥글둥글하다.
- \* 낙지고동
- \* 비:트리/뽀트리:고동 : 맵다.
- \* 떡고동

## 3) 굴

- \* 굴(잔 것). 석화(큰 것)
- \* 굴껍딱 : 굴 껍질.
- \* 저께비발 : 굴 껍질을 쌓아 둔 곳.

## 4) 새우

- \* 쪽새비 : 빨강고 작은 새우
- \* 대와새비 : 대하(大蝦)를 가리킨다.

## 6. 물고기의 부분 명칭

### 1) 지느러미

표준어에서 ‘지느러미’는 물고기의 등, 배, 가슴, 꼬리 등에 붙어 있어, 헤엄칠 때 균형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진도 조도에서는 가슴의 지느러미를 ‘날개’ 또는 ‘날개죽지’라 하였고, 등의 지느러미는 ‘등까시’ 또는 ‘등상몰래이’라 하였다. 한편 배에 붙어 있는 것은 ‘전(前)날개’, 꼬리 쪽에 붙어 있는 것은 그냥 ‘날개’라 하였다(왕한석 2010:66). 대체로 가슴, 배, 꼬리의 지느러미는 ‘날개’ 계통의 말을 사용하며, 등에 있는 것은 ‘날개’와는 무관한 ‘등까시’나 ‘등상몰래이’를 사용하였다.

신의에서는 가슴의 경우 ‘날각지’ 또는 ‘나락지’라고 하였으며, 등이나 배에 있는 것은 ‘까시’라 하였다. ‘날각지/나락지’는 모두 ‘날개’ 계통의 말이다. ‘날각지’는 ‘날개’에 접미사 ‘-악지’가 붙은 것이며, ‘나락지’는 ‘날각지’에서 /ㄱ/이 탈락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느러미를 위치에 따라 ‘날개’ 계통의 말과 ‘가시’ 계통의 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진도의 조도와 같다. 다만 배에 난 지느러미를 조도에서 ‘전날개’라 하고, 신의에서 ‘까시’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표4. ‘지느러미’의 명칭

| 부위 | 진도 조도      | 신안 신의     |
|----|------------|-----------|
| 등  | 등까시, 등상몰래이 | 까시 (등날개?) |
| 가슴 | 날개(죽지)     | 날각지/나락지   |
| 배  | 전 날개       | 까시        |
| 꼬리 | 날개         | ?         |

### 2) 아가미

아가미는 진도 조도에서 ‘구슴치’ 또는 ‘알감치’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반면 신의에서는



‘구섬치’라 하기도 하고, 표준말의 유입형인 ‘아가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대체로 조도와 신의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3) 기타

그밖에 물고기의 부위에 따른 이름으로서 ‘꼬리’를 ‘꼴리’라 하며, ‘창자’는 ‘창자’, ‘창시’, ‘창사구’ 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진도의 조도에서는 ‘꼬리’에 대해 ‘꼴랑지’, ‘창자’에 대해 ‘창사구’나 ‘창시’형을 사용하였다. 창자에 대해서는 두 지역이 모두 같은 어형을 보였지만, 꼬리에 대해서는 ‘꼴리’와 ‘꼴랑지’의 어형이 대립하여 차이를 보인다.

## 7. 바닷가 지형

섬 지형의 특성상 육지에서 바다로 향하는 지리적 환경에 대한 다양한 어휘가 발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바닷가 지형에 대해 신의에서 사용되는 어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갯변

‘갯변’은 ‘바다’ 또는 ‘바다와 개펄을 포함한 지역’을 가리킨다. 그래서 ‘갯변에 간다’라고 하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거나 굴을 따는 일 등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 2) 짹지

‘짹지’는 바닷가의 자갈 있는 곳을 말한다. 짹지는 바닷물이 빠져도 자갈이 드러나는 곳, 신의 지역 말로는 ‘짜갈짜갈한’ 곳을 말한다. ‘짜갈짜갈하다’의 어근 ‘짜갈’은 ‘ 짹’과 접미사 ‘-알’로 분석되는바, 이 ‘짹’은 ‘자갈’에 포함된 ‘작’과 같은 어원일 가능성이 크다.

### 3) 모래장불

‘모래장불’은 모래가 넓게 있는 곳을 가리킨다.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처럼 그렇게 모래가 넓게 퍼져 있는 곳을 가리키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신의에는 모래장불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황성금리에 있는 모래사장은 ‘모래기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여기서 ‘기미’는 움푹 들어간 곳을 가리키는 접미사 ‘-구미’의 변이형이다.

### 4) 빨땅, 빨바닥

개펄을 ‘빨’이라 하고 개펄로 이루어진 곳을 ‘빨땅’ 또는 ‘빨바닥’이라 한다. ‘빨바닥’의 ‘바닥’은 ‘바다’의 뜻이니, 개펄로 이루어진 바다라는 뜻일 것이다.

### 5) 빨각단

개펄이 시작되는 지점 즉 개펄과 모래 땅 또는 짚지와 의 경계 지역을 가리킨다.

### 6) 물각단[물각단]

‘물각단’은 흔히 ‘물각단’으로 발음되는데, 바닷물이 빠져 나갈 때의 끝 지점(신의에서는 ‘가새탕’이라 한다.) 즉 경계 지점을 가리킨다.

### 7) 바당/바닥

‘바다’를 신의에서는 ‘바닥’ 또는 ‘바당’이라 한다. 그래서 개펄로 이루어진 바다는 ‘빨바닥’, 자갈이 있는 바다는 ‘자갈바닥’, 모래가 있는 바다는 ‘모래바닥’이라 한다.

### 8) 텐둥/텐두막

개펄 중에 땅이 단단하고 물이 빠지면 좀 높게 솟아 있는 곳을 ‘텐둥’이라 하며, 장산에

서는 ‘텐두막’이라 한다. 아마도 형용사 ‘되다’를 포함한 ‘된둥’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 9) 진참

개펄 가운데 물이 질퍽한 곳은 ‘진참’이라 부른다. 이 ‘진참’은 ‘텐둥’과 대조되는 지형이며, 이런 지형에는 다양한 게가 살 수 있다. 아마도 형용사 ‘질다’를 포함한 말로 보인다.

## 10) 개웅

개펄 안에도 내처럼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을 ‘개웅’이라 한다. 이 ‘개웅’은 바닷물이 빠져 나가더라도 물이 흐르는 곳이기도 하다.

# 8. 배의 종류 및 선원의 구분

기계배가 나오기 전 돛을 이용해 바람을 에너지로 삼는 배에는 ‘목선’과 ‘한선’이 구별된다. ‘목선’은 돛대를 뒤로 갖혀서 세운 것이고, ‘한:선’은 돛대를 똑바로 세우되, 둘 또는 세 개의 돛대를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배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업무에 따라 이름이 다른데, 대체로 ‘선장’과 ‘뱃동무’를 구별한다. 여기서 ‘뱃동무’는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뱃사람 즉 선원을 가리킨다. 뱃동무 가운데 부엌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화장’, 뱃동무 가운데 제일 연장자는 ‘영:자’라 한다. 선장과 선원들의 명칭을 조도와 비교하면 표5와 같다.

표5. 선장과 선원들의 명칭

|             | 조도  | 신의  |
|-------------|-----|-----|
| 선장          | 사궁  | 선장  |
| 선원          | 동사  | 뱃동무 |
| 부엌일 하는 선원   | 화장  | 화장  |
| 제일 나이 많은 선원 | 영자임 | 영자  |

## 9. 물때

신의의 상태에서는 물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상태 사람들이 알 만한 물때에 관한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예) 상태 사람들의 물때 어휘

- \* 쓰다/들다
- \* 사리
- \* 참바지 되었다(물이 완전히 들어올 때)
- \* 간조
- \* 가셋물(반 정도 쓴 물. (참고)조도에서는 물이 제일 많이 쓴 때를 ‘가셋물’이라 하고, 반쯤 쓴 물은 ‘중물’이라 한다.)),
- \* 물때는 아홉물까지 있다.(실제로는 ‘열물까지 있다.)

반면 하태에서는 비교적 상세한 물때를 구분하였다. 하태에서 사용하는 물때에 관한 표현은 아래와 같다.

- \* 한물, 두물--열물, 게끼, 소게끼, 조금(물이 죽을 때). 스무살 조금, 초 야드레 조금.
- \* 야드레 조금, 야흐레 무수, 열흘 한 물.
- \* 스무살 조금, 스무 나흘 무수, 스물 닷새 한물.
- \* 무수때는 가고 오지도 않는다. 물세 없을 때, 물심 없을 때 조기 잡으러 나간다.
- \* 살다/죽다  
산짐. 인자부터 산짐이라고. 물발이 싸다고. 야답물까지 최고로 살아.  
그 다음부터 죽어지고. 게끼때 물이 죽고. 조금 때 물이 가지도 않고.
- \* 악살/신:살 : 물이 많이 쓰고 많이 들고. 간만의 차가 가장 큰 사리로서 물의 힘이 가장 세다. ‘신살’은 ‘센 사리’에서 온 말이다.
- \* 죽살 :작게 쓰고 작게 들고. 간만의 차가 가장 작은 사리로서 물의 힘이 가장 약하

다. ‘죽살’은 아마도 ‘작은 사리’에서 온 말로 추정된다.

\* 길조금 : 간만의 차가 가장 큰 조금.

\* 밖조금 : 간만의 차가 가장 작은 조금.

## 10. 바람

풍향에 따른 바람의 명칭은 진도의 조도와 완전히 일치한다.

\* 동풍 : 섯바람(섯바람은 비 장만한다.)

\* 남풍 : 마파람(마파람은 여름에 좋다. 섯바람이나 마파람 불면 비가 온다.)

\* 서풍 : 늦바람

\* 북풍 : 하누바람(겨울에는 하누바람이 맥을 쓴다. 오던 비도 하누바람이 불면 안 온다.)

\* 북동풍 : 눅새(추운 바람. 동과 서쪽에서 분다. 겨울에 불면 춥고 여름에 불면 비 온다. 겨울에 제일 가장 센 바람)

\* 동남풍 : 섯마(섯마는 비가 몰아 들어온다. 여름에 많이 분다.)

\* 남서풍 : 늦마(늦마는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바람인데 비는 안 온다. 바람은 세다.)

\* 북서풍 : 늦하누

\* 북북동풍 : 눅하누

## 11. 특이한 어휘

\* -게 : 예사낫춤의 명령형 어미인 ‘-게’가 완도, 진도, 신안 일대에서 쓰이는데, 신의에 서도 확인된다. 육지에서는 ‘-게’ 대신 ‘-소’가 쓰여 대립을 보인다. 예를 들어 ‘갖고 오 소’와 ‘갖고 오게’의 대립이 그것이다. 중앙어의 경우 역사적으로 16세기 경부터 ‘-소’가 나타나 쓰이다가 18세기 이후 ‘-게’로 대체되는 변화를 겪었는데, 전남의 육지는 아직도 선대형 ‘-소’를 고집하고 있는 반면, 서남해 섬지역에서는 후대형 ‘-게’가 쓰이는 것이 특이하다.

- \* 그삼네 : 이웃집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 사람네’에서 줄어든 말이다.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져 쓰이기 때문에 3인칭 대명사와 유사한 용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 나문 디 : 다른 데. ‘나문’은 ‘다른’의 뜻으로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로만 쓰인다. 신의 뿐 아니라 해남, 영암 등 전남의 서남해 연안 지역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다.
- \* 늦결 : 과도. 예를 들어 ‘늦결이 까라지다’는 ‘바다가 조용하다’의 뜻이다. ‘늦결’의 ‘결’은 ‘물결’의 ‘결’과 같은 것이다.
- \* 대 : 중세어 ‘다히’에서 온 말로서 ‘쪽’과 같은 뜻이다. 신의에서는 ‘육지대가 참 좋더라’(=육지 쪽이 참 좋더라)처럼 쓰인다. 그러나 ‘\*우리 부락대에서는’ ‘\*남대로 간다’와 같은 예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 \* 못이 : 만이
- \* 소랍다 : 수월하다. 전남의 육지에서는 ‘술:허다’라고 한다. ‘술허다’와 ‘소랍다’를 비교하면 접미사 ‘-허-’와 ‘-랍-’의 분화임을 알 수 있다.
- \* -습디까? : 중앙어 ‘-습디까’에 대응하는 말로서 ‘-까’가 아닌 ‘-까’로 쓰이는 것이 특이하다. 예를 들어 ‘한기도 있습디까?’처럼 쓰인다. 이 ‘-까’는 진도에서 ‘-짜’로도 구개음화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신의에서는 언제나 ‘-까’로 실현된다. ‘-습디까’는 일반적인 물음 외에 확인물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한기도 있습디까?’는 ‘한기’(계의 일종)가 있다는 사실을 말할이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를 강조하거나 상대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묻고 있는 것이다.
- \* 여우다 : 전남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말은 중앙어 ‘여의다’에 대응하는 말로서 ‘결 혼시키다’의 뜻을 갖는다. 그런데 신의의 경우 이 뜻 외에 ‘소개하다’의 뜻을 갖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이 딴 굴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여 팔게 할 때 이 말이 사용되고 있었다.
- \* 옷가십 : ‘옷감’을 뜻하는 이 말은 하의에서도 확인했던 낱말이다. 중세어 ‘ᄃᆞᆫ’에 대응하는 말로서 /ㅅ/이 탈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어 고형을 보여 주는 예이다.
- \* 휘:다 : ‘(해엄을) 헤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중앙어의 경우 ‘헤다’는 ‘치다’로 거의 대체되어 ‘(해엄을) 헤다’ 대신 ‘(해엄을) 치다’로 쓰이는 수가 일반적이는데, 신의에서는 현재도 ‘(해엄을) 휘다’라고 한다.

## 12. 방언의 활용 방안

지금까지 신의도 방언을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때 어떤 점을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그 결과, 신의도 방언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는 신의도의 고유한 문화를 반영하는 방언으로서 친족어와 택호 체계를 살펴보았다. 둘째는 신의도 방언은 바다와 관련된 어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물고기의 새끼와 다 자란 것의 구별, 바닷가의 여러 지형들, 배와 선원의 명칭, 물때 및 바람을 세분하는 명칭 등이 언급되었다.

제주도를 여행할 때마다 관광 안내인들이 흔히 독특한 제주도 말 몇 가지를 설명해 주면서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던 것을 경험하곤 하는데, 신의도에서도 신의도를 찾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에 위에서 언급한 방언들을 소개하면서, 신의도의 독특함을 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의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설명하는 말 자체를 신의도 방언으로 대체한다면, 외지인들은 단순히 낱말 몇 개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신의도 말의 독특한 억양이나 표현법까지 알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염전에서 소금 제조, 김이나 톳의 양식 방법 등과 같은 신의도 고유의 삶의 모습을 표준말이 섞이지 않은 신의도 방언으로 풀어 설명하는 것들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웅배, 1983, 암태도의 방언 어휘, 도서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김웅배, 1984, 진도 조도의 방언 어휘, 도서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김웅배, 1985, 하의 · 장산 방언의 어휘 자료, 도서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김웅배, 1987, 지도의 방언 어휘, 도서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김웅배, 1988, 흑산도의 방언 어휘, 도서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김웅배, 1991a, 보길도의 어휘 자료, 도서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김웅배, 1991b, 청산도의 어휘 자료, 도서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김웅배, 1992, 평일도의 어휘 자료, 도서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김웅배, 1993, 소안도의 어휘 자료, 도서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김웅배, 1994, 약산도의 어휘 자료, 도서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김웅배, 1995, 고금도의 어휘 자료, 도서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김웅배, 1997, 노화도의 어휘 자료, 도서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왕한석, 2010, 한국의 언어민속지 2-전라남북도 편, 서울대출판부.  
이기갑, 2011, 하의도의 방언문화, 발표유인물,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1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⑩

# 신의면편

---

## VIII 경제자원

고두갑

목포대 경제학과 교수

- 1. 조사 개요 276
- 2. 인구 277
- 3. 토지 278
- 4. 사업체 279
- 5. 농림 280
- 6. 산림 282
- 7. 수산물 283
- 8. 영업 290
- 9. 활용방안 298



## VIII 경제자원

### 1. 조사 개요

신의면 경제자원으로 인구, 토지, 사업체, 산림 수산업, 농림 등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자원조사를 위해 신의면을 2회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고, 통계 자료조사를 위해 신안군청 및 면사무소를 2회 정도 방문하였으며, 기초통계자료는 신안군 통계연보를 사용하였다. 신안군의 대부분의 지역이 전담 중심의 농업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신의면의 경우 염전에 산업이 특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염업을 농수산업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기술하여 경제자원의 활용방안과 연계하였다.

인구와 산업을 살펴볼 때 신의면도 여타의 도서지방과 마찬가지로 인구유입은 거의 없으며 고령부부 세대만이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향후 심각한 노동력부족에 직면하리라 예상된다.

농업생산량 및 소득현황을 살펴보면, 수도작 보다 전작의 소득이 월등히 높으며, 전작으로는 마늘, 양파, 고추, 참깨, 콩, 밀이 재배되고 있다. 전작의 소득액을 살펴보면, 양파의 소득액이 약 30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고추, 참깨의 순이다. 수산업의 경우 2011년도 소득액은 2,996,000원으로 총소득액 57,117,353원의 5%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지역임

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관련 소득은 농업소득 및 염전소득에 비하여 미비하다. 수산물목별 순위를 살펴보면 대하의 양식소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복 등이나 어업권자는 신의면의 어촌계이다. 어촌계는 크게 상태어촌계와 노은어촌계로 대별되며, 고평사어촌계, 기항금 자율관리영어조합 등이 있다. 신의면의 어장면허는 상태어촌계와 노은어촌계가 거의 모두를 소유하고 있으며, 생산물은 김, 전복, 다시마 대하 등이다. 염전현황을 살펴보면 하태서 147,584㎡, 하태동 1,205,249㎡, 상태서 1,463,456㎡, 상태동 2,648,631㎡가 있으며, 237개의 염전이 허가되어 있다. 신의면의 염전은 다른 지역의 염전에 비해 해주가 크고, 바닷물의 조류가 좋아 바닷물이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바닷물의 염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1ha당 소금생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생산된다.

신의면의 경우 여러 수산물 및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소금이 절대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수입원이다. 따라서 신의면의 경우 소금이 매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 및 염전을 이용한 지역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 2. 인구

### 1) 인구현황

신의면은 2009년 현재 808세대의 1,828명이 살고 있으며, 상하태도에 767세대 1,721명이다. 세대당 인구는 2.2명, 65세 이상의 고령자 428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고령화된 지역이다. 인구유입은 거의 없고 고령부부 세대만이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 세대  | 합계     |      |      | 한국인    |      |      | 외국인 |    |     |
|-----|--------|------|------|--------|------|------|-----|----|-----|
|     | 인구     |      |      | 인구     |      |      | 인구  |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808 | 1,828명 | 966명 | 862명 | 1,807명 | 962명 | 845명 | 21명 | 4명 | 17명 |

### 3. 토지

#### 1) 토지 지목별 현황

2009년도 토지 지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신안군의 여타지역과 비교하여, 전은 3,919,630  $m^2$ (신안군의 3.6%), 답은 2,791,098  $m^2$ (신안군의 2.6%), 염전은 5,381,305  $m^2$ (신안군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안군의 다른 지역이 전답 중심의 농업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신의면의 경우 염전에 산업이 특화되어 있으며, 전국 소금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 토지지목 | 면적( $m^2$ ) | 토지지목 | 면적( $m^2$ ) |
|------|-------------|------|-------------|
| 전    | 3,919,630   | 제방   | 130,348     |
| 답    | 2,791,098   | 구거   | 823,039     |
| 과수원  | —           | 유지   | 883,149     |
| 임야   | 17,598,918  | 양어장  | —           |
| 염전   | 5,381,305   | 수도용지 | 8,370       |
| 대지   | 343,002     | 공원   | —           |
| 공장용지 | 12,021      | 체육용지 | 1,849       |
| 학교용지 | 58,816      | 유원지  | —           |
| 주차장  | —           | 종교용지 | 4,422       |
| 창고용지 | 3,394       | 사적지  | —           |
| 도로   | 440,724     | 목장용지 | 3,631       |
| 하천   | 453         | 잡종지  | 705,273     |

## 4. 사업체

### 1) 사업체 현황

사업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283개의 사업체에 82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사업체가 광업이다. 여기서의 광업은 염전을 말하며, 신의면 경제의 중심이 소금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소매업은 13개 업체에 2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에는 12사업체에 2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제조업으로는 최근 소금가공 공장과 김 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

| 합계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 광업  |     | 제조업 |     |
|-----|-----|-----|-----|-------------|-----|-----|-----|-----|-----|
| 사업체 | 종사자 |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 계   | 남   | 여   |             |     |     |     |     |     |
| 283 | 829 | 575 | 254 | —           | —   | 216 | 622 | 6   | 35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사업 |     | 건설업 |     | 도매 및 소매업 |     |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1                | 3   | —                          | —   | —   | —   | 13       | 20  |

| 운수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업 |     | 금융 및 보험업 |     |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5   | 8   | 12        | 20  | 2                     | 6   | 1        | 12  |

| 부동산 및 임대업 |     | 전문,과학 및<br>기술서비스업 |     | 사업시설관리 및<br>사업지원서비스업 |     | 공공행정,국방 및<br>사회보장 행정 |     |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         | -   | -                 | -   | -                    | -   | 3                    | 28  |

| 교육서비스업 |     | 보건 · 사회복지사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br>관련 서비스업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br>기타개인서비스업 |     |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4      | 38  | 2           | 14  | 5                       | 9   | 13                      | 14  |

## 5. 농림

### 1) 농가 및 농가인구

농가는 462호의 1,452명이 1,452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전업농은 360호로 신안군 전체의 3.6%로 흑산도 이어 농가의 비율이 낮다.

| 농가   |      |       |       | 농가인구   |      |      |
|------|------|-------|-------|--------|------|------|
| 계    | 전업   | 1종 겸업 | 2종 겸업 | 계      | 남자   | 여자   |
| 462호 | 360호 | 55호   | 47호   | 1,452명 | 750명 | 702명 |

### 2) 경지면적

2009년도 경지면적은 633ha로 이중 논이 246ha, 밭은 387ha이다. 신의면의 경우 논보다 밭이 많아 전작의 경우가 소득액이 높다. 또한 가구당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논은 53.2ha, 밭은 83.8ha로 영세한 농업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밭의 경우 신안군의 평균83.5ha와 비슷하며, 안좌 117.1ha, 자은 105.3ha, 압해 105ha 다음의 네 번째로 가구당 경지면적이 넓다.



| 합계    | 논     | 밭     | 가구당 경지면적 |        |        |
|-------|-------|-------|----------|--------|--------|
|       |       |       | 계        | 논      | 밭      |
| 633ha | 246ha | 387ha | 137.0ha  | 53.2ha | 83.8ha |

### 3) 농업생산량 및 소득 현황

2011년도의 농업생산량 및 소득현황을 살펴보면, 수도작 보다 전작의 소득이 월등히 높으며, 전작으로는 마늘, 양파, 고추, 참깨, 콩, 밀이 재배되고 있다. 전작의 소득액을 살펴보면, 양파의 소득액이 약 30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고추, 참깨의 순이다. 농업소득은 12,871,375천원으로 1차 산업 총소득액 57,117,375천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 구분  | 작물별 | 생산량 |        |        |        | 소득액          |            | 비고  |
|-----|-----|-----|--------|--------|--------|--------------|------------|-----|
|     |     | 농가수 | 면적(ha) | 단수(kg) | 생산량(톤) | 단가(원)        | 소득액(천원)    |     |
| 총계  |     | 417 | 463    |        | 9,433  |              | 12,871,375 | 23% |
| 소계  |     | 285 | 255    | 580    | 1,491  |              | 1,677,375  |     |
| 수도작 |     | 285 | 255    |        | 1,491  | 45,000(40kg) | 1,667,375  |     |
| 소계  |     | 372 | 208    | 1,130  | 7,942  |              | 11,194,000 |     |
| 전작  | 마늘  | 372 | 25     | 5,220  | 941    | 10,000(5kg)  | 1,882,000  |     |
|     | 양파  | 232 | 35     | 257    | 6,090  | 10,000(40kg) | 3,045,000  |     |
|     | 고추  | 372 | 32     | 80     | 274    | 45,000(20kg) | 2,192,000  |     |
|     | 참깨  | 255 | 41     | 235    | 109    | 8,000(1kg)   | 1,962,000  |     |
|     | 콩   | 260 | 48     | 380    | 376    | 18,000(20kg) | 1,880,000  |     |
|     | 밀   | 12  | 12     |        | 152    | 35,000(40kg) | 133,000    |     |
|     | 기타  |     | 15     |        |        |              | 100,000    |     |

## 6. 산림

### 1) 산림현황

산림면적은 1,619ha로 임목지의 침엽수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은 거의 없다

| 합계    | 임목지(ha) |       |      |     |    | 무임목지(ha) |      |     |     |    |
|-------|---------|-------|------|-----|----|----------|------|-----|-----|----|
|       | 계       | 침엽수림  | 활엽수림 | 혼효림 | 죽림 | 계        | 미입목지 | 황폐지 | 개간지 | 제지 |
| 1,619 | 1,593   | 1,427 | —    | 166 | —  | 26       | 1    | —   | —   | 25 |

### 2) 임상별 임목축적

임상별 임목축적현황은 122,099 $m^3$ 이며 이중 침엽수림이 112,130 $m^3$ 이며 혼효림 9,969 $m^3$ 이다.

| 합계               | 침엽수              | 활엽수 | 혼효림            | 죽림 |
|------------------|------------------|-----|----------------|----|
| 122,099( $m^3$ ) | 112,130( $m^3$ ) | —   | 9,969( $m^3$ ) |    |

### •임산물 생산량

산나물이 약간 생산되고 있을 뿐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임산물은 전혀 생산되지 않는다.

| 용재 | 죽재 | 연료 | 농용<br>자재 | 종실 | 버섯 | 섬유<br>원료 | 수지 | 탄닌<br>원료 | 약용 | 죽순 | 산나물<br>(kg) |
|----|----|----|----------|----|----|----------|----|----------|----|----|-------------|
| —  | —  | —  | —        | —  | —  | —        | —  | —        | —  | —  | 720         |

## 7. 수산물

### 1) 기본현황

신의면에는 3개의 어촌계에 158명의 어업인이 양식면허를 허가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4개소의 김가공 공장이 있다.

| 어촌계 | 어업인   | 어가   | 선착장 | 인양기 | 김가공 공장 | 저온 저장고 | 비고 |
|-----|-------|------|-----|-----|--------|--------|----|
| 3개소 | 158어가 | 130척 | -   | 2개소 | 4개소    | -      |    |

### 2) 어선현황

수산물을 획득하기 위한 어선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약 130여척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톤수는 160톤이다. 거의 대부분이 목재 또는 FRP로 건조된 1톤 미만의 동력선이며, 이러한 어선들 중 120여척은 수하식 양식어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 척수 | 톤수 | 1톤 미만 | 1-5톤 미만 | 5-10톤 미만 | 10톤 이상 | 비고 |
|----|----|-------|---------|----------|--------|----|
|    |    | 129   | 28      | 1        | 2      |    |

### 3) 어업면허

어업면허는 1,257ha에 52건수로 해조류 양식 및 마을어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조류 양식은 김의 건수가 가장 많다

| 구분         | 계     | 해조류 양식 |     |    |      |     | 패류<br>(피조개, 전복) | 복합<br>(수하식) | 마을<br>어업 |
|------------|-------|--------|-----|----|------|-----|-----------------|-------------|----------|
|            |       | 소게     | 김   | 미역 | 툰    | 다시마 |                 |             |          |
| 건수         | 52    | 27     | 20  | 1  | 2    | 4   | 3               | 7           | 15       |
| 면적<br>(ha) | 1,257 | 408.5  | 318 | 10 | 30.5 | 50  | 15              | 37          | 796.5    |

#### 4) 어업허가

어업허가는 32건으로 이중 복합어업이 20건이며 각망이 7건, 유자망이 4건이다

| 계   | 연 안 |     |    |    | 근해<br>(연승) | 비 고 |
|-----|-----|-----|----|----|------------|-----|
|     | 소계  | 유자망 | 복합 | 각망 |            |     |
| 32건 | 31  | 4   | 20 | 7  | 1          |     |

#### 5) 어업신고

| 계       | 육상 축제식(새우) | 맨손어업 | 비고 |
|---------|------------|------|----|
| 3건 43헥타 | 3건/43ha    |      |    |

#### 6) 수산업 생산량 및 소득현황

2011년도 수산물 생산량 및 소득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액은 2,996,000원으로 총소득액 57,117,353원의 5%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산관련 소득은 농업소득 및 염전소득에 비하여 미비하다. 수산품목별 순위를 살펴보면 대하의 양식소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복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구 분 | 품목별 | 생 산 량 |        |        |        | 소득액    |           | 비고 |
|-----|-----|-------|--------|--------|--------|--------|-----------|----|
|     |     | 농가수   | 면적(ha) | 단수(kg) | 생산량(톤) | 단가(원)  | 소득액(천원)   |    |
| 총계  |     | 40    | 456    | —      | 259    |        | 2,996,000 | 5% |
| 수산  | 김   | 20    | 318    |        | 48     | 4,500  | 216,000   |    |
|     | 전복  | 7     | 15     |        | 26     | 35,000 | 910,000   |    |
|     | 툰   | 6     | 30     |        | 30     | 7,000  | 210,000   |    |
|     | 다시마 | 4     | 50     |        | 50     | 1,700  | 85,000    |    |
|     | 대하  | 3     | 43     |        | 105    | 15,000 | 1,575,000 |    |

## 7) 어촌계 현황

신의면 주로 생산되는 양식물 및 채포물은 김, 톳, 피조개, 전복, 다시마, 낙지, 기타 수산 동식물 등이며, 어업권자는 신의면의 어촌계이다. 어촌계는 크게 상태어촌계와 노은어촌계로 대별되며, 고평사어촌계, 기황금 자율관리영양어조합 등이 있다. 신의면의 어장면허는 상태어촌계와 노은어촌계가 거의 모두를 소유하고 있으며, 생산물은 김, 전복, 다시마 대하 등 이다.

### (1) 상태 어촌계

- 소재지: 신안군 신의면 상태도
- 가구 : 502세대 1,161명
- 어업세대 : 64세대 130명(어촌계원 64세대)

#### 어업기반

- 어장면적 : 523ha(양식어업 211.5, 마을 어업 311.5)
- 어선세력 : 82척(2톤이상 5척)
- 기반시설 : 선착장(6개소 424m), 물량장(2개소 550m)

#### 소득 및 특산물

- 주 어업 : 해조류 양식어업(김) 및 패류양식어업
- 총 소득 : 960백만원
- 어가평균 : 15백만원
- 특산물 : 전복, 돌미역, 톳, 가사리 등

### (2) 노은 어촌계

- 소재지: 신안군 신의면 하태도
- 가구 : 261세대 577명
- 어업세대 : 69세대 150명(어촌계원 69세대)

#### 어업기반

- 어장면적 : 318.5ha(양식어업 211.5, 마을 어업 107)
- 어선세력 : 65척(2톤이상 8척)
- 기반시설 : 선착장(4개소 110m), 물량장(3개소 660m)

#### 소득 및 특산물

- 주 어업 : 해조류 양식어업(김) 및 패류양식어업

- 총 소득 : 1,100백만원
- 어가평균 : 15백만원
- 특산품 : 전복, 돌미역, 톳, 가사리 등

### (3) 고사평 어촌계

- 소재지: 신안군 신의면 고평사도리
- 가구(인구) : 31세대 65명
- 어업세대 : 31세대 65명(어촌계원 31세대)

#### 어업기반

- 어장면적 : 30.5ha(양식어업 30.5)
- 어선세력 : 12척(2톤이상 3척)
- 기반시설 : 선착장(2개소 135m), 물량장(2개소 80m)

#### 소득 및 특산품

- 주 어업 : 해조류 양식어업(톳)
- 총 소득 : 372백만원
- 어가평균 : 12백만원
- 특산품 : 톳, 파래, 전복

어촌계별 양식현황(2009년도)

| 해조류 양식        |                     |        |              |          |              |        |              | 전복     |      |        |      |
|---------------|---------------------|--------|--------------|----------|--------------|--------|--------------|--------|------|--------|------|
| 김             |                     | 미역     |              | 톳        |              |        |              | 패류     |      | 복합     |      |
| 면적            | 시설량                 | 면적     | 시설량          | 면적       | 시설량          | 면적     | 시설량          | 면적     | 시설량  | 면적     |      |
| 20건/<br>318ha | 책<br>5,756<br>(49면) | 1/10ha | 180줄<br>(1명) | 2/30.5ha | 429줄<br>(9명) | 5/60ha | 900줄<br>(9명) | 1/3ha  | 176칸 | 4/12ha | 748칸 |
| 11건/<br>170.5 | 3,101<br>(35명)      | -      | -            | -        | -            | 3/23ha | 460<br>(4명)  | -      |      | 3/8ha  | 548칸 |
| 9건/<br>147.5  | 2,655<br>(14명)      | 1/10ha | 180명<br>(1명) | -        | -            | 2/37ha | 440<br>(3명)  | 1/37ha | 176칸 | 1/4ha  | 200칸 |
| -             | -                   | -      | -            | 2/30.5ha | 429<br>(9명)  | -      | -            | -      |      |        |      |

어촌계별 양식어업면허 현황

| 어장<br>위치         | 면적()      | 어업의<br>종류 | 양식물<br>체포물 | 어업의<br>방법 | 어업의<br>시기      | 존속기간                     | 어업권자        |                       |
|------------------|-----------|-----------|------------|-----------|----------------|--------------------------|-------------|-----------------------|
|                  |           |           |            |           |                |                          | 주소          | 성명                    |
|                  | 4,605,000 | 37        |            |           |                |                          |             |                       |
| 신의<br>하태         | 7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 익년<br>4.30 | 2005.10.16<br>2015.10.15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상태서        | 13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 익년<br>4.30 | 2005.10.25<br>2015.10.24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고평사        | 105,000   | 해조류<br>양식 | 툇          | 연승식       | 1.1<br>12.31   | 2009.07.01<br>2019.06.30 | 신의면         | 고평사어촌계                |
| 신의<br>고평사        | 200,000   | 해조류<br>양식 | 피조개        | 연승식       | 1.1<br>12.31   | 2009.07.01<br>2019.06.30 | 신의면         | 고평사어촌계                |
| 신의<br>하태서        | 70,000    | 패류<br>양식  | 피조개        | 살포식       | 1.1<br>12.31   | 2008.07.01<br>2014.06.03 | 신의면<br>하태서리 | 기황금<br>자율관리영어<br>조합법인 |
| 신의<br>내거리        | 50,000    | 패류<br>양식  | 피조개        | 살포식       | 1.1<br>12.31   | 2011.06.04<br>2021.06.03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상태서        | 100,000   | 복합<br>양식  | 전복<br>다시마  | 연승식       | 1.1<br>12.31   | 2003.10.27<br>2013.10.26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 4,605,000 | 37        |            |           |                |                          |             |                       |
| 신의<br>하태         | 7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 익년<br>4.30 | 2005.10.16<br>2015.10.15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상태서        | 13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 익년<br>4.30 | 2005.10.25<br>2015.10.24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고평사        | 105,000   | 해조류<br>양식 | 툇          | 연승식       | 1.1<br>12.31   | 2009.07.01<br>2019.06.30 | 신의면         | 고평사어촌계                |
| 신의<br>고평사        | 200,000   | 해조류<br>양식 | 피조개        | 연승식       | 1.1<br>12.31   | 2009.07.01<br>2019.06.30 | 신의면         | 고평사어촌계                |
| 신의<br>하태서        | 70,000    | 패류<br>양식  | 피조개        | 살포식       | 1.1<br>12.31   | 2008.07.01<br>2014.06.03 | 신의면<br>하태서리 | 기황금<br>자율관리영어<br>조합법인 |
| 신의<br>내거리        | 50,000    | 패류<br>양식  | 피조개        | 살포식       | 1.1<br>12.31   | 2011.06.04<br>2021.06.03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상태서        | 100,000   | 복합<br>양식  | 전복<br>다시마  | 연승식       | 1.1<br>12.31   | 2003.10.27<br>2013.10.26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하태서        | 100,000   | 해조류<br>양식 | 미역         | 연승식       | 1.1<br>12.31   | 2004.10.19<br>2014.10.18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노은         | 30,000    | 패류<br>양식  | 전복         | 가두리       | 1.1<br>12.31   | 2004.10.19<br>2014.10.18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상태서<br>기도  | 50,000    | 복합<br>양식  | 전복<br>다시마  | 연승식       | 1.1<br>12.31   | 2004.12.22<br>2014.12.21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상태서<br>기도  | 1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 익년<br>4.30 | 2004.12.22<br>2014.12.21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상태서<br>기도  | 5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 익년<br>4.30 | 2004.12.22<br>2014.12.21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하태동        | 1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 익년<br>4.30 | 2004.12.22<br>2014.12.21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하태서<br>내기동 | 2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 익년<br>4.30 | 2004.12.22<br>2014.12.21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하태서<br>내기동 | 1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 익년<br>4.30 | 2004.12.22<br>2014.12.21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어장<br>위치         | 면적()    | 어업의<br>종류 | 양식물<br>체포물      | 어업의<br>방법  | 어업의<br>시기         | 존속기간                     | 어업권자 |       |
|------------------|---------|-----------|-----------------|------------|-------------------|--------------------------|------|-------|
|                  |         |           |                 |            |                   |                          | 주소   | 성명    |
| 신의<br>등면         | 20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 익년<br>4.30    | 2006.03.20<br>2016.03.19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기도         | 4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 익년<br>4.30    | 2006.09.11<br>2016.09.10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기도         | 4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 익년<br>4.30    | 2006.09.11<br>2016.09.10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송도         | 7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 익년<br>4.30    | 2006.09.11<br>2016.09.10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굴암         | 4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 익년<br>4.30    | 2006.09.11<br>2016.09.10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굴암         | 3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 익년<br>4.30    | 2006.09.11<br>2016.09.10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송도         | 100,000 | 복합<br>양식  | 다시마<br>미역       | 연승식        | 1.1<br>12.31      | 2006.09.11<br>2016.09.10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상태서        | 40,000  | 복합<br>양식  | 전복<br>미역<br>다시마 | 가두리<br>연승식 | 1.1<br>12.31      | 2006.09.11<br>2016.09.10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기도         | 16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 익년<br>4.30    | 2011.12.04<br>2021.12.03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기도         | 12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 익년<br>4.30    | 2011.12.04<br>2021.12.03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상태서<br>당머리 | 70,000  | 해조류<br>양식 | 다시마             | 연승식        | 1.1<br>12.31      | 2008.10.13<br>2018.12.03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상태서<br>상소섬 | 60,000  | 해조류<br>양식 | 다시마             | 연승식        | 1.1<br>12.31      | 2008.10.13<br>2018.12.03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토끼섬        | 170,000 | 해조류<br>양식 | 다시마             | 연승식        | 1.1<br>12.31      | 2008.10.13<br>2018.10.12 | 신의면  | 신규개발  |
| 신의<br>상태서<br>알소섬 | 25,000  | 복합<br>양식  | 전복<br>미역<br>다시마 | 가두리<br>연승식 | 1.1<br>12.31      | 2008.10.13<br>2016.09.10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토끼섬        | 15,000  | 복합<br>양식  | 전복<br>미역<br>다시마 | 가두리<br>연승식 | 1.1<br>12.31      | 2008.10.13<br>2016.09.10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토끼섬        | 40,000  | 복합<br>양식  | 전복<br>미역<br>다시마 | 가두리<br>연승식 | 1.1<br>12.31      | 2008.10.13<br>2016.09.10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기동         | 80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br>4.30 | 2009.05.22<br>2019.05.21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황성금리       | 5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br>4.30 | 2009.05.22<br>2019.05.21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피도         | 650,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br>4.30 | 2009.05.22<br>2019.05.21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상태         | 235,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br>4.30 | 2009.05.22<br>2019.05.21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어릿<br>기미   | 445,000 | 해조류<br>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br>4.30 | 2009.05.22<br>2019.05.21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하태<br>서리   | 200,000 | 해조류<br>양식 | 툇               | 연승식        | 1.1<br>12.31      | 2011.09.19<br>2021.09.18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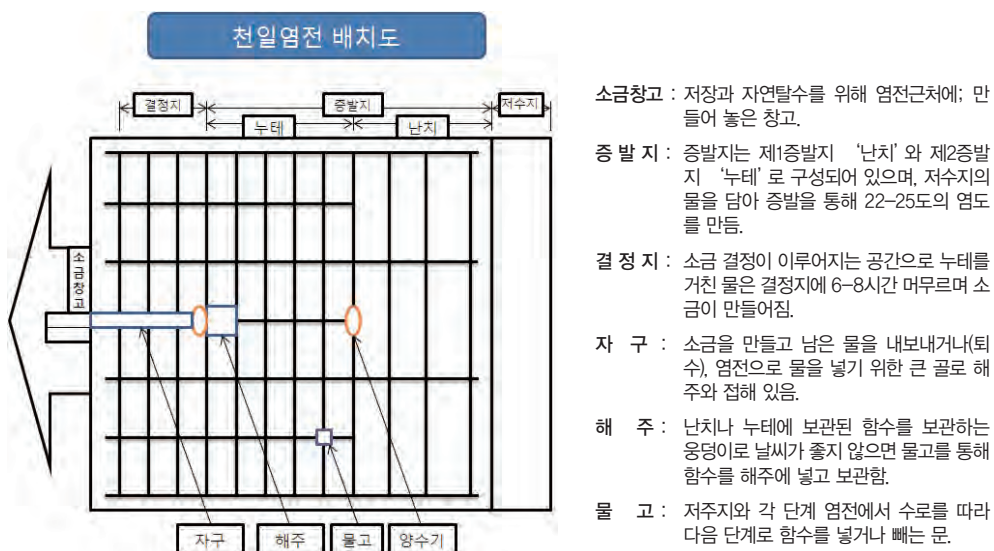
## 마을어업면허 현황

| 어장<br>위치       | 면적()      | 어업의<br>종류 | 양식물<br>체포물              | 어업의<br>방법 | 어업의<br>시기    | 존속기간<br>존속기간             | 어업권자 |        |
|----------------|-----------|-----------|-------------------------|-----------|--------------|--------------------------|------|--------|
|                |           |           |                         |           |              |                          | 주소   | 성명     |
|                | 7,965,000 | 15        |                         |           |              |                          |      |        |
| 신의<br>상태서      | 420,000   | 마을        | 갯지렁이                    | 맨손        | 1.1<br>12.31 | 2007.11.19<br>2012.11.18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상태서      | 250,000   | 마을        | 해조류                     | 도수        | 1.1<br>12.31 | 2007.07.11<br>2017.07.10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기도       | 1,645,000 | 마을        | 갯지렁이                    | 도수        | 1.1<br>12.31 | 2008.06.12<br>2018.06.11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상태동      | 600,000   | 마을        | 갯지렁이<br>패류              | 나잠<br>도수  | 1.1<br>12.31 | 2010.06.27<br>2020.06.26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내기       | 160,000   | 마을        | 해조류<br>전복               | 나잠<br>도수  | 1.1<br>12.31 | 2011.01.20<br>2021.01.19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내기       | 85,000    | 마을        | 해조류<br>전복               | 나잠<br>도수  | 1.1<br>12.31 | 2011.01.20<br>2021.01.19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하태서      | 130,000   | 마을        | 우묵가사리<br>전복,미역,툰        | 나잠<br>도수  | 1.1<br>12.31 | 2011.09.23<br>2021.09.22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하태서      | 40,000    | 마을        | 우묵가사리<br>전복,미역,툰        | 나잠<br>도수  | 1.1<br>12.31 | 2011.09.23<br>2021.09.22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기동<br>황성 | 655,000   | 마을        | 갯지렁이<br>낙지, 기타<br>수산동식물 | 도수<br>형망  | 1.1<br>12.31 | 2006.08.30<br>2016.08.29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기도       | 200,000   | 마을        | 갯지렁이<br>낙지, 기타<br>수산동식물 | 도수<br>형망  | 1.1<br>12.31 | 2006.09.11<br>2016.09.10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황성       | 100,000   | 마을        | 해조류<br>전복 등             | 도수        | 1.1<br>12.31 | 2009.11.30<br>2019.11.29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굴암       | 150,000   | 마을        | 해조류<br>전복 등             | 도수        | 1.1<br>12.31 | 2009.11.30<br>2019.11.29 | 신의면  | 노은어촌계  |
| 신의<br>고평사      | 2,330,000 | 마을        | 툰 다시마<br>전복 등           | 도수        | 1.1<br>12.31 | 2010.03.24<br>2020.03.23 | 신의면  | 고평사어촌계 |
| 신의<br>가락       | 200,000   | 마을        | 낙지<br>기타<br>수산동식물       | 도수        | 1.1<br>12.31 | 2011.09.19<br>2021.09.18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신의<br>상태<br>동리 | 1,000,000 | 마을        | 낙지<br>기타<br>수산동식물       | 도수        | 1.1<br>12.31 | 2011.09.19<br>2021.09.18 | 신의면  | 상태어촌계  |

## 8. 염업

염관리법의 정의에 의하면 “천일염(天日鹽)”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을 말하며, 즉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 만든 소금이다.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은 1963년 “염관리법(鹽管理法)”제정 이후 45년간 광물로 분류되어 식품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2007년 11월 천일염의 식용허용을 위한 “염관리법”이 제정되어 2008년 3월부터 천일염이 식용으로 판매가 허용되었으며, 주무부처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식품부로 이관되었다. 천일염전은 소금창고, 결정지, 증발지, 자구, 해 주 물고로 구성되어 있다.



### • 천일염 생산과정

염전은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로 구성되며, 저수지는 해수를 저장하는 공간, 증발지는 햇빛과 바람을 통해서 염도를 높이는 곳으로 난치와 누테로 구분. 증발지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소금결정체를 만드는 역할을 함. 이 모든과정을 거쳐 소금을 생산하기 까지는 20~25일정도 소요됨.

- 1단계 :** 저수지(해수취입) – 수문을 통하여 바닷물을 저수지로 유입. 저수지는 1차적으로 해수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수로를 통해 1증발지에 해수를 보급하며, 이 때의 염분 농도는 1~3도임.
- 2단계 :** 증발 – 깨끗한 갯벌과, 햇볕, 바람을 통해 해수를 증발시켜 염도를 높이는 곳. 제 1 증발지(난치), 제 2 증발지(누테)로 구성, 염전 면적의 80%이상을 차지함. 다양한 염생식물과 갯벌에서 생성 및 자생하는 유기물들이 소금의 원료인 함수와 섞여 질 좋은 소금을 만듦. 1증발지 농도 3~8도, 1 증발지는 8~18도.
- 3단계 :** 염도맞추기 – 해주(함수창고)는 증발지 및 결정지 내의 농축된 함수를 보관하며, 강우와 월동을 대비함. 보통 3개소의 함수창고(해주)는 각 염도별로 나뉘어져 있고, 결정지에 보급하는 염도수(약25도)를 맞추어 결정지에 보급.
- 4단계 :** 채염단계 – 증발지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소금결정체로 만들어 소금을 거두는 곳. 이 때의 염분 농도는 약 20~25도이며, 보통 오전 6시경에 결정지에 보급된 함수는 오후4~6시에 채염가능 함. 소금결정은 그 날의 일기·습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기와 습도에 따라 소금 채염의 시간이나 결정체의 굵기, 맛이 달라짐.

## 1) 염업의 현황

신안군은 우리나라 천일염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으며 신의면이 약 550ha에서 평균 57,170톤을 생산하여 신안군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신의면내의 염전현황을 살펴보면 하태서 147,584㎡, 하태동 1,205,249㎡, 상태서 1,463,456㎡, 상태동 2,648,631㎡가 있으며, 237개의 염전이 허가되어 있다. 신의면의 염전은 다른 지역의 염전에 비해 해주가 크고, 바닷물의 조류가 좋아 바닷물이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바닷물의 염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1ha당 소금생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생산된다. 염전소득은 연간평균 250억 정도로 신의면의 가장 큰 소득창출원이다. 2011년도의 경우 소금 값의 상승으로 인하여 400억정도의 소득을 창출하여 총소득액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당 염전의 소유면적이 3ha미만이 80%로 영세하며, 생산자의 고령화와 노동자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 구분 | 품목별 | 생산량 |            |              |                  | 소득액              |             | 비고  |
|----|-----|-----|------------|--------------|------------------|------------------|-------------|-----|
|    |     | 업자수 | 면적<br>(ha) | 단수<br>(30kg) | 생산량<br>(30kg/가마) | 단가<br>(원)        | 소득액<br>(천원) |     |
| 염업 | 천일염 | 237 | 550        | 5,000        | 2,750,000        | 15,000<br>(30kg) | 41,250,000  | 72% |

#### • 신안군 천일염 생산량 현황

(2010년 12월 기준)

| 구분       | 전국    | 전남    | 신안군        | 비고 |
|----------|-------|-------|------------|----|
| 염전면적(ha) | 3,761 | 2,990 | 2,162(57%) |    |
| 생산업체(개소) | 1,132 | 1,028 | 846(75%)   |    |
| 생산량(천톤)  | 306   | 276   | 204(67%)   |    |

#### • 업계동향

##### - 신의면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사업현황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

건축주 : 어업회사법인 신안천일염(주) - CJ 제일제당

주주참여 천일염 생산자 : 83명

대지위치 : 신의면 하태동리 322-42번지

사업비 : 1,800백만원

주요시설 : 천일염가공공장, 완제품 창고

##### - 제일제당 투자현황

전체공장규모

부지면적 : 24,211㎡, 건축면적 : 9,917㎡ -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생산능력 : 연간 2만톤, 생산인력 10명

주요시설 : 원자재 창고, 천일염가공기기, 부지조성 등

총투자현황 : 12,012백만원

## • 염전현황

|    | 면 적(m <sup>2</sup> ) |           |         |         | 염 전 위 치 |                   |
|----|----------------------|-----------|---------|---------|---------|-------------------|
|    | 총면적                  | 염전면적      | 저수지     | 기타      | 리       | 지번                |
|    | 5,485,220            | 4,701,257 | 605,767 | 178,196 |         |                   |
|    | 25,112               | 19,616    | 5,496   |         | 하태서     | 110-1             |
|    | 11,329               | 8,490     | 1,573   | 1,266   | 하태서     | 01월 13일           |
|    | 13,676               | 9,360     | 588     | 3,728   | 하태서     | 16-1,18-7         |
|    | 23,633               | 17,616    | 6,017   |         | 하태서     | 367               |
|    | 25,056               | 25,056    |         |         | 하태서     | 367-1             |
|    | 25,358               | 25,358    |         |         | 하태서     | 367-2             |
|    | 23,420               | 23,420    |         |         | 하태서     | 367-3             |
| 합계 | 147,584              | 128,916   | 13,674  | 4,994   |         |                   |
|    | 27,947               | 24,324    | 2,912   | 711     | 하태동     | 63_2              |
|    | 33,599               | 29,752    | 3,847   |         | 하태동     | 01월 16일           |
|    | 20,065               | 19,316    | 749     |         | 하태동     | 113               |
|    | 28,172               | 23,600    | 3,812   |         | 하태동     | 121               |
|    | 29,812               | 29,253    | 559     |         | 하태동     | 122               |
|    | 18,668               | 17,253    | 952     | 463     | 하태동     | 10,11             |
|    | 17,603               | 14,731    | 1,157   | 1715    | 하태동     | 63_1              |
|    | 22,826               | 19,835    | 1,653   | 1,338   | 하태동     | 12,16-17          |
|    | 12,555               | 12,555    |         |         | 하태동     | 16_10             |
|    | 25,408               | 25,236    | 173     |         | 하태동     | 16_13,23,47       |
|    | 25,457               | 24,978    |         | 479     | 하태동     | 16_12,-22,-46     |
|    | 15,786               | 12,945    | 1,116   | 1,725   | 하태동     | 121-1             |
|    | 25,812               | 25,812    |         |         | 하태동     | 16_14,-24,-49     |
|    | 26,579               | 26,079    |         | 500     | 하태동     | 16_11,16_21,16_44 |
|    | 10,106               | 8,073     |         | 2,033   | 하태동     | 16-16             |
|    | 12,549               | 12,549    |         |         | 하태동     | 16-26, 20, 18     |
|    | 21,124               | 18,158    |         | 2,966   | 하태동     | 산152-21           |
|    | 21,421               | 18,360    |         | 3,061   | 하태동     | 산152-24           |
|    | 29,950               | 26,289    |         | 3,661   | 하태동     | 산150-4            |
|    | 44,430               | 38,538    |         | 5,892   | 하태동     | 산150-8            |
|    | 23,107               | 20,422    |         | 2,685   | 하태동     | 산150-12           |
|    | 11,230               | 11,230    |         |         | 하태동     | 산150-1            |
|    | 15,730               | 14,579    | 1,151   |         | 하태동     | 산149-58           |
|    | 22,114               | 22,114    |         |         | 하태동     | 495               |
|    | 24,470               | 22,207    |         |         | 하태동     | 494               |
|    | 24,625               | 24,625    |         |         | 하태동     | 493               |
|    | 24,507               | 24,507    |         |         | 하태동     | 491               |
|    | 13,716               | 13,716    |         |         | 하태동     | 491-1             |
|    | 20,000               | 18,300    | 1,700   |         | 하태동     | 508               |
|    | 26,338               | 18,864    | 7,474   |         | 하태동     | 509               |
|    | 24,568               | 18,462    | 6,106   |         | 하태동     | 510               |
|    | 23,790               | 18,845    | 4,945   |         | 하태동     | 511               |
|    | 23,206               | 18,383    | 4,823   |         | 하태동     | 512               |
|    | 19,787               | 16,674    | 2,463   | 650     | 하태동     | 513               |
|    | 27,892               | 24,198    | 3,694   |         | 하태동     | 507,506           |
|    | 15,643               | 14,145    | 1,498   |         | 하태동     | 507-1             |
|    | 12,543               | 10,054    | 2,489   |         | 하태동     | 506               |
|    | 25,266               | 22,947    | 23,096  |         | 하태동     | 505               |

|    | 면 적(m <sup>2</sup> ) |           |         |       | 염 전 위 치 |                        |
|----|----------------------|-----------|---------|-------|---------|------------------------|
|    | 총면적                  | 염전면적      | 저수지     | 기타    | 리       | 지번                     |
|    | 12,461               | 11,068    | 1,393   |       | 하태동     | 504                    |
|    | 12,661               | 11,069    | 1,592   |       | 하태동     | 504-1                  |
|    | 26,325               | 24,455    | 1,870   |       | 하태동     | 503                    |
|    | 22,596               | 19,886    | 1,350   | 1,360 | 하태동     | 502                    |
|    | 19,715               | 17,315    | 1,180   | 1,220 | 하태동     | 501                    |
|    | 26,070               | 22,840    | 1,610   | 1,620 | 하태동     | 500                    |
|    | 25,529               | 22,419    | 1,530   | 1,580 | 하태동     | 499                    |
|    | 25,828               | 22,678    | 1,550   | 1,600 | 하태동     | 498                    |
|    | 25,007               | 21,957    | 1,500   | 1,550 | 하태동     | 497                    |
|    | 23,761               | 21,961    | 1,800   |       | 하태동     | 484                    |
|    | 25,904               | 23,454    | 2,450   |       | 하태동     | 485                    |
|    | 24,869               | 22,769    | 2,100   |       | 하태동     | 486                    |
|    | 25,010               | 22,610    | 2,400   |       | 하태동     | 487                    |
|    | 28,880               | 26,280    | 2,600   |       | 하태동     | 488                    |
|    | 32,232               | 29,732    | 2,500   |       | 하태동     | 489                    |
| 합계 | 1,205,249            | 1,082,401 | 103,794 | 36809 |         |                        |
|    | 16,798               | 16,798    |         |       | 상태서     | 302-11                 |
|    | 6,178                | 6,178     | 공동      |       | 상태서     | 302-10                 |
|    | 19,593               | 14,083    | 3,226   | 2284  | 상태서     | 491                    |
|    | 23,243               | 15,739    | 2,317   | 5187  | 상태서     | 490                    |
|    | 16,466               | 15,446    | 1,020   |       | 상태서     | 61_5                   |
|    | 33,722               | 28,975    | 2,281   | 2466  | 상태서     | 22-1,2,3               |
|    | 11,788               | 8,965     | 853     | 1970  | 상태서     | 529                    |
|    | 14,641               | 13,649    | 992     |       | 상태서     | 61_4                   |
|    | 10,559               | 10,559    |         |       | 상태서     | 61_9                   |
|    | 10,787               | 10,407    | 380     |       | 상태서     | 61_8                   |
|    | 11,706               | 11,706    |         |       | 상태서     | 61_6                   |
|    | 57,805               | 18,119    | 35,633  | 4053  | 상태서     | 61_7                   |
|    | 14,873               | 12,622    | 1,874   | 377   | 상태서     | 528-25                 |
|    | 28,521               | 21,450    | 7,071   |       | 상태서     | 597,598-3,12,13,14,600 |
|    | 19,021               | 12,314    | 694     | 6013  | 상태서     | 225-1                  |
|    | 18,177               | 14,876    | 3,301   |       | 상태서     | 222-1, 232-109         |
|    | 14,881               | 14,000    |         | 881   | 상태서     | 235-4                  |
|    | 15,356               | 10,005    |         | 5351  | 상태서     | 528-16                 |
|    | 14,744               | 13,157    | 1,587   |       | 상태서     | 216-15                 |
|    | 27,557               | 39,702    | 5,289   | 2566  | 상태서     | 222                    |
|    | 9,145                | 9,045     | 100     |       | 상태서     | 217-6,3,4 219-4,7,8    |
|    | 33,051               | 30,519    | 1,712   | 820   | 상태서     | 35_1                   |
|    | 14,380               | 9,600     | 4,780   |       | 상태서     | 235-1                  |
|    | 12,790               | 12,790    |         |       | 상태서     | 61-18                  |
|    | 22,136               | 19,631    | 1,143   | 1362  | 상태서     | 216-6                  |
|    | 13,012               | 8,265     | 2,479   | 2268  | 상태서     | 493-1                  |
|    | 11,514               | 10,000    | 1,000   | 514   | 상태서     | 235                    |
|    | 16,512               | 16,512    |         |       | 상태서     | 150-23                 |
|    | 13,428               | 10,100    | 1,700   | 1628  | 상태서     | 612-1                  |
|    | 18,143               | 18,143    |         |       | 상태서     | 498-35                 |
|    | 13,298               | 11,357    | 1,384   | 557   | 상태서     | 498-32,34              |
|    | 22,339               | 22,339    |         |       | 상태서     | 953                    |
|    | 31,627               | 22,339    | 9,150   | 138   | 상태서     | 953-1                  |



|    | 면 적(m <sup>2</sup> ) |           |         |        | 염 전 위 치 |           |
|----|----------------------|-----------|---------|--------|---------|-----------|
|    | 총면적                  | 염전면적      | 저수지     | 기타     | 리       | 지번        |
|    | 29,870               | 21,870    | 8,000   |        | 상태서     | 960       |
|    | 24,734               | 23,544    | 1,148   | 42     | 상태서     | 962       |
|    | 25,056               | 22,356    | 2,700   |        | 상태서     | 956       |
|    | 26,275               | 24,414    | 1,851   | 10     | 상태서     | 945       |
|    | 30,942               | 27,973    | 2,925   | 44     | 상태서     | 938       |
|    | 20,830               | 20,213    | 617     |        | 상태서     | 929       |
|    | 24,825               | 24,396    | 429     |        | 상태서     | 939       |
|    | 27,287               | 20,520    | 6,720   | 47     | 상태서     | 930,931   |
|    | 19,304               | 16,704    | 2,600   |        | 상태서     | 906       |
|    | 24,622               | 23,924    | 480     | 218    | 상태서     | 922       |
|    | 16,311               | 13,589    | 2,700   | 22     | 상태서     | 907       |
|    | 13,593               | 13,000    | 593     |        | 상태서     | 926       |
|    | 14,731               | 13,114    | 1,600   | 17     | 상태서     | 921       |
|    | 21,716               | 21,716    |         |        | 상태서     | 918       |
|    | 14,979               | 12,640    | 2,320   | 19     | 상태서     | 919       |
|    | 10,641               | 8,763     | 1,546   | 322    | 상태서     | 911       |
|    | 15,829               | 14,732    | 1,097   |        | 상태서     | 912       |
|    | 18,225               | 16,802    | 1,400   | 23     | 상태서     | 925       |
|    | 13,729               | 13,729    |         |        | 상태서     | 847       |
|    | 14,247               | 14,247    |         |        | 상태서     | 859-1     |
|    | 15,065               | 12,626    | 2,439   |        | 상태서     | 858       |
|    | 20,745               | 20,745    |         |        | 상태서     | 862       |
|    | 13,124               | 13,043    |         | 81     | 상태서     | 848       |
|    | 22,099               | 22,099    |         |        | 상태서     | 865       |
|    | 15,473               | 14,923    | 550     |        | 상태서     | 851       |
|    | 19,912               | 18,345    | 1,567   |        | 상태서     | 844,845   |
|    | 15,143               | 13,915    | 1,228   |        | 상태서     | 859       |
|    | 15,048               | 13,848    | 1,200   |        | 상태서     | 852,855   |
|    | 31,891               | 28,901    | 2,990   |        | 상태서     | 878       |
|    | 31,005               | 28,260    | 2,700   | 45     | 상태서     | 879       |
|    | 19,502               | 17,150    | 2,320   | 32     | 상태서     | 890       |
|    | 18,954               | 16,618    | 2,336   |        | 상태서     | 884       |
|    | 10,538               | 10,538    |         |        | 상태서     | 870       |
|    | 18,860               | 17,792    | 1,040   | 28     | 상태서     | 867       |
|    | 12,408               | 10,535    | 1,873   |        | 상태서     | 871       |
|    | 16,347               | 15,113    | 1,234   |        | 상태서     | 888       |
|    | 14,248               | 14,248    |         |        | 상태서     | 888-1     |
|    | 18,074               | 18,074    |         |        | 상태서     | 875       |
|    | 17,545               | 15,705    | 1,840   |        | 상태서     | 874       |
|    | 26,634               | 21,000    | 5,634   |        | 상태서     | 22_5      |
|    | 26,803               | 25,038    | 1,692   | 73     | 상태서     | 940       |
|    | 16,626               | 16,626    |         |        | 상태서     | 915       |
|    | 22,175               | 22,175    | 공동      |        | 상태서     | 961       |
| 합계 | 1,463,756            | 1,284,953 | 159,335 | 39,458 |         |           |
|    | 13,610               | 10,040    | 3,471   | 99     | 상태동     | 315       |
|    | 14,383               | 14,383    |         |        | 상태동     | 산 147-4   |
|    | 19,140               | 17,729    |         | 1,411  | 상태동     | 산 147-5   |
|    | 25,058               | 19,394    | 4,562   | 1,102  | 상태동     | 산 148-4,5 |

|  | 면 적(m <sup>2</sup> ) |        |        |       | 염 전 위 치 |                    |
|--|----------------------|--------|--------|-------|---------|--------------------|
|  | 총면적                  | 염전면적   | 저수지    | 기타    | 리       | 지번                 |
|  | 12,529               | 9,697  | 2,281  | 551   | 상태동     | 산 148-6            |
|  | 62,274               | 39,670 | 21,041 | 1,563 | 상태동     | 423-5,4,2번지        |
|  | 26,446               | 20,866 | 3,263  | 2,317 | 상태동     | 417-2              |
|  | 34,611               | 28,264 | 6,347  |       | 상태동     | 산 149-39           |
|  | 59,299               | 41,812 | 17,487 |       | 상태동     | 산 149-33, 34,35    |
|  | 10,750               | 10,750 |        |       | 상태동     | 산 149-93           |
|  | 30,744               | 30,744 |        |       | 상태동     | 산 149-38           |
|  | 31,835               | 31,835 |        |       | 상태동     | 산 149-37           |
|  | 15,038               | 10,309 | 3,544  | 1,185 | 상태동     | 363, 363-11        |
|  | 16,740               | 11,258 | 1,322  | 4,160 | 상태동     | 363-10             |
|  | 11,802               | 11,802 | 0      |       | 상태동     | 산 149-15           |
|  | 11,801               | 11,801 | 0      |       | 상태동     | 산 149-15           |
|  | 22,413               | 22,413 |        |       | 상태동     | 산 149-16           |
|  | 38,248               | 28,860 | 9,388  |       | 상태동     | 산 149-32           |
|  | 32,132               | 32,132 |        |       | 상태동     | 산 149-36           |
|  | 29,623               | 24,780 | 3,633  | 1,210 | 상태동     | 420-13             |
|  | 29,015               | 23,802 | 2,698  | 2,515 | 상태동     | 417-1              |
|  | 14,968               | 11,467 | 1,947  | 1,554 | 상태동     | 산 149              |
|  | 18,718               | 12,732 | 4,453  | 1,533 | 상태동     | 산 149-67           |
|  | 17,707               | 10,312 | 2,530  | 4,865 | 상태동     | 363-7              |
|  | 29,601               | 22,416 | 7,185  |       | 상태동     | 420-12             |
|  | 15,524               | 15,236 | 288    |       | 상태동     | 149-8              |
|  | 29,507               | 22,975 | 4,555  | 1977  | 상태동     | 422-7              |
|  | 26,370               | 24,270 | 2,100  |       | 상태동     | 422-5              |
|  | 27,967               | 27,967 |        |       | 상태동     | 산 149-9            |
|  | 21,695               | 17,527 |        | 4168  | 상태동     | 150-12             |
|  | 29,756               | 27,968 | 1,788  |       | 상태동     | 150-12,13          |
|  | 35,881               | 18,883 | 16,998 |       | 상태동     | 150-16,17          |
|  | 38,347               | 18,360 | 10,466 | 9521  | 상태동     | 산 149-21           |
|  | 26,751               | 21,058 | 4,146  | 1547  | 상태동     | 산 149-2,-3,-4      |
|  | 27,732               | 26,777 |        | 955   | 상태동     | 423-9              |
|  | 13,820               | 13,500 | 320    |       | 상태동     | 423-7              |
|  | 13,820               | 13,500 | 320    |       | 상태동     | 423-13             |
|  | 13,458               | 13,458 | 공동사용   |       | 상태동     | 423-12             |
|  | 13,458               | 13,458 |        |       | 상태동     | 423-8              |
|  | 13,851               | 12,400 |        | 1451  | 상태동     | 427-2              |
|  | 20,521               | 18,620 | 1,901  |       | 상태동     | 산 152-23           |
|  | 24,298               | 20,756 |        | 3542  | 상태동     | 산 152-18           |
|  | 22,413               | 19,502 | 2,911  |       | 상태동     | 산 152-19           |
|  | 20,727               | 17,826 |        | 2901  | 상태동     | 산 152-20           |
|  | 20,430               | 17,519 | 2,911  |       | 상태동     | 산 152-25           |
|  | 30,988               | 25,638 | 2,150  | 3200  | 상태동     | 산 150-2            |
|  | 23,306               | 20,398 |        | 2908  | 상태동     | 산 150-5            |
|  | 21,917               | 19,036 |        | 2881  | 상태동     | 산 150-6            |
|  | 19,835               | 17,154 |        | 2681  | 상태동     | 산 150-7            |
|  | 28,860               | 25,594 |        | 3266  | 상태동     | 산 150-13           |
|  | 88,860               | 62,777 | 24,430 | 1653  | 상태동     | 산 149-24           |
|  | 20,529               | 20,529 |        |       | 상태동     | 산 149-11           |
|  | 16,184               | 14,210 |        | 1974  | 상태동     | 산 149-69, -88, -89 |

|  | 면 적(m <sup>2</sup> ) |        |        |      | 염 전 위 치 |                                                       |
|--|----------------------|--------|--------|------|---------|-------------------------------------------------------|
|  | 총면적                  | 염전면적   | 저수지    | 기타   | 리       | 지번                                                    |
|  | 20,014               | 16,031 |        | 3983 | 상태동     | 산 149-62                                              |
|  | 9,471                | 8,370  | 1,101  |      | 상태동     | 417-8                                                 |
|  | 26,612               | 20,886 | 5,726  |      | 상태동     | 417-9,10                                              |
|  | 14,093               | 12,605 | 1,488  |      | 상태동     | 417-22                                                |
|  | 29,809               | 24,850 | 4,959  |      | 상태동     | 417-17                                                |
|  | 25,365               | 19,983 | 5,382  |      | 상태동     | 417-18                                                |
|  | 21,818               | 19,835 | 1,983  |      | 상태동     | 417-21,20                                             |
|  | 27,322               | 22,393 | 4,929  |      | 상태동     | 417-14                                                |
|  | 27,643               | 20,860 | 6,783  |      | 상태동     | 417-13                                                |
|  | 8,093                | 8,093  |        |      | 상태동     | 417-7                                                 |
|  | 29,831               | 15,765 | 7,355  | 6711 | 상태동     | 산 149-65                                              |
|  | 11,355               | 11,355 |        |      | 상태동     | 149-23                                                |
|  | 11,355               | 11,355 |        |      | 상태동     | 산 149-23                                              |
|  | 22,711               | 17,490 | 1,848  | 3373 | 상태동     | 산 149-17                                              |
|  | 17,554               | 13,460 | 4,094  |      | 상태동     | 149-18                                                |
|  | 17,554               | 14,442 | 3,112  |      | 상태동     | 산 149-19                                              |
|  | 18,545               | 15,997 | 2,548  |      | 상태동     | 산 149-20                                              |
|  | 22,128               | 21,195 | 910    | 23   | 상태동     | 481,496-1,520-2                                       |
|  | 20,328               | 13,200 | 5,100  | 2028 | 상태동     | 471,437,439,450,453,464,<br>465,470-2, 474-1,474-2    |
|  | 13,570               | 13,570 |        |      | 상태동     | 460-1,-2,463-1,-2                                     |
|  | 21,641               | 13,944 | 6,864  | 833  | 상태동     | 427-1,432-1,435-1,435-<br>2,438,445-1,448-1,448-2,451 |
|  | 24,595               | 23,765 | 830    |      | 상태동     | 산 149-12                                              |
|  | 21,421               | 17,552 | 1,869  | 2000 | 상태동     | 산 149-29                                              |
|  | 21,521               | 21,000 | 521    |      | 상태동     | 산 149-13                                              |
|  | 24,717               | 24,381 |        | 336  | 상태동     | 150-25                                                |
|  | 22,667               | 22,000 | 667    |      | 상태동     | 150-6                                                 |
|  | 17,798               | 17,798 |        |      | 상태동     | 150-31                                                |
|  | 8,899                | 8,899  |        |      | 상태동     | 150-31                                                |
|  | 87,584               | 40,591 | 46,993 |      | 상태동     | 산 151-12, -13                                         |
|  | 37,984               | 36,000 | 1,984  |      | 상태동     | 산 151-3, 4                                            |
|  | 64,733               | 59,299 | 5,434  |      | 상태동     | 산 152-34                                              |
|  | 32,123               | 26,689 | 5,434  |      | 상태동     | 산 152-30                                              |
|  | 27,174               | 21,740 | 5,434  |      | 상태동     | 산 152-32                                              |
|  | 31,346               | 25,912 | 5,434  |      | 상태동     | 산 152-31                                              |
|  | 25,137               | 25,137 |        |      | 상태동     | 산 152-33                                              |
|  | 38,777               | 37,000 | 1,777  |      | 상태동     | 산 151-9                                               |
|  | 20,231               | 19,000 | 1,231  |      | 상태동     | 산 151-5                                               |
|  | 20,271               | 19,000 | 1,271  |      | 상태동     | 산 151-2                                               |
|  | 21,421               | 20,000 | 1,421  |      | 상태동     | 산 151-14                                              |
|  | 22,612               | 21,500 | 1,112  |      | 상태동     | 산 151-15                                              |
|  | 32,820               | 32,000 | 820    |      | 상태동     | 산 151-8                                               |
|  | 19,338               | 18,500 | 838    |      | 상태동     | 산 151-6                                               |
|  | 31,736               | 30,000 | 1,736  |      | 상태동     | 산 152-2                                               |
|  | 97,339               | 82,909 | 14,430 |      | 상태동     | 152-9                                                 |

|    | 면 적(m <sup>2</sup> ) |           |         |        | 염 전 위 치 |           |
|----|----------------------|-----------|---------|--------|---------|-----------|
|    | 총면적                  | 염전면적      | 저수지     | 기타     | 리       | 지번        |
|    | 34,463               | 20,033    | 14,430  |        | 상태동     | 산 152-9   |
|    | 22,016               | 22,016    |         |        | 상태동     | 산 152-10  |
|    | 21,620               | 21,620    |         |        | 상태동     | 산 152-10  |
|    | 19,240               | 19,240    |         |        | 상태동     | 산 152-11  |
|    | 15,729               | 11,107    | 1,468   | 3,154  | 상태동     | 산 149-59  |
|    | 31,217               | 28,446    |         | 2,771  | 상태동     | 16-3,4,19 |
| 합계 | 2,648,631            | 2,204,977 | 349,752 | 93,902 |         |           |

## 9. 활용 방안

비금도는 시금치와 소금, 도초는 농산물과 소금, 압해도는 과수와 소금 등으로 각 섬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면 신의면의 경우 여러 수산물 및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소금이 절대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수입원이다. 수산물 중에서는 김과 전복, 농산물은 양파와 고추, 콩이 주민 소득원이 되고 있으나 소금에 비하며 특화정도가 미비하다. 따라서 신의면의 경우 소금이 매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 및 염전을 이용한 지역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천일염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전남 서남해안에서 생산된 무기질이 풍부하고 맛이 우수한 고품질 자원이다.

최근 정부와 해당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투자와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최근 대기업 및 지방공사 등의 천일염 산업에의 진입으로 인하여 산지집하장 및 가공공장 등이 설립되어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소금의 생산 및 가공으로는 신의면 전체의 경제적 파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지역소득원개발과 염전의 보호 차원에서 염전어메니티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야 하며, 염전의 관광자원의 가능성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전통발효식품과 관련된 문화적 가치, 염전어메니티, 생태적 가치 등을 들 수 있다.

염전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방법으로는 생태 및 문화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염전인 인천 시흥의 소래염전은 모두 폐전되었지만 해당 지자체에 의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체험학습장을 복원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지

역은 영광 백수, 신안증도 등 여러 지역에서 염전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금 거두기’ 체험에 그칠 뿐 생태학습 및 문화적 접근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염전관광은 관광객에게 염전과 천일염의 가치를 재인식케 하고 생산자에게는 자긍심을 높여 더 좋은 소금을 생산하도록 유도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염전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천일염전은 생산 이외에 생태학습, 관광, 조류관찰, 섬 체험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성을 이용한 관광 상품 및 체험문화를 개발 하여야 한다.

### 1) 생태 및 문화탐방 코스개발

- 염전은 체험학습장으로 갯벌 특성이 잘 보존되어 있고 갯벌생물과 도요새 등 철새들을 관찰 할 수 있어,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문화 생태 학습 체험공간으로 이용가능하며, 성 탐방 등 문화유산과 연계한 상품개발. 특히 겨울철 조용하고 한적한 염전에 머물며 철새관찰 및 감성체험프로그램 결합한 상품개발

### 2) 염전체험과 걷기 운동 코스개발

- 소금 거두기 등의 생산관련 체험과 문필봉을 중심으로 한 웰빙 산책로와 사자바위, 문턱바위 등의 경관자원과 연계

### 3) 도서체험 코스개발

- 민박을 하면서 갯벌을 체험하고 다음날은 염전체험 및 바다에서의 고기잡이 등의 체험을 마친 후 명예신의면민을 부여함으로써 도서에 대한 애착심과 재방문 기회를 갖도록 동기부여

### 4) 천일염 활용한 상품개발 및 판매장 운영

- 천일염, 천연재료를 첨가한 소금, 간수, 인근해역에서 어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 등을 판매장에서 직접판매 혹은 주문판매

- 천일염을 이용한 아이스크림, 두부, 초콜릿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며, 특히 순두부를 직접 만들어 시식하는 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과 간단한 식사코너운영

## 5) 염전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 소금집, 민박, 미네랄하우스 등과 결합한 체류공간, 소금장인의 결합한 장인체험 등을 프로그램화
- 소금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일주일, 주말 코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1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⑩

# 신의면

—

## IX

# 관광자원화 방안

강봉룡

도서문화연구원장, 사학과교수

이윤선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1. 신의면의 특징 302
2. 신의도의 문화권 구분 303
3. '백제 섬문화' 탐방로 및 전시관(북부-상태지구) 304
4. 소금문화공원(중부) 305
5. 어촌체험과 해안절경 306
6. 부속섬의 생태·문화 활용방안 307
7. 기타 제안 사항 308





# Ⅸ 관광자원화 방안

## 1. 신의면의 특징

### 1) 이름

- 1983년 하의면에서 상·하태도 등이 분면하면서 '새로운 하의면(荷衣面)'이라는 의미로 '신의면(新衣面)'이라 칭함.
- 신의면 본섬은 상태도와 하태도가 연결되어 하나의 섬이 되었으므로 “신의도”라 통칭할 것을 제안함.

### 2) 지리

- 신안군 남부권(하의, 장산, 신의)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진도군 조도면과 인접해 있음.
- 유인도 4개 섬(신의도, 고사도, 평사도, 기도)을 포함 22개의 섬으로 이루어짐.

### 3) 상징

- 인물 및 사건 : 홍성담(세계적 민중미술가), 하의3도농민운동-“민중·민권의 섬”
- 역사 : 백제 해로의 중심 거점(백제고분과 안산성)-“백제 도서해양문화의 거점”
- 산물 : 소금(신안군 생산량의 30% 차지)-“소금의 섬”

### 3) 형상

- ‘꽃게다리’의 형상을 띠고 있음.
- 상태와 하태를 잇는 매립(염전)지역은 ‘꽃게다리’의 관절 부위에 해당함.
- 기동, 원항, 굴암 등의 마을로 둘러싸여 있는 아담한 만(灣)이 있는데, 이 만은 꽃게다리의 ‘집게’의 형상을 띠고 있어 “집게만”이라 칭할 것을 제안함.
- “집게만” 일대는 70-80년대 꽃게잡이로 유명했음.(꽃게파시)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도를 “꽃게다리섬”이라 부를 것을 제안함.



신의면 지도

## 2. 신의도의 문화권 구분

### 1) 북부(상태지구)

- 꽃게다리의 허벅지에 해당(“꽃게벅지”)
- 농업문화가 강함
- 백제 도서해양문화의 중심(상서고분군, 자실리고분군, 안산성 등)

### 2) 중부(중태지구)

- 꽃게다리의 무릎관절에 해당(“꽃게무릎”)
- 대규모 염전 간척을 통해 상태와 하태를 연결
- 소금문화 중심

### 3) 남부(하태)

- 꽃게다리의 집게부분에 해당 : “집게만”
- 집게만을 중심으로 어업문화 강함(기동, 원항, 굴암 마을 등)

#### 4) 부속섬(유인도)

- 북부의 부속섬 : 기도(대기도, 소기도)
- 동부의 부속섬 : 평사도와 고사도

### 3. “백제섬문화”, 탐방로 및 전시관(북부-상태지구)



상서고분군



안산성 성벽



탐방코스 지도

## 1) 백제유적

- 상서고분군 : 30여기의 백제고분(6세기 중후반의 횡혈식석실분)
- 자실리고분군 : 백제고분 등 40여기(석실분, 석곽분)
- 서리마을 : 백제시대 유물산포지
- 안산성 : 백제시대 성곽으로 추정됨(테피식 산성)

## 2) 백제섬문화 탐방로

- 주제 : 백제 도서해양문화의 거점섬
- 탐방코스 : 당두선착장-상서고분군-(백제섬문화 전시관)-안산성(휴식공간)-서리마을(마을탐방)-자실리고분군

## 3) 백제섬문화 전시관(제1휴식공간) 건립

- 위치 : 상리고분과 안산성 사이의 공터
- 내용 : 신안군의 고분 및 고성곽 등의 유적과 출토유물 등을 집결하여 신안 고대역사 정보센터 역할 수행.
- 비교 사례 : 장산 들노래전시관, 안좌 김환기미술관, 압해도 세계섬박물관 등

## 4) 안산성 휴식공간(제2 휴식공간) 조성

- 안산성 정비(특히 붕괴 위험 구간)
- 안산성 바깥둘레에 고성탐방로 조성
- 안산성 내부의 노거수 소나무와 굴참나무 군락을 활용한 식생(植生) 교육장 조성.



안산성 붕괴 위험지점

## 4. 소금문화공원(중부-중태지구)

### 1) 우리나라 소금생산의 중심 '중태염전'



- 신안군은 우리나라 천일염의 60% 이상 생산
- 신의면은 신안군 천일염의 약 30% 생산(신의, 비금, 지도, 도초, 증도, 하의의 순)
- 중부 중태지구는 대규모 염전 간척을 통해 상태도와 하태도를 연결하면서 형성(‘중태염전’)

## 2) 타리도 소금문화공원 조성

- 타리도는 ‘중태염전’의 중심
- 타리도에 전망대와 기타 부속시설
- 콘텐츠 : 염전간척의 역사와 설화, 염생식물, 간척 이전의 지형과 노들길, 나루터 등 소개
- 타리도 인근에 염전체험장 조성
- 증도의 소금박물관과 중복성 피하면서 연계성 극대화 방안 구상



타리도 중심의 중태염전지구 지도

## 3) 신안소금 명품화 전략 – 부록의 글 참조

- 갯벌, 갯벌섬, 갯벌소금, 갯벌바다=탁한 바다=비옥한 바다(沃海)
- “탁한 문화=깊은 문화”의 이미지 홍보 : 탁한 소리=남도소리, 탁한 음식=발효음식(홍어, 젓갈, 소금)
- 염전 및 주변 생태환경 개선 : 염전 주변에 완충지 설치(농경지와의 분리를 통해 농약 등 오염요소 유입 사전 차단)
- 염생식물 재배 병행

## 5. 어촌체험과 해안절경(남부-하태지구)

### 1) “집게만” 요트마리너 구상

- 꽃게의 집게 형상을 닮은 만으로, 70-80년대 꽃게잡이 전성을 이룸
- 한때 ‘요트의 중간 계류지’로 구상된 적이 있음.
- 진도 팽목항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마리너항 연계방



집게만 지도



남근바위



여근바위



노랑어리연꽃



노랑어리연꽃 군락지

- 안 구상 필요.(남해안 선벨트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가 2012년 1월 개발 승인)
- '집게만' 가운데에 虎음도(어실도 혹은 과부도)가 있고, '집게만' 입구 양편에 龍바위 및 獅子바위가 있어, 虎·龍·獅子와 관련한 스토리텔링을 구상할 수 있음.(하의도의 범바위, 사자바위와 관련)

## 2) 어촌체험장 운영

- 집게만의 중심어촌 : 굴암
- 굴암꽃게파시의 역사
- 굴암어장 : 숭어, 농어, 돔, 광어, 서대 등
- 문화복원 : 굴암마을 당제 복원(1980년대 중단), 기동마을 농악 복원
- 원목 : 개맥이 프로그램의 활성화(KBS 1박2일 촬영지)

## 3) 해안절경 생태탐방로

- 해안절경 생태등산탐방로 : 전망대, 남근바위, 여근바위 등(스토리텔링의 소재로 활용)
- 황성금리 해수욕장 : 진도군 조도면의 다도해 절경과 연계
- 노랑어리연꽃 군락지 보존 및 조성(하테서리 큰민말기미)

# 6. 부속섬의 생태·문화 활용방안

## 1) 기도

- 하의면 옥도갯벌의 연장선 상에 있음



기도의 독살



기도의 당바위



기도의 당산목

- 하의-신의-장산의 연결고리에 위치함
- 독살문화, 당바위, 당산목문화 등 보존 및 활용

## 2) 평사도리

- 신의-장산-진도의 연결고리
- 고평사도 해수욕장 등



평사도리 해수욕장

# 7. 기타 제안 사항

## 1) 신의면 관광코스 및 관광센터

- 당두선착장(쾌속선)-백제문화 탐방로(상태)-타리도 소금문화공원(중태)-해안절경 생태탐방로(하태)
- 관광 코스 정비, 가이드 양성 및 가이드북 편찬
- “백제섬문화전시관”을 상서고분군과 안산성 사이의 공터에 건설하여 신의면 관광센터로 활용

## 2) 유적 조사 및 문화재 지정

- 신안군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상서고분군과 안산성을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격상할 필요.
- 이를 위해 상서고분군, 안산성, 자실리고분군에 대한 시굴 및 발굴 조사 필요.

- 특히 안산성은 조선시대 돈대로 추정되고 있지만, 상서고분군과 연계하여 고대산성일 가능성도 있으며,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한 조사 및 정비가 요청됨.
- 절도사허계청덕선정비 전남문화재 지정 신청.

### 3) 홍성담의 활용방안

- 세계적 민중예술가
- 하의3도 농민항쟁의 민중운동과 연계
- DJ의 민권, 평화운동과 연계
- 하의3도(하의, 신의)를 민중, 민권, 평화의 섬으로 이미지메이킹

### 4) 산업과 음식문화

- 소금산업 중심지로 조성
- 상태도 동북연안 : 해태 양식
- 신의도와 하의도 사이의 해협 : 전복 양식
- 고사도리 : 툇 양식
- 갈파래국 등 : 음식과 설화



절도사허계선정비



## [부록] : ‘옥해(沃海)’의 갯벌소금 명품화 프로젝트- ‘탁함의 미학’ -

강봉룡\*

### 갯벌바다, 탁한 바다, ‘옥해(沃海)’

갯벌은 그 색깔이 거무튀튀하여 언뜻 더러운 것처럼 보이는 까닭에 사람들은 선뜻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근래에 사정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인체에 유익한 다양한 미네랄과 정화 및 생성능력을 갖춘 미생물들이 갯벌에 다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갯벌이 더러운 곳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거기에서 우리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이라는 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서인지 근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갯벌에 들어가 체험도 하고 그 개흙으로 마사지를 즐기기도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느끼기 마련인 것은 갯벌도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서남해의 바닷물은 투명하지 못하고 탁하여 흔히 더러운 물로 간주되곤 한다. 그렇지만 그 탁한 물은 갯벌의 미네랄과 미생물들이 녹아들어 나타난 현상이므로, 갯벌바다의 탁함은 더러움이라기보다는 비옥함인 셈이다. 그리하여 전국 갯벌의 40%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전남 서남해 연안과 도서지역의 바닷물은 특히 비옥한 바다를 이룬다. 비옥한 땅을 ‘옥토’라 부르듯, 남도의 탁한 갯벌바다는 ‘옥해(沃海)’라 불러 마땅하다.

### 탁한 문화, 깊이있는 문화, ‘탁함의 미학’

인간은 자연을 닮는다고 했던가! 그 탁한 갯벌바다와 함께 살아온 남도인들은 유독 탁한 소리를 즐긴다. 탁한 소리는 남도말로 ‘그늘’이 있는 소리라 불리듯이 무언가 부정적인 것 같지만, 마침내는 긍정으로 승화시켜내는 극적 반전이 숨어있다. 남도의 소리꾼들은 최고의 그늘이 있는 탁한 소리를 빚기 위해 목청을 찢고 피를 토하는 고통을 감내한다.

그렇고 보니 그들이 좋아하는 술도 탁한 술, 탁주다. 그 탁주와 함께 ‘홍탁’이라는 감칠맛 나는 남도의 음식궁합을 만들어내는 흑산도 홍어도 탁하기는 마찬가지다. 잘 삭힌 홍어의 톡 쏘는 맛이야말로 바로 홍어의 탁한 맛이다. 그런 맛을 남도말로 ‘개미’가 있는 맛

---

\*도서문화연구원장, 사학과 교수

이라 이른다. 남도인들은 ‘개미’가 있는 홍어의 감칠맛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삭힘의 기술을 개발해온 것이다.

‘그늘’이 있는 탁한 소리가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며, ‘개미’가 있는 홍어의 탁한 맛이 부패가 아니라 삭힘이요 숙성이요 발효이듯이, 갯벌과 갯벌바다의 탁함 역시 더러움이 아니라 비옥함인 것이다. 내재하는 강한 긍정의 힘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정의 요소를 반전시켜 독특한 역설의 미학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탁함의 미학’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 소금의 역설, ‘갯벌소금’

비옥한 갯벌바다, ‘옥해’의 바닷물에서 빚어내는 소금은 ‘탁함의 미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먼 옛날 ‘화염’이라 불리는 소금은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탄생했다. 개흙과 섞어서 염도를 높인 바닷물(염수)을 장시간 끓여야만 겨우 소량의 소금을 얻어낼 수 있었다. 갯벌의 탁함을 탁한 바닷물에 더욱 가중시켜 뽀얀 소금으로 걸러내는 그 과정이야말로 역설이고 정성이고 신비로움이 아닐 수 없다. 그 결정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으면 하얀 금, 소금(素金)이라 불렀겠는가?

근대에 들어 천일제염법을 도입하여 그 귀한 것을 처음 ‘천일염’이라는 이름으로 대량생산하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은 대단했었다. 그렇지만 소금은 이윽고 생산과 공급 과잉의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점차 천덕꾸러기로 밀려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1997년 소금수입자유화 조치가 이를 더욱 촉진시켰다. 국가의 정책은 소금생산을 지원하기는커녕 폐염전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갯벌바다에서 생산하는 갯벌소금의 우수성에 눈을 뜨게 되면서, 소금은 다시 한번 반전의 기회를 잡고 있다. 그간 광물로 분류되던 천일염을 식품으로 인정하는 염관리법 개정안이 2007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3월부터 발효된 것이 그 반전을 가속시켰다. 뿐만 아니라 올해 10월 28일에는 염관리법을 ‘소금산업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개정하여 천일염의 생산과 가공을 산업화할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 갯벌소금을 명품소금으로 재탄생시키는 고도산업화 단계로 도약시킬 준비를 해야 할 때다.

명품소금하면 흔히 프랑스의 게랑드소금을 떠올린다. 게랑드소금은 그 가격이 우리 일반 소금의 수십 배에 달할 정도로 명품 중의 명품이다. 우리 갯벌소금에서 게랑드소금을 넘어설 수 있는 명품 브랜드의 매력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을까? 꿈같은 이야기 같지만 불

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갯벌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알리는 작업부터 해야겠다. 갯벌바다의 탁함이 더러움이 아니라 비옥함이라는 것, 그래서 ‘옥해’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역시 널리 알려야겠다. 갯벌과 갯벌바다와 호흡을 같이 해온 남도인들의 탁한 소리의 ‘그늘’과 탁한 맛의 ‘개미’가 내포하는 탁한 문화의 진가도 갯벌소금 명품화의 노정에 함께 동참시킬 필요가 있다.

### 소금의 문화화, ‘명품소금’

이와 관련하여 태안해역에서 출수(出水)된 해저유물에도 주의를 돌려보자. 고려시대 조운선 3척과 탑재 화물들이 출수되었다. 화물들의 종류와 발신지 등을 기재한 목간이 함께 발견된 것은 특히 획기적이다. 그 많은 화물의 품목 중에서 특히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도자기와 함께 젓갈류, 장류, 된장 등의 식품류이다. 화물의 발신지는 회진현(나주), 죽산현(해남), 수령현(장흥), 탐진현(강진) 등의 서남해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서남해지역의 음식이 수도 개경에까지 수송될 정도로 저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그 식품들이 모두 서남해의 갯벌소금으로 담가서 발효시킨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때, 오늘날까지도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남도 음식과 함께 해온 갯벌소금의 역사적 연원이 녹록치 않음도 알 수 있다.

세계적 다도해의 경관을 뿔내며 세계 5대 갯벌의 위상으로 무장한 서남해의 거무튀튀한 탁한 갯벌, 갯벌의 자양분이 녹아든 탁한 갯벌바다의 자연, 그리고 그 풍해(風海) 속에서 살아온 남도인들의 탁한 소리와 탁한 맛의 문화. 이 탁함의 자연과 문화가 ‘탁함의 미학’으로 버물려져서 탁한 갯벌바닷물을 뽀얀 결정체로 반전시켜 재탄생한 것이 바로 서남해의 갯벌소금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고려시대까지 올라가는 장구한 역사적 연원까지 갖추었으니, 갯벌소금의 명품화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는 예감과 함께, ‘옥해’의 탁한 갯벌바다에서 자라는 모든 해산물들이 갯벌소금과 같은 명품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봄직 하지 않은가!

이제 투명한 바다의 대명사인 지중해 사람들이 탁한 바다를 방문하여 ‘탁함의 미학’에 매료되도록 하는 반전의 역설을 만들어야겠다. 그들이 탁한 명품소금과 명품음식의 ‘개미’ 있는 맛에 반하고, 탁한 소리의 ‘그늘’에 흠뻑 빠지도록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한 투명한 바다의 환상을 버리고 탁한 바다의 미학을 재발견하고 포장하여 그 가치를 알리는 일에 매진함이 중요하다.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1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⑩

# 신의면편

---

2012년 4월 발행

발행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신안군  
인쇄 (주)사람과사람들

전남 목포시 용해동 114-38

TEL. 061-274-3372

출판신고 제480-2012-000002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1666

TEL. 061-450-2952

FAX. 061-453-2958

<http://islands.mokpo.ac.kr>

신안군청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TEL. 061-271-1004

FAX. 061-240-8000

<http://shinan.go.kr>

ISBN 978-89-968812-1-6





# 신의면



## 선사유적

- ① 상태서리 서리 유물산포지
- ② 상태서리 자실리 고분군
- ③ 상서고분군
- ④ 안산성지
- ⑤ 하태서리 황성금리 유물산포지
- ⑥ 하태서리 모래금리 유물산포지
- ⑦ 고평사리 평사유물산포지

## 역사유적

- ① 상태서리 소장동비군
- ② 신복산 흥완태 공적기념비
- ③ 박복규 칠선영덕불망비
- ④ 신승환 기념 공적비
- ⑤ 신동술 공적비
- ⑥ 상태동리 박경흠 영세불망비
- ⑦ 절도사 허계 청덕 선정비
- ⑧ 고사도 천안전씨 열녀각
- ⑨ 하태동리 윤병은 자선비
- ⑩ 하태동리 상원김씨 정려각비
- ⑪ 하태서리 윤영현 영세불망비

## 생태경관

- ① 황성금리 해수욕장
- ② 굴암마을 굴솔, 노랑머리 연꽃군락지
- ③ 과부도
- ④ 굴암바위